

이주의 인문학 총서시리즈 5

이주의 시대 : 문화, 감정, 지식의 이동

The Age of Migration: Culture, Emotion, and Knowledge on the Move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이주의 인문학 총서시리즈 5

## 이주의 시대 : 문화, 감정, 지식의 이동

### 차 례

책머리에	8
1부 이주의 철학과 윤리	
I 이주, 그리고 이동의 철학_ 토마스 네일	18
서    론	18
제1테제: 이주자와 경계는 사회적 구성력을 갖는다	20
제2테제: 오늘날 이주자 위치의 증가는 경계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28
경계의 제거	34
II 이주, 그리고 문화의 윤리_ 라제쉬 차드라 슈클라	36
들어가며	36
자유주의와 문화적 인정	39
문화적 인정과 이주	44
이주와 문화의 윤리	49
결    론	55

III 이주와 지식, 감정, 물질의 이동_ 김지운	58
모빌리티 턴의 가능성	58
다양한 모빌리티의 주요 의제들	63
이주의 모빌리티를 둘러싼 윤리적 질문	75
이동과 정주 사이의 모빌리티 담론에 대하여	78

## 2부\_ 문학을 통한 전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탐구

IV 네그리튀드의 미그리튀드 후예들:	
사일자 파텔의 『미그리튀드』와 나디파 모하메드의 『모래바람을 걷는 소년』_ 펠라 베나베드	86
탈식민주의 텍스트 분석	87
노마디즘에서 미그리튀드로	89
사일자 파텔의 『미그리튀드』에 나타난 이주의 직물사	91
나디파 모하메드의 『모래바람을 걷는 소년』에서의 국경의 방랑자	94
결 론	98
V 이주, 그리고 정치적 행위로서의 문학 번역과 수용_ 크리스티나 비에슈척	100
이주 연구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폴란드 디아스포라	102
정치적 행위로서 서구에 머물기: 이주의 정치적 의의	105
이주자 문화 활동의 정치적 의의	110
문학 번역과 보급의 정치적 의의	114
결 론	120

VI 권총을 찬 피난자, 남근을 가진 노병: 1949년 즈음 대만의 귀신_ 성 메이 마	124
노병과 그 제작자	130
소아성애자로서의 노병	141
도착증자로서의 노병	146
귀신으로서의 노병	151

## 3부\_ 다양한 문화자본의 모빌리티

VII 필리핀의 텡 빈 이탈리아식 빌라가 집일 때: 재이탈리아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소비 기호학, 1980년대~2018년_ 미나 로세스	160
연구방법	164
이탈리아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167
시골 여자에서 패셔니스타로	170
집으로서의 이탈리아식 빌라: 이동하는 가정성?	177
결론	186
VIII 음식 문화의 이주와 전유_ 권은혜	192
“에스닉” 음식: 용법과 전유	193
정통성 <sup>authenticity</sup> 의 뒷에 걸린 에스닉 음식	199

IX 손병희의 근대화 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확산_ 조규태	204
머리말	204
일본 외유와 문명론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의 수용	206
천도교의 창시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형성	214
근대적 국민과 자유민주적 신인간의 양성	217
맺음말	221
참고문헌 및 주	225

## 책머리에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은 201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과 학연구소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주의 인문학(Humanities of Migration)’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은 이주에 관한 정주 중심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이동성 중심의 새로운 인문학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1단계 연구에서 사업단은 ‘이주와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주제 아래, 중심주의와 탈경계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주자들의 일상에서의 문화적 상상력과 실천, 이주를 통한 지적 상상력의 확장과 수용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다섯 번째 총서는 이러한 1단계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들을 모아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 5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사업단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식〉에서 발표되었던 주요 연구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11인의 학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말레이시아, 미국, 알제리,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 등 8개 국가에서 각각 철학, 문학,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미디어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인간의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과 정동, 이들의 문화적 실천, 그리고 이주민들의 신체 혹은 문화에 내재된 지식의 이동이 이주민과 이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고찰되었다. 이후 관련 연구자들로부터 발표 자료에 대한

다수의 요청이 있었기에 이번 총서를 통해 더 많은 연구자들과 주요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총서는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의 1단계 연구를 총괄하는 계기도 되는 만큼 국제학술대회 이후 발표된 국내 연구자들의 관련 논문 세편도 추가하여 함께 출간하게 되었다.

총서의 전체 주제는 〈이주의 시대: 문화, 감정, 지식의 이동〉이며 3부로 구성하였다. 1부 '이주의 철학과 윤리'에서는 각각 철학, 정치학, 사회학의 관점에서 이주 중심의 패러다임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윤리적, 문화적 논의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2부 '문학을 통한 전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탐구'는 시기와 장소는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문학 작품에 드러난 혹은 문학 작품을 이동시킨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경로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한다. 3부 '다양한 문화자본의 모빌리티'는 소비 상품과 음식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 이주민의 문화자본으로서 어떻게 그 자체의 모빌리티를 실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부의 첫 글은 토마스 네일의 글로 시작한다. 토마스 네일은 본 사업단이 강조해 온 이동 중심의 패러다임을 자신만의 철학적 이론으로 발전시켜 온 신진 철학자이다. 기조 강연으로 초청되어 발표한 「이주, 그리고 이동의 철학」은 이동의 철학을 이주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발전시켰다. 이주민을 가로 막는 영토적 혹은 인식론적 경계에 주목하면서 이 경계들이 견고한 물적 토대에 기반한 고정적인 존재로서 이주민을 축출하거나 제거하는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사회적으로 구성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경계의 재구성을 통해 이주자의 위치 역시 유동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라제시 C. 슈클라는 「이주와 문화의 윤리학」에서 캐나다 퀘벡의 사례를 통해 다문화주의 연구자들의 논의가 보여주는 윤리적 판단과 현실적 조건의 모순에 대해 분석한다. 이주민과 소수자 시민의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 및 집단 권리를 자유주의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하는지에 대해 슈클라는 문화적 정체성이 이민자의 사회적, 정치적인 삶에서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와 불완전성도 간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른 시기에 다문화주의가 논의되고 정책적으로 적극 도입되었던 캐나다의 사례는 다문화주의의 이상적 원칙의 현실 적용에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에도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윤의 「모빌리티 턴과 이주의 윤리학」은 최근 등장하고 있는 모빌리티 패러다임과의 관계 속에서 이주의 모빌리티를 성찰하고 있다. 현대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주를 인간의 정상적이며 지배적인 상태로 보던 패러다임이 사람은 물론 사물, 사상, 문화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동 중이며 이러한 이동성의 시각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모빌리티 턴이 2000년대 이후 주목받고 있다. 모빌리티 턴이 자신의 학문적 영역으로 정의하고 분류하고 있는 다양한 이동의 형태들인 도시에서의 걷기, 사물 및 지식의 이동, 관광 혹은 여행, 그리고 이주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주의 모빌리티는 좀 더 장기적이고 반복적이며 생존의 문제들을 드러냄으로써 윤리적, 정치적 판단을 미룰 수 없는 이동의 복합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정주에 대한 성찰을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부는 문학 작품을 통해 이주를 바라보는 연구들로 구성하였다. 펠라 베나베드의 「네그리튀드의 미그리튀드」는 분석대상이 된 소설이나 복잡한 인종적 정체성들을 드러내는 용어들 모두 국내 연구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인종적 차별은 아프리카인들의 복잡한 이주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1930-40년대를 관통하는 두 소설 사일라 파렐의 『미그리튀드』와 나디파 모하메드의 『모래바람을 걷는 소년』은 아프리카 이주민의 서사를 여성주의적·반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문학 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에 관한 문학적 상상이 이주 수용국에서 화해와 치유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를 확립할 가능성이 있을지 탐문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비에슈체의 「이주, 그리고 정치적 행위로서의 문학 번역과 수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영향 아래 놓인 폴란드에서 서유럽으로 이주했던 폴란드 지식인들의 망명 생활을 배경으로 한 문학 활동의 의미를 검토한다. 이들 망명 지식인들은 해외에서 폴란드의 민족 문화를 보전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외국 작품을 폴란드어로 번역해 공산화된 폴란드에 확산시키는 사상의 이동을 추구하였다. 이 시기 문학 작품의 창작과 번역은 폴란드 독립 추구의 중요한 방편이 되었다. 또한 세계로 흩어진 폴란드 이주자들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폴란드 국내 정치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성메이 마의 「권총을 찬 피난자, 남군을 가진 노병: 1949년 즈음의 대만의 귀신」은 1949년 중국 공산화 직후 대만으로 이주한 국민당 군인과 가족을 바라보는 대만인의 시선을 당대 문학작품과 역사적 기록을 통해 분석했다. 일본의 점령에서 해방된 대만 내성인의 입장에서 국민당 군인들은 또 다른 점령 세력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난민이었다. 전후 대만에서 국민당 군인이 차지하는 이러한 이중적

지위를 마는 “권총을 든 난민”이라는 압축적 표현으로 잘 포착하였다. 현 시점에서 같은 국민으로 호명되는 대만인들 내부에 깊숙이 자리한 내성인과 외성인의 구분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이주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부에서는 이주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음식, 그리고 정치적 사상의 이동성과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들을 만날 수 있다. 미나 로세스의 「필리핀의 텅 빈 이탈리아식 빌라가 집일 때: 재이탈리아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소비 기호화, 1980년대~2018년」은 이탈리아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이 고향 마을에 이탈리아식 빌라를 짓고 고국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비싼 선물과 성대한 파티를 개최하는 등 과시적 소비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탈리아에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탈리아인 고용주의 소비행동을 학습하고 모방함으로써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나름 자신의 문화자본을 축적하게 된다. 이들의 과시적 소비는 이탈리아에서의 자신의 ‘낮은’ 지위는 물론 노동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적어도 필리핀 고향 마을에서는 지워버리고 학습된 중간계급의 면모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권은혜는 「음식 문화의 이주와 전유」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화의 한 현상으로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음식 문화와 및 식생활이 주요 이민자 수용국인 영미권 국가에서 소위 에스닉 음식으로 소개되고 그 사회의 주류 음식 문화에 편입되어 소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음식의 문화적 전유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을 다룬다. 조규태의 「손병희의 근대화 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확산」은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였고, 갑진개혁운동 후 천도교를 창시하였던 천도교의 3세 교주 손병희의 근대화 운동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의 확산에 대한 글이다. 손병희는

동학농민운동 후인 1890년대 후반 평안도 등 서북 지역에 동학을 포교하면서 미국의 선교사 혹은 기독교인을 통해 서구의 사상과 지식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문화와 문명을 경험해보기 위해 1901년 조선을 떠나 일본에 머무는 동안에도 미국행은 좌절되었지만 그곳에서 문명론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수용하였다. 이는 이후 천도교 내에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수용되어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 서구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손병희의 이동과 결합하여 그를 통해 천도교 내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주는 이주자 뿐만 아니라 상품과 음식으로 대표되는 문화 그리고 사상과 지식의 이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은 이주와 이동의 패러다임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대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총서 발간을 지속하고 있다. 발간된 총서들이 대학의 이주 관련 수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의 주요 도서관에 기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에도 총서 발간 작업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국제학술대회에서 학술적인 전문 내용으로 구성된 발표를 동시통역하고 이후 발표 원고의 번역 작업을 진행해 준, 번역협동조합과 이후 원고의 감수 및 편집을 맡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의 연구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총서를 위해 귀한 글을 보내 주신 연구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6월  
이주의인문학사업단 단장

**황 혜 성**



# I

## 이주, 그리고 이동의 철학

토마스 네일 Thomas Nail

덴버대학교 University of Denver

### 1부

### 이주의 철학과 윤리



### 서론

우리는 경계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온갖 종류의 영토적·정치적·사법적·경제적 경계가 말 그대로 21세기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을 정의한다. 세계화가 찬양되고 국제적 이동성의 필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유형의 경계들이 존재한다. 수 마일의 새로운 철조망, 수 톤의 새로운 콘크리트 방호벽, 수많은 연안 구금소, 생체여권 데이터베이스, 학교와 공항에, 또 전 세계의 여러 도로를 따라 설치된 모든 종류의 검문소 등 지난 20년 동안, 특히 9/11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의 새로운 경계들이 출현했다.

오늘날의 사회적 이동성은 모든 곳에서 분열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집과 제도, 그리고 국가를 에워싸는 영토적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 이동성은 정치적으로 군사 분쟁과 국경 장벽, 그리고 출입항에 의해

축출된다. 또 사법적으로는 신분증(비자와 여권)과 구금소(와 감옥), 경계로 나뉘어진 시간대들의 전체 일정표에 의해 제한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동성이 경제적인 신축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오늘날 사회구조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는 시장·치안·경호·정보 경계의 급속한 부침에 따라 팽창하거나 수축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주자의 형상』과 『경계의 이론』의 핵심에 놓여 있는 상호 관련된 두 개의 테제를 제출하고자 한다. 하나는 경계와 이주자가 사회적 구성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하향식 권력 구조에 의해 산출되는 수동적 효과에 불과한 게 아니다. 이는 역사적이고도 개념적인 논점이다. 국가가 존재하기 전에는 애당초 이주자들이, 또 국가를 생산한 다양한 경계짓기의 과정들이 있었다. 국가 또는 여타의 사회구조체가 확립되고 나서야 그것들은 경계를 재생산하고 인구의 일부를 이주자들로 축출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계는 사회 자체의 재생산과 팽창에 요구되는 물질적이고 동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계와 이주자는 국가에 선행하고 이를 넘어선다. 이들이 없다면 영토도 민족도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심지어 팽창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이주자 잉여의 축출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 예컨대, 이주자들은 국가 내에 거주하면서 구성적인 사회적 노동을 국가에 제공하지만 영토적·정치적·사법적·경제적 경계를 따라 무수한 주변화를 겪는다. 이주자들은 시민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사회구조체를 수행하고 재생산하도록 만들어진다. 또 시민은 스스로를 자신의 기원이자 법의 토대로 천명함으로써 자신의 식민적 과거를 숨기려 애쓴다.

두 번째 테제는 오늘날 이주자의 위치가 급속도로 증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는 경계 역시 빠르게 증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계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이주자의 종류도 늘어나며 그 역도 마찬가지

이다. 둘은 동일한 사회적 이동성 체제의 일부로서 함께 사고되어야 한다. 사회적 이동성이 분할되는 방식이 많아질수록 사회체 내에 존재하는 이주의 차원 내지 양상 또한 많아질 것이다. 마치 법이 많을수록 이주자들도 많아지는 것과 같다. 그러한 점에서 이주자는 존재의 본질이나 유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위치성이다. 이주자는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변화하는 여러 동시적·경쟁적 경계들의 유동적 교차점이다. 이주자는 국제적 경계를 넘는 이들이 아니라 복수의(영토적·정치적·법적·경제적) 경계 체제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는 이들이다. 여기서 경계는 사람들을 한 국가 내부로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라는 광의의 의미를 갖는다.

두 개의 테제는 이상과 같다. 본 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각 부분은 하나의 테제를 옹호하는 한편 필자가 경계와 이주자에 대한 새로운 운동지향적인 정의, 또는 “동정치적” 정의라고 생각하는 바를 제시할 것이다.

## 제1테제

### “이주자와 경계는 사회적 구성력을 갖는다.”

이는 요컨대 사회 자체가 순환, 팽창, 축출의 지속적 운동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운동이 사회적 팽창과 수축을 수용하는 경계와 이주자의 이동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주자는 사회적으로 축출되거나 박탈되는 정치적 형상이다. 일정하게 이것은 그들의 이동성에서 비롯되는 결과이거나 그것의 원인이다. 우리 모두가 이주자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21세기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주자가 있었다. 오늘날 이주자의 수는 10억 명이 넘으며 10년마다 이주자와 난민의 세계적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국제 이주만 해도 향후 40년간 배로 늘어날 수 있다. 정치이론은 아직 이러한 현상을 진지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주자의 현상을 서구 정치의 파생물이 아닌 구성적 형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정치이론의 출발점을 바꿔야 한다. 선제하는 시민들의 집합에서 출발하는 대신 먼저 이주자의 흐름, 그리고 그들이 시민과 국가 속으로 순환되거나 침전되는 방식에서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 이주자들이 어떻게 국가 구조에 대한 대항권력과 대안을 구성하는지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19세기 이전 이주자들과 경계가 수행한 구성적 역할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한편 국민국가라는 자유주의적 물신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국민국가 자체가 그것이 무대에 등장하기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이주와 경계나누기 기술의 기원이 아닌 그 산물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정치적 포용의 이념을 단지 형식적인 법적·경제적 지위 등이 아닌 근본적으로 동적인 순환 과정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포용/배제 또는 내부자/외부자의 형식적 개념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환/재순환의 개념이다.

이러한 동정치적 명제 및 경계와 이주자가 수행하는 구성적 역할을 사고하는 한 가지 방식은 칼 마르크스의 본원적 축적론을 급진화하는 것이다.

## 1. 본원적 축적

마르크스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한 구절로부터 이 개념을 발전시킨다. 즉, “재고의 축적은 사물의 본성상 분업에 선행[한다.]”<sup>1)</sup> 달리 말해, 인간이 소유자와 노동자로 분할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분할을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미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역사의 우월한 자들은 당연히 권력과 재고를 축적한 다음 이의 행사를 통해 열등한 자들의 종속을 연속화한다. 스미스에게 이러한 과정은 그저 자연적 현상에 불과하다. 힘 있는 자들은 항상 이미 재고를 축적해 두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에게 이 인용문은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재고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폭력과 축출에 대한 정치경제학자들의 역사적 혼동을 완벽하게 상징하고 있다. 시민 중심적 국민국가가 정치적으로 그러하듯 정치경제학은 이러한 폭력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신화화하고 자연화 한다. 마르크스에게 본원적 축적 개념은 구체적인 역사를 갖는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한 전자본주의적 조건이다. 특히 마르크스는 이 과정을 인클로저와 식민주의, 또 16세기 부랑자 방지법 등을 통한 농민과 원주민의 토지로부터의 축출과 동일시한다. 마르크스의 명제는 자본주의가 사회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와 관습법 하의 법적 지위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이러한 축출이 없다면 사유재산의 확장, 따라서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본원적 축적이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진행된 일회성의 역사적 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그것이 자본주의 내에서 지속적인 논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자본주의는 팽창을 위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적 축출과 폭력의 비자본주의적 방법에 의존한다는 것이다.<sup>2)</sup>

필자가 제안하는 축출을 통한 팽창이라는 아이디어는 본원적 축적의 개념을 두 가지 방식으로 확장한다. 첫째, 기성의 사회이동 형태를 더욱 발전시키거나 진전(팽창)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축출)은 결코 자본주의적 사회이동 체제에 고유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초기 인류 사회에서도 동일한 사회적 과정을 볼 수 있다. 여기서도 토지 경작과 동물 사육의 발전(영토적 팽창)은 율타리치기라는 구체적 기술을 통해 인구의 일부를 축출했다(영토적 박탈). 이러한 과정은 자신의 영토를 농지로 바꾼 수렵-채취자뿐만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더 이상 남지 않게 된 잉여 농민들을 또한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적 축출은 두 가지 점에서 사회적 팽창의 조건이 된다. 사회적 축출은 일정한 내부적 한계(예를 들어, 주어진 영토의 수용 능력)에 도달했을 때 일부 인구의 제거를 허용하는 내적 조건인 동시에 다른 집단(수렵-채취자들)의 땅으로 팽창할 수 있을 때 이러한 한계 밖에 있는 일부 인구의 제거를 허용하는 외적 조건이다. 이 경우 영토적 팽창은 인구의 일부가 이주 유목민의 형태로 축출되고 주변의 산과 사막으로 밀려나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했다.

우리는 이후 고대 세계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작용했음을 보게 된다. 고대 세계의 지배적 정치형태였던 국가는 구체적인 경제 장벽의 기술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 장벽은 적들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중동과 지중해의 산에 살던 수많은 야만인들을 (정치적 박탈을 통해) 노예로 포획했다. 성장하는 정치 질서의 팽창을 위한 사회적 조건은 바로 전쟁, 식민주의, 대규모 집단노동과 더불어 야만인 인구를 축출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정치권력에 의해 장벽 안에 가두어지고 장벽 밖으로 몰아내져야 했다. 이러한 기술은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본원적 축적에 대한 선행 이론과 여기서 제시되는 보다 확장된 이론의 두 번째 차이는 마르크스가 주목하는 이러한 사전 축출 내지 사회적 박탈 과정이 단지 영토적이거나 사법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그 팽창 역시 단순히 경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경우 사람들을 토지에서 몰아내는 것을 포함하더라도 축출은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도시에 장벽을 두르고 인클로저와 감금의 격리 기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불법화하며 신원확인과 검문 기법에 의해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축출은 정치적 주체가 사회 질서 내의 모종의 지위를 일정하게 빼앗기거나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는 몇 가지 주요한 방식으로, 즉 영토적 축적, 정치권력, 사법 질서, 경제적 이윤 등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팽창한다. 본원적 축적론과 축출을 통한 팽창의 동적 이론이 유사한 점은 대부분의 사회적 동적 권력의 팽창 역시 동적인 사회적 축출이라는 사전적인, 또는 본원적인 폭력을 요한다는 것이다. 경제는 이러한 축출을 실행하는 기술이자 사회체제이다. 본원적 축적의 개념은 이전 사회의 출현과 재생산에서 작용한 보다 일반적인 동정치학 논리의 한 역사적 사례에 불과하다.

마르크스조차 『자본』에서 이러한 해석의 확장을 정당화하는 몇 가지 진술을 하고 있다. 마르크스에게 사회적 생산 운동 일반은 스스로를 재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이를 “주기성”이라 부른다. “천체가 일단 어떤 운동에 던져지면 끊임없이 그 운동을 되풀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생산 역시 교대로 일어나는 저 팽창과 수축 운동에 한번 투입되면 계속 그 운동을 되풀이한다. 결과가 원인이 되고 그리하여 자신의 조건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그 과정 전체의 부침은 주기성의 형태를 취한다.”<sup>3)</sup>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가 모종의

사회적 생산에 종사한다. 행성 운동과 마찬가지로 사회는 애당초 사회를 낳은 조건을 재생산하고 확장하기 위해 애쓰는 일정한 논리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한다. 이어서 그 효과는 사회적 순환의 되먹임 고리 속에서 원인이 된다. 따라서 마르크스에게 사회적 생산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순환 운동이다. 요컨대, 사회의 팽창을 위한 물질적인 동적 조건은 경제들(올타리, 장벽, 감옥, 검문소 등)을 사용해 토지적·정치적·사법적·경제적으로 주변화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보다 손쉽게 재순환될 수 있는 소수자들의 체계를 생산할 것을 요구한다. 인클로저로 박탈당한 부랑자들이 경제적 프롤레타리아로 변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배적 사회체계 또한 축출과 주변화를 통한 자체의 팽창 체계를 보유한다.

## 2. 축출에 의한 팽창

따라서 축출은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의 박탈을 내포하는 사회적 운동이다.<sup>4)</sup> 사회적 축출은 단지 토지 지위의 박탈(즉, 토지로부터의 제거)이 아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사법적·경제적 박탈이라는 다른 주요한 세 가지 사회적 박탈 유형이 포함된다. 우리가 운동을 외연적이고도 내포적으로, 즉 양적이고도 질적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이는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동적인 개념이다. 사회적 축출은 지위가 박탈되는 질적 전환으로 시공간 상의 외연적 운동을 초래하거나 그것의 결과로 나타난다. 예컨대, 이주 소수자의 사회적 축출은 언제나 자유로운 것도, 언제나 강제된 것도 아니다. 이주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이주자들이 이주의 사회적이거나 질적인 조건, 또는 특정 사회질서로부터 축출되는 정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서조차 축출은 그 조건이 자유롭거나

개인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정되고 강제되는 한에서 여전히 하나의 몰아냄<sup>driving-out</sup>이라 할 것이다. 일시적일 뿐이고 그 정도가 작다 하더라도<sup>5)</sup> 축출은 사회적으로 결정된 지위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사회적이고 집합적인 과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팽창은 무언가의 통과를 허용하는 개방의 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개방은 이와 동시에 일어나는 연장 또는 뻗어나감을 내포한다. 이런 점에서 팽창은 선택적 개방을 통한 확대 내지 연장이다. 사회적 축출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팽창의 과정은 엄밀하게 영토적이거나 일차적으로 공간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영토적·정치적·사법적·경제적 동적 권력<sup>kinpower</sup>의 내포적인, 또는 질적인 성장이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적 흐름과 확장되는 사회적 순환의 결합이 내포적인 동시에 외연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식민주의는 분명 영토적이지만 동시에 정치적·사법적·경제적이기도 한 팽창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동적 권력은 구성적 순환에 의해 정의되지만 이러한 순환은 이원적 논리에 따라 가능하다. 한쪽 끝에서 사회적 순환은 흐름을 순환계 외부로 몰아내는 운동, 즉 축출이다. 이는 추방, 노예화, 처벌, 실업 등을 통해 특정 흐름들의 방향을 바꾸고 이를 몰아냄으로써 달성된다. 순환의 다른 쪽 끝에서는 영토적·정치적·사법적·경제적 권력의 성장을 통해 새롭게 결합되는 흐름이 개방되고 수용된다. 축출을 통한 팽창은 사회의 일부 성원들이 자신들의 소수자 지위를 박탈당함으로써 사회적 권력이 팽창하는 사회적 논리이다. 권력은 단지 억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동원의 문제이다.

경제와 이주자가 사회적 재생산과 팽창에서 구성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그것은 단순히 억압되거나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 하에서 재순환된다. 예컨대, 19세기 미국에서 멕시코와 중국 이주자들은 단지 배제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미국에

유입되어 전국의 철도 공사 현장을 돌아다녔으며 이후 철도가 완성되면 서 법적으로 추방되었다. 오늘날 이주자들은 재생산 노동의 보충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고유한 사회재생산 형태를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는 잉여 이주 재생산 노동을 서구 국가들로 재분배하기 위해 자본주의가 일정하게 경제적 자유주의의 무역 정책과 정치적 자유주의의 세계 정부에 직접적으로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적 이주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부수 효과가 아니라 그것의 주요 효과이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이주 재생산 노동의 축출과 축적을 통해 서구의 권력을 확장하는 하나의 이주 체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순환이 더 많은 흐름에 개방되는 한편 이전보다 강력해지기 위해 역사적으로 그것은 이주 흐름의 분리 또는 축출에 의존했다. 달리 말해, 역사적으로 권력의 팽창은 사회적으로 구성적인 이주 인구에 의존해 왔다.

## 제2테제

### “오늘날 이주자 위치의 증가는 경계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 1. 경계는 이동한다.

경계가 이주민의 위치성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방식은 이동을 통해서이다. 이주자의 위치성을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증식하는 것은 바로 경계 자체의 이동성이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명제는 우리의 직관을 크게 벗어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경계가 너무 경직되고 폐쇄적인 게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이다.[지젝] 그것은 경계가 너무 유연하고 변동적이어서 — 경계는 그것이 분리하는 양 편 사이를 끊임없이 움직인다. — 결국 두 면으로 이루어진 위상학, 따라서 이것에 의해 정의되는 도형들을 바꾸기 때문이다. 경계는 정적이지 않다. 그것은 많은 가변적 변수들에 따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계가 이동에 따라 분석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물이 경계를 가로질러 움직인다고거나 그것을 “침투”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경계는 단지 사람들의 흐름이 지나가는 정적인 차단막이나 공간이 아니다. 방대한 문헌들이 경계를 가로지르는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다루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경계 자체의 이동을 다룬 분석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소위 흐름과 이동성 fluidity/mobility의 이론가들조차 “사람들의 국제적 흐름에 의해 형성되는 ... 경계 풍경 borderscape”<sup>6)</sup>이라거나 “흐름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형태”<sup>7)</sup>와 같이 여전히 경계를 일차적으로 외연적이고 공간적인 용어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이동성의 의미는 순전히 “은유적”<sup>8)</sup>으로만 사용된다.

경계의 운동은 하나의 은유가 아니다. 말 그대로, 또한 실제적으로 경계는 여러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sup>9)</sup> 첫째, 경계 자체가 움직인다. 이는 특히 지형학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강의 운동,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모래와 조류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계는 지구상의 모든 물체가 겪는 침식, 퇴화, 분해와 같이 그리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도 운동한다. 여기에는 나무 울타리를 썩게 하는 비와 홍수, 건물과 탑을 태우는 불, 울타리와 문의 구멍을 부식시키는 녹, 건물 아래의 토양을 없애는 침식 등이 포함된다. 모든 물리적 경계는 끊임없는 자기분해의 운동에 종속되며 이는 예를 들어 이러한 취약 지점을 통해 월경을 시도하는 이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는 악마의 고속도로(Devil's Highway)와 같은 치명적 상황을 이주자에게 강제하기 위해 당국 스스로가 이러한 취약 지점을 방지할 수도 있다.

둘째, 경계는 다른 이들에 의해 이동하기도 한다. 이는 특히 둘 이상의 사회적 당사자들이 토지 분할을 둘러싸고 협상이나 투쟁을 벌이는 영토 분쟁, 사람·토지·자원을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분쟁, 법 영역이나 치안관할의 사법적 분할, 무역 장벽·관세·노동 규제·생산 구역을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노동개혁 등의 사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지형에 의해 구분되는 넓은 지역이 포함된 경계들은 서안지구의 정착촌처럼 끊임없는 협상과 운동의 장소로 지속할 수 있다. 경계의 부침에 따라 이주자의 지위 또한 요동쳐 그는 적 편에 있는 투사가 될 수도 정착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계의 유지에 요구되는 지속적인 관리 과정처럼 경계는 그리 뚜렷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움직인다. 정기적인 개입과 재생(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이거나 경제적인 조치도 포함)이 없다면 경계는 부패하고 망각된다. 또 다른 이들에 의해 탈취되거나 약화될 수도 있다. 경계는 정적이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적이고 물질적으로 재생산된다.

닉 본 윌리엄스(Nick Vaughan-Williams)가 적고 있듯, “이러한 경계들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주장과 반론의 양태를 통해(재)생산되며 무엇보다 살아진다(lived). 달리 말해, 경계는 자연적이거나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정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생활이 연루되는 역사적으로 우연하고 정치적으로 격렬한 역동적 현상이다.”<sup>10)</sup> 하지만 바로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치안 권력의 자의적 사용, 이주자에 대한 정보 수집, 뇌물의 미시경제 등이 가능해진다. 미국의 이민자보호도시(sanctuary city)에서조차 여전히 누구나 의심스러운 이주자를 연방 이민법 집행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의 경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주자 스스로도 그러하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에 대해 품고 있는 흔한 정신적 이미지는 개념적으로도, 또 실질적으로도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경계는 모터나 분기점에 더 가깝다. 다른 여는 모터와 마찬가지로 경계 기술은 관리·재생·공급·보호·시동·지불·수리되어야 한다. 종족적·종교적·민족적 경계조차 누가 어느 카페·교회·학교 등에 출입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자체의 기술을 보유한다. 더욱이, 이것은 현대 생활에만 적용되거나 현대 생활에 주로 적용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경계는 언제나 유동적이고 다중적이었다.<sup>11)</sup> 이런저런 형태의 관리는 언제나 그 존재의 일부였다.

따라서 초기 경계이론가들이 제기한 자연적 경계와 인위적 경계의 구분은 유지될 수 없다.<sup>12)</sup> 이는 오늘날의 경계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 전체에 걸쳐 “자연적” 경계는 언제나 경계로서 “인위적” 인간사회에 의해 제한되고 다투어지며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강은 세금, 교량, 사회적으로 다투어지거나 수용되는 분열과 같은 모종의 사회적 영향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하나의 경계로 기능한다. 덧붙여, 소위 인위적 경계는 언제나 지구나 사람의 어떤 “자연적” 흐름을 절단하거나 분할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극적인 사례는 2백만 입방 야드의 토양(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채우기에 충분한 흙)을 근처 산 정상에서 옮겨와 샌디에고 외곽 경계의 자연적으로 “불안정한” 지세를 바꾸려 했던 미 정부의 시도이다. 이는 결국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새 도로와 전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이처럼 경계가 이동하고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계에 의해 표시되는 이주자의 위치 역시 그러하다. 예컨대, 밤사이 러시아군이 자신의 경계를 확장한다면 조지아에서 잠들었다 러시아에서 깨어나 소수자로 체포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잠들었다 도착했을 때에는 트럼프의 여행금지령에 따라 테러 용의자로 깨어날 수도 있다.

## 2. 경계는 하나의 순환 과정이다.

경계가 이주자의 위치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방식은 순환에 의한 것이다. 경계는 이주자와 마찬가지로 포용과 배제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순환에 의해서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이는 경계의 이동성에서 비롯된다. 경계가 언제나 사이에 있고, 또 이동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경계는 결코 누군가나 무언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계가 경험적으로 사회의 외곽에 있는 동시에 그 내부에도 있으며 포용의 선별 과정을 정기적으로 바꾸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배제가 정체와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배제는 언제나 유동화되고 순환된다.

실질적으로 안과 밖의 경계 모두 모든 사람 안에 들어거나 바깥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한 예는 없다. 이와 관련된 경계의 거둬들인 실패를

고려할 때 포용과 배제의 이원적이고 추상적인 범주는 거의 설령력을 갖지 못한다. 완전히 포용하지도 배제하지도 못하는 경계의 실패는 단지 오늘날 탈국민국가의 주권이 약화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sup>13)</sup> 경계에는 언제나 구멍이 있었다. 하드리아누스의 방벽이나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이 역사적 장벽의 위력을 보여주는 소위 가장 위대한 사례들조차 그것은 사람들의 접근을 완전히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의 가장 성공적이고도 의도된 기능은 노동과 조세의 사회적 순환이었다.<sup>14)</sup> 이는 오늘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장벽과 더불어 지속된다.<sup>15)</sup> 일부 연구에 따르면 불법 월경의 성공률은 약 90%에 이른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밀거래의 대부분은 경제적 규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경계가 지닌 주요 효과 중 하나는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패턴으로 신체를 순환시키는 것이다.[미국과 멕시코의 경계는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성공한다.]

하지만 경계의 순환은 단지 지속적인 분할의 과정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의 분할 기술은 또한 분할되는 것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친다. 분할되는 것은 재순환되고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심지어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분할되는 것은 축출되고 치위쳐야 한다. 분할은 단 순한 봉쇄가 아니다. 그것은 방향의 전환이다. 순환되는 것은 분할 이후에 중단되지 않는다. 그것은 계속해서 되돌아온다. 따라서 데이빗 뉴먼David Newman이 적었듯 “사회적 배치에서 보편적 의미를 가진 것은 경계선 자체라기보다 경계나누기의 과정”<sup>16)</sup>이다. 경계는 한계점, 즉 (노동자, 범죄자, 통근자 등) 회귀하는 것이 그 배후에서 다시 특정한 조건으로 회귀하는 지점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술이다.

아감벤이 말하듯 경계는 논리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실용적으로 재분배한다. 예컨대, 미등록 이주자들은 대부분 차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기능적으로 “불법화된” 사람들로서 지하 경제로

재분배된다. 또는 구금 산업단지<sup>detention industrial complex</sup>를 거쳐갈 때 그들의 감금된 신체로부터 경제적 잉여가 추출된다. 그들은 그저 다른 쪽으로만 흘러나 다시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완전한 사회적 순환 체제를 창조한다.

하지만 경계가 논리적이거나 이분법적인, 또는 주권적인 단절이 아니라는 점에서 빈번하게 이 과정은 망가지거나 부분적으로만 기능하며 분할을 증식하거나 분할선의 위치를 완전히 바꾸기도 한다. 주권적 이분법의 정적 논리에 따라 둘로 분할하는 대신 경계는 순환과 증식을 통해 두 갈래를 나눈다. 경계는 처음의 갈래에 다른 갈래를 덧붙이고 이 다른 갈래에 또 다른 갈래를 덧붙이는 식으로 나아간다. 칼 슈미트가 말한 “예외를 결정하는 주권자”<sup>17)</sup> 대신 우리는 “분할을 순환시키는 경계”에 대해 말해야 한다.

## 경계의 제거

희망컨대, 본 논문이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분석과 진단의 두 측면과 관련된다. 첫째, 나는 경계 및 경계와 이주의 관계가 지닌 몇 가지 동적 특징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기를 바란다. 이는 사회적 분할의 물질적이고 동적인 측면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석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운동과 이동성이 이주의 중요한 차원이라고 생각하며 경계와 이주의 설명에 동적 차원을 포함함으로써 그 조건에 대한 새롭고도 더욱 강력한 지도가 작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논문이 대체로 이론적이고 사례의 대부분이 이주와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경계 모델이 내가 여기서 논증할 수 있었던 것보다 분석적으로 더욱 광범위한 유용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둘째, 나는 사회적 경계와 이주자들이 사회의 물질적 재생산과 팽창에서 구성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설득력 있게 논증되었기를 바란다. 이것이 맞다면, 한 가지 합리적인 귀결은 오늘날 이주자들을 정의하는 수많은 경계와 사회적 축출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례하여 이주자들을 대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특정한 경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거되고 재분배될 수 있는지, 또는 재순환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진단 노력이다. 

<원문출처>

이 글은 2022년 5월 20일-21일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에  
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  
식>에서 발표된 원고 "Migration and the Philosophy of  
Movement"를 저자의 동의 하에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소개>

### 토마스 네일 (덴버대학교 철학과)

토마스 네일(Thomas Nail)은 덴버대학교(the University of Denver) 철학과와 교  
수입니다. 토마스 네일의 연구는 이동과 이동성의 철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작 작가로 13권의 책과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The Figure of the Migrant (2015),  
Theory of Border (2016), 『존재와 운동』(2018), Marx in  
Motion: A New Materialist Marxism (2020), Theory of the  
Object (2021), 그리고 Theory of the Earth (2021) 등이 있습  
니다. 그의 단행본 중 일부는 아시아에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으  
며, 『존재와 운동』(2018)은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글은 국  
제학술대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식"의 기조연설  
로 초청되었으며 저자의 주요 저작인 The Figure of the Migrant  
(2015)와 Theory of Border (2016)로부터 이주와 관련한 중요한  
논점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II

## 이주, 그리고 문화의 윤리

라제쉬 차드라 슈클라 Rajesh C. Shukla

세인트 폴 대학교 Saint Paul University

### 들어가며

지난 40여 년간 많은 저명한 정치이론가들과 지식인들은 고전적 형  
태의 자유주의가 개인들의 고유한 역사적 상황, 그들의 사회적·문화적  
구성과 그 차이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이유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우리 시대의 정치적 현실과 쟁점을 다루  
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의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중  
하나인 『인정의 정치』에서 찰스 테일러는 인정에 대한 요구가 개인의  
정체성과 존재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불인정이나 오인은  
피해를 주는 동시에 누군가를 그릇되고 왜곡되며 축소된 존재 양식에  
가두는 억압의 형태가 될 수 있다"(Taylor 1992, 25)고 주장한다. 그 종류를  
불문하고 동료 인간에게 피해를 가하거나 이와 관련해 누군가를 확대하  
는 것이 도덕적·정치적으로 부당하다는 데 동의하더라도 정체성 정치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상실된 토대와 누락을 보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부정의,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반이민자 태도를 그저 악화시킬 뿐인지를 질문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여러 자유민주주의 국가 및 정부의 작동방식과 그 리더십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체성 정치, 특히 그것의 문화적 변이에 대한 강조는 자유주의적 보편주의와 관련된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체성 정치를 통해 불공정, 배제,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로 근래 수십 년간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민주적 정치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또는 보다 현재의 맥락에서 말하자면 서구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 인해 종족성·인종·종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긴장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난점을 인정하면서 일부 사상가들은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한다. 여기서 집단 권리는 개인 권리에 보다 민감하며 정치성의 가치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문화적 고려사항이 중요한 개인 권리를 지배하는 것을 거부한다(Kymlicka 1995, 37). 하지만 보다 실천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다문화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나아가 그것을 지탱하는 힘인 문화적 다양성과 이주에 대한 반격이 펼쳐지는 상황을 실로 목도하고 있다. 심지어 토니 블레어, 안드레아 메르켈, 니콜라스 사르코지, 마린 르 펜과 같은 유럽의 일부 유력 지도자들은 다문화주의가 죽었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우려를 일축하는 것은 너무 편리한 일이 될 것이다(Orgad 2015, 68). 나는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여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취지는 개인 정체성과 문화의 정치화를 성찰하는 한편 인간 존엄성, 자율성, 자유 및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보편적 원칙의 맥락에서 이를 다시 상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다문화주의의 주목이 자유주의적 보편주의의 틀 내에서 주목받을 필요가 있으며 평등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강조가 시민들 사이의 다양성을 보호할 수 없거나 “차이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강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해 총 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절에서는 자유주의적 본질주의(liberal essentialism) 및 이에 대한 비판 — 그것은 시민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며 따라서 시민 의무의 충족을 위해 자신의 특수성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강요한다 — 을 간략하게 개괄할 것이다. 세 번째 절에서는 개인의 특수한 문화적 의무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개인의 권리가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보다 우위에 서야 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집단 권리를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개인성의 보호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핵심에 놓여 있으며 다문화주의적 집단주의의 이름으로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절에서는 문화의 윤리 및 지난 수십 년간 그것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정치적 인식에 대해 논의한다. 문화의 윤리, 적어도 그것에 대한 일부 해석은 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소수자와 다수자 사이의 사회적 긴장이 지닌 복합적 성질을 강조함으로써 상이한 문화적 전통 사이의, 또 세계 각지의 현지인과 이주자 사이의 갈등을 강화해 왔다. 종종 부정되기도 하는 이러한 결과는 매우 불행한 것으로 이주자 문화의 가치에 대한 급진적인 공개적 주장이 그 반작용으로 동일한 힘의 반발을 사는 뉴트릭 함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절에서는 결론을 진술한다.

## 자유주의와 문화적 인정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와 볼스적 자유주의를 비롯해 모든 종류의 자유주의 사상가들 사이에는 민주적 정부와 헌법이 개인의 자유, 권리,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는 한편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자기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호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반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하며 그것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임마누엘 칸트나 존 스튜어트 밀 등의 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법과 정책의 영역에서 만인의 존엄성과 자율성, 또 평등한 대우를 강조하고 민주적 제도가 인종·종족성·종교·문화 등의 우연한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시민들을 구분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평등하여 시민사회와 정부의 일상적 작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우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능력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공감과 정당함에도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 될 것이다. 실로 존 롤스가 보여준 바와 같이 정의의 원칙은 우리의 사회적 세계에 민감해야 하며 정치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을 도울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시민의 도덕적 평등 및 필요하고 자격 있는 자에 대한 가능한 지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인간 개인성(personality) 및 근대 시민권의 핵심 측면을 놓치고 있으며 심층적 다양성, 이주, 종교와 문화가 제기하는 도전을 다루는 데는 태생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가장 동정적인 해석에서도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여전히 보편주의적 포부를 지니고 있으며 구체적 경험과 삶의 정황

보다 추상적인 인식론적 관점과 사회철학을 우선시함으로써 인간의 행위성과 뿌리내림(rootedness)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동등한 존엄성의 정치에서는 사회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보편적으로 동일한 것, 동일한 권리와 면책의 묶음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차이의 정치가 우리에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이다”(Taylor 1992, 388쪽; 이상형, 이광석 옮김,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 하우어, 2020, 64쪽).

루소와 헤르더를 따라 테일러는 개인과 집단은 공히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모든 선이 가용해지고 다른 모든 요구가 충족되더라도 — 이는 삶의 실제적 상황 속에서는 거의 현실화될 수 없는 목표이다 — 인정의 거부는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인정이 거부될 때 이들은 다른 수준에서도 주변화 될 것이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문제는 테일러의 시민권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차이에 대한 그의 서사를 뒷받침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 사회, 실로 모든 사회는 종교적·문화적·경제적 측면에서 불평등하고 분열되었으며 많은 경우 지배하는 다수 집단이 소수자들을 제도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억압해 왔다. 역사는 이러한 억압을 지켜본 확실한 증인이다. 다시 말해, 존엄의 정치가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제약은 극복하고 이론에 명시된 그대로 현실로 옮겨질 것이라 가정하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는 것이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폭력은 이러한 기대에 물음표를 던진다.

하지만 존엄의 정치가 명시된 목표, 또 이와 관련된 기대를 충족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인정의 욕구와 관련해 테일러가 묻고 있는 근본적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것이다. 인정이 공동체주의자들이 강조해 온 양질의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이라면 다수자와 소수자는 서로에게

정당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대화적 참여의 요구는 다수자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을 향한 규범적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체성 이론가들은 억압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소수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한다. 테일러는 또한 인정에 대한 자신의 설명이 개인성과 공동체 권리를 제고하는 동시에 언어·문화·저임금·노동·차별·지식·생애 선택과 관련해 소수자들이 알려진 억압의 양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믿는다. “줄루 부족이 톨스토이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그것을 읽을 것’이라는 식의 유명한 말을 남긴 것으로 솔 벨로<sup>Saul Bellow</sup>가 인용될 때 그의 말은 유럽인들의 오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진술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그가 줄루 문화의 가치에 대해 실제로 무감각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그 말이 원칙적으로 인간 평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Taylor 1992, 42[각주: 68-69쪽]) 솔 벨로가 이러한 진술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것이 논점은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테일러에게 인정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에 본질적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실존적·도덕적·정치적·존재론적 문제를 제기하며 상기한 모든 근거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정체성의 요소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우선 그것의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경제적 수준에서 차이의 정치는 만인의 기회 평등과 관련된 핵심적인 자유주의의 약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의 평등을 통해 그것을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노동이나 수고, 또는 필요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조건에 의해 무언가에 대한 자격을 얻는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철학적이고 경제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규범체계 내에서 이러한 자격 부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승인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한 개인의 역사적 처함<sup>situatedness</sup>은 그의 현재의 삶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이 아니며 만인의 근본적 평등이라는 자유주의적 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 결과의 평등과 관련된 정책들은 가시적인 성과는 그다지 없으면서 이러한 정책으로 소외되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도발하고 많은 이들의 분노와 원한을 자아낸다(Mfishra 2017, 19).

다음으로, 『차이의 정치와 정의』(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각주: 김도균, 조국 옮김, 모티브북, 2017])에서 아이리스 마린은 영Iris Marion Young은 기회균등 등의 문제에서 능력주의 원칙이 발휘하는 효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이러한 원칙이 주변화 된 집단을 향한 오랜 억압과 차별의 과정에서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고 주장한다(Young 1990, 202). 영은 우리가 면접 및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윤리적으로 편향한 잣대로 바라봄으로써 소수자, 여성, LGBT, 흑인, 히스패닉계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반면 백인 남성들이 특권을 누림을 보여준다. 보다 최근에는 마이클 J. 샌델이 능력주의 윤리는 특수한 종류의 합리성과 도덕적 선을 강조하지만 공공선을 온전히 인식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 이러한 도덕 감정은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스트적 반항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민자들이나 아웃소싱에 대한 반항 차원을 넘어 포퓰리즘의 불만은 능력주의의 폭정을 향한다.”(Sandel 2021, 25) 영이 능력의 기준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반면 샌델은 능력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만과 굴욕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것의 윤리적 결함과 씨름하는 것처럼 보인다. 샌델과 달리 영은 집단 권리에 관한 매우 특수주의적인 이론을 변호한다. 이러한 이론은 기성 규범과 다수결주의에 대립하여 발전된 것으로 인종·젠더·정체성 개념에 진지한 관심을 둔다. 둘은 상이한 근거에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 기회균등도 다른 자유민주주의적 원리도 오늘날의 정치사회와

## 문화적 인정과 이주

거버넌스에서 그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한 적이 없다. 또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에서조차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음을 정체성 이론가들이 올바르게 강조했다 말하는 편이 공정할 것이다. 게다가 민주주의가 진행 중인 작업, 즉 보다 완벽한 통합을 찾아나가는 지속적 탐색이라고 말하는 것도, 불평등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지만 상기한 국가들에서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취약계층에게는 거의 위안이 되지 않는다. 문제에 현실론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 평등주의가 실패했음을 감안하여 우리는 차이의 정치, 또 집단별 권리와 정책이 개인적 권리 및 복지와 양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가가 있어 핵심적 수준에서 개인주의와 자율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약속을 잠식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테일러는 이러한 비판을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적고 있다. “원형적인 존엄성의 정치를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이처럼 [인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종의 전도, 배신, 자신들이 간직해 온 원리의 단순한 부정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Taylor 1992, 40) 달리 말해, 테일러의 주장이 옳다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정치철학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를 오해한 것이다. 문제는 평등주의가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했거나 역차별이 사회적 병폐의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실패로 인해 시민권과 공공생활이 저해되었다는 것도 아니다. 핵심적인 논점은 역사적·문화적 개인화와 집단 권리를 위해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자유주의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것이 인정과 정체성 정치에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나는 집단 권리가 개인 권리에 역행하며 정체성 이론가들은 집단의 지배와 헤게모니에 맞서 어떻게 개인성이 보호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보호가 실제적인 상황에서 지속될 수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종교적·문화적 인정 및 개인별·집단별 권리와 정체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할 것이다.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와 정치철학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적절한 입헌적 보호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종교적·문화적 측면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와 표현으로 나타나는 개인성의 개발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1982)은 기본적 자유, 법적·민주적·교육적 권리와 평등권을 열거하면서 캐나다인들이 갑작스런 파기나 중단 없이 이러한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헌법은 종교적·문화적·언어적 권리와 집단 권리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한편 혹시 있을지 모를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인도 헌법(1950) 제29조 제1항은 “인도 영토 내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자체의 별도 언어·문자·문화를 보유하는 시민 집단 내지 이의 일부는 동 언어·문자·문화를 보존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한다. 그럼에도 자유주의(또한 합의를 자유주의적 입헌주의)는 “(a) 이러한 권리를 정의하는 규칙을 예외 없이 확립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b) 집단적 목표를 의심”(Taylor 1992, 60(주석: 91쪽))한다는 이유로 차이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비판이 자유주의적 정치사회와 입헌주의를 성찰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만약 그러하다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대안적 정식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확립성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자유주의 국가와 정부가 소수자의 집합적 목표와 열망을 지원하기 위해 때때로 많은 예외를 허용해 왔으며 이것이 평등주의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철학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이유에서

평등주의적 정당화가 다문화주의자들에게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더 많은 인정과 수용의 필요성은 강화된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평등한 개인들의 자율성을 보호하고자 한 반면 다문화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각 문화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자율성이 약화되더라도 이러한 문화에 대한 평등한 존중을 강조했다.”(Fukuyama 2018, 111)

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공동체의 맥락에서 발전했으며 개인의 권리가 지배적 공동체에 의해 약화되거나 침해될 수 없도록 많은 경우 집단주의적 열망에 맞서 개인 권리를 정의해 왔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강점임에는 분명하지만 자유주의의 본래적 실패는 인종주의, 종족성, 반이민자 태도, 적의, 차별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병폐와 더불어 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설계 결함이라는 통념을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디에서도 집합적 목표가 무가치하거나 방지되어야 한다고 암시된 적은 없다. 분명 많은 집합적 목표는 우리의 사회적 삶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근본적으로 상이한 문화적 맥락에 처해 있는 소수자 공동체 및 이주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시급한 질문은 보다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것이다.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충돌할 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몇 가지 이유에서 자유주의가 이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여기는 반면 다문화주의 이론가들은 이를 너무 성급하며 심지어 불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종족적·민족적 집단들이 요구하는 ‘집단적 권리들’이 정상 개인 권리에 적대적이라며 두려워한다. 이러한 견해는 전직 총리 피에르 트뤼도에 의해 캐나다에서 대중화되었다. 그는 퀘벡의 자치권 요구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개인의 우선성’을 신봉하며 ‘오직 개인만이 권리의 소유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를 대립시키는 이러한 수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Kymlicka 1995, 35(각주: 정동진, 황민혁, 송경호, 변명환 옮김, 『다문화주의 시간론』, 동명사, 2018년, 73-74쪽) 키피카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문화와 밀접하게

결합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존한다。(Kymlicka 1995, 75(각주: 155-156쪽))

집단과 개인 사이의 차이가 발생할 때 집단의 맹공에 맞서 어떻게 개인을 보호할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 키피카는 종족적·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내부적 제재와 외부적 보호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내부적 제재란 한 집단이 성문화되거나 불문율적인 규칙·규정·정책 등을 채택함으로써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구속력 있는 효과를 미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한 집단은 특정 사안에 대해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 구성원들도 이를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거나 위협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집단은 내부적 제재를 이용해 순응을 지시하거나 이견을 진압할 수 있다. 외부적 보호는 한 집단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보호는 집단의 문제와 그 문화에 대한 개입을 막는 방호벽으로 기능하며 외부 세력이 집단의 내부 문제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다문화주의 이론에서 내부적 제재와 외부적 보호는 매우 상이한 목적에 복무한다. 외부적 보호를 확고하게 옹호하면서도 올바르게도 키피카는 내부적 제재를 폐물로 취급한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자유주의자들은 집단 간 공정성을 증진할 경우 일정한 외부적 보호를 지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지만 전통적 권위와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정할 집단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부적 제재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Kymlicka 1995, 37(각주: 77-78쪽)) 더 크고 지배적인 집단을 마주하는 소수자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 개인이 외부적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내부적 제재를 극복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기대는 얼마나 현실적인가?

한 집단이 그 구성원들에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규범을 부과하는 것은 흔히 알려진 현상이다. 한 집단에 소속된다는 것은 때로 순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주자와 디아스포라의 삶에 대해 많은 문제를 함축한다. 1세대 이주자들은 그들이 떠난 나라의 가치 체계에 더 높은 애착을 보여주는 경우가 빈번하며 많은 경우 자녀들을 이러한 가치 체계에 따라 양육하기를 원한다. 이는 특히 여아 및 젠더 관련 차이와 관습에 해당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개인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침묵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집단의 압력은 개인의 심리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저항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가 존재할 수 있더라도 이를 실천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어렵거나 많은 경우 불가능하다. 한 집단과 그 행위에 고유한 도덕적·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순간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최소화되더라도 이러한 집단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러한 남용의 가능성은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다. 키피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권리를 승인한다. ① 자치권<sup>self-government right</sup>, ② 다종족 권리<sup>polyethnic right</sup>, ③ 특별대표권<sup>special representation right</sup>(Kymlicka 1995, 37-38[국역 78-79쪽]). 역사적 근거에서 민족적 소수자의 자치권 보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키피카는 민족적·종족적 소수자에게 다종족 권리와 특별대표권을 또한 귀속시킨다. 상기한 세 권리 중 특별대표권은 아마도 가장 논쟁적이며 본 논문에서 간략하게나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별대표권의 취지는 종족적·민족적 소수자들이 선출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소수자들의 대표자가 선출직에 당선되는 빈도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이며 이는 많은 경우 소수자들의 결집력이 약하고 선거 경쟁에서 이기기에 충분한 득표를 모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는 추가적인 이유도 있다. 라파엘라 M. 댄시거<sup>Rafaella M. Dancygier</sup>가 『포용의 딜레마: 유럽 정치에서의 무슬림 Dilemmas of Inclusion: Muslims in European Politics(2017)』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주요 정당들은 선거 정치에서 소수자들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약하며 이주자의 투표가 해당 선거구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 이상 상징적 포용 이상의 노력을 쏟지 않는다. 또 한 구역에 이주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소수민족 거주지나 게토, 또는 평행사회”가 생겨날 잠재적인 위험도 내포한다. 이러한 점에서 키피카는 올바르게 문제를 짚고 있다. 하지만 산술적 대표성<sup>descriptive representation</sup>에 관한 그의 해법은 더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

산술적 대표성은 우리가 정체성 정치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개념들을 수용하는 한에서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산술적 대표성의 핵심에 놓인 것은 우리와 같은 생각새를 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관심사와 우선 과제, 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우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추론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사람의 생각새는 그들이 어떻게 투표할지에 대해, 또는 선출직으로서 어떠한 활동을 수행할지에 대해 거의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더욱이 철학적 수준에서 산술적 대표성의 아이디어에 무언가가 있다면 균질적 사회는 정치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을 벌써 찾아야 했을 것이다. 경험적 수준에서 보자면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성공이 무엇보다 자신감과 낙관주의를 불어넣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이한 인종적·문화적 결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또는 국가 속에서 함께 살아갈 때 이러한 낙관주의는 보다 큰 사회적 맥락에서 육성될 필요가 있다. 목표가 차별과 부정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소수자들과 다수자에 대해 이런저런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스테레오타입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는 모든 개인들이 정치 과정의 성공에 기여해야 하며 이러한 기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은 실질적 대표성<sup>substantive representation</sup>의 이념에 필수적이다.

민주적 정치는 이해관계와 권력을 기초로 작동한다. 유의미한 대표성을 얻기 위해 소수자들은 선거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공동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소수자 후보자의 입후보를 독려하는 한편 왜 다른 동료나 경쟁자가 아니라 이들이 선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소수자 후보가 정치를 보다 풍부하게 한 다거나 정치 과정을 확장한다고 말하는 것과 별개로 그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주장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소수자와 다수자, 현지인과 이주자 사이의 긴장을 높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철학적인 근거에서, 심지어 경험적인 근거에서도 거의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 이주와 문화의 윤리

『정체성: 존엄에 대한 요구와 분노의 정치 Identity: The Demand for Dignity and the Politics of Resentment(국역: 이수경 옮김,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한국경제신문, 2020)』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현대 정체성 정치의 세 가지 상이한 원천을 짚어낸다. ① 인간의 인정에 대한 갈망, ②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구분, ③ 존엄의 개념(Fukuyama 2018, 9-11). 인정에 대한 갈망을 인간의 인성 및 존재론과 결합하면서 후쿠야마는 자아의 내·외적 구성을 루소에, 존엄의 개념을 도덕 철학자들과 민주주의 이론가들에게 귀속시킨다. 이전에도 모종의 형태로 이러한 구분이 존재했더라도 근대성은 분명 이를 확대했다. 찰스 테일러에 따르면 인정에 대한 요구가 하나의 욕구를 구성하며 이 때문에 이러한 욕구의 실현은 인간적 성취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첫 번째 절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제 후쿠야마는 정체성과 인정의 정치가 소수자 및 집단별 권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정치적 제도와 사건에도 중심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따라서 정체성 정치는 민주주의 혁명이나 새로운 사회운동,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목격되는 정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 투쟁들의 상당 부분을 아우른다”(Fukuyama 2018, 1). 다시 말해, 존엄과 고유성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추구는 민주적 연대의 가교를 넘어 근본적으로 상이한 집단과 정치세력들의 극심한 좌절과 분노로 이어졌다.

더 강하게 말하자면 불만과 굴욕의 느낌이 정체성 정치와 경쟁적 정치 양극화를 구성하고 선별된 지지자 집단과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결집하게 되었다. 그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예를 언급한다. 푸틴은 소련의 붕괴로 인한 러시아의 권력 상실을 애석해 하는 한편 러시아 국가와 그 지도자들에게 결여된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서구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한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시점에서 한 세기 동안 중국이 겪은 굴욕에 대해 이야기한다. 과거의 부정을 암시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 시민들의 결함을 육성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모종의 ‘선별적 연대’를 형성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민주주의가 심화된 국가들에서도 목도할 수 있다.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과 담화의 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퀘벡의 경우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빈번하게 퀘벡인들이 겪은 역사적 부정과 퀘벡의 문화와 가치에 가해진 억압에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한다. 나는 앞서 테일러와 김리카를 비롯한 다문화주의 사상가들이 퀘벡인들의 우려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보여주지만 문화의 윤리에 관한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퀘벡에서 채택된 집단별로 차별화된 정책에 대해 일부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캐나다 퀘벡주는 스스로를 프랑스의 유산과 동일시하며 그 언어와 문화, 가치에 자부심을 갖는다. 프랑스어 사용자는 캐나다 전체적으로는 소수이지만 퀘벡에서는 지배적 다수를 구성한다. 또 이러한 문화적 지위의 차이는 퀘벡의 정책 입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퀘벡인들은 자신들의 주와 언어, 그리고 문화에 대해 다문화주의적인 ‘외부적 보호’를 요구해 왔으며 무슬림, 유대인, 힌두교도, 시크교도 등 내부의 종교적·문화적 소수자들을 통합하고자 했다. 이는 퀘벡 내에서는 다수지만 캐나다 내에서는 소수인 프랑스어권 백인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그 수가 적은 퀘벡 내부의 소수자들을 대하면서 자신들의 소수자 지위와 관심사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때 당혹스럽고 복잡한 상황을 발생시킨다. 이때 제시되는 이유는 퀘벡이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남기 위해 퀘벡의 언어적·문화적 유산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에 우선한다는 믿음 — 또한 이것이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간화하는 것이라는 믿음 — 은 실로 독특하게 캐나다적인 직관이다” (Gopnik 2009, 30).

프랑스어 사용 민족의 언어적·문화적 생존을 강력하게 지지하더라도 그것이 퀘벡 내 소수자의 정체성 및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숙고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사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다수자의 가치를 소수자에게 부과하는 것에 저항하고 내부적 보호의 형태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족적 또는 종족적 소수자의 경우 이러한 보호의 적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족적 수준에서 볼 때 퀘벡주의 언어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부모 중 한 명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자녀의 대중교육이 프랑스어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는 오히려 상황을 후퇴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퀘벡주는 영어에 비해 프랑스어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당연히 이러한 정책의 지지자들은 정체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또 언어의 보급이 공동체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며 그것의 시행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상기한 목표를 명분으로 보다 논쟁적인 정책들이 채택되면서 이러한 지지는 줄어들었다. 2019년 6월 법률로 채택된 빌21<sup>Bill21</sup>은 퀘벡주 시민사회의 세속적 관점을 강력하게 수용하여 주요 책임자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종교 상징물 착용을 불허했다. 이 법은 퀘벡이 비종교 주로서 관공서에서 종교적 표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교사, 경찰수사관, 판사, 기타 공무원의 히잡, 크리판<sup>(kripan<sup>1</sup>)</sup>, 키파<sup>(kippa<sup>2</sup>)</sup> 사용을 금했다. 법적 도전이 계속되었음에도 빌21은 퀘벡주 상급법원에 의해 인용되었다. 퀘벡주 관공서에서의 종교적 상징 사용이 자유주의적 가치나 다문화주의적 가치로 여겨질 수 있느냐의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퀘벡 주정부 역시 비종교 또는 세속 주의 관공서에 종교적 색채를 주입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자유주의적 가치도, 다문화주의적 가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그것은 합리적 수용의 요구를 넘어서는 것이다. 합리적 수용의 개념은 퀘벡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캐나다 사회 내에서 오랫동안 주변성과 취약성을 겪은 일부 피해 집단의 경우 다양한 소수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규정이 그 목표를 놓칠 수 있다고 [캐나다] 연방법원이 판시했을 때”에야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Adelman and Ancill 2011, 9) 빌21과 그 법적 근거의 광범위한 사회적 함의를 감안할 때 이 쟁점은 아마도 적절한 시기에 캐나다 대법원에서 판가름될 것으로 추측된다.

퀘벡주의 빌21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비판은 대체로 종교적 자유, 인간의 존엄,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정(1982), 개인의 민주적 권리 등을 그 근거로 삼았다. 앞서 우리는 빌21이 또한 애덤 고프닉<sup>Adam Gopnik</sup>이 말한 ‘캐나다적 직관’에 상당히 반하는 세속적 근거에서 옹호되었음을 살펴본 바 있다.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러한 난투는

개인에 우선하는 한 공동체나 민족의 다문화주의적 권리 표명에 포함된 단층선 및 이러한 권리가 지니는 심대한 윤리적 함의와 한계를 드러낸다. 헤르더가 구상하듯 하나의 공동체가 문화적 자기보존의 권리를 갖는다면 그것의 언어와 가치의 보존은 필수적이게 된다. 또한 공동체는 자유주의가 증진하고 충실하게 변호하는 개인의 선호와 성향에 반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실로 현실이 될 것이다. “헤르더는 문화적 진정성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당대의 독일에 적용하면서 ... 독일 사람들이 이류 프랑스인이 되려하기보다는 자신의 문화와 전통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Fukuyama 2018, 61) 빌21의 옹호자들은 헤르더를 따라 그것이 상호문화주의와 연결되는 퀘벡주의 가치를 진정성 있게 표명하는 것이며 또한 퍼스트네이션<sup>3)</sup>이 몇몇 사안과 관련해 “캐나다의 지배적인 시민권 개념이 지닌 식민적 성격과 억압적 성질에 기초해 그것을 진지하게 비판하거나 기각할”(Adelman and Ancill 2011, 12) 때 견지했던 태도가 빌21의 입장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캐나다인들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더욱이 이러한 억압은 역사적 부정의 및 언어와 문화의 소외를 강조하는 퀘벡의 민족주의 서사에도 잘 들어맞는다.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주의 정책·프로그램·변인에 대한 논쟁을 살펴볼 때 종족적·문화적 다양성도, 민족적 소수자의 선호도 순수한 도덕적 선을 구성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추구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옳다면 — 내 생각에는 그러하다 — 자유주의 사회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이해를 채택함으로써 문화를 우선시키고 문화가 개인과 집단의 삶에서 지닌 장점과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항상 공개적 성찰과 비판에 열려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에 신성한

또는 타협할 수 없는 규범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비판의 문이 닫히는 순간 문화에 대한 인정 역시 약해지고 위태로워질 것이다.

따라서 나는 서구 사회에 자리를 잡은 이주자 문화는 자신의 역사적 기원·정체성·목적·진정성에 민감하면서도 지역적 전통과의 대립 속에서 자신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한다. 상호작용과 지지는 이주자 문화의 안정성과 내구성에도 필수적이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다른 문화 및 그 문화의 관행에 대한 존중과 배치될 수 없다. 문화적 보존은 대화적 과정 속에서 당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역사적 처함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퀘벡의 사례에서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이 시간과 역사의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캐나다 내에서는 퍼스트네이션이 자신의 문화적 권리를 훨씬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들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들을 수용하기 위해 자신의 문화적 전통을 바꿀 수는 없다. 더욱이 이러한 조정을 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이고 오만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퀘벡에 정착한 이주자들은 자신의 종교적·문화적 철학을 따르면서도 이곳에서 일반적인 가치들을 가급적 많이 배려할 필요가 한다.

요컨대, 문화적 인정의 윤리는 소수자와 다수자 집단 사이의 상호 이해와 합리적 수용의 실천을 제고함으로써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와 개인적 자유·평등을 존중할 수 있는 반면 인정의 정치는 이러한 차이들을 강조함으로써 시민들 간의 긴장과 불화, 또 편파화를 조장한다. 이러한 긴장은 많은 서구 국가와 수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이를 “개탄스러운 자들의 저항”이나 “백인의 반격”으로, 또는 “교육받지 못한 제도포비아적 백인들의 반동”으로 일축한다면 잘못된 일이 될 것이다. 논쟁의 정치(politics of contestation)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다문화주의가 약속한 것과는 달리 그들이 보다 공정하고 내구적이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공정은 이주자와 현지인 사이의, 실로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연대와 지원을 요하며 이는 공동 시민권에 관한 쟁점에 대해 각자의 대응을 모색하면서 서로의 관점과 우선과제, 또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될 때에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미래를 함께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문화적 가치를 강조할 자유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오해를 받을 때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이해받기를 바라는 이들에 대해서는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의 문화와 보조를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립보다 이해와 연대를 우선한다면 우리는 분명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열게 되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 결론

과거 수십 년간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많은 실패로 비판받아 왔으며 이러한 비판은 정당하다. 그것은 사회경제적 부정의, 인종적 차별과 지배, 경찰의 폭력과 야만성, 이주자·유색인·소의 공동체의 시민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 온갖 경멸과 증상비방으로 다른 종족과 인종, 문화를 묘사하는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는 히스패닉계 미국인이자라면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말은 공허한 슬로건처럼 들릴 것이다. 세속학교로 알려진 곳에서 터번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10대 시크교도가 축구를 하지 못하거나 히잡 때문에 여성들의 기회가 박탈될 때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한계는 일상적으로 드러난다. 또 이를 통해 부유한 국가에서 소수자들이 직면하는 애로가 부각된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향이 이해가능하고 강력한 데에는 몇 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체성과 인정의 정치 또는 다문화주의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이 글을 통해 나는 권리의 문화적 가치화와 집단별로 차별화된 시민권이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개념적이고 실천적인 수준에서 다른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것은 내적 비밀관성에 빠져 있다. 문화적 권리는 공동체에 특수하며 상이한 공동체들은 상호 모순적인 의무를 가질 수 있다. 또 합리적인 공동의 판단 척도가 부재할 경우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대립하는 신념들이 직접적으로 대결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수용해 일종의 상대주의의 지대에 적용하는 것뿐이다. 아무런 제약 없이 문화적 권리가 지배할 때 표현의 자유는 축소된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문화적 민감성이 없다면 표현의 자유 역시 적대와 공격으로 미끄러지고 진실의 소통과 이해에 대한 욕망이라는 그것의 으뜸가는 목표가 좌절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상호 인정과 존중이며 적절하게 추구할 경우 평등주의적 존엄의 정치는 이를 떠받칠 수 있다. 이주자, 소수집단, 다수자가 다함께 상호 이해와 연대, 올바른 인식의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함축할 수 있는 대립적 정체성과 긴장된 인정의 정치를 피해야 한다. 

〈원문출처〉

이 글은 2022년 5월 20일-21일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에서 주최한 국제학술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식〉에서 발표된 원고 "Immigration and the Ethics of Culture"를 저자의 동의하에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소개〉

**라제쉬 차드라 슈클라 (세인트 폴 대학교)**

라제쉬 C. 슈클라(Rakesh C. Shukla)는 세인트 폴 대학교(Saint Paul University)의 부교수 겸 공공윤리학과(The School of Public Ethics)의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 관심 분야는 도덕과 정치 철학의 교차점, 특히 우정과 정의, 이주와 이민, 윤리, 그리고 공공 정책, 세속주의와 민주적 시민권, 환경윤리 등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라제쉬는 다음과 같은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Annales: Ethics in Economic Life* (2018); *French Journal of Media Research* (2018 & 2016); *Frontiers of Philosophy in China* (2014); *East and West Thought* (2014); *Toronto Slavic Quarterly* (2013); *Contemporary Thought* (2013); *Philosophy, Culture and Tradition* (2013); *Maritain Studies* (2013); and *Existenz* (2011). 각각 2013년에는 저널 *the Journal of Philosophy, Culture and Tradition*, 2018년에는 저널 *French Journal of Media research*의 객원 편집자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구 프로젝트는 이주와 이민이 민주 사회와 복지 국가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와 공공생활(Ethics and Public Life)"에 관한 저서를 편집하고 있으며, 세인트 폴 대학교에서 "윤리와 공공 정책"에 관한 연구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III

이주와 지식, 감정, 물질의 이동

김 지 윤

한성대학교

모빌리티 턴의 가능성

2000년대 중반 이동성(mobility) 중심의 패러다임 등장을 일컫는 '모빌리티 턴(mobility turn)'은 현대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주(dwelling)를 인간의 정상적이며 지배적인 상태로 보던 패러다임에서 사람은 물론 사물, 사상, 문화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동 중이며 이러한 이동성의 시각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철학에서는 고대 로마의 루크레티우스(Lucretius)부터 중세 스피노자(Baruch Spinoza) 그리고 현대의 질 들뢰즈(Gilles Deleuze)에 이르는 다수의 철학자들이 이미 이동성에 기반한 존재론과 인식론적 논의를 전개시켜왔으며<sup>1)</sup>, 이들의 논의가 인류학, 사회학, 지리학 등의 기반에서 모빌리티 담론에 관심을 가져온 학자들(Appadurai, 1986; Clifford, 1997; Urry, 2000; Cresswell, 2006; Sheller and Urry, 2006; Cresswell and Merriman, 2011; Bauman, 2011; Sheller, 2021)에게 상당한 영향<sup>2)</sup>을 주었다. 이동

성에 대한 이해는 공간적 이동과 시간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므로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연구대상일 수밖에 없다.(Cresswell, 2006: 1) 그럼에도 모빌리티 턴 이후, 기존에 각 분과 학문에서 연구되던 이동의 형태나 관련 주제들, 특히 인류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된 이주, 여행, 도시에서 걷기나 다양한 형태의 이동수단을 통한 반복적인 이동, 신체내의 대사 활동, 그리고 사물과 사상의 움직임까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을 가로지르는 이동이 '모빌리티(mobility)'<sup>3)</sup> 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동이나 이동성 대신 영어 단어 mobility의 영어 발음을 그대로 음차한 '모빌리티'가 저술과 연구에 사용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모빌리티 턴의 영향이 확장되고 있다.

모빌리티 턴 이후 모빌리티라는 단어는 21세기 지구화의 모든 흐름을 개념화하는 주요 개념어로 자리 잡고 있다. 존 어리(John Urry)는 '이동적(mobile)'이 가진 여러 의미를 물건과 사람이 지나는 어떤 속성으로서 이동가능하다는 능력, 통제하기 어렵고 무질서해 보인다는 의미에서 폭민(暴民), 상향 혹은 하향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 이주와 같은 장기적이며 지리적인 이동으로 크게 구분한다. 이후 서있기, 빈둥거리기, 걷기, 오르기, 춤추기,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버스,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휠체어, 목발 등)에 의해 강화된 이동의 형태를 망라한다고 설명한다.(존 어리, 2022(2007): 24-26)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방대한 모빌리티의 형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에 어리는 모빌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system)의 검토로 나아간다. 시스템은 특정 모빌리티의 반복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모빌리티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기대 공간"을 창출하게 한다.(ibid., 33)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기술 발전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서 19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국영 우편 시스템, 대중 관광 패키지, 철도 및 항공 시스템과 같은 것들이다. 미미 셸러(Mimi Sheller)는 코로나 이후의 모빌리티에 관한

성찰을 포함한 최근 논의(Sheller, 2021)에서 다양한 이동 형태를 나열하던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의 이동과 대안적 이동의 형태에 논의하면서 이동의 정의(justice)와 윤리적 논의로 담론을 좀 더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다시 강조되듯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이동하는 것 혹은 이동되는 것은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균과 바이러스, 혐오와 같은 정동, 습관이나 가치관 등의 문화와 지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물과 비인간(non-human)적인 것으로 확장<sup>4)</sup>되고 있다.

모빌리티 턴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대부분의 논의는 숫자와 속도로 시작한다. 이주민의 수, 출생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수, 해외 여행객의 증가, 난민의 급증<sup>5)</sup> 등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상당한 수의 인구가 여전히 이러한 이동성의 회로를 따라 이동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정주적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 이주자로서 파악된 3%는 송금경제(remittance economy)와 고국의 정치에 원격적으로 참여하거나 초국가적 이동성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나 도시들을 오가며 문화와 사상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함께 이동시키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7%는 직접적인 이주민이 아니다. 물론 최근 모빌리티 턴이 도시 내 이동성과 세포의 수준에 이르는 미시적 이동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동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주보다 이동이 존재의 근원적인 상태라는 발화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하나의 우산(umbrella)과 같은 개념으로 두었을 때, 여행객과 난민의 이동, 거리 노숙자와 산보자의 이동, 글로벌 엘리트와 기후난민의 이동에 대해 주목하는 우리의 논의는 좀 더 거시적으로 풍성해질 것인가 혹은 농치게 되는 지점들이 증가하게 될까?

최근의 코로나19에 의해 야기된 팬데믹 상황을 전후로 하여 이동성은 본격적으로 윤리적,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동성이 곧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로써 낭만화 되던 자유주의적 논의가 후퇴하고 누군가의 이동성을 제한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정당화되거나 첨예하게 쟁점화되고 있다. 차별화된 이동성이 정치적 입장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더 노골적으로 비판받거나 지지받기도 하는 상황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의 흐름과 노동력으로서의 이주민의 흐름 그리고 미디어에 의해 추동되는 상품으로서의 이미지는 가장 빠르고 무난하게 흐르고 있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글로벌화 된 교통수단과 가속화된 신체의 이동과 함께 단기간에 전 세계로 이동하며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와 혐오의 정서 역시 함께 이동한다. 이동성은 점차 분화되며 이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평가와 태도 역시 다양하게 분화된다. 이동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중립적인 적이 없었으며 어떤 이동이 환영받고 배척되는지, 개인의 젠더, 종족, 연령, 국적 등에 따라 제약의 정도가 달라지며 그 결과 이동성의 보장은 교육, 직업, 여가, 정치 참여에의 소외 정도와 긴밀히 연결된다. 이는 다시 이동의 문화정치학으로도 이어진다. 특정 형태의 이동은 사회에 대한 저항과 위반으로 재현되기도 하고, 개인의 특정 이동성은 개인의 이미지 형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 글은 '모빌리티'라는 우산 개념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자유, 진전, 욕망, 저항, 생기, 자율성과 같은 긍정적 가치와 결합되는 반면, '움직이지 않는' 혹은 '정주<sup>dwelling</sup>'라는 상대 개념이 후퇴 혹은 비생산적이라는 부정적 가치와 결합되는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 이동과 정주를 오가는 다양한 속도와 방향성의 이동을 모두 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려 한다. 난민이나 이주노동자의 이동성은 이동의 권리로써도 중요하지만 '이동하지 않을 권리'로서도 중요하다.

이동의 권리만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라 이동하지 않을, 이동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중요성, 그러므로 정주와 이동 간의 좀 더 유기적인 사고의 가능성 등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이주에 대한 논의들은 가장 생산적인 논점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라는 형태의 이동성이 그 시작과 과정에 있어서 가장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 그리고 이동 이후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동과 정주 사이에 놓이는 그 불안정성 때문에 이동의 다양한 동학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모빌리티 턴 이후 모빌리티 개념이 여러 분과 학문에서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온 다양한 이동의 형태들을 포괄하는 우산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의 네 가지 이동 — 도시 내에서의 걷기, 여행<sup>travel</sup>과 관광<sup>tour</sup>, 사물·정보·지식의 이동, 초국가적 이주<sup>transmigration</sup> — 을 둘러싼 주요 의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주에 관련된 논의가 주는 함의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이동 형태들 간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이주가 다른 형태의 이동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를 포함한 네 가지 이동 형태에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대표성을 지닌 이동의 형태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축적된 논의들이 상대적으로 두텁기 때문이다.

## 다양한 모빌리티의 주요 의제들

기본적인 인간의 신체체를 통한 이동에서부터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확장되기 시작한 이동, 그리고 이러한 신체와 함께 이동하는 사물·정보·지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동의 형태들은 인류학, 사회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과 학문에서 서로 다른 주제나 개념 아래 논의되어 왔다. 모빌리티 터 이후 흩어져 있던 다양한 이동의 형태들이 모빌리티라는 개념 아래 모빌리티 담론의 장 안에서 다시 주목받거나 다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양한 이동성이 소환되면서 논의의 지속성을 얻게 되는 지점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할 것이며 오히려 다양한 이동의 형태를 가로질러 근본적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 1. 도시에서의 걷기(urban mobility)와 이동의 주체성

사건(events)과 장소성에 주목해 온 기존의 연구에서 '걷기'는 과정으로서 흔히 삭제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의 일부로서 특별할 것 없는 행위로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도시인류학과 도시사회학에서 '걷기'는 도시 관찰의 방법이자 그 자체가 관찰의 주요 대상으로서 주목받아왔다. '걷기'의 주요한 형상은 19세기 파리와 같은 모더니티의 도시에 도래한 산보자(flâneur)에서 시작되었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산보자는 19세기 산업화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유형의 인물로 공장에서 벗어나 노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르주아 지식인이다. 보들레르처럼 도시의 예술적 감성에 빠지거나 산업화시대 노동과 상품 생산의 속도에서 비껴나가 목적 없이 빈둥거리며 걷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 유행, 건축물 등 현대 대도시의 상품물신성에 매혹되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것과 낡은 것에 대해 관찰하고 기록했던 인물이다.(Benjamin, 1976).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의 흔적을 찾아 현대 사회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하는 고고학자와 같은 인물이다. 산보자의 이미지는 도시의 인류학자나 사회학자 혹은 역사학자나 문학과와 같이 걷기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시공간을 관찰하는 이들에게 성찰적 이미지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이 걷기의 이동성이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담보하고 있지는 않다. 미셸 드 세르트(Michel de Certeau)에게 이르러 걷는 행위 자체는 그 정치적 가능성으로까지 나아간다. 걷는다는 것은 개인의 발화행위(speech act)와 같다. 구어에서는 문법에 어긋나더라도 다양한 언어의 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걷는다는 것은 주어진 길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우회로를 택하거나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는 일종의 전술(tactics)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 이러한 행위는 공간적인 전용을 통해 권력이 만들어낸 도시의 구조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한 저항, 혹은 전복적인 창조적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Certeau, 1984). 이는 거대 도시의 마천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현실에 참여하지 않고 관조하는 듯한 전지적 관찰자의 시선과 대비되어 현실에 기반한 실천으로서의 '걷기'의 가능성을 열어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도시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스마트시티(Smart Cities)와 이와 관련한 연구들에서 도시 내 걷기라는 행위는 저항성은 물론 그 개별 주체의 주체성마저 약화되고 있다. 스마트 시티에서 개인의 이동은 그 방향과 속도 등이 중요한 감지(sensing)의 대상이자 분석되어야 할 데이터로서 존재한다. 도시에 집중된 센서들은 개별 주체의 이동의 목적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감지하기 어려우며 주로 군중의 이동의 크기, 방향, 속도 등이 주요 초점이 된다. 집단적 이동의 파악과 예측을 위한 디지털 센서 및 카메라 등의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화가 중요해진다. 개별 시민 주체의 걷기는 관찰자의 시선을

답보하기보다는 전지적 시점에서 내려다 본 집합적 데이터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시민들의 이동과 사회적 참여는 데이터화되고 집단화되어 정부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대쉬보드(dash board)에서 독해되어야 한다(Barns, 2018; Kitchin & McArdle, 2016).

벤야민과 세르토의 걷기에 대한 분석은 거대 도시의 출현과 성장의 과정에서 새로운 공간 조직에 적응하거나 저항하는 신체의 특별한 문화적 배치(cultural assemblages)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넘어 구체적 근거 없이 걷기에 저항적 의미를 부과한 것은 걷기에 대한 지나친 낭만화 혹은 긍정적 해석이라는 비판(Morris, 2004: 678-686)도 있다. 가령 출퇴근 하는 직장인과 관광객의 쇼핑을 위한 이동은 어떤 면에서 저항과 순응 사이에 있는가라는 문제 등이 제기된다. 또한 벤야민과 보들레르가 언급한 산보자는 부르주아 백인 남성 관찰자로서 노동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누군가를 관찰할 수 있는 특권적 인물이었다. 이러한 인물에 비해 현대 글로벌 도시에서 단속을 피하고 잠시라도 피난처를 발견하기 위한 비자발적 이동을 멈출 수 없는 노숙인의 이동성(Jackson, 2012)은 관찰자로서의 시선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가? 모빌리티 턴 이후 다수의 연구들이 도시에서의 이동성을 언급하여 주목하는 것은 이동의 불평등과 주체성의 문제이다. 현대 도시에서 이동의 수단과 조건이 젠더, 인종, 장애,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정치 참여에의 정도 등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음을 모빌리티 연구에서도 주요 논의로 드러내고 있다(존 아리, 2022; Sheller, 2021). 이동에 대한 문화정치학에서는 오토바이, 스케이트 보드, 파쿠르(parkour), 클라이밍 등의 특정 이동 형태를 주류 권력에 대한 저항적 이미지나 공동체의 미학을 재현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Jaffe & de Koning, 2022). 도시 내에서의 걷기 혹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의해 변화하는 개인의 이동성이 스마트도시 연구에서 집단화, 단순화, 데이터화되는 가운데, 물론 걷기에 대한 지나친 낭만화는

경계되어야겠지만, 가장 기본적이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이동의 형태로서의 '걷기'의 주체성은 모빌리티의 여러 이동 형태를 가로지르며 제기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

## 2. 잉여가 아닌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여행

근대 대중 관광산업을 시작한 토마스 쿡(Thomas Cook)은 1854년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 변화의 시대에 그대로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범죄일 것이다. 여행 만세-값싸고 값싼 여행!”(Brendon, 1991:65)이라고 외쳤다. 관광학(tourism studies) 혹은 여가학(leisure studies)에서 여행은 근대 대중 관광산업이 본격화되기 이전 인류의 이동 그 자체와 동일시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이동성을 보여준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 올림픽이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혹은 신약을 받기 위해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도시 국가로 이동하거나 전쟁에 동원되거나 무역 거래를 위해, 그리고 부유한 로마의 귀족들이 나폴리와 같은 해안이나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자연으로 떠났던 여행(Andrew, 2005) 등이 그러하다. 중세의 종교순례, 르네상스 시대에 영국의 귀족 자제들이 성년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서 이탈리아 등으로 고전 문명을 배우기 위해 떠났던 그랜드 투어(the Grand Tour),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화에 대한 반감과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 길들여지지 않은 스코틀랜드의 고지대인 하이랜드(Highlands)나 알프스의 산악 지대로 떠났던 귀족과 예술가들의 모험적 혹은 여가형 여행, 토마스 쿡이 런던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대중계몽을 목적으로 단체관광을 기획하며 기차를 전세 내어 시작한 관광 상품, 그리고 토마스 쿡의 단체관광이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지들로 크루즈와 기차 그리고 간혹 비행기를 통해 유럽인들을 관광에 참여시켰던 모든 경로가 현재까지 주요 여행의 경로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여행<sup>travel</sup> 혹은 관광<sup>tour</sup>이란 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통신과 교통의 발달과 여가 시간 및 소득 증가에 의해 현재의 산업화된 형태로 발전(Andrew, 2005)했다. 낭만적 시각에서 여행이란 세계에 대한 태도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Franklin, 2003: 33) 그 자체이다. 계몽적 시각은 여행을 현대 사회에서 개인들이 상실한 자연이나 자아의 진정한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숭고함<sup>sublime</sup>과 진정성<sup>authenticity</sup>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MacCannell, 1973)로 본다. 비록 현대 여행에서 경험하는 원주민의 공연, 기념품, 다양성과의 조우 등이 대부분 '꾸며진'<sup>staged</sup> 공연과 같아서 진정성에 대한 추구는 계속 좌절되더라도 말이다.

2020년의 전 세계적 팬데믹 국면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 교육, 친교 등 다양한 이유로 이동 중이었고 그 규모는 매년 예측을 상회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행은 이주나 난민의 이동과는 차별되는 소비의 영역으로서 곧 필수적이지 않고 절박하지 않은 '잉여'의 이동으로 취급되어 왔다(Larsen et al., 2006). 초기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서부터 여행은 소수의 특권층에게나 가능한 사치스러운 행위로 여겨졌고, 여행지에서의 음주가무 등 '일탈적' 행위는 비판받아 왔다. 그랜드투어에 참여한 명문가의 자제들 역시 교육 목적이라는 허울 아래 향락과 일탈을 즐기는 퇴폐적인 무리로서 비난받아 왔다. 토마스 쿡에 의해 단체 관광이 가능해진 이후에 비난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 단체 관광에 참여하는 이들은 저렴한 금액으로 취향 없이 가이드의 지시를 따르는 '무뢰한 집단 hordes'으로 그려지곤 했다. 현대 관광산업 역시 현지의 생태계와 문화를 착취하고 파괴함으로써 제1세계 중산층의 여가를 가능하게 하는 식민경제<sup>colonial economy</sup>적 측면이 비판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윤리적 혹은 지속가능한 여행이 등장했지만 이들 역시 상품화되면서 여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멈춘 적이 없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개인은 일상과 노동의 반복에서 벗어나 가장 원하는 여가 활동으로 여행을

뽑지만, 동시에 여행은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여행이라는 이동이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닌 '잉여적' 활동으로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행의 일회적이며 소비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재생산의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Larsen et al., 2006)는 여행의 이동성을 재정의하고 있다. 여행에 대한 낭만화 된 시각이 여행의 동기에 대해 "타자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거대하고 보편적인 욕구" 혹은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탐구나 긴 여정"(McKean, 1977)으로서 이해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해외나 멀리 떨어진 곳에 다양한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친구를 방문<sup>VFR, 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sup>하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나 친지 등 나에게 '유의미한 타자들'<sup>significant others</sup>이 이미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반복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기 위한 이동이 곧 여행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은 기존의 관광객들처럼 낯선 곳을 향하는 일회성의 이동, 새로운 경험과 문화 혹은 상품을 위한 소비가 중심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의 결혼, 출산, 졸업, 장례 등 중요한 의례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일상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재방문으로서 정주, 이주, 기존의 여행과 차별화된다. 여행과 정주 사이를 오가는<sup>dwelling-in-travelling</sup> 이동의 혼성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여행에서 여행객은 더 이상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수행성<sup>performance</sup>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여행은 결코 멈춘 적이 없었는데, 비록 이것이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 행위이든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것이든 가장 개별적이면서도 잉여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필수적일 수도 있는 것이 여행이라는 이동성이 가진 모순적 본질일 수 있다.

### 3. 사물·정보·지식의 모빌리티

사물, 지식과 개념, 기호와 이미지, 그리고 욕망과 같은 유무형의 비인간(non-human) 존재들도 모빌리티 논의에서 점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기존의 유물론적 논의에서 사물들의 이동은 이동하는 인간과 함께 부수적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이동하는 인간의 신체에 각인되거나 정신에 학습된 지식과 문화와 같은 비물질적 요소들은 인류의 장기적 이동과 이주의 경로를 따라 함께 이동해왔다. 새로운 객체지향 존재론 Object-oriented ontology은 이러한 인간의 주체성에 부수적으로 객체화된 지식, 상상, 개념, 사물, 습관들이 이동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 특히 사물에 초점을 맞추어 사물 자체의 독자적 역능을 통해 이동하며, 심지어 그 이동성은 때때로 혹은 영원히 인간에게 인지되지 않을 것이기도 하다. 인간과 비인간 모두 동일하게 일종의 기계들로서 기계들의 다양한 회집(assemblages)을 통해 창발하는 것이다.<sup>(제인 베타 2020[2010]: Bogost, 2012; 레비 R. 브라이언트, 2020)</sup>. 이러한 논의는 사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도 이동성의 주체로 상정하며 모빌리티 논의를 풍성하게 하였고, 정주가 가지고 있던 정상성의 지배적 위치를 해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정보와 지식 역시 근대화를 통해 식민지로 확산되거나 기호와 이미지의 경제는 미디어 산업이라는 테크놀로지를 통해 확산되며, 상상력을 추동시키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욕망이 실제 관광과 소비를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미디어경관 mediascape과 에스노경관 ethnoscape을 긴밀히 연결시켰던 인류학자 아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의 논의는 욕망과 상상이 어떻게 물리적 이동성을 수반하거나 이를 추동시키는지 분석(1996)하였다. 전통적으로 사물과 정보 그리고 지식의 이동은 문화의 전파와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제1세계에서 제3세계로의 일방적인 이동으로 분석되었지만 모빌리티 담론에서 이러한 현상은 좀 더 역동적으로 다양한 이동의 경로를 보여준다.

사물의 이동성은 주로 교환이나 소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본주의 등장 이후 상품과 기호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문화적, 상징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상품의 이동이 어떻게 유행(fashion), 사치규제법, 문화적 터부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규제되거나 확산되는지 분석한 아파두라이(Appadurai, 1986)는 선물 경제의 논의를 자본주의 경제에 더 확장시켜 상품의 교환 자체가 상품의 가치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품의 이동은 사회적으로 의미화되고 해석된다. 1960년대 이후 상품뿐만 아니라 원자재 등의 전 세계적 이동이 급증하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더 빨리 더 많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탈영토적 순환을 위해 등장한 로지스틱스(logistics)의 분석도 모빌리티 턴 이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유통학이나 경제학에서 효율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되던 로지스틱스는 지구적 규모로 자본주의적 생산과 유통의 지리를 개조한 시공간 압축 과정의 결정적 구조(데보라 코엔 2017[2014])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의 경계마저도 약화시킨 '흠 없는(seamless)' 항로와 관문들, 컨테이너의 규격화, 관련 노동자들의 신체와 움직임에 대한 폭력적 관리, 물류에 특화되어 설계된 '로지스틱스 도시(logistics city)' 내에서의 빠른 상품 순환을 위한 군사적·식민적 유통 구조에 대한 분석은 물류의 전 세계적 이동이 노동의 형태와 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윤리적 측면에 대해 주목한다.<sup>8)</sup>

비인간 존재로서 사물뿐만 아니라 사상과 개념의 이동도 빼놓을 수 없다. 하이케 욘스(Heike Jöns)와 공저자들은 존 어리와 같은 모빌리티 연구를 오래 수행한 학자들이 여전히 물리적, 육체적 이동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지식과 정보의 이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음을 강조(Jöns et al., 2017)한다. 여기서 지식(knowledge)은 사회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으로서의 문서, 청사진,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적 지식이 아니라 타인과 소통되며 단순한 정보 이상으로 시간을 두고

축적되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 (ibid., 5)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의 성질은 공간적 집중도와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비밀스럽고 중요한 지식일수록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누구나 쉽게 습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sup>information</sup> 수준의 지식은 공간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가령, 은밀하게 전수 되어 내려오는 특수한 지식이나 대학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 등은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지식 자체보다는 이를 전파하고 수용하는 이들의 공간적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별 주체를 이동시킨다. 글로벌 도시에서 '엑스팻<sup>expats</sup>'이라 불리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동을 통한 기업 지식의 이동, 선진국을 향한 유학생들이나 과거 식민지배 국가로 이동하는 대학 시스템을 통한 교육 내용의 이동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무형의 지식일지라도 지역이나 영토성에 기반한 지식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의 낮은 이동성은 이를 추구하는 인간의 이동을 오히려 추동시킨다. 물론 이 외에도 지식의 전파자와 수용자의 이해도, 학습 및 전수의 능력 정도 등도 지식이나 사상의 이동성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지식과 사상의 흐름에 있어서 공간성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정보화 시대에 단순한 정보와 이미지의 흐름과 수용은 정보 네트워크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인프라를 통해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거리의 소멸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면담이 매개되어야 하는 중요한 지식과 사상의 이동에는 인간의 신체와 이들의 회집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적 요소가 필수적이다.<sup>9)</sup> 신체의 교류를 수반한 지식의 흐름은 지식 거점의 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지식 전파 역시 중요하게 독일, 영국, 미국 등으로 향하는 나이지리아 대학 졸업생들의 초국적 이주 경험을 분석한 멜라니 음바<sup>Melanie Mbaha</sup>는 교육과 이주 그리고 사회적 통합의 세 가지 연결고리에

주목한다. 음바는 이주를 초기 형태의 유목민, 영국의 식민지 정책, 전후 중등학교 졸업생의 과잉과 관련된 나이지리아 문화의 오랜 특징으로 파악하고 지식에 대한 욕구를 이주와 이후 수용 사회로의 사회적 동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자극제로 보았다<sup>(Mbaha, 2017)</sup>.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 제국의 중심지로 향했던 조선 유학생들의 다양한 이동성, 그리고 그들이 체득하여 이동시킨 지식이 어떻게 '조국' 근대화의 물질화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사례들과 유사하다. 중요한 지식의 흐름은 식민지배 기간 그리고 탈식민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한 정보보다는 지속적이며 가치 있는 지식의 흐름은 역사적으로 수용사회와 송출사회 간의 반복적인 흐름을 통해 순환하면서 새로운 지위나 정체성의 획득, 근대성의 물질화 등으로 발현되었다.

비인간적 존재로서 사물·정보·지식 등의 이동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혹은 새로운 이동성의 발현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에 모빌리티의 프레임 내에서 사고되지 않았던 현상들이 점차 모빌리티 담론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일방적인 문화의 전파와 수용이 아닌 다양한 방향성과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가진 여러 형태의 이동성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일상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 4. 이주의 모빌리티

이주의 전지구화, 가속화, 차별화 (노동이주, 난민이주, 영주 이주 등 여러 유형의 이주가 동시 발생), 이주의 여성화, 정치화<sup>(Castles et al., 2014)</sup> 등이 발생시키는 새로운 문제들은 전지구적 거버넌스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 국민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 절대적 환대의 가능성<sup>(Derrida, 2000)</sup>,

시민권 재정의 필요성,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의 후퇴와 문화적 동화에 대한 요구 등으로 이어진다. 이제 이주는 전 지구적 변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이주자의 경제적 송금은 단순한 자본의 이동이 아니라 이주의 흐름과 반대의 '조용한 역류'로서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GDP 대비 자국 이주자들의 송금의 규모가 큰 사회에 새로운 문화적 경관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소비 수요와 고용을 창출하기도 하며, 사회적 송금(Levitt, 1995)으로서 이민 수용 사회에서 송출국 사회로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체성, 사회적 행위를 형성하게 하는 사회자본이 되기도 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량 이주의 시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 국가들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초국가적 이동을 둘러싼 국가의 통제력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장벽을 설치하고 이주의 차별화를 통해 사람들의 충성심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개인들은 정치적 불안정성, 내전의 확산, 인구 압력, 급격한 기후 변동, 종족 갈등, 고용기회 부족에 따른 더 나은 경제적 기회의 모색, 새로운 교육 기회의 탐색, 문화적 상상력의 욕망 충족 등 다양한 이유에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증가한 초국가적 이주(transnational migration)의 증가는 국민 국가의 정체성이 더 이상 영토적 구분에 의해 쉽게 결정되지 않고 국경의 경계들마저 프랙탈적(fractal)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국경은 더 이상 고정적이지 않으며 퍼포먼스 즉, 개인의 행위들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국경을 넘어 '비합법적인' 이주 노동을 수행하는 계절 노동자(seasonal migrant workers), 복수의 국적 혹은 시민권을 의미하는 "유연한 시민권"(flexible citizenship(Ong, 1999))을 가진 이주민들, 더 이상 수용국가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시민권 인정을 요청하지 않고 "영구적인 일시성(permanent temporariness)(Stevens, 2019)에 기반하여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9.11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이민과 난민의 흐름이 주로 향하는 국가들이 인권과 안보의 두 축 중에 국가의 안보를 강조하면서 이주의 문제를 안보문제화(securitization(김현정·문보경, 2016))하기 시작하면서 이주는 급격히 인권의 문제에서 안보의 문제로 이행하기 시작한다. 이주의 안보문제화는 실제 위협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대상이나 시안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주 수용사회가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민자, 난민, 외국인, 성적 소수자 등을 위협적 존재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능해진다(Waever, 1995). 이주의 문제가 안보문제화 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과거 그들의 장기적 식민통치가 초래한 원주민의 강제 이주와 학살이라는 과거와 맞닿아 있다. 탈식민 이후 발생한 역이주에서 이주자들은 다시 빈곤, 폭력, 인권의 부재 상황에 놓이게 된다. 프랑스 내 알제리 이민자들, 미국 내 아랍계 이민자들, 독일 내의 쿠르드족 터키인들, 유럽 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과 이민자들은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이후 핵심적인 안보 위협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감시의 대상이 되어 경찰과 대치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거나, 교외에서의 공간적·경제적 고립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주민의 이동성은 이주 수용국가에 정착한 이후에 오히려 경제적, 문화적으로 제한되거나 규제되고 있다(Castles et al., 2014).

한국에서는 현실에서 이주민에 의한 위협의 정도가 크게 부풀려지거나,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이주민의 존재가 긴급히 요청되는 가운데에서도 이주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에서 사회적 위협으로서의 난민과 망명자에 대한 논의가 지난 몇 년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2018년 제주도를 통한 예멘인들의 입국을 둘러싸고 촉발되었다. 이미 한국 정부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인과 근본주의 기독교의

신인종주의 그리고 일부 청년과 여성들의 각각 일자리와 성범죄에 대한 잠재적 불안이 “감정적으로 연합”(김현미, 2018)하여 이들을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치안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난민과 이주민의 흐름이 주류 사회에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모빌리티가 그러는 궤적을 추적하고 그 규모를 예상하여 국경을 개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모의 문제’를 벗어난 지 오래이다. 절대적 환대를 둘러싼 논의들, 국제적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주의적 상상”을 넘어서는 탈국가적 윤리(ethics of post-sovereignty(이병하, 2017)에의 적극적인 논의와 새로운 상상이 요구된다. 이렇게 이주는 모빌리티의 형태 중에서도 거주와 이동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공존하며, 시민권, 국경과 영토의 문제, 환대의 문제, 문화적 동화와 차별, 가족 이주를 둘러싼 정동의 문제 등 모빌리티 이론에서 지속적으로 고찰해야 할 문제들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이주의 이동성은 가장 침예하게 정치적이자 윤리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이주의 모빌리티를 둘러싼 윤리적 질문

앞에서 살펴본 모빌리티 턴을 전후로 그 이전에는 각각 다른 분과학 분야에서 논의되던 다양한 형태의 이동성들이 모빌리티라는 주요 개념 아래 집중되며 동시에 다시 분화되고 있다. 이는 존 어리와 미미 셸러 등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분야로서 모빌리티학(mobility scholarship)을 확립하려는 이들의 학문적 기획과 실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에서의 이동처럼 반복적이고 단순한 경계에서부터 초국가적 이주의 흐름처럼 정체성과 정주의 물음으로까지 나아가는 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동성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찰해야 할 논의는 무엇인지, 모빌리티에 대한 논의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선 모빌리티 담론에서 가장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지점은 이동의 윤리적<sup>10)</sup> 측면에 대한 성찰 가능성이다. 2000년대 초반 홍콩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사스(SARS) 감염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세계 각 국가의 정부들은 질병이 ‘미개한’ 누군가의 열악한 위생 관념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세계 곳곳으로 하이퍼모빌리티(hyper-mobility)를 지닌 이들과 함께 이동 혹은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항공 여행은 엄격히 규제되기 시작했고 거대한 유람선(cruise ships)은 갑자기 바다 한 가운데 마치 난민선(refugee ships)처럼 고립되었다. 여행이라는 모빌리티는 필수적이지 않은 ‘잉여’의 이동이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적 행위로서 강하게 비난받았다. 여행에 대한 윤리적 잣대는 앞에서 언급했듯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서구인들의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과거 식민지배 국가로의 여행이 가진 착취적인 식민경제적 성격의 관광은 웰러가 경제적 상위 계층의 글로벌 엘리트들이 팬데믹 시기에 보여준 “공포에 질린 도피(panic fleeing”(Sheller, 2021: 60)를 윤리적으로 비판할 때 다시 소환된다. 웰러는 감염의 위험을 피해 대도시를 떠나 자신들의 요새와 같은 별장으로 여행과 크게 구분되지 않을 피난을 가면서도 지역 노동자들의 서비스를 의존하고 지역의 음식이나 의료 자원 등을 요구하면서 타인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글로벌 엘리트들의 모빌리티에 대한 윤리적 잣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누군가의 여행이나 이동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팬데믹의 우려 속에서 누군가의 이동을 ‘사사로운’ 여행으로 바라보았을 때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자율성 혹은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동이라면 그 윤리적 판단은 절대적일 수 없을 것이다. 상품의 로지스틱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물류 노동자들의 신체를 훼손하고 착취하는 것에 대해 비판받지만 동시에 팬데믹 상황에서 일상의 유지를 가능하게 한 상당부분은 이 로지스틱스의 흐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상황 혹은 이주의 안보화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동성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들이 증가하고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이동의 불평등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이동 관련 시스템의 지속불가능성에 도전하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논의(Sheller, 2021: 101-104)는 이동의 정치학을 통해 이동에 대한 과감한 윤리적, 정치적 판단을 내리려 한다. 셸러의 최근 논의가 지속가능한 이동을 위해서 이동성 높은 엘리트들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에너지 소비적인 여행과 소비를 정부가 점검(ibid., 122)해야 한다고 마무리되는 것은 이러한 판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이동을 단순히 그들의 계층에 기반하여 윤리적으로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다음으로, 이주 연구에서 주목해 온 환대의 문제, 칸트의 세계시민적 권리, 이방인을 둘러싼 주체와 타자성의 문제에 대해 모빌리티 논의는 어떠한 윤리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생리적 유물론이나 객체지향적 존재론의 경우 주체와 객체의 구분은 거의 무의미하며 행위소라는 지점은 일견 해방적 시점을 제시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타자에 대한 절대적 환대가 불가능한 그 똑같은 이유로 선언적 담론 혹은 사변적 논의를 현실 정치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의 모빌리티는 이동성 중심의 철학적 논의(1)에서 형태적으로는 잘 설명될 수 있겠지만 특정 모빌리티의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 맥락이 쉽게 지워질 경우 이는 그저 '편평한flat' 여러 모빌리티 중에 하나의 사례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130여년의 프랑스 식민통치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1995년 파리 지역의 연쇄 폭발 테러는 이해될 수 없고 스페인의 필리핀 식민 지배에 대한 이해 없이 21세기 스페인의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초국가적 이동을 이해할 수 없다. 모빌리티 담론은 이주의 이동성이 복잡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잘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공간적 스케일이 중요하기보다 복잡한 이주의 모빌리티가 보여주는 초국가적 성격은 흔히 모빌리티 담론의 중요성을 설득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주의 경로와 그 물리적 복합성에 대한 설명력 자체는 이러한 초국가적 이주가 야기하는 질적인 문제에 대한 윤리적 대답을 해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동의 경로와 주요 노드를 따라 흐르는 상품, 지식, 사람, 정동의 흐름에 대한 낭만화 혹은 기계적 모델화는 이 모든 이동의 형태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윤리적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 이동과 정주 사이의 모빌리티 담론에 대하여

이동의 문제는 이동성 못지않게 정주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러 이동 형태들의 구분보다는 이형heteromorphic의 이동을 가로지르는 이동과 정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더 긴박할 수 있다. 모빌리티 턴에 의해 인류의 기본적인 모드가 정주가 아닌 이동이라면, 모든 것이 이동 중이고 언제나 이동 중 이라면 정주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앞에서도 보았지만 다양한 이동성 간의 경계는 여행과 이주 간의 관계처럼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 여행을 시작으로 혹은 여행을 '가장한' 이동이 이주민 혹은 난민의 이동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여행과 이주 노동자들의 경로 그리고 난민의 경로는 공항이나 해변 도심에서 겹쳐지기도 한다.

물론 그 이동의 강도와 목적 및 내용은 어느 시점에서 상이하게 달라지거나 결코 쉽게 결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의 이동성을 정주성으로 인식하거나 정주하기 위해 이동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정주의 의미는 중요하다. 정주의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짧은 글 “Building Dwelling Thinking”(2012[1971])은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방의 자연과 소통하며 자신의 정주, 존재함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잘 정주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이는 은유적 표현일지라도 집을 짓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확실히 모빌리티 턴 이전 정주 중심의 사고에 맞닿아 있다.

문화인류자인 제임스 클리포드James Clifford의 논의는 이 지점에서 유용할 수 있겠다. 그의 책 Routes(1997)의 시작은 영국에서 교육받은 인도인 인류학자가 이집트의 현장연구에서 마주하게 된 우화 같은 일화로 시작한다. 이집트의 한 마을에 도착한 인도인 인류학자는 자신의 메트로폴리탄적 배경과 대비되는 ‘전통적인’ 마을에서 ‘순수한’ 정주의 방식으로 살아 온 주민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마을의 모든 남성들은 비행기를 통해 누구보다 바쁘게 이동 중이거나 이동의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유일하게 그 마을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노인과 만난다. 자발적 정주를 선택한 그 노인의 정주는 이동하는 다른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후퇴하거나 마을에 고립된 상태라기보다 이동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항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정주와 이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실존적으로 정주를 통해 이동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 혹은 이동성을 통해 정주에 대해 고찰하는 것의 필요성을 그는 “정주 중의 이동traveling-in-dwelling” 혹은 “이동 중의 정주dwelling-in-traveling”(1997: 36)로 표현했다. 1990년대부터 문화라는 것이 더 이상 고정된 지역에서 토착화되고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동 중인 사람과 사상과 물질 등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여행하는 문화traveling cultures”에 대한 인식이 등장했다. 지역성에 기반한 에스노그라피ethnography를 수행해 온 인류학자들은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학문적 정당성의 위기에 빠지기보다 정주와 이동 간의 이분법을 해체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여행travel’으로 표현된 인류학자의 이동은 자신의 목적을 좇아 자발적으로 집을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지금이라면 이를 ‘모빌리티’로 개념화할 수도 있겠지만, 클리포드는 이러한 이동을 여행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이동과 문화적 조우cultural contact로서의 인류학의 필드워크fieldwork을 강조하고 전체 이동의 경로paths를 그려내는 것에 주목하였다. 20세기 인류학의 시작이 유럽의 식민지배에 합류하여 물질적, 정신적, 과학적 목적을 위해 공간적으로 이동함으로써 가능했고 지배적으로 서구, 남성, 지식인 혹은 상위계층의 전유물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인류학자의 통과외례와 같은 필드워크는 전통적으로 자신의 연구 대상을 하나의 정해진 문화적 구성체로 파악하고 그 고정된 지역에서 얼마나 잘 거주하는가dwelling로 결정되었다. 인류학자는 흔히 자신의 연구대상인 필드를 단일한 문화의 담지자로 혼동했고, 자신의 연구를 연구자가 그 지역의 언어와 관습 등을 잘 배우는 정주에 기반한 필드워크 이후 이를 담론적으로 구성해내는 담론적 실천의 완결로 이해해 왔다(ibid., 22). 여기서 잘 정주하는 것은 통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말하고 듣기 위한 ‘진실된’ 소통 능력과 장기간의 관찰을 위한 거주를 의미하는데 그 지역의 문화가 그 언어와 등치된다는 오류, 그리고 자신의 연구대상은 이동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오류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필드에서 수행하게 되는 에스노그라피는 그래서 여행보다는 잘 머무는 것에 특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행하는 신체로서의 인류학자의 이동은 지워지거나 무시되었다.

탈식민 시기에 그러나 인류학자가 우월한 관찰자로서 지역과 그 지역

에 고정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문화를 관찰하고 기록한다는 가정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인류학자의 전통적 의미의 현장연구 역시 그 가 아무리 관찰 대상자의 언어를 학습하고 장기간 그들의 장소에 머문다고 획득되지 않는다. 더 이상 지역에 고정되어 변화하지 않는 고유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가정, 긴 시간 동안 잘 거주dwelling함으로써 그 문화에 대한 전체적이며 완결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그 문화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확보된다는 가정 모두가 허물어지고 있다. 관찰 대상과 문화 역시 관찰자만큼 이동 중이기 때문이다. 관찰자와 그 대상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재협상되는 것이며 기록의 주제 역시 점점 더 관찰자로서의 인류학자뿐만 아니라 관찰대상이 주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어떤 근원roots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동의 경로routes를 연구하는 것이며 그 경로에는 이동과 정주 간의 복합적인 관계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인류학자의 잘 머물기를 도와주는 정보제공자인 인포먼트informants는 단순히 그 지역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들도 이동하며 복잡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여기서 여행의 비유를 통해 모두가 여행가라거나 이동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주와 이동 간의 역동적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쟁점이며 이러한 논의로부터 모빌리티 담론 역시 이동을 강조하면서도 다양한 이동성이 어떤 다른 방식의 정주를 생성하는데 관여하는지, 이동과 정주 사이에 발생하는 끊임없는 재협상과 상호정의를 관계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행과 이주의 경계, 이주민과 난민의 경계, 사물과 사상의 양방향적인 이동, 걷기라는 일상적 이동의 정치적 가능성 등이 모빌리티라는 담론의 영향 아래 지속적으로 소환되고 재논의 됨으로써 이를 단일한 모빌리티의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윤리적, 정치적 질문의 대상으로 구성해낼 때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원문출처〉

이 글은 다음 논문을 수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지윤, 「모빌리티 턴과 이주의 윤리학」 『담론201』 26(2), 한국사회역사학회, 2023.

〈저자소개〉

**김지윤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김지윤은 현재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입니다. 연세대 문화학과에서 문화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싱가포르 국립대학)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SUTD)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친 후 한성대 인문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으로서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에서 이주와 도시공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대한 박사 학위 논문에서 타자성과 공간의 관계를 연구한 이후, 다문화주의와 도시, 고령화와 글로벌 도시, 아시아 도시 간 비교 연구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부  
문학을 통한 전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탐구



IV

네그리튀드의 미그리튀드 후예들:  
샤일자 파텔의 『미그리튀드』와  
나디파 모하메드의 『모레바람을 걷는 소년』

펠라 베나베드 Fella Benabed

밋지모크타르-안나바대학교 Badji Mokhtar-Annaba University

이주가 먼 과거로부터 내려온 아프리카인들의 속성인 반면 미그리튀드(Migritude)는 현대 작가들이 전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학 행동주의를 가리킨다. 미그리튀드 작가들은 여성주의와 반제국주의의 관점으로 세계화 하에서 아프리카 이주자들이 살아가는 조건을 묘사한다. 나는 탈식민주의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샤일자 파텔(Shailja Patel)의 『미그리튀드(Migritude)』와 나디파 모하메드(Nadifa Mohamed)의 『모레바람을 걷는 소년(Black Mamba Boy)(2010)』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그리튀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학 행동주의를 보여주고자 한다.

## 탈식민주의 텍스트 분석

이 글은 선정된 문학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용, 작성/제작의 맥락, 해석/수용의 맥락, 구조와 문체를 연구하는 텍스트 분석(Herlihy & Johnson, 7)에 의지한다. 이 글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선정된 문학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탈)식민 이주의 사회문화적·역사적·정치적 토대를 다루는 탈식민주의의 관점을 텍스트 분석에 수반되는 이론틀로 채택할 것이다. 정의상 탈식민주의는 “이주, 노예제, 억압, 저항, 표상, 차이, 인종, 젠더, 장소, 제국 유럽의 영향력 있는 지배 서사에 대한 대응”(Ashcroft et al., 2) 등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계화 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을 포괄한다. 젊은 세대의 아프로폴리탄(Afropolitan(African+ cosmopolitan)) 작가들로서 파텔과 모하메드는 이주, 차이, 저항이라는 탈식민적 주제를 다루는 가운데 빈번히 이주자를 경멸적으로 표상하는 제국적 담화를 다시 쓰려고 시도한다.

식민주의와 이주의 직접적 관계는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식민주의는 사람들과 노예, 또 계약노동자(indentured worker)의 이동을 증가시켰다. 식민주의 종식 이후 각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전 세계 이주민의 상당수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조국을 떠나 식민주의의 중심 국가들이었던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역식민화”(Bennett-Coverly 106-107)나 “식민주의의 부메랑”(Mifflin 464)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이들 이주자들은 억압의 식민적 유산뿐만 아니라 오늘날 정치적 결정에 대한 서구의 개입과 천연자원의 지속적 착취에 의해서도 초래되는 고난을 공유한다.

그 부리가 식민 역사로까지 뻗어 있는 세계화의 맥락에서 이주자의 상황은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살아가며 주류로부터 주변화되기 때문이다. 이주자에 대한 인종화된 담화는 19세기의 백인 남성의 짐(White Man's Burden) 이데올로기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식민화된/이주자 타자는 미개하여 동화될 수 없는 자들로 나타난다. 많은 호평을 받은 『오리엔탈리즘』(1978)에서 유명한 탈식민주의 비평가 에드워드 사이드는 서구의 응시가 나머지 세계를 표상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타자화(Othering)”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상호 오해의 커다란 분열 속에서 현실이 다르게 인식되고 표현되며 경험되는 세계를”, ‘타자’가 자세히 알려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는 노력도 거의 쏟지 않는 세계를 “갖게 되었다”(Sardar vii). 알고 있다는 허울은 종종 권력을 기반으로 “우리”와 “그들”의 이항대립을 낳는 스테레오타입에 의존한다.

때로 이주자들은 주로 미디어를 통해 특정한 정치적 의제에 복무하는 인종주의적이고 도발적인 공격에 의해 모욕을 당한다. 우익 정치인들은 종종 젊은 이주자 후손들의 범죄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지만 이러한 현상은 많은 경우 다문화적 모자이크보다는 단일문화적 용광로를 진작하는 국가 이주 정책의 경직성과 실패를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좌절-공격 가설”(Dollar et al., 1939) 또한 사회적 소요의 심리적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열망이 좌절된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이주민들은 교외 지구의 불결한 주거환경, 불평등한 교육과 고용 기회 등 다양한 형태의 분리를 경험한다. 탈식민주의 이론은 예컨대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나라가 구 식민지들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높은 생활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주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를 빚고 있는” 식민주의의 “범죄적 장기 효과”, 이들 나라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Ponzanesi, 8)에 저항한다.

## 노마디즘에서 미그리튀드로

유목 이동은 먼 과거부터 아프리카인들의 주요한 역사적 “속성”이었다. 19세기 라이베리아 외교관 에드워드 W. 블라이든<sup>Edward W. Blyden</sup>에 따르면 이주 왕래 경로는 늘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경로는 주로 아시아를 오가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몇몇 국가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었으며 이는 세계사에 장구한 영향을 미쳤다. 아시아인들과 아프리카인들은 끊임없이 교류해 왔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아프리카인들은 대서양과 홍해 사이를 지속적으로 오가고 있다. 또,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대, 헤로도토스와 호머의 시대처럼 아시아에서 수단의 중심부로 통하는 고속도로는 항상 열려 있다”(131).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의 불법 이주는 세계사의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카메룬 역사학자 아킬레 음베크<sup>Achille Mbembe</sup>는 아프리카인을 상대로 한 유럽의 봉쇄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륙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아프리카 내 국경개방 정책을 촉구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경과 비자에 대한 압박,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인종주의의 출현, 매우 뚜렷한 경제적 위기로 인한 우익 정당의 강화, 이 모든 것이 아프리카와 유럽의 생산적이고 호혜적인 관계 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 유럽이 국경을 폐쇄할 때 아프리카는 자신의 국경을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프리카는 방대한 순환의 공간이 될 때에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의 지정학적 재배치로부터 긍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12번째 문단).

새천년의 첫 십년이 끝나갈 무렵 미그리튀드 운동이 출현했다. 미그리튀드란 이주수용국과 세상을 향해 자신의 역사를 들려주기로 자청하고 나서는 이주자의 태도를 가리킨다. 그것은 식민주의와 세계화의 고리를 강조하며 자본주의의 성장이 강제 이주와 계약 노동에 기반했음을 주장하는 국제적 정의 행동주의의 한 형태이다. 미그리튀드 운동은 17세기 노예제로부터 식민지 대도시에서의 강제 노동을 거쳐 오늘날의 이주 이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축출을 수반해 온 세계 자본주의의 미묘한 메커니즘을 통해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계화의 연속체를 추적한다.

케냐의 작가이자 나이로비, 런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아온 인도계 활동가인 샤일자 파텔은 “네그리튀드<sup>Négritude</sup>”와 “이주자의 도전적 태도<sup>migrant attitude</sup>”를 조합한 “미그리튀드<sup>Migritude</sup>”의 개념을 사용한다. 프랑스어 사용권 작가인 마르티니크의 에메 세제르<sup>Aimé Césaire</sup>와 세네갈의 레오폴드 세다르 상고르<sup>Leopold Sédar Senghor</sup>가 옹호한 20세기 초의 네그리튀드 운동은 흑인임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다. 이를 바탕으로 파텔은 미그리튀드를 “당당하고 격렬하면서도 서정적으로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한 세대의 목소리”로 정의하고 이를 “외부자 지위의 ‘존엄성’을 재단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녀는 네그리튀드와 미그리튀드가 “짜들” 수 있는 문화적·정치적 토양을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녀가 처음 이 개념을 사용한 것은 “이주자의 도전적 태도, 도전적 태도를 지닌 이주자라는 이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침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주자 세대를 담아낼 단어를 찾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이렇게 주장한다. “미그리튀드는 이주자의 문화를 찬양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그것은 출신국의 정체성과 수용국의 정체성 중에서 고르기를 거부하는, 또 차이를 숨기거나 지우려하기보다 그것을 힘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이주민들이 접하는 고유한 정치적·문화적 공간을 담아냅니다”(모네가토<sup>Monegato</sup>와의 인터뷰, 237). 이런 점에서 미그리튀드는 문화적 혼종성의 찬양이다.

많은 경우 “미그리튀드” 개념이 파텔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프랑스의 문학비평가 자크 셰브리에(Jacques Chevrier) 역시 『흑아프리카의 프랑스어 문학(Littérature francophones d'Afrique noire)(2007)』에서 이 개념을 사용한다. 실제로 이 개념을 고안한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한편으로 셰브리에에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담론의 형상에 의미를 제기하고 출신국 문화와 수용국 문화로부터 동시에 거리를 두는” 서아프리카 작가들의 프랑스어 저술들을 분류하는 데 이 개념을 사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파텔은 비판적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세계무대에서 이주자들이 처한 상황을 성찰하는 영어권 아프리카 작가들, 주로 케냐 작가들을 연구한다. 두 경우 모두 미그리튀드 작가들은 “유색의 이주자들이 권력의 심장부에서 공유하는 광범위한 고통”(Prashad iv)을 소리내어 말한다. 그들은 이주의 문제를 다른 무엇보다 정체성, 혼종성, 인종주의, 부정의의 주제와 관련지어 다루며 여행가방, 배, 여권, 음식, 음악 등의 상징들을 활용한다.

## 샤일자 파텔의 『미그리튀드』에 나타난 이주의 직물사

파텔은 케냐에서 자라 영국에서 수학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인도계 작가이자 활동가이다. 『미그리튀드』를 통해 그녀는 가족의 이야기를 여성들의 증언과 엮어 잘 알려지지 않은 제국주의, 착취, 폭력, 공간의 역사를 탐구하고 그것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와 같은 다양한 대륙의 이주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부각한다. 책을 저술한 동기와 관련해 저자는 이 책이 “[엄마의 모든 유산을 세공하고 삼감하며 [...] 국경을 구불구불 가로지르고 비자 단속을 피할] 것이며

“그것이 [나의] 의도”(62)라고 단언한다. 역사, 시, 자서전, 서한, 그림, 연극 공연이 혼합된 파텔의 걸작은 그녀의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유산, 즉 어머니(제1부, 사리가 말할 때), 아버지, 교사, 손님을 주제로 한 네 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텔은 남아시아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따라가며 가족의 이주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그리튀드』 앞 부분에는 “The Making(이주자의 노래)”라는 제목의 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시를 통해 저자는 이주 수용국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이주자들이 치르는 대가를 조명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묻지 않고도 정보를 흡수하지.  
질문은 일과 비자, 목숨을 앗아갈 테니.  
우리는 지켜보고 따라하지.  
우리는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쓰다네. (33)

본 논문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미그리튀드』의 첫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이 부분은 하나의 연극 공연으로 여기서 파텔은 “어머니에게서 혼수감으로 물려받은 사리를 이용해 인도와 케냐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어떻게 여성의 신체에 실연되었는지 폭로”(모네가토와의 인터뷰, 237)한다. 『미그리튀드』 서문에서 비자이 프라샤드(Vijay Prashad)는 “대륙과 가족을 묶는” 사리의 문화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상처를 묶는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함께 묶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도록 한다. 우리는 권력을 양보하거나 지갑을 열 마음이 없는 권력 엘리트의 화강암 덩어리에 묶여 있는 것만큼 자신의 신체와 욕망을 우리 사회 속으로 집어넣은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에 묶여 있다.(iv)

달리 말해, “식민적 기억상실”을 겪는 유럽 국가들은 제국주의의 토양 위에 그들이 축적한 부를 나누는 동시에 “이질적 집단들” 간의 “대안적 소통방식”을 찾기 위해 자신들의 제국주의 과거를 인정할 것을 요구받는다.



사리의 디자인으로 주로 쓰이는 암비<sup>ambii</sup>

파텔은 제국주의와 이주의 맥락 속에서 비판적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사리의 역사를 분석하며 이 옷이 영국 제국주의가 인도에서 자행한 폭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남아시아인들이 우간다로부터 강제 추방되고 그들의 사리와 장신구를 영국과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이디 아민의 요원들에 의해 빼앗긴 사건을 언급한다. 그녀는 “어떻게 암비는 페이즐리<sup>paisley</sup>가 되었나”를 설명하기 위해 서사의 직조 속에 직물사를 포함시킨다. 그녀는 “바빌론의 눈물로 시작”<sup>(4)</sup>된 암비(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리 옷감의 디자인)의 이주에 대해 이야기한다. 1813년 영국군 장교들은 다카의 모슬린<sup>mosuleen</sup> 직조공들의 손가락을 절단했다. 모슬린이 영국의 직물보다 비싸고 스코틀랜드의 도시 페이즐리에서

스코틀랜드 직조공들이 솔에 암비 디자인을 모방해 짜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카슈미리<sup>Kashmiri</sup>는 캐시미어<sup>cashmere</sup>가 되었다. 모슬린<sup>mosuleen</sup>은 모슬린<sup>muslin</sup>이 되었다. 암비는 페이즐리가 되었다.”<sup>(6-7)</sup> 모슬린의 원래 이름이었던 모슬린은 그것이 생산된 이라크 도시 모술<sup>Mosul</sup>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역사가 제국주의적 착취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디파 모하메드의 『모래바람을 걷는 소년』에서의 국경의 방랑자

나디파 모하메드의 『모래바람을 걷는 소년』은 저자 자신의 아버지 자마와 아프리카의 볼 지역,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의 여정을 담은 반자전적 서사이다. 소설의 출간을 격찬하며 유명한 탈식민 비평가 엘레케 보머<sup>Elleke Boehmer</sup>는 이렇게 말한다. “소말리아 작가 하산<sup>Xasan</sup>과 인도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제사가 들어 있는 첫 페이지부터 『모래바람을 걷는 소년』은 그것이 여러 대륙을 가로지르는 이야기임을 선언한다”<sup>(167)</sup>. 소설은 소말리아가 영국령 소말리란드와 이탈리아령 소말리란드로 분열된 1930년대와 1940년대를 무대로 한다. 암바로는 아들 자마와 함께 생계를 위해 예멘의 아덴으로 이주한다. 아덴항은 영국 치하에서 남북을 오가는 부의 국제적 흐름이 지나가는 거점이었다. 그녀는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의 한 커피 공장에 취업하지만 하루 12시간을 일하며 착취당한다. 이는 제국주의적 자본주의가 그 땀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저임금 여성”의 역경을 보여준다. 저자는 어쩌면 오늘날 세계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적 여성 착취를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적 착취 하에 놓인 여성들의 조건에 대해 소날리 페레라<sup>Sonali Perera</sup>는 이렇게 주장한다.

오늘날의 역사적 순간에 “새로운 프롤레타리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주변부 여성 노동자들이다. 북반구 산업화된 국가들의 조직된 노동과 별개로 이 “탈산업” 시대의 보이지 않는 생산 주체는 자립경제가 아닌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진 탈식민 “개발도상” 국가에서 초과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다.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발행한 사업안내서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들 노동자들은 “값싸고” “유순하며” “손재주로 유명”하다. (3)

이런 점에서 나디파 모하메드는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착취가 자본주의 생산의 엔진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엄마가 죽은 뒤 자마는 아버지를 찾아 여러 국가를 가로지르는 대장정에 오른다. 그가 머문 여러 장소들은 각 장의 제목을 구성하고 있다.

- 1935년 10월 예멘 아덴
- 1936년 3월 소말릴란드 하르게이사
- 1936년 9월 지부티 지부티 시
- 1936년 10월 에리트레아 아사브, 아스마라, 옴하제르
- 1936년 12월 에리트레아 옴하제르
- 1941년 1월 에리트레아 케렌
- 1941년 7월 에리트레아 게르셋
- 1946년 12월 수단, 이집트, 팔레스타인
- 1947년 5월 엑소더스호
- 1947년 9월 웨일스 포트벨벳

여행 중에 소년은 에리트레아와 아비시니아에서 이탈리아 식민자들을 만난다. 그는 이탈리아군과 영국군의 전투를 목격한다. 그는 한 이탈리아 장교에 의해 짐승같은 취급을 받고 무솔리니의 군대에 징집되었으며 영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남았다. 저자는 또 1884~1885년 베를린 회담을 통해 결정된 아프리카 분할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 회담을 통해 “영토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비시니아에 의해 분할”<sup>(BMB 64(국역 문명예 옮김, 중앙북스 2010, 228쪽))</sup> 되었으며 “구멍이 송송 떨어진 허술한 국경선만 알던 떠돌이” 아프리카인들은 “이제 나라와 나라가 장벽으로 나뉘어 있음을 실감했다”<sup>(170-171(국역 353쪽, 번역 수정))</sup>.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인들은 국경 통제나 신원 조회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다루어지며 때로는 투옥되거나 강제 추방되기도 한다.

수년에 걸쳐 영 제국이 무너지고 세계의 국경선이 바뀌었지만 자마는 어느 나라에 머물든 계속해서 불청객 신세로 남아 있다. 그의 운명은 그의 대륙이 처한 운명을 반영한다. 마침내 영국 여권을 손에 쥘 때까지 계속된 그의 다양한 여행을 통해 나디파 모하메드는 영국 제국주의의 과거가 남긴 다문화적 유산을 강조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주 흐름에 대해 성찰한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부랑자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트럭 밑에 숨거나 보트에 실려 들어오고 점보제트기를 타고 와서 뛰어내린다.”<sup>(BMB 4(국역: 15쪽))</sup> 그녀는 남의 떡이 더 크다고 기를 쓰고 생각하는 불법 이주자들을 가리킨다. 모하메드는 이렇게 덧붙인다.

무사와 그들은 뒤죽박죽의 생김새, 눈, 코, 입과 머릿결의 어색한 연금술, 다른 대륙에 속하는 피부색을 공유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는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많은 장소들의 인장이 찍힌 여권이였다. 하지만 그들의 용모에는 북적거리며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이들의 변종인 옛스런 무언가가 있었다. (177)

“북적거리며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이들”이라는 구절로 그녀는 과거의 아프리카 유목부족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주정병이 에다 부랑자인 소말리아 남자 무사가 보여주듯 오늘날의 많은 유목민들은 비극적 운명을 겪는다. 그는 “실패한 이주의 표본”이었다. 자마는 그를 보며 “자신의 인생이 무사의 끔찍한 전철을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장소를 탐험했지만 결국은 그곳에 이상적인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177[국역 367-368쪽]) 이 인용문은 오늘날의 이주자들이 겪는 운명, 대부분 아프리카 이주자들로 전쟁이나 기근으로 찢겨진 나라를 떠나 더 좋은 곳을 찾아 나서지만 결국 어떤 곳도 찾을 수 없는 이들의 운명을 요약한다.

## 결 론

네그리튀드의 미그리튀드 후예들인 샤일자 파렐과 나디파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인의 이주라는 문제를 성찰하고 각자의 문학작품을 통해 식민주의와 세계화의 상호관련성을 부각한다. 나는 그들이 “이주의 문화적 상상”이 지닌 가능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탐구하는지 설명함으로써 화해와 치유에 바탕한 “이주자들과 비이주자들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이주 수용국 내에서 살아가는 “이질적 집단들” 간의 “대안적 소통 방식”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고자 했다. 그들은 이주자들과 수용국 사이의 관계, 또 이주자들과 고국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그들 대 우리’가 ‘그들과 우리’로 희망적으로 대체되는 세상에서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유동적 정체성이 탄생하길 고대한다. 

## 이주, 그리고 정치적 행위로서의 문학 번역과 수용

크리스티나 비에슈첵 Krystyna Wieszczyk

볼로냐 대학교 University of Bologna

/ 이그나티아눔 아카데미 Ignatianum Academy in Cracow

### <원문출처>

이 글은 2022년 5월 20일-21일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식>에서 발표된 원고 “The Migrant Heiresses of Négritude: Illustrations from Shailja Patel’s Migrant and Nadifa Mohamed’s Black Mamba Boy”를 저자의 동의하에 번역한 것입니다.

### <저자소개>

#### 펠라 베나베드 (맛지모크타르-안나바대학교)

펠라 베나베드 Fella Benabed는 맛지모크타르-안나바대학교 Badji Mokhtar-Annaba University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영어권 세계문학에 대한 탈식민적, 생태학적, 서사적, 그리고 의료적 접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 루이빌 대학 소재 현대미국문학연구소 연구그룹에, 2021년에는 컬럼비아 대학에 폴브라이트 방문학자로 참여했습니다. 베나베드는 이주를 다룬 논문들을 다음과 같이 다수 발표하였습니다.

“Celebration/Subversion of French Assimilation: A Contrapuntal Analysis of Zebda’s Art,” *Rupkatha Journal on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Humanities*; “Marine Heterotopia and Odyssean Nomadism in Malika Mokeddem’s *N’zid*,” *The Journal of North African Studies*; “Liquid Modernity and Fluid Identity in Caryl Phillips’s *Counter Travelogue The Atlantic Sound*,” *The Lincoln Humanities Journal: Travel Narratives and Life Writing*. 또한 남부 덴마크 대학에서 “Migration and Dementia in David Chariandy’s *Soucouyant: A Novel of Forgetting*”을, 그리고 베를린의 마르크 블로흐센터에서 “Bridging the Self/Other Divide: A Postcolonial Reflection on ‘Beur Music’”라는 제목의 글을 각각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논문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폴란드 디아스포라에 초점을 둔다. 폴란드·영국·프랑스의 미출간 문서고 자료를 포함한 풍부한 1차 자료를 근거로 본 논문은 폴란드인의 이주가 가진 정치적 의의와 이주자의 문화 활동, 특히 문학 번역과 보급의 문제를 탐구한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폴란드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선진물이 주장하는 것처럼 폴란드의 해방이 아니라 소련에 의한 점령이었다. 많은 공무원, 군인, 실항민, 최후의 순간 폴란드를 빠져나온 난민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서구에 남기로 결정했다. 많은 경우 이는 그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저항의 몸짓이자 이들이 목도한 동구의 공격과 서구의 공모를 증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주자 중에는 보다 자유로운 곳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한 상당수 지식인들이 포함되었다. 많은 이들은 스스로를

“진정한” 민족문화의 수호자로 여겼다. 이들은 소련의 점령으로 훼손되지 않은 민족문화를 후일을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런던의 구 망명정부와 연계된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사람들은 “망명 국가” 건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 특히 파리의 <쿨투라>지를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철의 장막 너머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추구하고 그들의 삶과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하지만 이주자 여론을 형성하는 이 두 중심지 모두 문학을 자신의 사명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해외 작품들을 번역·출판하는 한편 이를 공산당 치하의 폴란드에도 보급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본 논문은 이들의 활동이 많은 경우 국제적 협력의 결과로 이루어졌음을 살펴보는 한편 미국 냉전기급의 은밀한 후원을 통해 이루어진 문화 활동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 본 논문은 이주자들의 문화적 산물이 어떻게 민족문화에 기여했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는 공산당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별도의 분야였지만 공식 경로와 비밀 경로를 통해 철의 장막 배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응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된 이주자 지위가 보다 영구적인 거주로 변화하고 보다 젊은 망명자 세대가 선배들의 전철을 따르면서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 이주 연구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폴란드 디아스포라

이주는 인간 본성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세기의 격동 속에서 이주로 인한 이동은 전례 없는 규모로 일어났으며 이는 특히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직후에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2차 세계대전의 여파 속에서 일어난 폴란드 디아스포라에 초점을 맞춘다. 이 글은 4부로 나뉜다. ① 맥락: 이주 연구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폴란드 디아스포라, ② 정치적 행위로서 서구에 머물기, ③ 이주 자체와 이주자의 문화적 활동이 갖는 정치적 의미, ④ 문학 번역과 보급.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폴란드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소련의 선전물이 주장하는 것처럼 폴란드의 해방이 아니라 소련에 의한 새로운 점령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주는 이들 ‘망명자<sup>exile</sup>’나 ‘이주자<sup>émigré</sup>’의 많은 문화적·정치적 행위가 그러하듯 많은 경우 정치적 행위였다. 본 논문에서 ‘망명자’와 ‘이주자’라는 용어는 ‘디아스포라’라는 용어와 함께 혼용되어 사용될 것이다. 사실 학계와 행정부에 두루 수용될 수 있는 적절한 폴란드 용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폴란드 이주 연구에서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sup>(Lesińska)</sup>. 본 논문은 이주 및 문학 번역과 수용으로 이루어진 관련 문화 활동에 관한 질문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당시의 출판물(이주자 출판물, 비밀 출판물, 공식 공산당 출판물)과 더불어 폴란드·영국·프랑스의 출간·미출간 문서고 자료 등의 다양한 1차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전 세계에 걸친 많은 연구소와 저널, 도서 출간에서 드러나듯 이주 및 디아스포라 연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또 최근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현재 진행 중인 기타 분쟁과 더불어

분명 이러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주 연구 분야는 태생적으로 학제 간 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특히 정치, 법률, 역사, 사회학, 문화 등의 분과를 가로지른다. 따라서 이주와 이주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뉴욕 이주연구센터(Centre for Migration Studies of New York)의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옥스포드가 설립한 *Refugee Survey Quarterly*, 라우틀리지(Routledge) 출판사의 *Ethnic and Racial Studies*, *European Journal of Migration and Law*, *Diaspora Studies*, 보다 방법론적이고 이론적인 초점을 제공하는 *Migration Studies* 등의 저널은 이미 이러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망명 정치를 비교의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예. 2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 내의 다양한 유럽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콘웨이(Conway)와 고트비치(Gotovitch)의 연구) 이에 못지않게 문화와 이주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 또한 있어 왔다(예. *Crossings: Journal of Migration & Culture*). 현재 59권까지 발행된 라우틀리지 시리즈 'Studies in Migration and Diaspora' 역시 이주의 다양한 문화적·사회적·정치적 함의를 다루고 있다(예. 골드(Gold)와 노윈(Nawyn)의 연구).

폴란드 학계에서도 유사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폴란드의 주요 대학인 바르샤바대학교와 크라쿠프의 야기엘론스키 대학교는 각각 폴란드 이주연구센터(Polish Centre of Migration Research)와 미국학 및 폴란드 디아스포라 연구소(Institute of American Studies and Polish Diaspora)라는 이름의 이주 연구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적 편집진을 보유한 저널들도 있다. 일부 저널들은 일반적이면서도 많은 경우 현대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야기엘론스키대학교와 폴란드 과학아카데미 이주연구위원회가 공동 발행하는 *A Review of the Polish Diaspora*나 그디니아의 이주 박물관이 발행하는 *The Polish Migration Review*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는 저널들도 있다. 바르샤바 연구센터가

폴란드 과학아카데미와 공동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의 이주, 또는 해당 지역을 드나드는 이주의 문제를 다루는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Migration Review*나 야기엘론스키대학교에서 발행하는 *Ad Americam: Journal of American Studies* 등이 그러한 예이다.

전후 정치 망명자와 그들의 정치적·문화적 유산 등 공산주의 체제에서 환영받지 못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중견·신진 연구자들의 연구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폴란드 디아스포라』(발라세크(Walaszek) 및 『제2의 대이주 1945~1990』(The Second Great Emigration 1945-1990) 『프리슈케』(Frizske, 마흐체비치(Machcewicz, 하비엘스키(Habielski)와 같은 책들은 여전히 매우 포괄적인 지식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폴란드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 폴란드인 정착촌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 『제2의 대이주 1945~1990』는 이주자의 정치·사회·문화 생활과 국제정치 참여를 다루고 있다. 토루니의 폴란드 이주 기록보관소(Archives of Polish Emigration)는 많은 저명한 폴란드 망명자들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저널 *Archives of Emigration*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파리의 출판사 쿨투라 리터러리 인스티튜트(Kultura Literary Institute) 현상을 비롯해 이주자 활동을 다룬 신간들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관련 분야 연구의 진전은 종종 전후 폴란드 이주자들의 문화 활동 — 많은 경우 이러한 활동은 불가피하게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 — 이라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미 CIA가 재정을 지원하고 소비에트 점령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도서보급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예. Reisch, Sowiński), 폴란드 공산당 검열에 관한 연구(Budrowska, Gardocki), 폴란드 비밀 출판사업 — 이는 많은 경우 이주자 협력자의 지원을 받았다 — 에 관한 연구(Zlatkes) 등이 포함된다.

## 정치적 행위로서 서구에 머물기:

### 이주의 정치적 의의

많은 폴란드인들은 ‘우리가 폴란드로 돌아가야 하는냐’는 문제에 직면했다. 더러는 고향이 더 이상 폴란드 국경 내에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다른 이들은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우리가 폴란드를 떠나야 하는가?’ 일부 폴란드인들은 강제 송환되었으며 특히 독일의 소비에트 점령 지역 내에 있던 이들이 그러했다. 이 지역 내 소련 이외의 다른 점령 세력들은 탈출하는 이들을 체포해 소련 당국에 넘겼다. 하지만 전쟁 말기와 종전 직후인 최후의 순간에 소련이 점령한 나라를 가까스로 빠져 나오는 데 성공한 일부 난민들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던 폴란드인들 중 전쟁 이후 서구에 남아 있기로 결정한 이들은 약 5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sup>(Machewicz)</sup>. 여기에는 소비에트 영토로 망명한 이들은 빠져 있다.

많은 이주자들에게 결정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당연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은 적군과 소비에트 비밀기관의 지원 속에서 구축되고 있었던 비민주적 체제 하에서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 복수의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자 언론, 서한, 회고록, 다양한 공식 문서는 많은 경우 정치적 요인이 결정적이었음을 가리킨다. 전전 폴란드는 독일의 공격을 대비해 프랑스 및 영국과 동맹을 체결했다. 1939년 9월 독일이 공격해 왔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 포고를 했지만 이는 수개월 동안 명목에 불과한 것이었다. 폴란드 정부는 망명길에 올랐다. 독일과 소련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폴란드가 함락된 이후 망명 정부는 프랑스가 동맹국의 대독 군사 조치를 지원할 것이라 기대하며 프랑스 내에서 폴란드군을 재편했다. 프랑스 함락

이후 정부는 군대의 일부를 빼내 영국으로 갔다. 많은 민간인들이 뒤따랐다. 망명정부는 런던이 자신의 장기 거처가 되리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다. 영국이 폴란드 해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려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서구 내에서 성장을 거듭한 폴란드군은 전쟁 내내 연합국의 대의가 자신의 대의라는 신념에 따라 영국의 지휘 하에 있던 많은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영국의 전시 검열은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예컨대, 전쟁 전 평판이 높았던 Wiadomości를 비롯해 스탈린에 대한 연합국의 유화적 태도를 비판한 몇몇 유명 폴란드 잡지들은 영국 내 발행이 금지되었다<sup>(Swiderska)</sup>. 전쟁 이후 출판이 다시 자유로워지면서 연합군이 자신의 나라를 소련의 영향권에 두어 영토의 거의 절반을 소련에 병합하도록 허용하고 — 이는 더욱 광범위한 실상으로 이어졌다 — 스탈린이 바르샤바에 괴뢰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묵인했음을 알게 된 이후의 충격과 분노, 배신감을 증언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이는 또한 새로운 정치적 현실에 뒤따르는 이주와 귀환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서구에 남기로 결정한 많은 이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이 비민주적 정치 현실이 유지될 수는 없으니 자신들이 곧 자유 폴란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고 싶었다. 군 지휘관을 비롯한 군인들 중에는 곧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폴란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적 상황이 변할 거라 예상한 이들도 있었다. 대개는 본국 귀환을 장려하고 때로는 이를 압박했음에도 군에 몸담았던 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영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 및 그 식민지에 정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실제 많은 이들이 폴란드로 돌아갔지만 후시 모를 3차 세계대전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대비할 요량으로 서유럽에 남은 이들도 많았다. 당시 소집해제된 폴란드군 지휘관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 행정부와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소련 점령국도

해방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예. 육군 장교 차르네츠키Czarnecki 또는 자치민스크Zacmiński의 최신 연구).

많은 재외 폴란드인들은 민주적인 서구 연합국들이 이러한 법과 민주적 규칙의 명백한 위반을 수용했음을 알고 경악했다. 일부 사람들에게 망명지에 남기로 한 결정은 유일하게 가능한 저항의 몸짓으로 여겨졌다. 민주적 서구에 거주하는 것은 동유럽의 공격과 서유럽의 공포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될 것이었다. 심지어 처음에는 점령된 국가로 가는 것이 해외 열강이 부과한 새로운 모습의 폴란드와 그 정부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느낌도 있었다. 특히 런던의 폴란드 망명정부와 연계된 단체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1945년 7월 연합국은 주로 스탈린이 뽑은 인사들로 구성된 행정부를 위해 폴란드 망명정부를 해산시켰다. 비록 분열되었으나 그들은 자유 폴란드의 합법적 대표자임을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의 조국을 스탈린 권력 아래에 둔 전시 및 전후의 협약을 그것의 모든 비민주적 결과들과 더불어 거부했다. 그들은 폴란드의 중요 유산이 있는 리비프와 빌뉴스 시의 반환 및 소련군의 폴란드 영토 철수, 또 제약 없는 자유로운 선거를 요구했다. 이러한 강경한 태도 때문에 이들에게는 '불굴'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폴란드의 전직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자유 폴란드, 따라서 진정한 폴란드를 대표하는 양 행동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는 이들이 전후 폴란드 최초의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대통령 휘장을 물려준 1990년까지 계속되었다.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성명과 항의서를 발송하는 등 그들은 가능한 수단을 통해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애썼다. 요컨대, 그들은 폴란드의 운명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폴란드의 대의가 망각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스스로를 '전후 독립주의 이주자'로 가장 강력하게 동일시한 이들은 아마도 이처럼 런던에 거주하던 폴란드인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 현실 및 독립 활동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서구에 남은 사람들 역시 구 망명정부 관계자들 못지않게 독립주의적 성향을 지녔다. 서구의 민주국가에 남는다는 것은 소련 체제의 방해 없이 국제 정치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했다. 이러한 활동이 당연히 구 망명정부가 담당해야 할 분야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당성 주장이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경로로 가능한 건 아니다. 여기서 더 큰 성공을 거둔 다른 이주자나 단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즈비그니에프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그의 부모와 함께 캐나다로 망명하여 미 대통령의 고문과 국가안보보좌관이 되었다(Machcewicz도 참조). 폴란드의 새로운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해 런던의 '불굴의' 태도보다 '실용적인' 이러한 관점은 또한 잡지 <쿨투라Kultura>지의 동인들에 의해서도 전파되었다. 쿨투라는 '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잡지는 파리에서 간행된 폴란드 문화·정치 월간지였다. 잡지는 리터러리 인스티튜트Literary Institute에 의해 발행되었으며 이곳은 도서 출판 사업도 병행했다. <쿨투라>지와 리터러리 인스티튜트는 모두 예지기에드روی치Jerzy Giedroyc와 조피아 헤르츠Zofia Hertz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들은 종전과 함께 폴란드군의 상당 병력이 해산되었던 로마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 그들이 서구에 남는 것 역시 점령된 조국에서보다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들의 출발점은 폴란드의 새로운 현실, 또 리비프와 빌뉴스의 상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평화적 미래 건설의 토대로 삼는 것이었다. 이는 다른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다. 그들은 또한 철의 장막 너머의 사고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오랜 활동 기간을 통해 그들은 사상과 정치의 자유에 관심을 가진 많은 선도적 지식인을 끌어들이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현재 <쿨투라>지 전집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 모든 활동과 관련해 폴란드 망명 지식인들에게는 그들이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그리 오래지 않은 모델이 있었다. 그것은 이웃한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리시아에 의해 폴란드가 분할된 시기였던 19세기의 독립주의 망명자 '전통'이었다. 선도적인 정치·문화 인사들이 망명지, 특히 프랑스나 영국, 또는 미국으로 잇따라 들어오면서 — 소위 '민족 시인'이었던 아담 미츠키에비치 Adam Mickiewicz와 율리우스 스워바츠키 Juliusz Słowacki, 혹은 작곡가 프레데릭 쇼팽 Frederic Chopin 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 이 현상은 대이주 Great Emigration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폴란드 독립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이들 지식인 중 많은 이들이 민족의 자유와 민족 간 연대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일부는 유럽의 혁명적 사고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들 이주자들은 이미 폴란드의 독립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 정치단체를 발견했으며 또 세계 각지에서 이러한 군단을 찾기 위해 애썼다. 당시에는 이미 정치·철학·문학 분야의 여러 잡지와 출판물들이 간행되고 있었으며 이주자로 구성된 밀사들은 비밀 정치·교육 활동을 고취하였다. 독립 국가로서의 폴란드는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회복되었다. 때로는 이주자들이 해외에서 '폴란드 독립을 쟁취'했다고 여겨지기도 하였다(Wrąga, 143). 이렇게 19세기의 독립주의적 망명 '전통'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많은 망명자들에게 가슴 아픈 연속성의 감각이 아니라 힘과 영감을 불어넣었다.

소련 점령국을 빠져나온 전후의 많은 이주자들에게 서구에 머문다는 것이 정치적 행위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연합국 정부들이 폴란드 망명정부에 대한 인정을 철회하려 했을 때 이제 물러나게 된 폴란드 정부는 대국민 연설을 했다. 독일이 베네룩스 3국을 침공함으로써 가까 전쟁을 끝낸 직후였던 1940년 5월에 새롭게 선출된 영국 총리의 연설을 환기하며 폴란드 정부의 연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억은 조국이 백척간두의 위협에 처했을 때 처칠 총리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오늘과 내일 여러분께 드릴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 그리고 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어떤 이들은 고국에서 경찰국가의 잔인한 현실과 싸울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유세계에 남아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입이 될 것입니다”(Government 131-132).

## 이주자 문화 활동의 정치적 의의

망명 외교관으로서 정보관과 기자로도 활동했던 한 인사는 1945년 발행된 〈폴란드 망명자들의 역할과 책무 The Role and Tasks of Polish Exiles〉라는 제목의 소책자에서 이렇게 적었다. 누군가가 “고국으로 돌아가 가장 힘든 최악의 여건에서도 온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폴란드 시민들이 망명지에 남아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Wrąga, 142). 이러한 행동의 최우선 목적이 독립의 회복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1차 목적에는 몇 가지 세부 목표가 수반되었다. 상기한 소책자는 이러한 목표 중 일부를 명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주자의 책무는 [...] 폴란드의 국가적 지위, 폴란드의 정치적 주권, 폴란드의 정신적 독립, 폴란드의 정치사회 사상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적대적 정치 세력의 점령 하에 있는 폴란드 사회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Wrąga 142-143).

따라서 한 가지 목표는 민주적 전통을 지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 폴란드 민족문화의 연속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규모로 다층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여러 국가의 다양한 사회 부문을 충족시킬 활동이 필요했다.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유대를 유지하고 공동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대중적 기회가 필

요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 노력을 자극할 필요도 있었다. 더욱이 이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도 요하는 일이었다. 대다수 서유럽 국가에서 다양한 단체와 협회가 창설되었으며 전후 '독립주의 이주자'의 수도였던 런던에서만 다양한 부문의 이주자 공동체를 물질적·문화적으로 지원하는 수많은 문화·종교·사회 기관이 신설되었다. 여기에는 1939년 설립된 폴리스 하스(Polish Hearth)와 1960년대 설립된 폴란드 사회문화협회(Polish Social and Cultural Association(POSK))와 더불어 퇴역군인회, 직업 협회, 문화 협회 등이 포함되었다. 폴란드 교회 또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많은 경우 이주자 상태가 일시적이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언어 및 애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폴란드어 학교와 기타 교육 활동 역시 제공되었다. 연구 및 교육기관에서는 폴란드에 관한 학술조사와 연구가 소련의 금지에 방해받지 않고 발전하였다. 이러한 기관에는 재외 폴란드대학교(Polish University Abroad(PUNO)), 폴란드 유니버시티 칼리지(Polish University College), 재외 폴란드 과학과 과학자들을 보살피고 폴란드 학생의 영국 대학 진학을 지원한 폴란드 연구센터(Polish Research Centre), 폴란드 연구소 및 시코르스키 박물관(Polish Institute and Sikorski Museum), 전쟁 전 바르샤바 소재의 근현대사 연구 기관을 계승한 피우스트스키 연구소(Piłsudski Institute) 등이 포함된다. 이들 조직은 각국의 폴란드 단체들과 국제 연합체들을 통합한 상위 조직들의 지원을 받았다. 예컨대, 1946년에는 브뤼셀에서 폴란드 전쟁이주자연합(ZPUW)이 결성되어 폴란드 실향민 단체들을 통합하였다. 또 1944년 결성된 재미 폴란드 의회(Polish American Congress)는 2차 세계대전의 '신구' 이주자들을 통합하였다.

문화적·사회적·교육적 사안에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들 단체는 모두 궁극적으로 다양한 대내외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다. 대내적으로 이들 단체는 공동체 융합 및 문화·전통·민족적 정체성 보존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민족 문화의 연속성 유지에 결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정치적 목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폴란드 전쟁이주자연합과 같은 단체의 성격은 비정치적이었지만 — 이는 광범위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망명자들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가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 여전히 그것의 기본 전제는 처음부터 당파적인 것, 즉 폴란드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주의 이주자들'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들 단체는 사회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으로도 이주자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주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일조했다. 예컨대, 2,500명 이상의 대표들이 상기한 재미 폴란드 의회의 창립대회에 참석했으며 이들이 6백만 명 이상의 폴란드인과 그들의 후손을 대표했다는 점에서 단체는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외적으로 이들 단체와 기관은 폴란드의 문화 및 폴란드 정치 상황에 관한 지식을 증진함으로써 그 대의를 유지하려 애썼다. 이는 또한 공산주의 국가가 후원하는 담화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기도 했다. 예컨대, 1956년 소련 지도자 흐루시초프와 불가닌이 런던을 방문했을 때 런던 정부와 여러 협회들은 시위를 조직했다. 이를 통해 소련 점령국에서 온 2만 이주자들은 전 세계 대중들에게 폴란드의 실상과 필요한 개입을 환기했다. 정치적 망명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나 교육 활동은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의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모든 활동들은 점령된 조국과 나란히 폴란드 바깥의 폴란드, 즉 자체의 헌법기관, 지역사회, 군대, 문화를 갖춘 망명지 국가를 보존하겠다는 이념으로 수렴되었다. 많은 경우 문화의 연속성 보존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소련 침공자에 의해 훼손됨이 없이 해외에서 폴란드 문화와 사상을 지키는 차원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초창기에는 더욱 그러했다. 이렇게 보존된 망명지 국가는 폴란드가 다시 자유를 얻을 때

그대로 접목될 것이었다. 예컨대, 런던에 기반한 재외 폴란드 작가연맹 Union of Polish Writers Abroad은 1956년 해빙의 분수령 이후에도 철의 장막 뒤에서는 출판하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불굴의’ 런던이 조장하는 이러한 종류의 고색장연하고 앞뒤 없는 보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가장 영향력 있고 경쟁적인 두 곳의 여론 형성 중심지 중 하나였던 ‘실용적’ 〈쿨투라〉지의 정치 대변인은 1952년 이렇게 적었다.

영구적 비상사태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무언가를 할 시점도 아니다. 무엇보다 어떤 것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 [...] 살아남는다는 건 저 ‘언약궤’를 자유 조국에 전달하는 걸 의미한다. 이주자들의 믿음에 따르면 이 언약궤는 우리 수중에 기탁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느 날 망명지를 떠나 이 ‘언약궤’와 함께 귀환하게 될 때 조국은 우리를 쫓을 들어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화이다. (Mieroszewski 1952, 4)

〈쿨투라〉지는 이주 경험이 비상상태이자 일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건설적 활동을 제약하고 열의 없는 무대책과 완전한 정치적 진부함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독립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해외에서 살아가는 존재 근거이고 후일을 위해 폴란드 밖에서 폴란드 민주주의의 전통과 폴란드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거의 만장일치의 책임감이 여기에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런던과 달리 파리의 〈쿨투라〉지는 처음부터 철의 장막에 의해 단절된 사회와의 접촉을 추구했다. 그들의 존재 근거는 서유럽에서의 보다 자유로운 방법을 활용하여 문화 활동으로

철의 장막 양쪽에서 지적 토론을 자극하고 정치 상황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 문학 번역과 보급의 정치적 의의

다시 1943년 중반으로 돌아가자면 스탈린은 서유럽 연합국의 지원을 받아 독일에 대한 힘의 우위를 다시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폴란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소련의 이해와 상충하는 폴란드 이해관계를 주제로 한 지상토론은 점점 연합국의 검열에 직면하게 되었다. 윈스턴 처칠 정부의 영국 전시 정보부 장관이 하원에서 정확히 “폴란드인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신문이 있다”(Bracken)고 주장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였다. 당시 이 말은 “두 명의 폴란드인이 사막에서 만나 처음 하는 일은 신문을 세우는 것”(Zbyszewski)이라는 식의 이야기로 각색되어 폴란드 공동체에 기억되었다. 하지만 어떠한 판본이든 이는 당시의 폴란드 활동가들에게 글로 쓰인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었는지를 입증한다.

지적인 대로 이들 활동가는 전통적 정치노선뿐만 아니라 1941년의 폴란드-러시아(시코르스키-마이스키) 협정, 알타협정과 영토 상실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 이주자, 망명정부, 해산된 군대의 역할에 대한 입장, 공산국가와의 접촉 또는 귀환과 같은 수용가능한 협상, 폴란드 내 출판, 재원 등의 사안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도 분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출판사업이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입으로 복무하고 폴란드 민주주의의 전통 및 민족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탁월한 수단이라는 데에는 압도적인 의견일치를 보였다. 거의 모든 정당, 그리고 각 대륙에서 활동한 많은 협회와 단체가 신문을 발행했다. 또 이는

도서 출간에 의해 보충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공동체를 통합하고 그들의 여론을 형성했다.

정치적 상황이 저자, 출판사, 유통사, 독자들의 일상생활을 그토록 강력하게 애워쌌다는 사실이 가져온 결과 중 하나는 비록 문학작품이라 하더라도 도서의 출간 역시 정치적 차원을 떠났다는 것이다. 예술적이거나 철학적인 미덕이 아니라 정치적 가치로 인해 출판 및 보급용 작품이 선정될 위험은 매우 높았다. 1956년 <쿨투라>지의 편집자 기에드로 이치<sup>(1946a, 172)</sup>는 서유럽으로 망명한 외교관이자 장래에 노벨상을 받게 될 시인 체스와프 미워시<sup>Czesław Miłosz</sup>에게 “도서 출간은 나의 직업이 아니라 그저 정치활동의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번역 문학은 폴란드 독립 회복이라는 대의에 딸린 목표에도 복무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외국 문학은 민주적 전통과 정신적 독립의 보존에도 일조할 수 있었다. 예컨대, 그것은 그들의 조국을 지배하고 있던 적대적 정치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1947), <1984>, 알베르 카뮈의 <반항하는 인간>(1958),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책(1970년대)과 같이 직접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구 문학작품의 번역에 정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컨대, 망명정부 기관에 의해 출간된 <동물농장>은 물자가 부족했던 당시 유일하게 외국 제목을 달고서도 5천부에 달하는 인쇄부수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에서 발행된 초판보다 많은 부수였다<sup>(World League, Wiadomości, Wierzbiański)</sup>. 기에드로이치는 곧장 번역 출간에 착수했다. 그의 초기 비전에는 <쿨투라>지 창간호(1946)에서부터 홍보된 아서 쿠퍼리의 <한낮의 어둠>과 조지 오웰 산문집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에드로이치는 1947년의 첫 몇 달을 이들 작품을 인쇄하는 데 쏟았다. 두 사업 모두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1954년 폴란드에서 발행된 한 기관지를 통해 <쿨투라>지에

연재된 <한낮의 어둠>(1950)과 오웰의 <1984>(1953)가 폴란드에서 은밀하게 읽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 번역 작품의 발행인이 자신이 느낀 만족감을 그의 협력자와 공유했을 때 이러한 노력에 갖는 정치적 가치는 분명해졌다.

해외의 주요 폴란드 출판사들은 미국 냉전 프로그램의 일환이자 CIA가 비밀리에 후원한 무료 인쇄·배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도서, 잡지, 번역 작품을 출간했다. 현대 영미시인이든<sup>(Mayewski)</sup>, 아니면 어학사전과 교재이든 미국 정부와 CIA의 관여는 그들의 후원 하에 출판되거나 보급된 정치적으로 가장 무해한 출간물에서조차 정치적 태도를 입혔다. 이들 도서는 서구 문화에 대한 접근을 통해 서구지향적 태도를 육성할 희망으로 대량으로 배포되었다.

해외에서 출간된 폴란드 출신 저자만큼이나 조국을 점령하고 있는 적대 체제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었을 것이다. 특히 강력한 타격이 되었던 것은 망명 후에 체제에서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리는 작품을 서구에서 발표한 저자들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는 시인 체스와프 미워시이다. 폴란드를 떠난 그는 스탈린주의에 매혹된 지식인들을 혹평하는 문학평론집 <사로잡힌 정신>(1953)을 저술했다. 이 책은 곧장 영어로 번역되어 서구의 냉전 선전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이에 비견할만한 효과를 가진 것은 폴란드에 거주하는 저자들의 해외 출간이었다. 이 중에는 폴란드 내에서 정식 발행이 금지된 저자와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정치적 이단의 낙인이 찍혀 있었으며 이들의 작품을 해외에서 출간하겠다는 결정은 다른 부수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고유하게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다. 다채로운 풍자 언론인이자 정치인이었던 스테판 키시엘레프스키<sup>Stefan Kisielewski</sup>는 이러한 위험을 가장 빨리 받아들인 이들 중 하나였다.

검열에 시달리는 가운데 그는 해외 출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스스로 인정하듯 타고나 소설가가 아니었음에도 그는 '후대를 위해 현 체제 하에서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다. 그의 첫 소설은 1967년 <쿨투라>지를 통해 가명으로 해외에서 발표되었다. 한 공산당 검열관이 주장하듯 당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당 기관들의 역학, 내부적·개인적·부문간 정치게임의 방법"(Censor 127) 등을 폭로했으며 이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통제기관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활동들이 전개되었다.<sup>1)</sup>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산권 국가와 일부 이주자 모임들이 의도했던 장벽에는 사실상 많은 구멍이 있었다. 예컨대, CIA의 도서보급사업은 우편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철의 장막 너머에 있는 개인과 기관에 성공적으로 다양한 서적을 발송했으며 방문자들은 서유럽에 산재한 보급지점을 통해 이들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이 다수의 출판사, 우편발송인, 배포자, 수령 기관과 개인의 일상분란한 활동에 의존했으며 알리바이를 제공한 이주자 단체, 서점, 도서관 등의 기존 체계를 빈번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주자들 역시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인쇄물은 도서보급사업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철의 장막을 오갔다. 여기에는 우편이나 여행용 가방은 아니지만 외교행낭, 차량 내 비밀 칸, 인도주의 구호식품 통조림 등의 더욱 기발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예. Giedroyc 1953, Kultura).<sup>2)</sup> 많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시도들은 추적하거나 계량화하기가 어렵지만 미국의 프로그램은 기록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1991년 종료될 때까지 미국의 도서보급사업은 약 천만 부의 도서를 동구권에 보급했으며 이 중 4백만 부는 폴란드에 배포되었다(Rudzki, 218). 체제가 급하는 서적을 철의 장막 너머로 보급하는 일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취해진 행동에 다름 아니었다.

CIA 프로그램에서 보급지점의 하나로 기능했던 곳은 런던의 폴란드

도서관이었다. 보급지점들은 배포 보고서를 기록해야 했으며 이렇게 보존된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배포된 책의 제목, 배포일자, 수령자에 관한 일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974년 9월 10일자 애덤 산다우에르 Adam Sandauer의 방문 기록에는 '교수의 아들'이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한 저명한 공산주의 언론인이자 비평가의 아들이 체제가 반기지 않는 일련의 서적을 가져갔음을 명시하고 있다. 추경권대 그는 이 책들을 폴란드 내로 밀반입했을 것이다(POSK a.).<sup>3)</sup>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방문자들은 많은 책들을 가져갔지만 일부는 몇 안 되는 책만을 가져갔다. 또 앞서 가져간 책을 반환한 이들도 있었는데 이는 국경 너머로 반입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작품을 일부 포함하여 16권이라는 상당량의 책을 가져간 바르샤바 의과대학의 방문자처럼 특별한 밀반입 계획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스웨덴 경유 - 책은 스웨덴 사람들이 반입할 것임"(POSK a. b. c. d.).<sup>4)</sup>

이 배포 보고서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문학 번역과 보급이 독립의 회복이라는 대의와 이에 수반되는 목표를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또 활동가들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스웨덴을 경유해 책을 반입하려 했던 학생들이 폴란드어로 번역된 문학작품(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와 오웰의 책들)과 별개로 폴란드 저자들의 책도 가져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저자들은 서구로 이주한 이들로 여기에는 소련 수용소의 생존자(구스타프 헤를링-그루진스키 Gustaw Herling-Grudziński나 베아타 오베르틴스카 Beata Obertyńska), 런던 서클이 지키고자 했을 법한 애국적·종교적 이상을 파괴한 인습타파적 저자(비톨트 고프로비치 Witold Gombrowicz), 체제가 그의 서구 망명을 크게 체감했을 또 다른 저자(마렉 흐와스코 Marek Hłasko) 등이 포함되었다. 보고서는 상기한 풍자 언론인 키시엘레프스키

(일명 스탈린스키<sup>Stalinski</sup>)와 같이 국내 저술가들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보고서는 또한 런던에 기반한 — 따라서 공산당의 검열을 받지 않았던 — 문헌학자이자 비평가인 다닐레비초바 Danilewiczowa가 폴란드어로 쓴 〈영국 작가의 초상<sup>Portraits of English Writers</sup>〉처럼 해외 작가에 관한 짧은 글조차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었는지 보여준다.

지하 출판물의 제작 여건과 품질, 그리고 부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폴란드 성인 인구 중 26%가 1980년대 지하 출판물을 일부 접했으며 11%는 지속적으로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7백만 명과 3백만 명을 상회하는 수치이다.<sup>(Mielczarek 2006, 21-22; 2014, 370, 372-374.)</sup> 5) 비밀 활동가들이 발행하고 보급한 것에는 원본 작품 뿐만 아니라 이주자 및 해외 저자 출판물의 사본도 포함되었다. 이주자들이 저술한 많은 도서들이 비밀리에 사본으로 제작될 것이었다. 요컨대, 지하 베스트셀러였던 서구 작품의 원본이나 사본은 번역과 도서 출간의 정치화된 경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당시 최고의 저자들에는 직접적인 정치적 성격은 없지만 매우 인습타파적인 이주자 저자로서 말년에 출간된 일기로 유명한 고프로비치, 소련 수용소 생존자로서 이후 서유럽으로 이주한 헤틀링-그루진스키, 영국의 오웰이자 〈사로 잡힌 정신〉을 쓴 미워시, 〈수용소 군도〉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아서 웨슬러, 그리고 국내 저자로서 〈작은 묵시록<sup>A Minor Apocalypse</sup>〉을 쓴 타데우시 콘비츠키<sup>Tadeusz Konwicki</sup> 등이 포진하였다. 지하 출간과 보급은 많은 경우 이주자들의 활동과 결합되었으며 국경을 가로질러 인쇄·출판·재정 조달·밀반입의 완전한 협업 체계가 형성되었다. 특히 인쇄물, 기금, 인쇄 장비 등은 CIA의 도서보급사업과 병행하였다. 예컨대, 상기한 바와 같이 스웨덴을 경유한 출판물 밀반입 사례는 데탕트 시기 스웨덴에서 폴란드로 향하는 연락선 노선이 개방되고 이것이 밀반입 통로로 활용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원고가 폴란드에서 준비되고 출간은 해외에서 진행된 다음 다시 폴란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폴란드 최초의 비밀 문학잡지인 〈자피스<sup>Zapis</sup>〉지는 런던의 〈인덱스 온 센서십<sup>Index on Censorship</sup>〉으로 재출간된 후 많은 사본들이 폴란드로 다시 유입되었다. 이주자 잡지 〈아넥스<sup>Aneks</sup>〉지처럼 다른 곳에서 출간된 글을 재 수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매우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학작품들은 여러 국가와 언어, 매체를 오가는 매우 복잡한 궤적을 거쳤다. 예컨대, 조지 오웰의 〈1984〉는 런던에서 번역되어 CIA의 보조금을 받은 파리의 출판사에서 발행되었으며 인쇄는 독일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작된 책은 폴란드로 밀반입된 후 지하에서 대량 복사되었다. 〈1984〉가 유통된 다양한 형태 중에는 음성녹음본도 있었다. 그것은 바르샤바 음악학교에서 비밀리에 녹음되어 카세트테이프 형태로 민회의 자유유럽방송으로 발송 또는 밀반입된 후 1984년 크리스마스에 폴란드로 다시 송출되었다.<sup>(Orwell 1949, 1984a, 1984b.)</sup> 6)

## 결론

2차 세계대전에 의해 추동된 폴란드인 이주 현상은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잠재적 이주자들이 서구 잔류와 귀환 중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거기에는 정치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는 이러한 결정의 근거가 개인적인 것이더라도 마찬가지였다. 서구에 잔류하거나 폴란드를 떠나는 것은 정치적 저항이 될 수 있었으며 또 그렇게 여겨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서구에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될 잠재력이 있었다. 처음에는 동구와 서구 사이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3차 세계대전을 위한 잠재적 군사적 지렛대로 사고되기도 했다. 폴란드로의 귀환은 체제와 새로운 전후 정치질서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서구로의 이주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망명길에 오르게 한 것이 조국 독립의 상실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망명의 일차적인 공동의 목표는 독립의 회복이었다. 궁극적 목표가 동일했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했다. 어떤 이들은 보존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전쟁 전의 국가 지위와 문화의 자취를 지키고 점령된 조국 밖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때 묻지 않은 온전한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이렇게 보존된 조국의 '진정한' 문화가 주권 회복과 함께 이식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진정한 국가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 상상했다. 다른 이들은 극단적 보존이 철의 장막 뒤에서 살아가는 민족의 핵심부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다른 개념 하에서 그들은 민족의 핵심부와 접촉함으로써 철의 장막 양 편에서 동시에 정치적 현실을 바꾸고자 했다.

이주자의 관점에서 독립이라는 저 정치적 목표는 보존과 변화를 동시에 요구했다. 그것은 한편으로 정치적 연속성과 민족적 정체성의 보존을 요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상황을 바꿀 수단의 발견을 요구했다. 문화 활동은 민족적 정체성과 융합의 보존에 기여했다. 때로 문화 활동은 정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폴란드의 대의를 국제무대에 표현할 수단을 제공했다.

폴란드 국민들에게 보낸 망명정부의 고별사는 망명 동포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입으로 복무할 것을 촉구했다. 서구에 망명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서구에서 그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없는 이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으나 글은 이 모두를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 결과적으로 문화조차 도구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문화와 문학 번역은 독립 추구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으며 서구 세계 곳곳의 이주자 센터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폴란드에도 이를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많은 경우 이는 전 세계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달성되었다.

반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작가인 조지 오웰은 소련 점령국에서 온 난민들이 “러시아와 서구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릴 신이 내린 기회”라고 말한 적이 있다<sup>(Orwell 1947b, 207)</sup>.<sup>7)</sup> 유럽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이 문화와 문화의 개입에 의해 형성된 사람들의 이념과 태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것이든 간에 문화와 문학, 또 번역의 정치적 활용은 설령 그것이 도구적이었다 하더라도 보다 평화적인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에 관심을 갖는 사회를 재비하는 것이었다. 아직 우리 인류가 빈번하게 이주 위기로 이어지는 집단 분쟁을 성공적으로 예방할 메커니즘을 고안하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갈등의 시대에 문화와 문학이 어떠한 역사적·정치적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연구는 검열을 비롯해 문화와 자유로운 말에 가해진 다양한 정치적 압력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향후에도 매우 의미미한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 현상 자체가 줄어들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주의 인문학은 분명 그 타당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분야라 할 것이다. 

## 권총을 찬 피난자, 남근을 가진 노병: 1949년 즈음의 대만의 귀신<sup>1)</sup>

성 메이 마 Sheng-mei Ma

미시건주립대학교 Michigan State University

총사령관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에 소속된 약 백만 명의 본토 중국 인들과 그 가족들이 1949년 대만으로 후퇴하면서 중국은 마오쩌둥 의 장 휘하의 공산군으로 넘어갔다. 1895~1945년의 일본 식민지배에서 막 벗어난 대만은 인구의 대부분이 푸젠인과 광둥인, 그리고 명·청조 시기 그 조상들이 대만해협을 건너 이주해 오스트로네시아 원주민들을 복속시킨 하카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sup>2)</sup> 따라서 대만의 역사적 난맥상은 1949년 무기 및 어린 가족들과 함께 국민당 병사들이 도착했을 때 정점에 달한다. 이렇게 밀려든 군인과 민간인들은 일제로부터, 또 원주민 땅을 차지한 남중국 정착자-식민지들로부터 통제권을 인계받은 점령군이었는데? 아니면 전쟁 난민이었는데? 그것도 아니면 둘 모두이거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적합한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 완전히 다른 무엇이었는가?

### <원문출처>

이 글은 2022년 5월 20일-21일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식>에서 발표된 원고 “Migration, Literary Translation and Reception as Political Acts”를 저자의 동의하에 번역한 것입니다.

### <저자소개>

#### 크리스티나 비에슈첵 (볼로냐대학 / 이그나티아눔 아카데미)

크리스티나 비에슈첵 Krystyna Wieszczek은 이탈리아 밀라노대학 영어학과 방문학자,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University of Bologna 영어강사, 폴란드 크라쿠프 소재 이그나티아눔 아카데미 Ignatianum Academy in Cracow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비에슈첵은 폴란드에서 영어문학학으로 학사 학위를, 스페인에서 번역학으로 석사 학위를, 그리고 영국 사우스햄턴 대학에서 영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세기 문학, 번역, 그리고 검열이 주요 연구관심사입니다. 박사 논문은 조지 오웰이 냉전시기 공산당의 검열 속에서 폴란드에서 지하 출간되어 수용되는 과정, 그리고 해외 폴란드인 이주자들 사이에서 수용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대만의 역사적 정체성이라는 난제는 돌아가신 내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명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머니는 언제나 마지못해 피난 전설의 — 그 자체로 정형화된 — 단편들을 들려주곤 하였다. 피난은 어머니 세대의 본토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일제로부터, 이후에는 1930년대와 40년대의 중국 공산당으로부터의 탈출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너무나 흔히 들을 수 있었던 단어였다. 피난이라는 말은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저장되어 있다. 그것은 끊임없는 전쟁, 또 피난민의 물결과 함께 수천 년의 왕조사를 통해 반복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를 둔 젊은 시절의 어머니 — 둘째는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다 — 와 아버지는 광저우 항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공산군의 공격이 있기 전 대만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려 기를 썼다. 부두와 배를 잇는 판자 위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할 때에는 그토록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몸서리가 쳐지는 듯 어머니의 눈과 손, 그리고 목소리가 흥분되었던 모습이 기억난다. 완전히 절망하던 중에 부모님은 갑자기 아버지의 황푸군관학교 동료였던 주진평(朱金峰)을 발견했다. 그는 육군 장교로 창병(鎗兵) (말 그대로는 “권총 병사”를 의미하는 무장 병사) 분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주진평은 보트를 징발해 오도록 병사들에게 명령하고 부모님과 큰오빠를 태워 배의 먼 쪽 승선구로 데려갔다.

주진평과 그의 “건넌”들이 없었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대만에서는 말이다. 내가 문화혁명의 중국에서 국민당 출신 집안에 태어나 성년이 되었다면 내가 외국 태생의 미국인 학자로서 영어로 이 글을 쓰고 있지는 못했을 것이다. 내가 대만에서 자라고 있던 시절 주진평은 매년 음력설 우리 가족의 귀한 손님이었다. 그는 “훤의 도시” 투청(土城)의 한 외진 마을에 있는 공장에서 감독으로 일하며 오랫동안 독신자로 살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아이의 상상에도 그의

이름(金峰)이 뜻하는 정상에서 바닥으로 그가 얼마나 많이 몰락했는지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아이는 또 “감독”이 어찌면 수위를 바꿔 부른 부모님의 완곡어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유년기 내내 나는 그의 강한 억양을 이해하는 데 애를 먹었으며 그의 느리고 부자연스러운 말투를 따라갈 인내도 없었다. (대만어를 쓰는 현장 노동자들이 어떻게 감독의 지시를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대만인, 즉 원주민이었던 젊은 아내와의 결혼에 실패한 뒤 모든 연금과 재산을 잃었다. 게다가 엉터리 수술로 턱까지 망가졌다. 한 음력설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있어 거의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 우리의 “구원자” 주진평 아저씨는 곧 사라졌다. 그의 “권총 병사”들이 대만으로 건너왔다면 그들의 사정은 훨씬 더 나빴을 것이다.

감독에서 수위를 읽어내는 건 진실을 회복하는 것인가, 아니면 왜곡하는 것인가? 나는 고인을, 그리고 수잔 손탁의 말을 빌리자면 “타자의 고통”을 존중하지 않는가? 주진평이 내 아버지의 동료였다면 왜 아버지는 자신의 “건넌들”을 지휘하지 않았는가? 공포에 질려 있는 부딪기의 피난민 무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보트를 잡으려던 여기에 오르려 서로 밀치는 이 이수라장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총검이 동원되었을까? 주진평이 그렇게 압도적인 무력을 재량껏 쓸 수 있었다면 군대에서 그의 계급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는 대만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몰락했는가? 부모님이 주진평의 보트를 타고 탈출할 때 그도 함께 탈출했는가? 만약 그랬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까? 그러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는 이유는 그의 연례 방문 때 그를 대접하는 것이 가족의 구세주에 대한 감사 인사로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일까? 짐작하겠지만 주진평의 결혼 실패는 그가 참석하는 음력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결코 언급되지 않았다. 주진평이 광저우에서 가족을 구하는 이 전승 이야기는 어떻게 대만에서의 그의 비극적 종말로 나아갔는가?

주진평의 몰락 서사는 나의 가족들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또 대만에서 미국으로 탈출한 것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나의 가족은 대만으로의 여정에 올랐으나 대만인의 타자, 즉 외성인(바깥 성 사람들, 또는 대륙인)의 끝없는 도피 속에서 결국 수십 년이 지나 미국에 상륙했다. 그리고 백색 미국의 “영원한 이방인”이 되었다. 이 글이 마치 롱스토로 가족사와 집합적 역사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인 양 나는 분명 초점을 벗어나고 세부는 희미해지고 있다. 진실은 절대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저런 질문만이 고인이 되신 나의 부모님이 마지못해 들려준, 어쩌면 신뢰할 수 없는 기억을, 또 두 번이나 피난을 떠나야 했던 외상에 대한 나 자신의 후기억을 에워쌀 뿐이다. 오히려 가려진 눈이 역사의 귀신섬인 대만에, 그리고 유령성<sup>spectrality</sup>에 특화된 집합적 무의식에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우쥬류<sup>吳淞流</sup>가 “아시아의 고아”(1945)라 이름 붙인 대만은 16세기 이래 오랫동안 포르투갈인, 네덜란드인, 스페인인, 영국인, 일본인들, 심지어 왕조시대 중국의 식민자들이 잠시 머물며 연료를 보충하던 편리한 중간기착지였으며 이들 중에는 심지어 정착하는 이들도 생겼다. 대만은 이 외국 주인들이 아버지 행세를 하다 내버린 “건국의 기아<sup>嬰兒</sup>, founding founding”<sup>3)</sup>였다. 1949년 들어온 마지막 주인은 자신이 대만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주장했다. 이 글은 소중한 생명을 위해 대만으로 도망은 피난자들 — 일부는 권총을 차고 있었다 — 이 다른 생명을 짓밟고 지나가는 저 고통스런 순간을 다룬 장편소설과 단편소설,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진술, 영화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이미 그곳에 정착해 있었던 정착되지 않은 이들 속에 정착했다. 이는 전적으로 인간이 만든 업보의 고리이다. 특히 나는 소아성애자·도착증자·귀신으로서의 노병<sup>老兵</sup>(단수나 복수의 늙은 병사, 또는 국민당 퇴역군인)이라는 문화적·영화적 모티프를 탐구한다. 주로 외성인 2세 작가들에 의해 표상되는 — 더 이상 권총으로 무장하지 않았지만 환상적 남근으로 물신화되는 — 이들

노병 또는 퇴역군인들은 대부분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직업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만으로 이주해야 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중국에서 총알받이로 징집된 소위 “납치 병사들”이었다. 돈도 가족도 없이 전후 대만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온 집단의 하나인 노병 겸 성적 약탈자들이 권총을 찬 국민당 피난자들과 그들 자녀들의 양가적 잠재의식을 전지한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집합적 외상과 죄를 그들 사이에 있는 희생양에 투영한다. 노병에게 전이되는 것은 또한 자신들이 대만(인) 중심의 정치와 문화에서 점점 더 어긋나고 있다는 외성인의 인식이다. 주인과 인질<sup>host/age</sup>의 역사적 아이러니는 그렇게 흘러간다. 숙주 속에서 증식하는 외래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원주민과 그들의 땅을 빼앗아 주인이 된다. 외성인의 운명이 그러하듯 흥망과 사회의 형태로 나타나는 시간의 우로보로스 속에서 잡아먹는 것은 결국 돌고 돌아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섬에 적응하지 못한 이방인으로 여겨지더라도 뜻밖에도 노병은 대만을, 고아 귀신들 — 귀신들이 곧 풀려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표현은 비유로 쓰임새가 있다 — 을 체현한다. 외성인과 대만인 작가들은 중국과 국제 공동체가 대만에 행한 것을 노병 — 늑대 옷으로 구속되어 있는 희생양 — 에게 행한다.

『눈에 보이는 귀신<sup>看得見的鬼</sup>』(2004) “서문”에서 볼 수 있듯 대만인 작가 리양<sup>李昂</sup>은 오래전 가부장적 억압에 시달리는 대만 여성들을 나타내기 위해 고딕식 은유를 사용한 바 있다. “이렇게 귀신의 나라가 되어, 나라는 있지만 영토는 없는 것이 되어, 일찍이 대국의 몸 안에 있던 소리는 자취를 감추고, 그저 세상 밖에서 어지럽게 울리는 귀신의 소리만, 귀신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하게 되었다”<sup>(8, Chia-rong Wu, Remapping the Contested Sinosphere, 2020, p.35에서 재인용(국역: 김태성 옮김, 문학동네, 2011, 7쪽, 번역 수정))</sup>. 결과적으로 리양은 대만의 정체<sup>政體</sup>를 여성의 신체와 접목한다. 스스로를 인간이 아닌 귀신이라 부르는 것은 자기 비하와 자기 풍자의 태도를

## 노병과 그 제작자

암시하며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1905)에서 볼 수 있는 농담의 프로이트적 심리화를 연상시킨다. 대만은 프로이트적 잠재의식이러기보다 국제 공동체에 의해 명시적으로 정치적 추방자로, 국가가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13개 국가 — 내가 확인한 바로는 마지막으로 교황청이 추가되어야 한다 — 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보기에 이천삼백만 대만인들에게는 사실상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실로 대만인들은 하나의 국민도 아니다. 집단적 권리박탈은 『눈에 보이는 귀신』에서 “가부장적 한인(漢人) 지배 사회”<sup>(34)</sup>에 휘둘리는 리앙의 다섯 여자 귀신들에게 훨씬 더 잘 들어맞는다. 하지만 마술적 장애(magical disability)가 리앙의 귀신 비유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2011년 출간된 소설 『병의(病身)』에서 리앙은 함축적이긴 하지만 대만의 반복된 식민화를 초자연적인 친밀한 존재의 정신적 병의에 비유한다. 귀신에게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귀신』은 리앙과 대만의 전문분야인 유명성을 한층 더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산은 대만계 호주 학자인 치아롱 우(Chia-rong Wu)로 이어진다. 『한자문화권의 재구성(Remapping the Contested Sinosphere)』에서 리앙의 『눈에 보이는 귀신』을 인용하면서 우는 리앙을 차용해 대만을 “귀신섬”으로 명명한다. “귀신섬”은 베이징이 천명한 “중국의 세기”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운 가운데 점점 사면초가에 몰리고 취약해지는 한 국가의 “반쪽짜리 인생”을 표현하는 데 적절한 용어이다. 그다지 “대국”적이지 않은 “몸”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실로 “귀신의 소리”이다. 이물같은 노병의 입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속으로 밀어 넣어지는 그러한 소리도 예외는 아니다.

노병이 소아성애적이고 도착적이며 환영적인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라면 그들을 만든 건 미친 과학자 프랑켄슈타인, 아니 탐욕스러운 중국과 국민당의 대만, 특히 대만에서 병사의 혼인을 금지한 국민당의 초기 정책이다. 대만의 사회학자 안토니아 차오(Antonia Chao)는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한다.

국민당 정부가 대륙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비자발적으로 모집함으로써 자신의 군사적 실패에 대응하고자 한 것은 1946~1949년의 국공내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다. ... 50년대 내내 이들 ‘납치 병사’와의 혼인은 국가안보 유지라는 취지에서 대만을 근거지로 삼은 국민당 망명정부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이 강제 규정의 결과는 이후 50년간 ‘납치 병사’(지금은 공식적으로 “영예시민(glorious citizen)”으로 분류) 핵심 그룹의 대부분이 미혼 상태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The Modern State’, 2004, 2)

“비자발적 모집”이란 많은 경우 총알받이로 쓰기 위한 강제 징집을 의미한다. “영예시민”은 “명예시민(honored citizen)”으로 번역하는 편이 나은 것이다. 하지만 성적 문제는 그들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손상시킨다. 차오는 일련의 사회학 논문을 통해 이러한 성적 비하(sexual abjection)를 상술하는 한편 이것을 조직하는 세 가지 동기를 언급하고 있다.

차오는 「국가 언어의 공공연한 비밀(Nationalistic Language as an Open Secret)」(2002) 초록에서 “대륙인 1세대”와 진행한 면접을 인용하며 “마술적 리얼리즘”이라 명명된 그들 성생활의 “공공연한 비밀”을 분석한다. 이러한 노병들과의 면접은 단편적이긴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논문 부제의 핵심어인 “물질성”은 결혼과 가족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거래를 가리킨다. 제목에 나와 있는 “공공연한 비밀”은 노병의 비참한 생활 속에 만연한 사기를 묘사한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면서 생계를 보충한다. 차오는 다이 아저씨를 비롯해 노병을 “신체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도착적”이라고 생각하는 선 양의 목소리를 기록한다. 또 다른 피면접자인 “다이 아저씨”는 은퇴 이후의 삶을 “노병의 배고픈 귀신”(72)을 달래는 데 바쳤다. 짐작하겠지만 이들 귀신이 안식을 찾도록 돕는 것은 자신의 안식을 찾기 위한 다이 아저씨의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선 양의 눈에 도착으로 보이는 것은 자신의 전우들, 고인이 된 모든 노병을 달래야 한다는 다이 아저씨의 조바심에 불과하다.

「근대국가, 시민성, 내밀한 삶」(The Modern State, Citizenship, and the Intimate Life)에서 차오는 “대만의 영예시민과 그들의 대륙신부”를 연구한다. 현장 연구를 진행하면서 차오는 “약주 아저씨들”로부터 “남자와 여자에게 좋다”는 유명한 최음제를 탄 음료를 마셔보라는 요청을 두 번이나 받았다. 이 외로운 노년의 독신자들은 1차 자료를 수집하던 한 대학 연구자를 성노동자로 오해한다. 장 아저씨는 노골적인 유혹을 하기도 했다. “내 침대는 그리 작지 않아. 하는 데 문제 없어!”<sup>(6)</sup> 하지만 또 다른 노병인 지앙 아저씨는 여러 명의 파트너들, 실질적으로는 “네 명의 아내”<sup>(17)</sup>와 관계를 즐기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인용부호를 붙여 차오의 부제에 반영되어 있다(大體新貌). “모든 명예시민은 변태들이예요.”<sup>(20)</sup>. 이러한 부정적인 대중적 인식은 노병의 성생활을 놀림거리로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차오는 유물론적이고 사회경제적인 분석을 통해 노병의 일탈에 대한 가정을 해체하고자 한다. 도착에 대한 혐의는 「내밀한 관계와 윤리적 실천」(Intimate Relationships and Ethical Practice)에서 귀신이라는 주제로까지 나아간다. 1948년 중국 한커우 근처에서 있었던 강행군을 회상하면서 웨이 아저씨는 이렇게 자조한다. “어쨌든

당시에 나는 사람과 귀신 중간에 있었지. 죽으면 난 귀신이 돼. 살아남는다 해도 귀신과 그리 다르지는 않을 거야”<sup>(538)</sup>. 웨이 아저씨는 대만의 생활지원시설인 “명예시민의 집”에 내버려진 채 노쇠하고 귀신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현재를 빈정거리기 위해 젊은 시절의 자신을 깎아 내린다. 자기 연민과 자조는 자신에게서 존엄을 앗아간 사회를 부끄럽게 할 목적으로 행해진다.

노병들이 안고 사는 일생의 딜레마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차오의 작업은 외성인 작가들, 주로 대만의 외성인 2세 작가들이 그리는 노병의 문학적 표상에 비견할 만하다. 많은 외성인 2세 작가들은 대만에서 나고 자랐으며 상당수는 밀려드는 대륙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만 전역에 세워진 군인가족 마을인 권촌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외성인이라는 명칭은 본성인과의 구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본성인은 1949년 훨씬 이전부터, 일부는 18세기와 19세기부터 그 조상이 푸젠, 광둥, 대륙의 여타 성에서 온 대만 주민들을 가리킨다. 세기가 바뀌면서 외성인 작가들 또는 2세 작가들은 잠재의식적이더라도 본성인 또는 대만인 작가들의 본토주의 운동에 대응하는 집단적 뿌리 찾기로서 노병을 새롭게 그리는 데 합류했다.<sup>4)</sup> 본성인들이 종족 정체성을 형성하고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하면서 이천삼백만 대만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외성인들은 자신들의 유산을 주장해야 한다고 느꼈다. 현대화되고 다수가 지배하는 대만에서 한물간 주거사업인 권촌을 비롯해 대부분 국민당 정부와 관련된 외성인의 상징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은 2세 작가들의 향수 어린 회고기 시작되는 자극제가 되었다. 소아성애자<sup>pedophile</sup>·도착증자<sup>pervert</sup>·귀신<sup>phantom</sup>으로서의 노병으로 수렴되는 문학적·예술적 응시는 이미 차오의 사회학 논문들에서 그 전조를 엿볼 수 있다. 그녀의 논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 가지 p-s들을 모두 에두른다. p-s는 만다린어의 네 번째 성조로는 복수의 “방귀들”을 의미하는 pi-s(屁)로 읽힌다.

그것은 폴사납고 악취가 나며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만 사람들의 엉덩이 bottom — 이는 의도된 말장난이다 — 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온다. 적어도 노병은 대만의 소화 문제를 나타내는, 말하자면 납치한 병사들을 먹고 그들의 달콤한 청춘을 빨아들인 뒤에 변비에 걸렸음을 나타내는 증상이다. 더 넓게 보자면 노병은 귀신섬의 외상적 역사와 문화가 지닌 고유한 불쾌감을 이해할 실마리 역할을 한다.

노병이 외성인 작가와 예술가, 즉 “권총을 찬 피난자”의 자녀들을 통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내가 서두에서 말한 “집합적 외상과 죄”는 “후외상<sup>postrauma</sup>과 원죄”로 고쳐야 할 것이다. 요컨대, 노병의 연대기를 서술하는 이들 작가들 중에는 대만해협을 건너는 피난을 직접 경험한 이도, 학교 운동장에서의 괴롭힘을 제외하고 대만인들을 상대로 개인적으로나 체계적으로 국민당의 차별 정책을 실행했을 만큼 나이든 이도 거의 없다. 하지만 1세대 외성인들이 늙어가고 권총이 소멸하며 여타의 국민당 상징들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과 마주하면서 그들은 말하자면 바닥<sup>bottom</sup>으로의 경주를 통해 과거를 재구성한다. 혐오스러운 노병의 존재는 스스로에게 불러주는 외성인의 비가를 가리킨다. 이 노래는 죽음을 애도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과거의 죄, 즉 죽은 자와 산 자, 대륙인과 대만인에게 가한 범죄의 인정처럼도 들린다. 많은 경우 노병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그들의 삶을 무대로 삼더라도 이들 노병 이야기는 노병보다는 외성인 2세 작가들 자신과, 노병의 기억보다는 외성인의 도착점 — 매리앤 허쉬<sup>Marianne Hirsch</sup>가 정의하는 — 후기역<sup>postmemory</sup>과 관련된다.<sup>5)</sup>

이러한 동학은 외상 연구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홀로코스트 서사라고 정면으로 대비된다. 『가족액자<sup>Family Frames</sup>』(1997)에서 허쉬는 “후기역은 세대간 거리에 의해 기억과 구별되며 깊은 개인적 관련성에 의해 역사와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후기역은 “바로 대상 또는 근원과의

관계가 회상이 아닌 상상적 투자와 창조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에서 강력하고도 매우 특수한 형태의 기억”으로 여겨진다. “후기역은 출생 이전의 서사가 지배하는 속에서 성장한 이들, 이해할 수도, 다시 만들어 낼 수도 없는 외상적 사건에 의해 형성된 앞 세대의 이야기에 의해 뒤늦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비워지는 이들의 경험에 특징적이다.” 허쉬는 서정적인 각주를 통해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후기역]은 기억 자체만큼 가득차 있고 기억 자체만큼 비어 있다. 또 기억 자체만큼 구성된 다”<sup>(22)</sup>. 실로 기억은 순간적이고 무형적인 시냅스적·전자기적 신호 서지 surge 외에는 어떠한 육체적 실존이 없음에도 마음의 눈을 흘러넘치고 심지어 눈물로 사람들의 눈을 채운다.

『후기역의 세대<sup>The Generation of Postmemory</sup>』(2012)에서 허쉬는 1997년 이후 그녀를 짓눌러 온 홀로코스트 가족 전승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그녀는 “내 부모님의 기억이 가진 크기와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것에 의해 떠밀려난 느낌”<sup>(4)</sup>을 말하며 그 무게의 크기를 설명한다. 허쉬가 느낀 부족함과 반대로 노병들에게 바친다고 하는 서사 속에서는 노병의 많은 부분이 “제거된다<sup>bumped off</sup>”. 그들은 외성인 작가들의 지금 여기에 대한 집착에 의해 대체된다. 말 그대로 노병은 “늙은 병사”를 가리킨다. 여기서 퇴역군인, 그리고 가족도 자녀도 없는 독신자는 하나로 합쳐진다. 어떤 외성인 작가도 노병에 대해 허쉬와 같은 가족 계보나 혈통을 주장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창조적 자아가 노병의 기억으로 “비워졌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허쉬의 후기역과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부모님의 기억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사실은 외성인들에게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유롭게 노병들에게 과실을 투영한다. 대만의 유명 작가 룡잉타이<sup>龍應台</sup>를 예로 들어보자.

룡잉타이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마잉주 시장 밑에서 문화국장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마잉주 대통령 밑에서 대만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다. 두 행정부 재임기간 사이에 해당하는 2009년 톱잉타이는 『천하잡지(天下雜誌)』에 〈대강대해1949(大江大海1949)〉를 발표했다. 후기에 서 그녀는 “홍콩대학교에 전혀 없는 ‘최고인문학자’ 교수직을 신설”해 톱잉타이가 “1년간 모든 일을 멈추고 글쓰기에만 전념”(281)하도록 해 준 콩량차오링(孔梁巧玲) 교수에게 현사를 바친다. 톱잉타이는 콩량링이 홍콩에서 짜낸 학술적 묘책을 산스크리트어 불교 용어로 축복을 의미하는 가지(加勝, adhiṣṭhāna)에 비유한다. 이렇게 대만 정치인과 홍콩 학자의 축복 속에서 톱잉타이는 1949년 국부천대의 이름으로 인터뷰, 회상, 역사적 사실, 상상적 가공과 개인적 몽상을 성기고 너저분하게 뒤섞은 콜라주를 우리에게 선사한다. 톱잉타이의 개인적이고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은 혼혈로 보이는 젊은 남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 — 그는 독일에서 교육받은 톱잉타이의 아들 필립으로 밝혀진다 — 으로 제사를 장식하는 첫머리부터 독자들의 눈에 들어온다. 그렇게 〈대강대해〉는 필립이 진행하는 톱잉타이의 인터뷰로 시작된다. 톱잉타이가 1952년 대만 가오슝에서 태어났다는 점에서 이 서두는 1949년의 국부천대와 별 관계가 없을뿐더러 톱잉타이의 연상력이 제목에 나와 있는 “큰 강과 큰 바다”에 머물지 않고 대륙과 역사 등의 훨씬 더 폭넓은 주제에 걸쳐 있음을 앞서 보여준다. 인터뷰 속의 인터뷰라는 이러한 메타서사는 책의 다층적 구조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맨 앞 장의 제사처럼 쓰인 글에서는 외성인을 국공내전의 “패배자”와 동일시하며 “내가 ‘패배자들’의 다음 세대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

대만 모더니즘 시인 구안구안(管管)이 다름아닌 톱잉타이의 첫 인터뷰 대상이고 그가 전형적인 노병, 국민당원들에 의해 “납치된” 병사 중 한 명이었다 하더라도(108) 톱잉타이는 계속해서 유명 정치인, 기업가, 과학자, 장군 등 대만을 움직이는 일련의 인물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모두 중국과 대만 사회의 상위 계층 출신으로 “밀바닥 인생들”인 “납치

병사들”과는 거리가 멀다. 예컨대, 구안구안의 인터뷰 뒤에는 야산(野蠻)의 인터뷰가 곧장 이어진다. 그는 훨씬 더 유명한 모더니즘 시인이지만 교장, 교사, 급우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일제와 공산당을 피해 달아난 피난 학생이었다. 두 시인들은 모두 인터뷰 도중 집을 떠나던 때를 떠올리며 흐느낀다(52, 65). 톱잉타이는 애정 어린 손길로 그들을 위로한다.

하지만 다름 아닌 구안구안조차 노병의 처량함과 대비되는 반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는 훌륭한 문인으로 발전해 사회적 사다리를 올랐기 때문이다. 톱잉타이가 구안구안을 으뜸가는 “노병의 본보기”, 사실상 유일한 노병의 사례로 내세우는 것은 “자수성가(pull themselves up by their own bootstraps) — 미국인들은 으스스해 때 자신들이 마치 미국 원주민, 흑인 노예, 중국 막노동꾼, 히스패닉 노동자를 착취한 적이 전혀 없는 양 이 표현을 즐겨 쓴다 — 하지 못한 노병 전체를 거부하는 것에 가깝다. 톱잉타이가 구안구안을 선택한 것, 또 구안구안만을 선택한 것은 미국의 주류 백인들이 흑인과 라틴계, 미국 원주민을 은밀히 비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수자의 본보기(model minority)”라는 명명법을 아시아식으로 변용한 것이다. 톱잉타이가 〈대강대해〉에서 피난 세대에 현사를 바칠 의도였다 하더라도 국부천대의 최하층은 “몰혀버렸다(drowned out)”. 또는 허위의 표현을 빌리자면 “떠밀려났다(crowded out)”.

이어서 톱잉타이는 중국의 지명으로 타이베이의 지도를 다시 그린다. 주요 도시 거리는 사방으로 중국 성과 도시의 이름이 붙어 새롭게 재구성된다. 빼어난 솜씨였지만 톱잉타이는 타이베이의 도시 거리와 중국의 도시가 합쳐진 지도뿐만 아니라 또한 수많은 무장 분쟁을 한가로이 돌아다니기로 선택한다. 이 떠돌은 필립의 독일 조상들에게 예를 갖추듯 2차 세계대전 중의 독일에까지 이른다. 집합적 기억과 전쟁을 피상적으로 훑는 것은 톱잉타이가 1949년의 대만해협을 가로지른 탈출과는 동떨어진 환상의 도피를 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도피는 이미 한참

전에 필립과 함께한 서두에서부터 그 조짐을 보였다. 룡잉타이의 방대한 집적거림은 마지막 백 쪽 가량에서 전후 일본인과 국민당군의 정착촌, 또 일본인들이 계획한 원주민 정착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책제목으로 사용된 “1949”보다는 “1949년 즈음”이라고 하는 편이 전시 레닌그라드, 전후 독일,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미국, 대만을 소요하는 그녀의 행보에 더 어울릴 것이다.

룡잉타이는 세 p-s로 타락한 노병의 모습에 반례를 제시하는 유일한 여성인 작가는 아니다. 장팡張放과 마슈馬修의 작품, 또 다소 덜하지만 영화 <라오모의 두 번째 봄 老莫的第二個春天>(1984)에 나오는 노병은 철저히 남성미가 넘친다. 노병 주인공이 남성성을 구현한다는 주제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장팡과 마슈는 사실 정반대되는 성격의 작가들이다. 1932년 산둥에서 태어나 대만 국민당 문예기관의 일원으로 활동한 장팡은 『밀물이 차오를 때 潮湧時』(2001)을 통해 대부분 대만에서 나고 자란 여성인 2세 작가들에 맞서는 대항서사를 집필한다. 늙고 힘없는 노병 대신 주인공 자오테위안Zhao Iron Origin은 남성성의 전형으로 산둥의 10대 연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스무 살 어린 원주민 아내와 길 건너편 사랑에 목마른 과부에게도 엄청난 성적 쾌락을 제공한다.

자오테위안은 동대만의 고속도로에서 교자를 비롯한 음식을 팔아 생계를 꾸려간다. 그의 아내는 자오테위안을 “남편이자 아버지”(17)로 여긴다. 제목은 자오테위안과의 관계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최고조의 상태를 암시한다. 그의 성적 기량에 대한 예의라도 되는 양 중년여성이나 자오테위안의 잠자리 파트너들은 늘상 여러 번의 오르가즘을 경험한다. 잠자리를 가진 후에 과부는 자오가 “타이페이의 미드나잇 카우보이나 금병매의 서문경”(63)에 어울린다고 칭찬한다. *The Plum in the Gold Vase*로도 번역되는 『금병매』는 1610년에 나온 그림 소설, 그것도 춘화 소설이다. 서문경은 물론 중국의 전형적인 호색한을 구현한다. 그는

개 음경의 포피를 그의 성기에 이식하는 전설적인 수술로 강력한 성적 능력을 갖게 된다. 장팡은 노병 가수이자 자오테위안의 지인이기도 한 가오슈에게 딸 같은 한 가수 — 그녀의 아버지는 가오슈보다 두 살 아래이다 — 가 사랑을 애걸하는 플랫폼을 자오테위안과 나란히 전개시킨다. 노병 환상 속에 만연한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반복하면서 가오슈는 결국 평후 제도의 한 지역 과부와 결혼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자오테위안과 가오슈 가족이 연인들과 함께 평후 제도로 모여들고 4명 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한 가구를 이루면서 행복한 결말이 뒤따른다. 재정적 번영은 중국 본토와 대만, 평후 제도를 오가며 얼마나 성적 기량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

『1964 중산북로 콜라주 1964 中山北路拼貼』(2002)에 포함된 “저자의 말”에 따르면 마슈는 장팡보다 30년 이상 늦은 1964년에 태어났다. 마슈는 “[대만의] 실린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인생에서 “다른 졸업식이라고는 없었던 실업자 떠돌이”로 자신을 묘사한다. “도시에서 쇠약해진 그는 서른여덟의 나이에도 길을 따라 헤맨다”(11). 서른여덟은 바로 2002년 그가 출간했을 때의 나이였다. 색소폰을 연주하는 42세의 주인공 라오슈와 저자의 나이가 비슷하다는 사실은 라오슈를 저자의 타아로 읽도록 부추긴다. 그렇다면 이는 딸이 되기에 충분히 어린 세 명의 여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자위적으로 자신을 이전하는 것이다. 세 여성 중 한 명인 24살의 조지는 “몰락한 왕족” 가문의 딸로서 그의 아버지는 대륙에서 장군으로 활약했다. 취미 삼아 중산북로의 한 바에서 노래하며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미군 병사들을 즐겁게 하는 19살의 위안위안은 대만 일류대학의 경제학과 1학년생으로 대만 시의원이자 유력 정치인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 그리고 샤오리안은 남대만의 권촌에서 가출한 여성이다. 세 명의 젊은 여성 모두 중년의 색소폰 연주자에게서 의지할만한 연인을 발견한다. 조지와 라오슈가 글렌 밀러 밴드의

타이베이 중산홀 라이브 연주에 맞춰 열정적인 섹스에 몰두할 때 위안 위안은 창밖에서 그들을 엿본다. 독자들이 관음증자인만큼 위안위안 역시 그러하다. 그렇게 피핑 탐의 스타일에 영감을 받은 위안위안은 라오슈에게 어린이공원으로 같이 가자고 설득한다. 회전문마의 말을 타면서 위안위안은 “자신의 완전히 젊은 신체를 나이들어 구부정해진 그의 등에 기댄다”(87).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위안위안이 손으로 그의 성기를 자극할 때 이 소아성애적 환상은 만개한다. “그는 그녀의 손이 그의 양복 바지 주머니로 들어와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을 느낀다. 그는 놀라고 당황한다. 그의 음경만이 아니라 그의 온몸이 이에 전율한다.”(88). 마슈의 이상화된 남성성인 라오슈는 나이와 사회계층의 차이, 또 그의 신체적 결함 — 1958년 8월 23일 대만해협 위기가 발발하고 진먼섬이 집종포격을 받을 때 그도 왼쪽 다리의 힘줄이 끊어져 다리를 전다 — 에도 불구하고 대륙인과 대만인 출신의 젊은 여성들로부터 모두 사랑을 받는다. 돈 많은 중년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샤오리안 역시 불법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라오슈의 도움을 청한다. 라오슈는 한 무허가 병원에서 그녀의 남편으로 서명을 한다.

서사학적으로 보자면 마슈는 세 여성들이 한마음으로 자애로운 주인 라오슈를 섬기는 첩들이나 양 이들을 번갈아 배지한다. 라오슈의 낮은 사회적 지위는 그가 퇴역군인, 즉 노병 출신이라는 배경에서 유래한다. 중국 하얼빈에서 자란 그는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에 가입한 뒤 국민당군으로 전향한 뒤 1958년의 포격 이후에야 퇴역했다. 1930년대와 40년대 대의 과거 중국, 또 1964년의 타이베이 중산북로를 향해 차오르는 이러한 향수는 1964년생인 저자에게 상상력의 필라멘트가 된다. 조지가 실린에 사는 초등학교 급우의 야채 좌판을 방문할 때나, 바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만다린어를 쓰는 조지와 두 언어를 사용하는 위안위안이 마주할 때와 같이 마슈는 대만의 다언어적 세계를 이따금 성찰하면서

그의 소설을 더욱 빛낸다.

1947년 2월 28일의 사건과 그에 뒤이은 백색 테러는 위안위안과 조지가 백색 테러의 서로 다른 진영에서 자란 자신들의 유년기를 회상하는 소설 후반부의 무대가 된다.<sup>6)</sup> 두 여성의 회상이 교차하는 것에 더해 후반부의 배경이 되는 2월 28일은 서로 경쟁하는 두 군대를 모두 죽은 라오슈의 전신 경험에 의해 보충된다. 라오슈와 처녀 위안위안의 섹스는 다소 느닷없긴 하지만 정치 투쟁을 소재로 한 후반부에 생동감을 더한다. 이 소설은 2002년도 제4회 크라운 대중소설 경연대회의 최종 후보였다. 이 대회는 독자 투표를 통해 당선작을 수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의 오랜 대중소설 출판사인 크라운사<sup>Crown</sup>는 이러한 소프트 포르노를 전문적으로 출간해 국민당의 금욕적이고 가부장적인 장치 속에서 살았던 일반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대륙인이 다수인 국민당 정부가 본성인이 다수인 민진당으로 교체된 현재는 정치적 올바름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날 치용야오<sup>魏曉</sup>가 쓴 자유분방한 애정소설이든, 아니면 향수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마슈의 21세기 소프트 포르노든 크라운사의 소설은 성적 억압과 정치적 불만의 배출 밸브로 기능한다. 공교롭게도 마슈의 주인공이 노병이라는 사실은 저자와 그의 독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이 역사의 유물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링잉타이, 장팡, 마슈가 노병을 이상화하는 반면 외성인 작가들에게서 보이는 훨씬 더 일반적인 접근법은 노병을 연민의 대상으로 애도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인다. 리우다렌<sup>劉大任</sup>의 『플랑크톤 군락<sup>浮游群島</sup>』(1990)은 2세대의 이중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소설은 1965년을 배경으로 모더니즘, 잡지 편집, 정치 비판에 몰두하는 한 무리의 대학생 보헤미안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상주의적이고도 반항적인 이 소설은 대만 지식인들이

체포되는 불길한 장면으로 시작해 비극적인 결말로 막을 내린다. 주인공 샤오타오는 사랑이 식은 뒤 유학을 떠나고 일부 본성인 마르크스주의 반란자들은 백색 테러 기간에 배신을 당하고 체포된다. 또 다른 몇몇 이들은 상업기업에 현대적 서구화를 결합해 번영을 누린다. 본토 출신의 엄격한 아버지에게 샤오타오의 반항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에서 태어난 1세대 외성인과 대만에서 태어난 2세대 간에 심화되는 세대 간 분열을 나타낸다. 하나의 사례, 샤오타오는 “그들[그의 부모]을 저버린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들 세대 전부를 말이다. 그는 수치스러운 실패의 역사 속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도피의 역사 속으로 그들을 집어넣었다.”<sup>(127)</sup> 아이러니하게도 리우다옌은 『플랑크톤 군락』에서 부모 세대를 다시 다름으로써 그의 주인공이 그들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버릴 때조차 그들을 담화적으로 부활시킨다.

## 소아성애자로서의 노병

노병 주톈신의 자전적 에세이 『나의 권춘 형제들을 생각하며(想我眷村的兄弟們)(1992)』는 스물세 쪽에 걸쳐 순서대로 인물들을 서술한다. 이 중 세 쪽은 퇴역군인이자 소아성애자로 의심받는 라오 X(노인 X, 중국어 원문에서 영문자로 명명)에 할애된다.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유죄인 양 주톈신은 일화적 근거로 노인 X라는 암호명이 붙은 이 노병을 비난한다. 이들 노병 중 일부가 부모덕하고 심지어 악질적이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회 구석구석에는 썩은 사과가 있기 마련이니 말이다. 그러나 모든 노병들을 그렇게 뭉뚱그려 낙인찍는 것은 주톈신을 비롯한 외성인 2세대 스스로의 두려움과 죄책감, 또 수치심을 몰아내는

심리적 회생양 만들기의 양상을 드러낸다. “노인 X”라는 명명은 늙어감의 부정성과 미지의 자리를 표기하는, 따라서 노병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는 “X”를 결합한다. 주톈신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건 “육을 뺀 것 name-calling”이다. 대만 친구들 속에서 시들어가는 중국 출신의 노병은 제노포비아적으로 타자화되며 영어로 ‘mystery’를 가리키고 비영어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겹쳐 들리는 영어화 된 이름으로 불린다.

주톈신의 상상에 따르면 한 가상의 권춘 여성은 첫날밤 부부관계를 맺기 직전 번뜩 어린 시절 짝사랑했던 “아버지의 군용 러닝셔츠” 차림의 바오 오빠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권춘의 라오 X도 떠올릴 것이다. 한 젊은 여성을 기혼 여성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압박해 오자 오랫동안 묻혀 있던 외상적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것은 두 아버지 형상, 특히 “나쁜” 노병-아버지와 관련된 성적 지식에 관한 것이다. 주톈신은 이 여성에게 가명을 붙인다. “그녀를 샤오링으로 부르기로 하자.” 샤오링이 어린 시절 느낀 수치심은 권춘의 몇몇 친동별거승이 사내아이들이 라오 X의 창문을 훑쳐보면서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주로 보는 것은 라오 X와 샤오링이 벌이는 기이한 행동이다. 라오 X가 옷을 벗거나 그가 샤오링의 옷과 팬티를 벗긴다. 발기 부전이나 경계심 때문에 이 라오 X들이 샤오링의 피를 흘리게 하거나 저녁 목욕 때 샤오링 어머니가 이를 발견하는 일까지는 없을 것이다. ... 이야기를 듣거나 중국 장기를 둘 때 [소년들]은 라오 X의 가랑이를 쳐다보며 그의 큰 물건을 떠올리고는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 그들은 그저 느낄 뿐이다. 제기랄! 백수의 왕이 따로 없군! <sup>(78)</sup>

“라오”<sup>老</sup> 노인과 “샤오”<sup>小</sup> 아이가 명명함으로써 소아성애의 무대가 마련된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모순은 남는다. 라오 X가 발기부전에도 거대한 음경을 갖고 있다는 의심은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또 엄청나게 크면서도 상징적으로 거세된 양가적인 남근적 상징으로 노병을 물신화하는 데서 유래한다. 애석하게도, 주헨신의 에세이는 역사가 도미니크 멩쉬안 양<sup>Dominic Meng-Hsuan Yang</sup>이 모든 노병들을 성적 약탈자로 비난하는 — 사실적이기보다는 일화적이며 역사적이기보다는 문학적인 — 두 개의 근거 중 하나가 된다. “많은 어린이들과 정신장애자, 또 빈곤한 이들이 노병의 성적 접근과 추행의 표적이 되었다”(The Great Exodus from China, 2021, p. 246). 대만 대륙인의 망각된 기원을 주제로 한 그토록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그토록 성급하게 주헨신의 전언에 기대 그토록 오만하게 노병 전체를 싸잡아 단죄하다니!

1992년 출간된 주헨신의 『나의 권촌 형제들을 생각하며』는 그 제목만 보자면 쿠링<sup>苦苓</sup>의 『외성고향<sup>外省故乡</sup>』(1988) 한 장의 여덟 자 제목을 슬그머니 바꾼 것으로 두 글자를 제외하면 이 둘의 제목은 동일하다. 주헨신의 “형제<sup>兄弟</sup>”는 그 의미를 보존하면서도 쿠링이 사용한 단어 “弟兄”의 순서를 뒤집는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주헨신의 차용은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어에 비유하자면 쿠링의 “Brothers”를 “Bros”로 줄인 다음 이것을 자신의 제목이라 하는 것에 비할 수 있다. 리우다렌을 비롯한 외성인 작품들의 반항적 성격과 유사하게 쿠링의 인물들 또한 대륙인들의 권촌에서 “떠날” 것을 촉구한다.<sup>7)</sup> 철저한 고독 속에서 쿠링의 자전적인 『나의 권촌 형제들을 생각하며』의 화자는 이렇게 고백한다. “[천창으로 들어오는] 작은 광원을 바라보며 내 가슴은 이 작은 집에서 벗어나려는 충동으로 가득찼다.” 어린 소녀 마오투우도 강요에 못이겨 이렇게 소리친다. “내가 바라는 건 집을 나가는 것뿐이야. 멀리 갈수록 더 좋아!”<sup>(178)</sup> 화자가 떠날 때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은 그를

배웅한다. 그러나 떠남과 돌아옴의 공생이 화자를 괴롭힌다. “아마 그들도 나처럼 가능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떠난 지 그토록 많은 해가 흘렀음에도 돌아가라고 재촉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진다. 정말 돌아가 우리 마을을 보고 싶다”<sup>(190)</sup>. 외성인들은 바로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소망한다. 상실된 것은 영원히 상실된 채 남아 있다.

쿠링의 서문 “조상의 기원”을 통해 우리는 그의 소설집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만다린어를 쓰는 아버지와 하카어를 쓰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쿠링은 여러 언어를 쓰며 자라 만다린어와 대만어, 또 하카어에 통통하게 되었다. 이는 그 자체로 존경할 만한 성취라 할 것이다. 이처럼 대만의 지배적 언어들 속에서 자란 성장환경은 언어와 밀접하게 관련된 조상의 기원이라는 개념에 대해 그에게 고유한 관점을 제공하였다. 서문에서 쿠링은 아버지가 근무하는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한 퇴역 노병의 성추행 가해를 잠깐 언급한다. 그 노병은 “중중 [쿠링의 조속한 학급 친구를 추행하기 위해 그녀에게 돈을 건넸다”<sup>(12)</sup>. 이 때문에 여학생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일이 어린 쿠링에게 맡겨졌다. 이 이름 없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또 우리의 죄는 어떻게 씻을 것인가? 주헨신이 노병을 소아성애의 유력한 용의자로 몽둥그린 데 기여한 것은 이러한 허무와 체념의 감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쿠링의 단편 <장룡조호<sup>張龍趙虎</sup>>는 두 전우가 열다섯 살 내지 열여섯 살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한 소녀의 신부값을 함께 치르고 그녀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공유해 온 과정을 중국의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짧은 연대기로 그리고 있다. 두 주인공의 이름은 너무나 전형적이고 일반적이어서 그것은 실명의 자리지기로, 이 경우에는 모든 남성, 즉 모든 노병의 자리지기로 가능하다.

소아성애에 대한 암시를 넘어 쿠링은 노병에 대한 또 다른 일탈적 이미지, 즉 무협 소설과 영화의 영웅 감각에 가까운, 따라서 장광과 마슈의 지배 남성을 상기시키는 무법자나 노병 표상의 변증법적 대립항 이미지를 제공한다. 쿠링의 『키시리 아저씨(柯思里伯伯, Uncle Ke Sili)』에 나오는 동명의 인물은 대만 역사에서 최초의 무장 은행강도를 저지른 노병 리시커(李師科, Shike)의 단어 순서를 바꾼 것이다.<sup>8)</sup> 중국 북부를 제외하면 치찰음 “si”와 반전음 “shi”는 북경어에서처럼 날카롭게 구별되지 않는다. 컬러 TV를 구입한 후 은행강도 리시커는 자녀 교육에 보태라며 동료 퇴역군인에게 나머지 돈을 맡겼다. 리시커는 경찰에 고발되어 재판을 받고 1982년 5월 21일 사형을 언도받았다. 집행은 5일 후에 이루어졌다.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함으로써 사법당국은 그에 앞서 또 다른 은행 절도 용의자를 강압 수사한 실책을 지우려 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1982년 5월 7일 추락사하였다.

노병과 거리를 두면서도 그와 동일시하는 모호함은 키시리 아저씨와 쿠링의 화자인 동료 퇴역군인의 10대 아들의 관계에서 표면화된다. 그 소년은 TV 화면에 비친 절도범의 모습이 “마르고 호리호리했으며 키는 나와 똑같았다”(39)고 회상한다. 그 소년은 키시리 아저씨가 있는 앞에서 금은방을 턴 세 명의 젊은 절도범들을 비웃은 적이 있다. 10대 소년은 자기 같으면 차라리 은행을 훔치겠다며 허세를 부린다. 그것은 최초의 은행 강도가 될 것이며 대만 대학입시에서 “1지망 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을 거라며 말이다. 키시리 아저씨가 실제로 은행을 털고 현금을 소년의 아버지에게 숨겼다는 사실은 그가 소년의 그러한 악행을 막기 위해 자신이 직접 쟁달린 모자와 복면을 쓰고 이를 행했음을 암시한다. 리시커를 키시리로 바꾸는 마법은 “弟兄(제형)”을 “兄弟(제제)”로 바꾼 주현신의 말장난을 반복한다. 두 외성인 작가들은 죽었거나 죽어가는 대륙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단편 소설이나 에세이에서 미학적으로

소생되더라도 외성인이 사회의 밑바닥 인생인 노병으로 몰락했다는 점에서 그들이 사라지고 있음은 거의 분명한 사실이다. 외성인이 겪는 부침의 증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10대 화자가 커시리 아저씨에게 느꼈던 친밀감은 쿠링의 또 다른 소설 『아버지와 아들』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적대감으로 변형된다. 아버지는 아들을 “반역자! 불은분자! 빌어먹을 놈!”이라고 부른다. 아들은 “꼭 막히고 뒤떨어진 사람! 바보같은 충성심!”<sup>(72)</sup>이라고 되받아친다.

## 도착증자로서의 노병

소아성애자로서의 노병이라는 충격적인 묘사는 노병을 도착증자로 표상해 온 오랜 전통의 결정판이다. 이 악몽 같은 인물들이 외성인 작가들이 이야기의 세계로 입문시킨 장본인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섬뜩한 방식으로 이중화된다. 이러한 이중성은 대만 모더니즘의 선구자인 바이셴용(白先勇)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적막의 열일곱(寂寞的十七岁)』(1976) “후기”에는 라오양이라는 인물이 카메라로 잠시 등장한다. 이 노병이 서문이 아닌 후기를 장식한다는 사실은 물신이라는 노병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즉, 그들은 알파에서 오메가로 추락한 뒤 계속해서 알파를 괴롭힌다. 육군 요리사였던 라오양은 중국의 남서부 전구(雲南)를 지휘한 장군이었던 바이셴용의 유명한 아버지 바이충시를 한 때 모신 적이 있다. 국부천대 이후 바이충시의 지휘권이 없어지면서 라오양은 대만의 바이충시 사저에서 일하는 가족 요리사가 되었다. 그들의 고향인 중국 구이린부터 바이셴용의 아버지가 라오양을 계속 고용한 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의 혈연관계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바이셴용은

라오양을 당나라 민간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를 입문시키고” 상상력 풍부한 이야기꾼의 길로 들어서게 한 “스승”이라 부른다. 이러한 현사는 주톈신의 라오 X와 닮은 점이 있다. 라오 X 역시 “공산당을 쓸어버린 이야기, 삼국지, 수호지, 시골의 유명과 괴물 이야기” 등 끝없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권촌 아이들의 “입문 스승”으로 격상되기 때문이다.

서구 모더니즘만큼이나 중국 고전에 심취한 바이셴용이라는 조속한 소설가가 부상하면서 곧 잊혀 갔지만 이 요리사 노병은 결핵으로 목져 누운 17세의 바이셴용을 당 왕조의 이야기로 즐겁게 했다. “기름기와 분탄으로 얼룩진 군용 면 외투를 걸치고 손톱에는 때가 낀 행색의” 라오양은 “설인귀의 동방[한반도] 원정”과 변리화의 “서역 정벌”<sup>(330)</sup> 이야기로 어린 주인을 매우 기쁘게 해 주었다. 어머니의 자궁처럼 라오양은 상상력 풍부한 바이셴용의 삶을 잉태하는 어버이 역할을 했다. 하지만 너무나 뒤늦게, 그것도 너무 소소한 인사를 받았을 뿐이다. 대만 외성인 2세 작가의 선구자인 바이셴용에게서 라오양은 노병으로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라오양에게 바치는 바이셴용의 뒤늦은, 또 약소한 헌사는 『나의 권촌 형제들을 생각하며』에서 이야기하기의 힘을 노병 일반에게 돌린 주톈신을 떠올리게 한다. 아이러니한 점은 노병이 어린 바이셴용과 주톈신의 권촌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그 반대라는 점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노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이셴용과 주톈신 자신이다. 이 이야기들이 그들에 대한 찬사가 아닐 뿐더러 스테레오타입적인 타자화와 희생양 만들기 기 슬리는 울림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노병은 이야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된다.

바이셴용의 대표작인 『유원경몽 遊園驚夢, Wandering in the Garden, Waking from a Dream』(1971)에서 라오양적인 인물인 왕송은 노병 인물들이 앞으로 떨어지게 될 가장 낮은 곳의 지옥을 미리 보여준 바 있다. 중국어 원제목이

『臺北人』<sup>[대북인, 타이베이 사람들]</sup>임에도 바이셴용의 단편소설집은 한편으로는 중국과 유년 시절에 대한 향수에, 다른 한편으로는 타이베이에서의 늑어감과 퇴락에 발이 묶여 있는 대륙인에 초점을 맞춘다. 고향 땅의 관점에서 바이셴용의 인물들은 타이베이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그들의 몸은 추억과 멜랑콜리아가 든 독배이다. 왕송은 노병을 체현할 뿐만 아니라 논의되고 있는 세 개의 p-s를 모두 포괄한다. 바이셴용이 1937년에 태어났고 1948년 홍콩으로 피난갔다 이후 가족이 대만에 정착했다는 점에서 이 왕송이라는 인물은 2세대가 그려낸 논쟁적 표상의 초기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왕송은 40세의 머슴으로 6살의 어린 주인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 주인은 그가 어린 시절 혼약을 맺었으나 중국에 두고 떠나는 약혼녀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 왕송은 “본래 … 후난성 시골의 한 농부 집안에서 자란 사내아이였다. … 벨대를 풀어지고 두 바구니에 담긴 곡식을 팔러 읍내로 가던 길이었다.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그는 납치되었다.” 이 납치 병사는 결국 타이베이에 사는 화자의 친척집에서 머슴으로 살아간다. 계급적 차이로 인해 이러한 강박이 소아성애로 풀을 기회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 제멋대로인 젊은 주인이 그를 영어로 조롱하고 무시했으나(“You are a dog! [넌 개야!]”<sup>(73)</sup>) 왕송은 아마도 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린 주인이 중국어로 바꾼 다음에야 왕송은 이를 알아듣는다. “그는 큰 고릴라처럼 생겼어!” 이 말은 그의 이름(雄)이 뜻하는 “곰”을 떠올리게 하는 모욕이다. 그런 모욕을 듣고 왕송은 침울한 변절자처럼 변해 어린 주인이 좋아했던 “피처럼 붉은 진달래”에 가만히 물을 준다.

집안의 하녀가 그 말을 이어받아 “큰 고릴라. 큰 고릴라”<sup>(75)</sup>라고 놀리자 왕송은 그녀를 공격해 정신을 잃게 한다. 마치 짐승에게 상처를 입은 것처럼 “그녀의 치마는 갈기갈기 찢긴 채 허리까지 벗겨지고 가슴은 멍과 상처로 가득했으며 목 주위에는 고리 모양의 손자국이 남았다”<sup>(76)</sup>.

배가 튀어나오고 물고기들에게 물어뜯긴 왕승의 시체를 키롱 해변에서 수습한 뒤 어린 주인의 어머니는 “매일 밤 누군가가 정원에 물을 줘” “피가 멈추지 않는 상처에서 선혈이 가득 뿜어져 나와 온 정원에 흠뻑 려지고 곳곳에 핏빛 자국과 얼룩을 남긴 것처럼”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만발했다”(77)고 믿는다. 왕승에 대한 표상은 마조히즘적이고 유사 소아 성애적인 모습이 도착적 야수로, 또 결국에는 그의 연인이 사랑했던 진 달래에 물을 주는 귀신으로 추락하는 과정을 포괄한다. 주현신의 에세 이 제목과 쿠링의 단편 소설 제목 사이의 교묘한 눈속임을 상기시키듯 노병이 흘린 피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바이센송의 미학적 결말은 폭력적 정신증의 미학을 그린 하오위상 郝翹翹의 문제작 『역려 逆旅』(2010)의 선구자 역할을 한다.

『역려』는 대륙인 아버지를 둔 한 파탄난 가족을 무대로 한다. 아버지는 무책임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며 가족을 희생하면서 여러 여성들과 교제한다. 세 p-s가 하오위상의 아버지 형상에 잘 들어맞는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오위상은 ‘후기’에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입을 은혜를 언급하며 글을 썼는다. “내가 인생이라는 큰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건 모두 그들 덕분이다”(1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사의 말은 자식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가 나오는 반자전적 소설의 성격과 충돌한다. 아버지는 어린 딸은 거의 돌보지 않은 채 병원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여러 대륙신부들과 결혼을 한다. 이러한 모습은 안토니아 차오의 “약주 아저씨들”을 상기시킨다. 더욱 아이러니하게도 책은 저자가 아버지를 데리고 50년이나 가보지 못한 산동의 옛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력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가 되어 딸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평생을 보여줬던 책임회피를 끝까지 고수하며 아버지는 저자를 한 낯선 가족에게 팽개치고 근방의 한 도시로 떠난다. 노병형 인물들을 병리화하는 외성인 작가의

한 일원으로서 하오위상은 아버지 형상과 대륙의 유산에 저항하면서도 그들을 강박적으로 사랑한다. 하오위상의 양가성은 『역려』 마지막에 수록된 첸젠중 陳健忠의 논평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마치 자신의 고백할 수 없었던 말을 비평가가 대신 밝혀주기를 바란 것처럼 말이다. 첸젠중은 주인공의 심리적 콤플렉스를 “아버지와 자신의 엘렉트라 강박에 대해 딸이 내린 판단”(192)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한 노출증자에게서 “축 늘어져 금방이라도 터져 흘러내릴 듯한 부드럽고 검은 고환”(47)을 목격한 중학교 시절의 외상을 회상한다. 학생주임은 소란을 피우며 노출증자를 흠쳐본 학급 전체를 꾸짖었다. 여학생들은 그를 너무 많이 본 나머지 계속해서 “두툼한 소시지의 장면 에, 입술에 부딪칠 때도 아직 지글거리는 고기가 남아 있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다”(47). 구강성교의 근친상간적 은유를 가리기 위해 화자의 몸상은 전체 급우들로 외화된다. 하오위상의 1인칭 화자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밀어내는 동시에 부각시킨다. “부끄러움을 느낀 건 나 혼자였다. 이 남자는 전혀 아버지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이 나를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이끌었을까?(47-48). 노병 물신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형상은 노출증자와 중첩된다. 그의 신체적 외형은 아버지와 거의 닮지 않았음에도 그는 아버지를 환기시킨다. 또한 화자가 본 것은 음경에서 떨어져 나온 아버지의 고환이다. 하지만 부재하는 “소시지”는 입술에 부딪힘과 입술의 핏속 속에서 몸속 깊이 음미된다. 역설적이게도 남근적 아버지는 먹히게 되고 이 거세는 소녀의 환상 속에 아버지를 낳는다. 『토템와 터부』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를 먹음으로써 부권적 권력을 찬탈하려는 아들들의 원시적 환상을 이론화한다. 하오위상은 아버지와 구강적·근친상간적 합입을 이루는 여성적 엘렉트라 판본을 실연한다.

이 같은 복잡한 신경증은 “내가 안경을 끼거나 머리를 땅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문구점에 있던 한 소녀를 자신으로 착각한 화자의 기억과 병행한다. 그녀의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는 근친상간 금기를 우회하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이 아니기를 바라는 딸 자신의 잠재의식적 욕망이 투영된 것이다. 정신증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정점에 이른다. “그는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낳고 기른 아들 같다.” 결국 딸의 낙태는 근친상간적 충동을 실현한다. 낙태를 집도한 대머리 의사는 그녀의 아버지와 합성된다. “나는 아버지의 머리를 쓰다듬기 위해 수술대에서 몸을 일으킨다. 그의 머리카락은 아기처럼 부드럽고 금빛을 띤다. 내 질에서는 옥색 피가 흘러나온다. 그는 혀를 내밀어 그것을 핥는다. 부드러운 혀가 천천히 앞뒤를 오가며 내 음문을 구슬린다”(169). “옥색 피” 속에 감추어진 상징적 태아는 도덕적으로 구속된 그녀의 자아로 그것은 자신이 바라는 아버지와의 성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태아가 걸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부드러운 검은 고환” 앞에 있었어야 할 노출증자의 잃어버린 음경을 반복한다. 독특한 문체로 써 내려간 하오위상의 작품은 2세대가 그리는 1세대의 초상이 어떻게 부모보다 아이 자신과 관계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를 제공한다.

## 귀신으로서의 노병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문학에서 노병이 소아성애자나 도착증자의 모습으로 물리적으로 현존한다면 2017년 론칭된 대만의 비디오 게임 <반교 返校, detention>와 이후 2019년 개봉된 동명의 영화와 같은 디지털적이고 영화적인 공간 속에서 노병은 가상적이고 귀신같은 사후세계를

향유한다. <반교>가 독점 서비스로 제공된다고 해서 장다춘 張大春의 『장군 기념비 將軍碑』나 져신 蔡文雄의 『노병 老兵』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 귀신으로서의 노병이라는 문학적 표상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장다춘의 장군은 말년에 치매로 고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은 대지를 떠돌며 분명 알아듣지 못할 한 자의 귀에 대고 자신의 기념비에 무엇을 새겨넣을지 조언한다. 져신의 웹소설은 대만의 한 해안 경계초소를 배경으로 한다. 소설에는 국부천대 이전 공산당에 맞서 싸웠던 노병 올드 덩 상사가 등장한다. 올드 덩과 그의 전우들은 전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적군의 시체를 먹으며 버텼다.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 금기에 대한 위반은 흉한 얼굴과 비슷한 것이 등에 낙인처럼 찍혀 있는 기이한 형상으로 영원한 흔적을 올드 덩에게 남겼다. “그의 등에는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진갈색 고름집이 있다. 역겨워 보이는 이 고름집은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듯하다. 좀 더 가까이서 보면 몇 개의 뒤틀린 얼굴과 닮아 있다.” 군의관은 이것이 인육을 먹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시체 독”이라고 말하지만 올드 덩은 그것이 그저 “내가 통증을 참을 수 없을 때마다 낄낄대는 … 인간의 얼굴을 한 종양”이라고 믿는다. 그의 악한 과거와 그 흔적으로 인해 올드 덩은 귀신들을 막는 전초부대로 배치된다. 이 귀신들은 야습으로 죽은 공산당 잠수부의 “물귀신”과 항일군의 영혼에서부터 기원을 알 수 없는 무수한 원혼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천 마디 말보다 영화 <반교>에 나오는 한 장면을 보는 편이 낫다. 노병이자 고등학교 수위인 가오 아저씨는 학교 창고 열쇠를 주어 독서회의 금지된 야간 비밀집회를 도움으로써 국가에 반역하고 공산주의적 이적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백색 테러 경찰 심판관에 의해 한 눈이 파이고 앞니가 뿔혀 나간다(그림 14.1). 공포 장르의 상투적 효과로 가득한 여학생 귀신의 반복강박 속에서 전개되는 영화에서 오직 이 한

인물만이 안면이 절개된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준다. 여학생 귀신을 꺾하는 학생 주인공 팡루이신, 그녀의 애정 상대인 장선생, 이 둘과 삼각관계에 있는 인선생, 그리고 독서회 회원들 중에서 이처럼 왜곡된 얼굴로 관객들을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게 하는 인물은 없다. 그림 14.1에서처럼 고개를 돌려 얼굴을 공개하기 전 카메라는 술을 마시고 혼자 증얼거리며 큰 밥공기 또는 국수 사발에 주사위를 던지고 있는 가오 아저씨의 뒷모습을 비춘다. 술과 도박은 삶의 고통을 무디게 하고 벼락 부자의 꿈을 이루려는 시도로 특히 곤궁한 이들에게 만연한 죄악이다. 산등 역양에 “나”를 뜻하는 “안(魔)”을 반복적으로 섞어가며 가오 아저씨는 나직한 목소리로 자신이 중국에서 수많은 적과 싸우며 누구보다 국민당을 사랑했으나 수위 일과 같은 비루한 일을 하며 담배 몇 개피 때문에 창고 열쇠를 주었다고 꾸념한다. 1947년 2월 28일 국민당 경찰들이 타이베이역의 불법 담배 판매자에게 행사한 폭력이 백색 테러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가오 아저씨가 담배를 언급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다음 쇼트에서 관객들은 이러한 범죄 혐의로 가오 아저씨의 눈이 파이고 얼굴의 절반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으며, 또 앞니 몇 개가 뽑혀 나간 모습을 보게 된다. 공포의 조짐은 주사위가 아닌 피 묻은 이빨이 담긴 사발이 클로즈업되면서 나타난다. 곧이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나무수염을 복제한 듯한 거대한 나무인간이 가오 아저씨의 목을 졸라 죽일 것이다.<sup>9)</sup> 독서회 회원들이 모두 공산주의적 이적행위를 의심받아 체포되면서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물고문을 비롯한 여러 고문을 받지만 이들 중 가오 아저씨처럼 얼굴이 훼손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약간의 피 얼룩과 멍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선생 등의 젊은 배역들은 모두 영화적 품위를 유지한다. 이와는 반대로 속이 뒤투리고 역겨운 혐오감을 주는 것은 사회 최하층에 속하는 가장 비천한 인물, 즉 노병의 뒤통이다.

영화 비평과 학술 분석이 냉정하고 폭력적인 바이 교관으로 압축되는 백색 테러에 집중되는 반면 — 바이라는 이름은 “백색”을 의미한다 — 물신으로서의 노병에 걸맞게 단 한 번 등장해 충격 효과를 주고 곧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주변 인물인 가오 아저씨에 대해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 대신 나무인간으로 변신하는 바이 교관에 대해서는 많은 글이 쓰인 바 있다. 비디오 게임에서 이러한 괴물성은 혈령한 저고리와 발목이 드러나는 바지에 고깔모자를 쓴 대만 농부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sup>10)</sup> 치아롱 우의 「백색 테러의 유명화」(Spectralizing the White Terror)에 따르면 귀신의 지역적이고 전통적인 의상과는 대비되게도 비디오 게임에 묘사된 바이 교관의 얼굴은 전직 대만 총통 마잉주를 닮았다.<sup>(81)</sup>.

〈반교〉의 중국어 제목인 ‘판샤오(叛校)’는 여름방학 중의 한 지정된 날에 학생들이 방학숙제 검사와 운동장 청소를 위해 학교에 출석하던 관습을 암시한다. 하지만 ‘판(叛)’은 국민당이 지배하는 대만의 제유로 기능하는 학교에 대한 전복 내지 반란과 언어적으로 유희한다. 중국어 제목은 학교 생활에 더욱 익숙한 젊은 비디오 게이머들에게 소구력을 갖는다. 하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이 타고르와 투르게네프의 급서에 매혹되어 『아버지와 아들』 류의 책을 토론하기 위해 지하 모임에 참여할까? 사춘기 학생들은 인도와 러시아 작가보다는 이성애에 더 끌리지 않을까? 다른 한편으로 전복성을 함축하기에는 마르크스주의 저작이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어린 관객들이 떨어져나갈 수도 있었지만 독서회는 대학 내 모임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백색 테러, 계엄령 시대,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과 노병을 포함하는 외성인 1세대는 대만 청년 세대에게는 완전히 잊혀 가는 기억이다. 청년들은 간단히 이들을 나쁜 꿈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외성인 2세 작가들은 노병을 자체의 행위성을 가진 원만하고 입체적이며 진화하는 개별적 인물로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대신, 외성인 작가들은 대만의 정치적·문화적

삶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느끼는 소외와 불안정성을 자신들 가운데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병에 투영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병의 이미지는 소아성애자와 도착증자, 또 귀신이라는 세 폭 제단화로 고착되어 대만의 집합적 무의식을 위한 제단 위에 놓이게 되었다. 

〈원문출처〉

이 글은 2022년 5월 20일-21일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식〉에서 발표된 원고 “Refugees with Guns, Laobing with Phallus: Ghost of Taiwan circa 1949”를 저자의 동의하에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소개〉

**성 메이 마 (미시간주 주립대학교)**

성 메이 마<sup>Sheng-mei Ma. 馬聖美</sup>는 아시아 디아스포라 문화와 동서 비교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미시간주 주립대학교<sup>Michigan State University</sup>의 English & Film Studies 학과의 교수입니다. 그는 십여 권의 저서를 저술했으며, 대표적인 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Tao of S* (2022); *Off-White* (2020); *Sinophone-Anglophone Cultural Duet* (2017); *The Last Isle* (2015); *Alienglish* (2014); *Asian Diaspora and East-West Modernity* (2012); *Diaspora Literature and Visual Culture* (2011); *East-West Montage* (2007); *The Deathly Embrace* (2000); *Immigrant Subjectivities in Asian American and Asian Diaspora Literatures* (1998); *Immigrant Horse's Mouth* (2023). 이 외에도 *Transnational Narratives in Englishes of Exile* (2018)에서 공동 편집자로 참여하여 중국어 시집 *Thiry Left and Right*를 출간했습니다.



3부  
다양한 문화자본의 모빌리티



Ⅳ

필리핀의 텅 빈 이탈리아식 빌라가 집일 때:  
재이탈리아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소비기호학,  
1980년대~2018년

미나 로세스Mina Roces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소비는 필리핀 이주민의 삶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그들이 이국 땅에서 참고 버티는 온갖 고된 일에 대한 보상이다. 소비력을 통해 그들은 중간계급 필리핀인으로서의 향상된 지위와 이국적 취향을 가진 세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과시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힘들게 번 급여를 필리핀의 이탈리아식 빌라 건축과 가구 비치, 유명 상표의 옷과 악세사리 구매에, 또 테 뷔탕트 불<sup>1)</sup>, 생일, 결혼기념일 등의 통과의례를 축하하는 대형 파티에 지출한다. 또한 이들은 최근 수년 동안(대략 2010년 이후) 유럽과 필리핀을 여행하는 관광객이 되었다. 소비의 장소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유동적 에스닉 집단의 경우 이들의 지출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시적 소비 행동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싸고 일상적으로 상충하는 감정을 느끼는 이탈리아의 필리핀 이주자들에게 집 만들기 그리고 이동하는 가정성 프로젝트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 파도바와 밀란에서 일하는 라구나주(마닐라 시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 출신의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이주자의 귀향을 기다리며 1년 내내 비어 있는 이탈리아식 빌라를 지어 산타로사, 칸루방, 칼람바의 마을들을 부유한 근린지구로 변모시켰다. 2년에 한 달꼴로 휴가차 고국을 방문할 때 이용하는 이들 주택은 소유자들이 집 안을 여러 물건들로 채움으로써 가정성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그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이 텅 빈 주택이 그들의 ‘집’인가? 아니면 ‘집’은 그들이 자신들의 생일을 기념하는 곳인가?

나는 여기서 구별짓기 전략과 모방 전략에 관한 피에르 부르디외의 일부 개념들을 적용하고자 한다.<sup>2)</sup> 이탈리아의 필리핀 이주자노동자가 경제자본을 획득함에 따라 그들은 이탈리아와 필리핀 상층계급의 소비 관행과 취향을 모방한다. 부르디외의 데이터에서는 두 계급에 동시에 걸쳐 있는, 즉 이탈리아에서는 하층계급에 속하지만 필리핀에서는 중간계급의 지위를 획득하는 이주자의 유동적이고 국제적인 위치는 고려되지 않는다. 소비의 변화를 통해 시골 여자(Provincianas)에서 도시화된 세계인으로 변모함으로써 그들은 모종의 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다.

이주 학자들은 필리핀-에콰도르-멕시코 이주민들에게 송금 주택(remittance house)이 갖는 의미를 연구해 왔다.<sup>3)</sup> 이러한 집을 지을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이들 주택은 임대할 수도 매각할 수도 없다) 학자들은 송금 주택이 “해외 노동의 기념비”<sup>4)</sup>로 건설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소유자들은 고국에 남아 있는 부모나 친척들이 방 한두 칸을 차지하거나 이주자가 은퇴할 때까지 집을 돌보게 함으로써 효도의 기대를 충족하기도 한다.<sup>5)</sup> 나아가, 이주자와 그들이 떠나온 마을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이 집은 “소속감의 장소, 미래 인생계획의 저장소,

또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협상하는 수단”이 된다.<sup>6)</sup> 인류학자 페리 플레처(Peri Fletcher) 또한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멕시코인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그리고 대개는 완공되지 않는) 송금 주택(casas solas, 즉 고독한 집)을 짓는 것을 “정체성과 차이의 구축에 점점 더 핵심적인 소비 행위”이자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관념들이 가득 들어차고 충돌하는 장소, 낯은 관행과 새로운 관행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흡수되는 장소”로 해석했다.<sup>7)</sup> 그녀는 la casa de mis sueños, 말 그대로 내 꿈의 집이 나피사로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역설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집이 가족의 결합을 나타내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의 재결합을 불가능한 꿈으로 만들기”<sup>8)</sup> 때문이다. 또 건축, 물리적 공간, 실행(displacement)을 아우르는 학제간 연구 분야에서 작업하는 학자들은 이탈리아 속의 집 만들기(making home in displacement)가 어떻게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을 다룬 문헌들에서 말하는 ‘사회적 공간’에 관계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 공간(spatial space)’과도 관련되는지 주목해 왔다.<sup>9)</sup> 이러한 의미에서 이주자들은 ‘공간적 행위성’을 갖는다. 여기서 그들은 또한 ‘건축가로서의 이주자’로도 파악된다.<sup>10)</sup>

본 연구는 이러한 해석을 넘어 이주자들이 시골 여자에서 국제적 주체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소비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필자는 실거주자가 없지만 여러 물건들로 가득찬 주택을 통해 이주민들이 중간계급, 유희화된 필리핀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표현하는 장소로 ‘집(home)’을 재정의했다고 주장한다. 송금주택은 이주자들이 보유한 가처분 소득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필자는 송금주택의 이러한 역할을 부각하기 위해 송금주택과 더불어 이주자들의 기타 지출 습관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송금주택에 관한 선구적 작업을 통해 필자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 학자들과 달리 이주자의 과시적 소비라는 전체

적인 맥락에서 송금주택을 분석한다. 필자는 가족들을 연결하고 국경을 가로질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주택의 역할에서 벗어나 유럽화된 정체성과 중간계급의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주택, 또 노동계급의 낙인 없이 새로운 정체성을 기념하는 공간으로서의 주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터에서 멀리 떨어진 송금주택의 위치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그들의 소비 공연을 지켜보는 관객들이 해외 일터에서 일하는 이주자의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상의 변화, 관광 여행, 대규모 축하행사를 비롯한 소비 행동은 이주자들이 노동하는 자아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을 거부함을 상징한다. 또한 주택의 가구 비치를 비롯한 가정성의 물질적 표현은 이주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고무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이탈리아 빌라 스타일로 지어진 송금주택은 매우 특별한 목적을 수행한다. 여가 시간 동안 이탈리아 중간계급에 속하는 그들의 고용주처럼 옷을 입고 여행하며 행동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 있는 한 이들 이주자들은 가사노동자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주자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2년마다 고향 마을로 돌아올 때 그들은 유명인 같은 환대를 받는다.<sup>11)</sup> 그들은 유명 브랜드 옷과 값비싼 핸드백을 걸치고 선물 보따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다. 모두의 존경을 받지만, 화장실 청소, 반려동물 먹이 주기, 정원 손질, 음식 준비, 노인 목욕시키기 등의 고용 현실에 대해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사실 많은 NGO들은 고국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부처지는 송금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 가지 이유가 이주자들이 매일 같이 힘들게 마주하는 고된 노동의 현실과 그들의 주변적 지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불평한다.<sup>12)</sup> 이런 점에서 유럽화된 중간계급 필리핀인으로의 변신은 필리핀에 있는 웅장한 송금주택 안에서만 기념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그들은 여전히 노동계급 가사노동자라는 주변인이기 때문이다.

## 연구방법

본 연구 프로젝트는 파도바와 밀라노에서 23명의 필리핀 여성(가사노동자 또는 간병인, 아파트 관리인 1명 포함, 전업주부 1명 포함) 및 3명의 남성(관리인 1명 포함)과 진행한 면접에서 수집된 구술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면접의 주제는 패션, 파티, 관광 여행, 필리핀 내 주택의 가구 비치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 그들의 소비 행동이었다. 필자는 또한 밀라노에서 근무하지만 휴가를 위해 필리핀 라구나주 산토케에 와 있던 한 제보자와도 몇 차례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은 평균 2~4시간이 소요되는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명의 여성과는 2회 이상의 면접을 실시했다. 역사학자로서 필자의 본 연구는 1946년 이후의 필리핀 여성의 소비 역사를 주제로 한 상위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필리핀 이주자의 소비행동을 다룬 필자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sup>13)</sup> 필자는 2015년 11월 예비면접 착수를 위해 각각 1주일간 밀라노와 파도바를 방문했으며 2018년 8월에는 파도바를 재방문해 한 달에 걸쳐 추가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필자는 또 2회의 생일파티, 2회의 데뷔당트 볼, 4회의 만찬 파티, 1회의 기도 모임(파도바), 1회의 가톨릭 미사(필리핀인들의 성당으로 알려진 밀라노 산 스테파노 성당, 두오모 성당 오른쪽 옆)를 비롯해 피면접자들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민족지학 작업을 실시했다. 필자는 2013년 재이탈리아 필리핀인들이 세운 이탈리아 식 빌라를 보기 위해 필리핀 라구나주 산토로사의 마을에 다녀온 바 있다. 필자는 또 필리핀인들을 위한 관광 여행을 준비한 파리의 한 필리핀인 여행사 직원, 필리핀 이주자들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필리핀 부동산 회사(센츄리프러퍼티즈사<sup>Century Properties</sup>, 필리베스트스<sup>Filinvest</sup>, 락웰사<sup>Rockwell</sup>), NGO ATIKHA의 창립자와도 면접을 가졌다. NGO ATIKHA는 라구나

주와 바탕가스주에서 이주자 가족들과 함께 일했으며 전 세계에서 금융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파도바의 제보자 중 일부도 해당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민족지학 작업에는 ATIKHA가 주최한 두 번의 금융교육 세미나 참석이 포함되었다. 한 번은 2016년 8월 싱가포르에서 현지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며, 다른 한 번의 세미나는 필리핀에 남아 있는 이주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2019년 필리핀 불라칸주에서 개최되었다. 익명성 보호를 위해 피면접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면접자들은 산타로사, 산로케, 칼람바, 칸루방 지역 출신이며 해당 지역은 모두 라구나주에 속한다. 산타로사 지역민들은 매우 폐쇄적인 집단으로 자신들의 모임에는 이방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면접은 타갈로그어/필리핀어로 실시되었다. 피면접자 대부분이 이탈리아어에 능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자가 참석한 모든 행사에서도 동일한 언어가 사용되었으며 한 명만이 완벽하게 유창한 영어를 사용했다(필리핀 엘리트 여성 전용 가톨릭 학교에서 근무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

필자가 파도바를 선택한 이유는 밀라노나 로마에 비하면 작은 도시이긴 하나(2017년 기준 인구 21만 명) 인구수에 비해 많은 필리핀인들이 있음을(약 1.5%)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메스트레와 파도바의 필리핀인 단체에서 두드러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인 조셉에 따르면, 면접이 실시된 2018년 8월 현재 파도바에는 약 2천 명 이상의 필리핀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0~40%는 라구나주 산타로사나 알라미노스(산토로사 인접 도시) 출신이다.<sup>14)</sup> 그는 파도바의 필리핀인들 중 약 30%는 (“리를 이탈리아” 빌라도도 유명한) 바탕가스주 출신이라고 언급했다. 필자는 2013년 처음 산타로사를 방문했다. 산타로사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필리핀인들이 그곳에 지은 많은 이탈리아식 빌라 때문에 필리핀의 “리를 이탈리아”라는 명성을 얻은 곳이다. 현장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필자는 이들 저택 소유자의 대부분이 이탈리아의 파도바와

밀라노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파도바 내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또 다른 주요 집단은 모두 라구나주에 소재한 카룬방, 칼람바, 알라미노스 지역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파도바는 재이탈리아 필리핀인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면접을 한 여성들 중 5명은 한부모 어머니였으며 필자는 결혼한 적이 없었다. 몇몇 여성들은 필리핀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이탈리아에 왔으며 가족 중 일부만 같이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필리핀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여성들은 임대 아파트의 일부를 빌려 살았으나 고용주가 소유한 아파트나 방갈로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여성들도 있었다. 자폐증 아들이 있는 한 가족은 이탈리아 정부가 장애 아동을 위해 제공한 침실 세 개가 딸린 다소 큰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모든 피면접자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필자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1차 자료로 활용했다. 필리핀인들은 풀리미디어, 특히 휴대폰의 열성적 사용자들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sup>15)</sup> 페이스북 게시물은 소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풍부한 자료였다. 파도바의 필리핀인들은 이탈리아 내 필리핀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고국의 친척·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파티, 통과외레, 쇼핑, 활동, 여행 경험 등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규칙적으로 게시한다. 필자는 이후 피면접자가 된 몇몇 여성들과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으며 산타로사 지역 출신들로 구성된 페이스북 그룹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다. 필자는 많은 사진을 찍어 그들과 공유했으며 그들은 이 사진들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다. 필자는 또 몇몇 피면접자들의 개인적인 가족 스카랩북을 들여다 볼 특별한 기회를 누렸다. 그들은 유럽 여행이나 필리핀 휴가 등의 추억과 삶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기꺼이 필자와 공유하였다.

임의의 여성 집단으로부터 수집된 면접 또는 질적 데이터에 의존하는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면접은 물론 여성들이 연구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제시하면서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필리핀 여성들과의 교류와 면접 경험 자체, 더불어 페이스북 게시물 열람은 그들의 여가 생활에 대한 많은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다. 이는 특히 그들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그들이 일하는 모습이 전혀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페이스북 게시물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사용자가 스스로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만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페이스북은 소비를 통한 자기 표상이라는 주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풍부한 서고였다. 여러 인류학자들은 페이스북 등의 폴리미디어를 통해 관계가 어떻게 매개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입증한 바 있다.<sup>16)</sup> 페이스북 게시물은 정서적 지지대를 제공하지만 또한 관계를 단절하고 “쉽게 감시될 수 있는 공개적 규율 전략”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sup>17)</sup>

## 이탈리아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필리핀인들의 이탈리아 노동 이주는 그 역사가 길지 않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필리핀과 이탈리아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1977년부터 필리핀 이주자들은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sup>18)</sup> 1995년에는 2십만 명 이상의 필리핀인들이 이탈리아에 정착하게 되며 이들 중 절반 정도는 로마에 거주했다.<sup>19)</sup> 공식 기록에 따르면 2003년 합법적 필리핀인 거주자의 수는 74,030명이었으며 이 중 64%는 로마, 플로렌스, 밀라노, 토리노, 나폴리, 파르마, 볼로냐, 메시나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간병인, 유아돌보미와 같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

이었다.<sup>20)</sup> 노인 및 아동돌봄은 이주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 부문으로 확인되었으며 필리핀인과 더불어 모로코인들과 같은 다른 이주자 집단이 이처럼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일했다.<sup>21)</sup>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로마의 단시간 노동자들이 월평균 1,229달러의 임금을 받았던 반면 입주 노동자들은 722달러를 벌었다.<sup>22)</sup> 2001년 이전 노인을 돌보는 이들이 평균 778달러를 집으로 가져간 반면에, 입주 가사노동자들은 600유로의 최저임금을 받았다.<sup>23)</sup> 바사<sup>Basa</sup>, 데 구즈만<sup>de Guzman</sup>, 마르체티<sup>Marchetti</sup>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 기간) 이들이 면접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700유로에서 1,400유로 사이의 수입을 올렸다.<sup>24)</sup>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거주 여건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일부 노동자는 사용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필자가 파도바와 밀라노의 필리핀 가사노동자와 면접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이들은 주거비와 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별도의 아파트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up>26)</sup> 필자와 면접한 제보자들의 급여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제보자들의 일부는 여러 명의 사용자에게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 처음 이탈리아로 이주했을 때 케이터는 매달 600유로를 받았다. 사용자를 바꾸고 청소와 유아돌봄 일을 함께 하면서 급여는 800~900유로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성형외과 의사 부인을 위해 일하게 되면서는 매달 1,350유로를 받았다. 케이터는 그녀를 위해 다리미질을 제외한 모든 일을 했다. 여성들은 현금 및 장남감·의류·휴대폰·컴퓨터 등의 선물에 더해 임금의 대략 절반을 송금으로 보냈다.<sup>27)</sup> 다른 세 형제들도 이탈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제보자 중 한 명은 모든 형제들이 산타로사에 살고 있는 노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매달 50유로를 송금한다고 밝혔다.

이들 여성들은 어떻게 이탈리아 사회에서 주변화되었을까?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탈리아어가 유창하지 않다는 점은 이들이 가사 노동 분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탈리아에서 두 아이를 낳은 조셀은 이탈리아의 필리핀 가사 노동자 자녀들이 이탈리아에서 대학 졸업에 성공한 예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털어놓았다.<sup>28)</sup> 필자가 면접한 나타샤는 젊은 필리핀계 프랑스 여성으로 매우 특별한 사례에 해당했다. 그녀의 어머니(가사노동자)는 파도바에 왔을 당시 한부모 어머니였다. 그녀는 (5살 때부터) 이탈리아에서 자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필리핀 마닐라의 라살대학교로 진학시켜 대학학위를 이수하도록 했다. 필리핀의 대학 등록금이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저렴한 데다 라살대학교는 라살 형제가 운영하는 사립대학으로 필리핀의 3위 대학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라살대학교는 영어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졸업과 함께 영어와 이탈리아어, 또 타갈로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될 나타샤에게 이점이 많았다. 그녀는 직업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영국 회사의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탈리아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믿었다.<sup>29)</sup> 하지만 나타샤의 사례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다.

밀라노에 거주하는 한 제보자는 가사와 간병 일자리에서 아파트 단지의 관리인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sup>30)</sup> 이것은 가사노동에서 승진한 것처럼 보였으며 관리인 직책에는 같은 단지 내의 무상 임대아파트도 딸려 있었다. 조셀 역시 아내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던 파도바에서 관리인 일자리를 찾았다.<sup>31)</sup> 이탈리아인과 결혼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유형의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었다. 베라는 그녀의 이탈리아 남편과 결혼할 당시 한 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혼 후 그녀는 가라오케 가수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다.<sup>32)</sup> 이탈리아인 자영업자와 결혼한 또 다른 필리핀인 재퀴 역시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출장요리 사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sup>33)</sup> 이와 달리 필자가 면접한 이들 중 가장 논리정연

했던 루이즈는 대학 학위가 있고 필리핀의 엘리트 여성들이 다니는 한 수녀원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도 있었지만 가사노동 외의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다(이는 아마도 그녀가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sup>34)</sup> 필리핀의 등록간호사인 달라는 자신의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해 간병인으로 밖에 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달라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용주의 집을 청소하면서 빗자루, 화장실 청소제, 스펀지 등에 겹차, 체온계와 같은 의료기구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여전히 간호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다.<sup>35)</sup> 필자가 느끼기에 이러한 대처 전략은 필리핀의 지방 병원에서 등록간호사로 일한 이전의 직업 경력과 파도바에서 간병인과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현 상황 사이의 커다란 간극을 부각시킬 뿐인 것처럼 보인다.

## 시골 여자에서 패셔니스타로

이탈리아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다고 물었을 때 린다는 이렇게 대답했다. “필리핀을 떠났을 때 전 시골 여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시골 여자가 아니에요.”<sup>36)</sup> 자신의 변화에 관한 린다의 분석은 필자가 면접한 제보자들의 경험에 의해 반향<sup>反響</sup>되고 사용자들의 취향을 모방하면서 습득한 그들의 새로운 습관과 실천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들은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의 자신을 ‘시골 여자’, 즉 취향이 단순하고 작은 마을 밖의 세상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여자로 묘사했다. 이탈리아 이주는 그들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신은 의상의 변화로 나타났다. 산타로사나 칼람바, 또는 칸루방에 살 때 그들이 드레스를

입거나 화장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또 대개는 의류 브랜드 광고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예컨대, 이탈리아로 이주하기 전 칸루방에 살았던 린다는 청소복이 자신의 '유니폼'이었으며 립스틱을 발라본 것은 지역 미인대회에 참가했을 때뿐이었다고 털어놓았다.<sup>37)</sup> 제보자들이 벌어들인 지방의 작은 수입으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조차 힘들었으며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소비재로 자신을 채운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그들이 받은 급여는 이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 화장을 하고 유명 브랜드 옷을 입는 법을 알게 되었을 때 부유하고 화려한 여성 고용주들은 그들의 역할 모델이 되었다. 많은 고용주들은 그들의 충성스러운 직원에게 값비싼 새 옷과 약세사리를 사주거나 자신들이 쓰던 사치품을 내주었다. 면접 이후 필자가 참석한 데뷔탕트 파티의 손님으로 온 린다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얼굴은 풀메이크업을 했으며 밝은 노란색의 핫팬츠와 부츠를 착용하고 있었다.

필라핀 가사노동자들은 베네통(파도바에서 그리 멀지 않은 트레비조에 본사를 둔 이탈리아 기업), 자라, 프라다, 아르마니의 옷을 사고 버버리, 에르메스, 마이클코어스, 루이뷔통의 핸드백을 구매했다. 베라는 발렌티노 웨딩드레스를 입고 백인 이탈리아 약혼자와 결혼식을 올렸다.<sup>38)</sup> 루이즈는 파도바와 밀라노의 고급 의류 및 약세사리 브랜드에서 실시하는 시즌 세일 기간에는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눈에 많이 띠다고 말했다(면접에서 그녀는 유명 브랜드 아울렛 매장의 세일 행사에서 팔리핀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sup>39)</sup> 필리핀 이주자와 필리핀인 관리인 사이의 중재자로서 필리핀인 커뮤니티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한 조셉이 밝힌 바에 따르면(그는 수차례 데뷔탕트 볼의 사회를 맡은 적이 있다) 많은 필리핀인들은 특히 시즌 세일 기간의 할인가로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다. 그들이 비록 가사노동자라

하더라도 그 정도 가격은 지불할 여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자라도 이탈리아의 고급 제품을 구매할 여력은 있습니다”).<sup>40)</sup> 유명 브랜드 핸드백(특히 루이뷔통을 선호)의 구매는 최고의 상으로 이탈리아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임을 드러내기 위한 필수 약세사리였다. 이랜질린이란 면접에서 말했다, “루이뷔통 가방을 갖는 것은 모든 젊은 여성들의 꿈”이다.<sup>41)</sup> 청소와 다리미질 등의 여러 일을 하고 있는 한부모 어머니 마돈나는 면접을 잠시 멈추고 새로 산 루이뷔통 가방을 가져와 필자에게 보여주고 사진을 찍도록 했다.<sup>42)</sup> 루이즈는 필리핀의 친척들이 루이뷔통 가방을 매고(또는 다른 유사 유명 브랜드 약세사리를 걸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물품이 이탈리아에 사는 필리핀 여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표이기 때문이다.<sup>43)</sup>

빈틈없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루시는 그녀의 고용주가 빌라 지하의 아파트에 가족을 무상으로 살게 해주어 더 많은 급여를 저축할 수 있었다. 그녀는 또 두 가지 일을 하며 야채 판매 등의 기타 사업 활동에도 종사했다. 사업 수완이 좋은 그녀는 필리핀 라구나주의 산타로사에서 몇 채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었다. 결혼식이나 은혼식에서 대모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을 정도로 루시는 파도바의 필리핀인 커뮤니티에서 명성이 높았다. 또 그녀의 딸은 플로레스테마요 축제(산타크루자<sup>Santacruz</sup>, 필리핀인들이 파도바에 소개한 필리핀 축제)의 여왕, 즉 레이나 엘레나로 뽑히기도 했다. 레이나 엘레나의 부모들은 축제에 참가한 모든 이들을 대접해야 했으며 따라서 재정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딸들만이 이러한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이것은 마을 엘리트 가문의 딸들에게 주인공 역할을 맡도록 요청하는 필리핀에서의 관행과 다르지 않았다.<sup>44)</sup> 경제적으로 성공한 파도바의 필리핀 여성이라는 루시의 명성은 또한 그녀가 소장하는 여러 유명브랜드 핸드백을 통해서도 과시되었다. 파도바의 한 성당 강당에서 열린 50세 생일파티에는 260유로를

들어 주문제작한 3단 케이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가방 물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케이크의 맨 밑단은 구찌색으로 장식되었으며 두 번째 단은 버버리의 친숙한 격자무늬 디자인이, 맨 윗단에는 마이클코어스의 상표 디자인이 담겼다.<sup>45)</sup> 필자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 오로라의 18세 생일파티에 참석했을 때 나는 그녀의 어머니와 몇몇 손님들이 버버리와 루이비통 핸드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필리핀인들은 일요 미사에서부터 생일파티와 성인식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모임이 있을 때 유명브랜드 옷을 착용한다.<sup>46)</sup>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유명브랜드 제품을 걸쳐야 한다는 기대가 이미 존재한다(그리고 일부는 고용주가 입다가 그들에게 준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기도 한다).<sup>47)</sup> 두 명의 피면접자는 비공식 모임에서조차 과도하게 차려입는 이러한 대중적 관행을 속물근성을 부추긴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sup>48)</sup> 린다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탈리아를 출발해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한 필리핀인들은 보통 자신들이 유럽에서 돌아오는 길임을 과시하기 위해 (더운 열대성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츠와 트랜치코트 복장을 하거나 값비싼 의상을 착용한다고 보고했다. 그녀가 보기에 이는 그들이 가사노동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수용할 수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sup>49)</sup> 이런 점에서 패션을 고르는 건 사회적 하향이동을 보상하는 대응전략인 셈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의상의 변화는 이주자들이 가사노동에 의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이 정의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의 고용주가 속한 이탈리아 중간·상층계급과의 동등한 지위를 선언하는 기호이다.<sup>50)</sup> 밀라노에서 일하는 레티사에 따르면 필리핀인들은 마이클코어스, 구찌, 아르마니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려입을 때는 그들의 고용주를 능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옷을 입고 꾸미는 데에는 그들의 고용주를 능가할 거예요. 그들이 가사노동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잘 차려입어요. 하이힐을 신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하이컷 부츠도 신죠. 옷은 또 홀리스터나 아르마니 같은 유명브랜드 옷이에요.<sup>51)</sup>

패션(또는 같은 의미로 유명 디자이너 제품)의 사용이 저항을 의미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1940년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양장점에서 맞춘 값비싼 주트 슈트를 활용해 노동 계급의 지위를 거부하고 백인들에 의해 인종적으로 분할된 공공장소를 되찾았으며 또한 미국 태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공해냈다.<sup>52)</sup> 하와이와 미 서부 해안에서 일하던 필리핀계 미국인 농업노동자와 알래스카 출신의 통조림 공장 노동자들 역시 고가의 맞춤 정장인 더블 슈트 차림을 하며 할리우드 스타들처럼 옷을 입었다. 유행을 따르는 멋쟁이가 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육체노동의 낙인을 지우고 여가 시간만이라도 백인 사회와 동등함을 선언하는 것이었다.<sup>53)</sup>

2018년 8월 파도바에 한 달간 머물렀을 때 필자는 딸의 성년(18세)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성인식 파티에 두 차례 참석한 적이 있다. 두 경우 모두 성인이 된 딸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옷을 갈아입었다. 행사 때 입은 드레스는 필리핀 라구나주 알라미노스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맞춤 제작된 것이었다. 두 행사 모두 200명 이상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한 성당 강당에서 열렸으며 이 중 한 행사는 5,000유로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었다. 두 성인식에서 행사의 주인공과 18명의 친구들은 특별한 안무의 코티용 댄스를 추었고 데뷔 탭트는 18송이의 장미를 선물한 18명의 남성들과 춤을 추었다. 이러한 행사는 필리핀 상층 계급이 여는 성년 축하행사를 본뜬 것이었다.

필리핀의 엘리트와 파도바 필리핀인들의 차이는 그 규모와 엄숙함에 있었다. 필리핀의 엘리트들이 5성급 호텔에서 파티를 개최하고 데뷔탕트의 옷은 필리핀의 일류 디자이너에 의해 제작되었던 반면에, 파도바의 필리핀인들이 가진 것은 성당 강당이라는 보다 소박한 장소였으며 의복은 지방 재봉사에 의해 제작되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부모들은 딸들에게 그들이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날 하루에 돈을 쏟아부을 용의가 있었다. 사회자의 진행 속에서 4시간 이상 계속된 프로그램을 위해 데뷔탕트와 그녀 가족의 친구와 친지들 다수가 동원되었다. 친구와 가족들은 주인공에게 18층이의 장미, 18번의 소원, 18번의 춤, 18잔의 술 등을 선물하는 정교하게 연출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필자가 2015년 참석한 바 있는 50세 생일파티 때와 매우 흡사했다. 당시에도 주인공의 친구들은 그에게 불 켜진 초와 선물을 주고 노래와 춤을 공연했다. 긴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참석자들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사는 필리핀에서의 생일파티와는 달랐다. 이런 점에서 축하행사는 단지 주최자의 경제적 지위나 그들이 행사의 주인공에게 가지는 애정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필자가 처음 참석한 데뷔탕트 파티는 산타로사 출신의 필리핀인들이 개최한 것이었다. 밀라노에 거주하고 일하는 산타로사 출신의 필리핀인들이 버스로 두 시간을 달려 행사에 참석했다. 이러한 축하행사는 전문 사진사 또는 영상촬영기사에 의해 동영상으로 기록되었으며 페이스북에 업로드되어 이탈리아의 친척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필리핀에 있는 친구와 가족, 마을사람들과도 공유되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공개적 스펙터를 역시 자신들이 필리핀의 엘리트들이 고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생의례를 개최할 수 있는 성공한 이주자임을 세상에 선언했다. 사진과

동영상에 포착된 것은 그들의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중간계급 필리핀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필자가 면접한 제보자들 대다수는 이탈리아에 오기 전 자신이 살던 마을을 떠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세계여행자가 되었다. 휴가 기간 동안 그들은 이탈리아와 유럽 곳곳을 여행했다. 여행지에는 베니스(파도바에서 기차로 30분 거리에 불과), 로마, 코르치나, 슬로베니아, 런던, 부다페스트, 크로아티아, 리스본, 바르셀로나, 파리, 트리에스테, 암스테르담, 루르드, 몰타, 예루살렘, 스위스, 폴리아 등이 포함되었다. 페이스북에는 친퀘테로, 밀라노 등의 이탈리아 관광지 여행 및 파리, 런던, 바르셀로나(바르셀로나에는 많은 산타로사 주민들의 친척들이 거주하고 있어 그들은 이곳에서 잠시 머물 수 있다), 비엔나, 오슬로, 슬로베니아로의 휴가 채류 기록들이 게시되었다. 일부 여행은 필리핀인들을 위해 특별 편성된 저렴한 패키지 버스타우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8시간 비엔나 밤샘 (버스타우를 한 예로 런던에 따르면 그 비용은 35유로에 불과했다.<sup>54</sup>) 이러한 버스타우는 최소 5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 몇몇 인기 있는 목적지에는 이탈리아 북부 전역과 브레이크 호수, 코르티나, 트렌토, 피사, 플로렌스, 트리에스테, 로마 등이 포함되었다. 필리핀인들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성지순례는 매우 인기가 있었다. 필자와 면접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루르드, 파티마, 토스카나(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폴리아(파드레 피오) 등을 다녀왔다. 모두 종교적인 성지순례였다. 장기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들의 여행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보홀의 초콜릿 언덕, 타가타이의 타알 호수, 세부 해변, 팔라완의 풀빌라 등을 방문했다. 대부분의 여행은 박물관, 역사 유적지, 미술관 방문보다는 관광과 쇼핑에 치중되었다.(Munnecom 2015).<sup>55</sup> 아테네에서 KASAPI-HellaS에그리스 필리핀 노동자 연합을 운영하는 데비 발렌시아는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그리스 관광을

준비했을 때 볼 거라고는 바위와 돌밖에 없는 고대 그리스 유적지를 데려간다면 그들이 불만스러워 했다는 고충을 필자에게 털어놓았다.<sup>56)</sup> 이런 점에서 그들은 아직 유럽 역사와 예술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는 엘리트 지식인들의 취향을 습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이러한 취향은 높은 문화자본의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sup>57)</sup> 하지만 자녀 세대가 그들의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짐은 엿볼 수 있었다. 이변절련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방문한 역사적 장소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해 준 것은 이탈리아 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그녀의 10대 자녀들이었다.

### 집으로서의 이탈리아식 빌라: 이동하는 가정성?

두 필리핀 이주자들이 몇 달 만에 만났을 때 그들이 통상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카일란 카 우우위(kailan ka uuuwi?)”(언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는 의미)이다. 물론 이 경우에 집은 언제나 필리핀에 있는 마을이나 군, 또는 도시를 의미한다. 그것은 결코 해외의 이주수용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학자 엔 르 에스피리투(En Le Espiritu)는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필리핀인들을 다룬 민족지학 연구이자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협회(AAAS) 도서를 수상하기도 한 자신의 저서에 “Homebound”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제목은 이주자들이 수년간 미국에서 살아 왔음에도, 또 그들이 임시거주자인지, 아니면 그린카드 보유자나 미국 시민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이주자가 “부정기 방문, 통화, 송금, 의료선교 및 기타 인도주의 선교 등을 통해 필리핀의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유대를 유지해 왔다”(Espiritu 2003: 10)<sup>58)</sup>는 그녀의 주장을 요약한다. 에스피

리투의 저서는 “위치의 정치학(politics of location), 즉 이주자들이 명백히 ‘집 아닌(not home)’ 장소와 관행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로서 어떻게 고국과의 유대를 있는 그대로 또는 상징적으로 활용하는지”를 탐구했다.<sup>59)</sup> 여기서 집(home)은 “사적인 가정 공간이자 지역사회, 마을, 도시, 국가 등 자신이 속한 더 큰 지리적 공간 모두”<sup>60)</sup>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에스피리투의 개념적 정의를 따라 집이 소속감을 경험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면 인종주의와 사회적 배제는 ‘강제된 집 없음(enforced homelessness)’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sup>61)</sup> 미국의 필리핀 이주자들은 지속적 ‘집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강제된 집 없음’에 대응했다.<sup>62)</sup> ‘집’이 ‘장소와의 유의미한 관계’로 정의된다면 이주자들에게 그러한 공간적 애착의 장소는 거의 언제나 국경 너머에 자리하고 있다.<sup>63)</sup> 필리핀과의 끈을 유지하고 소셜미디어(특히 페이스북)를 통해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모두 국경을 가로지르는 ‘집 만들기(home-making)’의 실천이다.

필리핀 이주자들의 주기적인 필리핀 방문은 그들이 집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식, 즉 이동하는 가정성(domesticity in displacement)을 보여준다. 주택을 건설하고 그곳을 여러 집기로 채우는 것은 집 만들기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것이 된다. 이탈리아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대부분은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아파트 공간을 임대하고 운이 좋은 이들은 고용주들이 아파트 전체나 방갈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송금으로 보낼 돈을 더 많이 저축하는 경우도 있다.<sup>64)</sup> 송금을 보내야 한다는 압박과 결합하여 가사노동자의 급여로는 이탈리아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필리핀의 마을이나 지방에서 주택을 지을 수는 있었다. 아파트를 비롯한 메트로 마닐라의 부동산 가격은 대다수의 해외 가사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나 농촌 지역에서는 토지 가격이 훨씬 저렴하여 상층 중간계급이나 엘리트들이 사는 곳과 같은 넓은 평수의 신축 맨션을 짓는 것이 가능했다.<sup>65)</sup>

이탈리아 남성들과 결혼하는 이탈리아의 필리핀 여성들과 가사노동 의 일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탈리아에서도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필자 또한 토리노에서 주택을 구매한 한 필리핀 여성 간병인을 알고 있지만 그녀는 독신이다 이탈리아에서 20년 이상을 살았다. 이후 그녀는 은퇴하여 필리핀 남부의 고향마을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다. 다수의 피면접자들은 고향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했다. 많은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이탈리아에서 오랜 기간 살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이탈리아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제보자들은 필리핀에서 은퇴하고 싶다고 필자에게 털어놓았다. 필리핀에 집을 갖는 건 신규 주택 건설을 단지 이주 서사의 기념비나 고된 노동의 보상이 아니라<sup>66)</sup>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은퇴 후에 돌아갈 '집'으로 여기는 많은 신중한 이들의 목표가 되었다.<sup>67)</sup>

일을 찾아 이탈리아로 이주하기 전 이들 필리핀 여성들 다수는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박한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거나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의 임금을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 부모의 안락한 은퇴생활을 위해 본가를 개조하거나 자기 가족들이 살아갈 신규 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들이 선택한 건축 양식은 고용주의 집과 똑같은 이탈리아식 빌라였다. 이러한 건축 양식은 일반 주택 양식 또는 필리핀의 엘리트들이 선호하는 현대적인 캘리포니아식 맨션과 차별화되었다. 일부 주택에는 필리핀 비사야 지역의 ('대리석 수도'로 여겨지는) 롬블론주에서 들여온 대리석 기둥도 있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라구나주 산타로사의 한 작은 마을은 이탈리아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소유자들이 화려한 이탈리아식 건축 양식으로 지은 맨션들이 많아 "리틀 이탈리아"라는 별명이 붙었다. 산타로사는 편자 모양의 지대로 총면적은 802.28헥타르에

이른다. 마을은 과실수와 화전 농업에 의지해 살아 왔다. 수확이 계절에 의존하는 데다 큰비로 황폐해지는 경우가 잦아 마을사람들이 해외에서 일을 구하는 동기가 되었다. 1974년 최초의 이주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다. 뒤이어 1978년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향했다.<sup>68)</sup>

산타로사 주택의 물리적 구조는 파랑, 분홍, 주황, 초록의 파스텔 색조로부터 현관에 사용된 대리석과 모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은 테라스 설치에 이르기까지 지중해풍 양식을 과시한다. 왜 이탈리아식 주택을 짓고 싶었는지 물었을 때 린다는 '소셜<sup>sosyal</sup>'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라고 대답했다.<sup>69)</sup> '소셜'은 '고급, 상층, 부유한, 특권층' 등을 함축하는 구어식 표현으로 부르디외라면 이를 구별짓기로 정의했을 것이다. 린다는 필리핀에서 '매맞는' 아내였으며 한부모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칸루방에 사는 부모님께 맡기고 이탈리아로 이주하였다. 칸루방의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위치한 린다의 이탈리아식 빌라는 한부모 어머니에서 가족들에게 중간계급의 생활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으로 변모한 그녀의 극적인 성취를 상징했다.

필자는 소유자 중 한 명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필리핀에 와 있을 때 이들 주택 몇 곳을 방문해 볼 매우 특별한 기회를 누렸다. 평소에는 이들 주택이 비어 있고 친척들이 단단히 지키기 때문에 이는 매우 드문 기회였다.<sup>(사진1, 사진2 참조)</sup>. 바탕가스주 마비니시(메트로 마닐라에서 차로 약 3~4시간 거리)의 또 다른 '리틀 이탈리아'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특집으로 다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 보도를 통해 이 집들이 일 년 내내 비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소유자들은 방문자나 연구자들에 대해 매우 걱정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주택이 절도에 취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sup>70)</sup> 주택 내 차고에는 미쓰비시 파제로나 토요타 포츨너 등의 4륜구동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sup>71)</sup>

집 내부를 살펴보면 화장실에는 비데(필리핀 주택에서는 흔하지 않다)가, 거실에는 샹들리에가 설치되어 있었고 라운지 바에는 위스키와 보드카를 비롯한 증류주들이 진열되어 집주인이 거의 마시는 일이 없음에도 새롭게 습득한 국제적 취향을 뽐내고 있었다(사진3, 사진4 참조).<sup>72)</sup> 주방에는 가스레인지, 냉장고, 오븐 토스터, 제빵 기구 등의 주방기구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밀라노에 사는 테레사는 그녀의 고용주가 2년마다 주방을 개조하길 좋아한다고 말했다. 테레사는 장거리 택배를 통해 고용주가 증여한 '2년 된' 주방을 통째로 필리핀 라구나주의 산타로사로 보낼 수 있었다.<sup>73)</sup> 식품저장고는 파스타, 페레로 로쉐 초콜릿, 살라미 소시지, 올리브유, 대용량 누텔라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레티사는 누텔라 없이 이탈리아에서 필리핀으로 돌아오는 필리핀인들은 없다고 털어놓았다. 레티사 자신은 라구나주 산로케시(산타로사에 인접한 시)로 돌아올 때 고향의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적어도 5병이 들어 있는) 누텔라 1kg을 가져 왔다.<sup>74)</sup>

자녀들의 방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장난감으로 가득한 장식장이 있었다. 장난감은 플라스틱 통에 가지런히 정리되거나 유리 장식장 안에 채워져 아이들이 갖고 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사진5). 벽은 은제 티스폰, 방문 도시명이 새겨진 도자기 접시, 에펠탑이나 런던의 빅벤과 같은 상징적 건물 앞에서 찍은 가족사진 등 유럽 가족여행의 기념품으로 장식되었다. 이러한 장식품들은 조잡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지만 집의 소유자가 유럽을 여행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문화자본을 지녔다. 이러한 장식들은 집의 소유자를 작은 농촌 마을의 나머지 거주자들로부터 떼어놓았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인테리어와 가구 비치를 전문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맡기고 필리핀과 해외에서 전해 내려온 고가의 골동품이나 가보 등의 장식품을 소장하는 필리핀 엘리트 여성들과는 구별되는 집단임을 나타냈다.<sup>75)</sup>



사진1. 라구나주 산토로사의 비어 있는 이탈리아식 빌라 주택. 대리석은 필리핀 롬블론주에서 가져왔다.



사진2. 필자가 들기로 이 주택은 산타로사에 지어진 최초의 이탈리아식 빌라 중 하나이다.



사진3. 사진2의 이탈리아식 빌라 내부에 꾸며진 바 인테리어. 집의 소유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사진4. 라구나주 산토로사에 소재한 한 이탈리아식 빌라의 내부 모습.



사진5. 산타로사에 소재한 한 이탈리아식 빌라의 내부. 장난감들은 2년마다 돌아오는 이주자를 기다리며 비닐로 덮여 있다.



사진6. 라구나주 산토로사에 소재한 한 이탈리아식 빌라의 침실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 사진출처: 모든 사진들은 저자가 직접 촬영하여 제공

이탈리아식 빌라와 내부의 물건들은 그 소유자가 이탈리아에 살고 일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린다에 따르면 이탈리아식 빌라를 밝은 색으로 짓는 것(그녀의 집은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다가 이후에 노란색과 베이지색으로 바뀌었다)은 '카타스 낭 이탈리아'의 기호로 이는 그 집이 이탈리아 이주 노동자의 피와 땀, 눈물로 지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주택의 내부는 또한 소유자가 이탈리아식 관습을 채택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부모 어머니인 린다는 칼람바에 위치한 그녀의 이탈리아식 빌라 사진을 필자에게 보여주며 집에는 5개의 화장실이 있으며 본인의 침실에 딸린 화장실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이탈리아에 체류하기 전에 린다가 비데를 사용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용변 뒤처리를 위해 타보(tabo(보통 플라스틱으로 만든 국자 모양의 바가지)만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익숙해진 뒤로는 계속해서 화장실에서 비데를 사용했다(사진6).<sup>76)</sup>

또 면접을 통해 이탈리아에 있는 많은 필리핀인들의 음식 취향도 쌀보다 파스타를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탈리아에 있을 때 이주자들은 보통 이탈리아 음식을 먹었다. 예컨대,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 루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비폴리를 혼합, 구운 송아지 고기, 구운 라디키오 양상추와 함께 대접했다. 한 제보자는 모든 이탈리아 파스타 소스를 만들 수 있다고 크게 자랑하며 말했다. 하지만 치타델라에 따르면 250명의 손님을 대접하는 데 들인 출장 요리 비용이 1,600유로나 되었음에도 일요 기도모임을 비롯해 필자가 파도바에서 관찰한 필리핀인 행사에서는 모두 필리핀 음식이 제공되었다.<sup>77)</sup>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제보자들은 이탈리아 음식은 늘 먹는 것이어서 어떤 자리를 특별한 행사로 각인시킬 방법은 필리핀 음식을 대접하는 것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필리핀 음식은 '특별한 때'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지 결코 일반적인 게 아니었다.

‘발릭바얀<sup>balikkbayan</sup> 상자’로 알려진 커다란 상자에 정기적으로 물건을 담아 보내는 필리핀 이주자들의 관행은 한 해에 걸쳐 조금씩 빈집을 채우는 한 가지 방식이었다. 이러한 물건들은 이주자가 돌아와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즐길 날을 기다리며 빈집을 가득 채웠다. 이주자들은 엄청난 양의 여가시간을 쇼핑과 쇼핑한 물건의 포장에 투자한다. 이들은 조금씩 물건들을 구매하며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중고 매장, 할인 시장, 가판대를 돌아다니는 수고를 마다않는 이들도 있다. 필리핀으로 보내질 날을 기다리며 1년 내내 모은 고용주의 선물(예. 테레사가 산타 로사에 통째로 보낸 고용주가 쓰던 주방), 음식, 약 등이 필리핀인들의 집 한 칸을 차지하고 있다.<sup>78)</sup> 필리핀으로 향할 이 거대한 상자(일부 상자의 크기는 24 x 24 x 45에 달한다. OFW Pinoy Star 2013: 14)를 채우는 엄청난 과제, 또 물품 구매와 운송에 지출되는 금액은 이주자들이 집 만들기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지를 보여준다.<sup>79)</sup>

하지만 ‘집’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개념적으로 여전히 논쟁적인 문제이다. 2018년 8월 휴가를 보내기 위해 빌마가 2년 만에 산타로사로 돌아갔을 때 그녀의 페이스북에는 필리핀에서의 많은 사고 모임을 담은 게시물들이 거의 매일 올라왔다. 이러한 모임은 그녀의 가족들이 빌라에서 주최한 것이었다. 이러한 페이스북 게시물은 그녀가 파도바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중단되었다. 2014년과 2018년 사이 그녀는 짧은 휴가 기간 런던에서 보낸 가족여행이나 파도바에서 그곳 필리핀 커뮤니티와 함께한 특별한 행사 등을 담은 사진을 올렸다. 필자는 빌마와 8년간 페이스북 친구로 지냈지만 그녀의 이탈리아 고용주가 무상으로 살게 해 준 방갈로 사진은 결코 본 적이 없다. 이런 점에서 그녀가 자신의 ‘집’으로 점찍은 공간, 즉 그녀가 ‘집’에 있다는 느낌을 갖는 장소는 필리핀에 있는 그녀의 이탈리아식 빌라였다. 하지만 빌마가 필리핀에서 은퇴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그녀의 남편 바비는

2015년의 한 면접에서 “마음의 갈등을 느낀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 필리핀이 그림지만 필리핀에 있을 때는 이탈리아가 그림다는 이유였다.<sup>80)</sup> 바비의 고백은 한 곳에서는 집에 있다는 느낌을 온전히 가질 수 없는 이주자들의 이동감(feeling of displacement)을 환기한다.

## 결론

많은 NGO들이 과시적 소비로 비판한 것은 사실 그들을 눈에 띄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고용주의 변덕에 따라야 하는 노동자로 격하한 이주 수용국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시적 소비는 또 가사노동이라는 비숙련 직업을 받아들인 그들의 결정 — 일부 이주자들에게 이는 수치심의 이유가 되었다 — 을 보상하기 위한 대응전략이었다. 패션 선택과 사교행사에 의해 가장 두드러지는 자기표상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이 가사노동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을 거부한다. 필자는 이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사노동자나 간병인으로 언급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본 기억이 한 번도 없다. 예외라면 필리핀 간병인 3명이 작은 생일케이크와 함께 그들이 돌보는 노년의 고용주를 위해 이탈리아어로 생일 축하곡을 부르는 동영상 정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동영상에서조차 필리핀 여성들은 주인공을 위해 작은 축하행사를 여는 ‘주최자’의 위치에 있었다. 소비는 또한 필리핀 이주자들이 시골 여자에서 도시화된 국제적 주체로의 변신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패션, 가정용품, 음식, 여행에 관한 취향은 모두 그들이 일을 위해 이탈리아로 이주하면서 습득한 것이었다. 그들의 역할 모델은 부유한 그들의 고용주와 필리핀의 엘리트들이었다. 쉬는 날에는 유행하는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루이뷔통

핸드백을 들고 다니며 소비행동의 모방 대상인 자신의 고용주와 동등한 지위임을 주장했다.

피에르 부르디외의 모델을 취향판단에 적용하자면 이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필리핀에서 경제자본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받는 유료화 급여를 폐소화로 계산하면 경제적 위치는 필리핀 하층계급에서 중간계급으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인 고용주 및 필리핀 엘리트의 소비 관행과 습관을 모방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자본 또한 증가했다. 제보자 중 파도바 대학교의 역사적인 해부학 극장이 있는 팔라초 델 보나 클래식 콘서트, 또는 오페라(파도바와 인근의 베로나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에 다녀온 이들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대부분은 지오토의 벽화를 보기 위해 파도바의 스크로베니 예배당을 다녀왔다. 그럼에도 필자가 참석한 대규모 파티에서는 소도시 아비투스의 기호들이 관찰되었다. 행사가 열리는 성당 밖에서 야채를 파는 여성 하객, 이탈리아 교구 소속의 백인 성당 관리자가 달려와 토요 저녁 미사를 방해한다고 꾸짖게 만든 시골벽적인 잡담, 노래와 춤을 즉흥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비롯해 지나치게 길고 아마추어적인 프로그램, 타갈로그어로 진행된 4시간 반의 터무니없이 긴 프로그램 동안 하객들의 주목을 끌려는 사회자의 헛된 시도 등이 그러한 것으로 필리핀 엘리트라면 이를 시골풍의 허섭스레기로 일축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그들의 필리핀 친척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취향과 습관을 획득했다. 이탈리아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보면서 린다는 칸투방에 살 때는 필리핀의 고향<sup>Goya</sup> 초콜릿(1956년부터 제조된 필리핀산 지역 초콜릿으로 수제 제품은 아니다)에도 만족했지만 이제는 필리핀에 가더라도 이 제품을 먹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sup>81)</sup> 케이트리 또한 비슷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녀 역시 칼람바에 살 때는 캐드베리 초콜릿에 매우 만족했지만 더 이상은 먹지 않을 거라고 했다.<sup>82)</sup>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페레로로쉐 초콜릿을 더 선호한다. 예컨대, 빌마는 작별선물로 페레로로쉐 한 상자를 선물하기도 했다. 필자는 대부분 페드로키 카페에서 제보자들을 면접했다. 이곳은 파도바 대학교와 가까워 19세기에는 이탈리아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모임 장소로 이용되었던 파도바 도심의 역사적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음료 주문을 권했을 때 그들은 모두 스프리츠를 주문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유럽화되고 도시화된 국제적 필리핀인임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필리핀 라구나주에 살고 있을 때 취득된 아비투스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고용주인 베네토 지방 이탈리아인들의 문화와 관행을 채택했음을 드러냈다. 농촌 지역 출신의 필리핀 여성들이 알코올이 없는 가벼운 음료만을 마신다는 점에서 페드로키 카페에서 스프리츠를 마시는 것은 자신들이 더 이상 시골여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소비 습관은 자신들이 이탈리아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가사노동자가 아니라 유럽화된 취향을 가진 성공한 중간계급 이주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중간계급으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필리핀에 이탈리아식 빌라를 짓고 그곳에 가구를 비치하는 일이었다. 필리핀의 이탈리아식 빌라는 소유자의 노동생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주자들은 필리핀에 있는 친척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 또는 그들이 해외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이나 차별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에 남아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큰 노력 없이도 벌 수 있는 많은 가치분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상상했다.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은 남은 마을 사람들도 이주자의 수입과 물질적 재화를 함께 누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었다. 친구, 가족, 마을 사람들은 이주자들이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사치품을 그들과 함께 나누리라 기대했다. 이러한 끝없는 선물과 돈 요청은 이탈리아의 필리핀 이주자들이 빚을 지는 한 가지 이유로 거론된 바 있다.<sup>83)</sup>

이처럼 필리핀에서는 가사노동이라는 화제가 베일에 싸여 그 침묵이 유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탈리아에서도 되풀이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파도바에 있을 당시 필자가 차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친절하게도 루르드가 중재해 마르코와 이벤절린이 필자를 엘리스의 성 인식 파티까지 태워준 적이 있었다. 가는 길에 부모들이 축하행사에 들인 많은 비용(5,000유로 이상)을 듣고 필자가 놀라워하자 가사노동자가 아닌 필리핀인 마르코는 필리핀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을 청소해 가며 왜 하룻밤 사람들을 먹이는 데 그 돈을 탕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르코의 말은 단지 파도바에 있는 필리핀인들의 과시적 소비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면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 즉 가족이 딸에게 값비싼 파티를 열어줄 여유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부의 공개적 과시는 가사노동의 낮은 지위를 지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멋진 맞춤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데뷔탕트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 공연을 지켜보는 파도바의 하객들은 이 하루의 성대한 행사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육체노동에서 나온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리핀의 이탈리아식 빌라는 실로 그들의 '꿈의 집'이었다. 이 공간이라면 가사노동의 낙인 없이도 그들이 번 돈의 소비력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다. 

〈원문출처〉

이 글은 2022년 5월 20일-21일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식〉에서 발표된 원고 “When Home Is an Empty Italian Villa in the Philippines: The Semiotics of Consumption of Filipino Domestic Workers in Italy, 1980s-2018”를 저자의 동의하에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소개〉

**미나 로세스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미나 로세스(Mina Roces)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Australia) 인문언어대 사학과 교수입니다. 대표적인 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Women, Power and Kinship Politics: Female Power in Post-war Philippines* (Praeger, 1998), *Kinship Politics in Post-war Philippines: The Lopez Family, 1946-2000* (de la Salle University Press 2001), *Women's Movements and the Filipina, 1986-2008*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2), *The Filipino Migration Experience: Global Agents of Change* (Cornell University Press, 2021), *Gender in Southeast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nuary 2022). 그녀의 현재 프로젝트는 195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소비자로서의 필리핀 이주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주에 관한 그녀의 작업은 이주민에 관한 주변 에스니 집단으로의 일반적인 묘사에 새로운 차원을 도입하여 필리핀 이민자들을 소비자이자 투자자로서, 박애주의자와 활동가로서, 가족과 젠더 형성을 변모시키는 변화의 행위자로서 그리고 그들 자신의 역사에 대한 역사로서 개념화하는 다양한 대안적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VIII

# 음식 문화의 이주와 전유

권 은 혜

한성대학교

20세기 중반 이후 음식<sup>food</sup>과 식생활<sup>foodways</sup>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 과학 내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연구 주제로 등장했고 음식학<sup>food studies</sup>이라는 학제 간 연구 분과도 탄생했다. 사람과 문화의 이동은 음식과 식생활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요소이다.<sup>(Diner, 2001; Gabaccia, 1998)</sup>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과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 물자, 문화의 이동이 증대하는 세계화 시대에 음식과 식생활의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다.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미국, 그리고 유럽의 전 식민지 보유국들은 비유럽계 이민자들에게 문을 열었다. 세계화는 사람과 문화 사이의 연결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강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문화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현상은 흔히 맥도날드나 피자헛과 같은 미국식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세계적 확산으로 설명되곤 한다. 음식학 학자인 제프리 필처<sup>Jeffrey Pilcher</sup>에 따르면, 세계화는 미국식 패스트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길들이는 “맥도날드화<sup>McDonaldization</sup>”로 표상되기도 하지만 이민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문화가 이민자 수용국의

음식문화를 다변화시키는 “음식 다원주의(Culinary pluralism)” 현상을 수반하기도 한다(Pilcher, 2017: 122-142). 1990년대 이후 Food Network 같은 푸드 전문 매체의 제작자들, 그리고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온라인 매체에서 활동하는 미식가들(foodies)은 미국의 다양한 이민자들의 음식 문화에 관심을 보여 왔다. 이 글은 20세기 후반 세계화의 한 현상으로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음식 문화가 미국에서 “에스닉(ethnic)” 음식으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 수반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음식 문화의 변화와 전유, 정통성 논쟁을 다룬다.

### “에스닉” 음식: 용법과 전유

오늘날 미국의 일상적 어휘에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민자의 음식, 즉 백인 미국인에게 이국적이고 낯선 이민자의 음식이 “에스닉” 음식으로 분류된다. 20세기 초에는 독일인, 이탈리아인, 유대인, 폴란드인 등 중부 및 남동유럽 이민자의 음식도 “에스닉” 음식이라고 불렀다. 이탈리아의 스파게티나 피자, 독일의 소시지, 아슈케나지 출신 유대인의 베이글은 20세기 초 백인 미국인에게 이국적인 음식이었다. 20세기 초·중반기에 중부 및 남동유럽 이민자의 음식이 백인 미국인에게 대중적으로 소비되면서 이들의 음식은 주류 음식의 일부에 포함된다. 20세기 중반 슈퍼마켓의 탄생을 연구한 역사가 트레이시 도이치(Tracey Deutsch)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의 어휘에서 “에스닉” 음식 혹은 “에스닉” 음식 브랜드는 “비 백인적이거나 완전히 백인적이지 않은” 음식이나 그런 음식을 생산하는 브랜드를 의미한다(Worley, 2017). 즉,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의 음식을 “에스닉”하다고 부르는 것은 이들 비백인

이민자가 아직 미국 사회의 주류에 들어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Maralansan IV, 2013: 290). 사회학자 크리슈난두 레이(Krishnendu Ray)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에서 “에스닉”이라고 수식되는 음식은 비백인 이민자가 만든 저렴한 음식이자 백인의 음식과 달라서 “열등”한 음식이다(Ray, 2016; Worley, 2017).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의 음식을 낮설고 비위생적이고 영양상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한 음식, 유럽의 음식보다 본질적으로 저렴한 음식이라고 보는 인식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0~80년대의 반 중국인 정서가 팽배할 때 빵과 고기가 주식인 미국인과 달리 쌀과 생선을 먹는 중국인은 미국에 동화하기에 너무 낯선 존재로 여겨졌고 중국요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남서부의 백인들은 고추(chile)를 많이 사용하는 멕시코 요리가 너무 맵고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했다(Massoth, 2017: 47). 1920~30년대에도 중국인과 멕시코인에 대한 인종 차별은 여전했지만 이들의 음식에 대한 혐오는 호기심과 소비로 대체되었다. 1920년대 미국의 대도시에서 찰수이(Chop Suey)라는 메뉴로 대표되는 중식당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그 비결은 저렴한 음식 가격에 있었다. 당시 백인 미국인은 복잡한 조리 과정이 들어가는 고급 중식 요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빨리 조리 가능한 저렴한 찰수이나 차우몐을 찾았다(Chen, 2014, Chapter 7, 28th para). 미국에서 차별받는 또 다른 이민자 집단인 멕시코인도 다양하고 긴 요리 역사를 가진 민족이지만 멕시코 음식 중에서는 칠리(말린 고추가루에 버무린 콩과 간 소고기를 끓여서 타말리(tamale)라고 불리는 옥수수 가루 반죽에 싸서 쪄 요리이다. 19세기 말에 멕시코 여성들이 남서부 절경 도시 샌 앤토니오의 거리 가판대에서 백인 남성 손님에게 팔던 음식이 칠리의 원형이라고 알려져 있다)처럼 저렴한 음식만이 당대 백인 미국인에게 인기가 있었다(Pilcher, 2012).

1980년대 이후 비유럽 “에스닉” 음식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서 “에스닉” 음식은 조리법이나 재료와 무관하게 저렴한 요리라고

인식된다(미국에서 인기있는 아시아 요리 중에서 그나마 고급 요리로 인정받는 것은 스시와 같은 일식 요리 정도다). 2004년에 뉴욕에서 아시아 레스토랑 모모푸쿠(Momofuku)를 창립해 성공사례로 만든 한국계 미국인 셰프 데이빗 창(David Chang)은 2016년의 한 인터뷰에서 “아시아 음식이라면 싸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 왜? 아무도 나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준 적이 없다”(Kay, 2019).

비유럽 음식이 부정적 전행에 시달리는 반면 백인 유럽인의 음식은 세련된 고급 요리이자 요리의 기준이라고 간주된다. 미국에서 부정적 전행에 갇힌 대표적 비유럽음식은 중국 음식과 멕시코 음식이고 여기에는 중국과 멕시코 노동 이민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19세기 말~20세기 전반기에 미국에 도래한 중국인과 멕시코인은 대개 가난한 노동자였다. 가난한 이민자들은 회전율이 높은 저렴한 음식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고 화려하지만 싸구려 원색 장식물로 식당을 장식했는데 이는 미국에 있는 중국 레스토랑과 멕시코 레스토랑의 특징으로 오늘날도 각인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시아 음식에 대한 부정적 전행에 도전하며 에스니티를 드러내는 외관을 지양하고 고급 레스토랑 시설에서 합당한 음식 가격을 책정하려는 아시아계 미국인 셰프들의 시도가 있었고 것처럼 성공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비유럽 음식에 대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음식 저술가이자 영양사 사라 케이(Sara Kay)는 2010년대 중반 Yelp 웹 사이트의 뉴욕 레스토랑 리뷰를 분석했다.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레스토랑이 저렴한 음식 가격을 내세우고 화려하지만 취향은 없는 외관을 갖추면 “정통” 에스닉 레스토랑이라는 칭찬을 듣지만 정작 여기서 받은 서비스나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평점은 낮았다(Kay, 2019). 유럽 레스토랑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음식 가격이나 질, 외관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적용했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아무리 음식 가격이 높아도 평점을 잘 주는 경향을 보였다. 백인 유럽인의

음식이 비유럽 음식보다 우위라는 위계적 사고가 소비자를 지배하는 한, 두 음식 사이의 간극이 계속 벌어진다. 유럽 레스토랑은 새로운 시도와 확장, 그리고 이윤 증대의 가능성을 누린다. 하지만 에스닉 레스토랑이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음식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식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외면할 것이기에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택하게 된다.

비록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음식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이 잔존하고 있고 에스닉 레스토랑의 운영은 녹록치 않지만 오늘날 미국의 요식업계나 푸드 미디어는 에스닉 음식에 대해 예전보다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8년에 음식 전문 케이블 채널 Food Network는 동서양 퓨전요리(fusion cuisine)를 추구하는 중국계 미국인 셰프 밍 차이(Ming Tsai)를 ‘East Meets West’라는 요리 쇼 진행자로 영입했고 이 쇼의 성공으로 차이는 다문화시대 미국의 스타 셰프로 등극한다. 그는 2003년부터 공영방송 PBS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Simply Ming’이라는 요리 쇼를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차이는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중식 레스토랑 ‘Mandarin Kitchen’을 운영하는 이민자 부모 아래서 성장했다. 예일대에 공학도로 진학했지만 졸업 후에는 본격적인 요리와 요식업 운영 교육을 받았다.

백인이 지배하는 미국 방송계와 요식업계에서 차이처럼 아시아 퓨전 요리의 대가로 공인받았다고 해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음식 문화가 미국의 음식 문화에 동등하게 포함될 시민권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시아계 미국인연구 연구자 아니타 마누르(Anita Mannur)에 따르면 차이가 유명해진 것은 아시아 요리 문화가 미국 요리문화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시아적 퓨전 음식이 “미국 문화에 조용히 동화”되었기 때문이다(Mannur, 2005: 89). 유럽-아시아 퓨전 요리가 보여 주는 미국식 음식 다문화주의의 한계는 유럽 음식 문화의 지배적 위치를

그대로 두고 미국에 온 아시아 음식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백인 미국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유하는 데에 있다. 카리브해에서 나온 아프리카-아시아 퓨전 요리인 차이니즈-쿠바 음식이나 차이니즈-푸에르토리칸 음식이 아시아-유럽 퓨전 요리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것 역시 미국 대중문화와 푸드 미디어가 가진 유럽중심주의적 한계를 보여준다 (ibid., 89-90).

“에스닉” 음식이라는 호명은 비유럽인 이민자의 음식을 때론 이국적인 신비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 음식의 실제 역사와 궤적을 무시하는 효과를 가진다. 역사가 매들린 슈<sup>Madeline Hsu</sup>는 이민자의 다양한 음식 문화와 식생활을 주류 사회의 시선으로 대상화하고 고정시키는 오리엔탈리즘이 대중문화에서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지적한다. 그 예로 슈는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이자 저명한 음식 저널리스트인 마크 비트먼<sup>Mark Bittman</sup>의 2015년 비디오시리즈 ‘California Matters’를 든다. 이 시리즈 중 아시아계 미국인 음식 역사가 용 첸<sup>Yong Chen</sup>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에피소드에서 비트먼과 첸은 고소득 화이트칼라 중국계 미국인이 모 여사는 로스앤젤레스의 교외 지역 차이나타운 중식 레스토랑에 방문한다. 첸은 중국계 이민자이자 음식을 중국계 미국인 역사 연구의 중심 주제로 안착시킨 학자로 『참수이 U.S.A.』의 저자이기도 하다. 레스토랑에서 비트먼은 첸의 메뉴 선택이 충분히 “이국적”이거나 “모험적”이지 않다고 채근한다. 그는 종업원에게 “내가 취두부를 좋아하는 데 이 식당의 취두부는 충분히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트먼은 첸을 일종의 현지 정보원으로 대상화하며 교외의 최신 중국계 미국인 레스토랑이 중국 현지와 유사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슈가 보기에 비트먼의 문제점은 “에스닉 음식과 레스토랑을 이국적으로 대상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Hsu, 2016: 684). 150년이 넘는 중국계 미국인의 이주 역사 속에 중국계

미국인 음식 문화는 이민자들의 노동, 그리고 미국인 소비자 및 주류 사회와의 끊임없는 타협 속에서 형성되었다. 에스닉 음식이라는 호명은 이 복잡한 문화적 협상과 중국계 미국인의 문화적 기여를 망각한 채 중국계 미국인 음식 혹은 중국 음식을 대상화한다.

앞서 살펴 본 에스닉 음식의 개념은 백인 미국인이 (유럽 음식을 음식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소비자의 시점에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의 요리를 전유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즉, 음식과 요리사, 그리고 레스토랑 소유주가 소수자 민족과 문화에 속하고 손님이나 비평가의 주류에 속하는 경우이다. 백인 미국인이 에스닉 음식을 전유하는 또 다른 방식은 스스로 에스닉 음식을 요리하는 경우이다.

1980년대부터 릭 베이리스<sup>Rick Bayless</sup>는 다수의 멕시코 요리책을 저술했고 시카고를 기반으로 다른 주요 대도시에서 멕시코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멕시코 요리에 대한 열정과 기술을 인정받아 그는 제임스 비어드 상을 수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베이리스는 비멕시코인으로서 멕시코 음식 문화를 전유했다는 비판을 자주 받는다. 이런 비판에 맞서 베이리스는 그가 문화적 외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멕시코의 다양한 요리를 미국인에게 객관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멕시코인이라면 성장하며 접한 특정한 멕시코 요리, 즉 할머니나 어머니가 해준 요리에 대한 기억이 있어 멕시코 요리의 넓은 지평을 편견 없이 소화하기 어렵지만 베이리스 자신은 백인 미국인이어서 모든 형태의 멕시코 요리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널리스트 자야 삭센나<sup>Jaya Saxena</sup>에 따르면 베이리스의 자부심과 그의 명성은 미국 요식업계의 인종 간 불균형을 보여준다. “백인이 흡잡을 데 없는 멕시코 요리를 하면 뉴스감이지만 멕시코인이 멕시코 요리를 흡잡을 데 없이 잘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Saxena). 백인이 멕시코 음식 문화를 전유하는 선례는 베이리스 이전에도 있었다. 역사가 캐서린 마소스<sup>Katherine Massoth</sup>는 1930년대

뉴멕시코에서 멕시코 요리책을 출판한 백인 여성 에르나 퍼거슨Erna Fergusson의 사례를 연구했다. 퍼거슨은 뉴멕시코의 원주민 요리를 배워서 백인 독자에게 소개하는 책을 저술하면서 “뉴멕시코 요리와 재료를 선택적으로 전유할 권위를 행사”했고 이 권위는 그녀의 백인성에서 나왔다(Massoth, 2017: 57).

멕시코 요리에 대한 베이리스의 진지함은 의심할 바 없고 백인이 멕시코 음식 문화를 배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에도 문제는 없다. 문제는 비백인 미국인에게도 과연 동일한 문화적 전유의 권위와 자유가 주어지는가이다. 멕시코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이 그들의 민족 경계 외부에 있는 요리, 예를 들어 프랑스 요리를 잘 해도 베이리스만큼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이들은 그들이 태어난 요리 문화의 전통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 에스닉 음식의 전성기에 백인 미국인은 에스닉 음식문화를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전유할 권위를 획득하는 반면 비백인 미국인은 에스닉 음식문화의 경계 안에 갇힌다.

### 정통성 authenticity의 뒤편에 걸린 에스닉 음식

인류학적 시각에서 음식은 집단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 commensality를 통해 “우리”라는 인식이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음식은 “집단적 자아의 은유”로 사용된다(Tierney and Ohnuki-Tierney, 2012: 121). 19세기 프랑스의 미식가이자 철학자 장 앙셀름 브리아-사바랭Jean Anthelme Brillat-Savarin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다We are what we eat”이라는 유명한 경구로 집단 정체성의 표상으로서 음식의 기능을 표현했다.

“국민요리 national cuisines”이라는 익숙한 개념에서 드러나듯이 음식은 국민과 민족주의의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세기에 “전통의 발명”을 통해 “상상된 공동체”로서 “국민 nation”이 구성된 것처럼 국민요리 역시 한 민족 집단 내부의 다양한 식생활 중에서 선택적으로 구성되고 요리책 등의 매체를 통해 집단구성원에게 공유된다(Appadurai, 1988; Smith, 2012: 446). 국민요리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이 이를 섭취하고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조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정 국민요리에 변치 않는 전통이나 조리법 혹은 재료가 있다고 상상하며 “정통” 요리를 갈구한다.

비판적 시각으로 음식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특정 음식의 정통성에 대한 집착을 문제적이라고 본다. 역사가 모니카 페랄즈Monica Perales는 오래 전부터 변함없이 유지되는 음식 전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정통이라고 알려진 음식 중 많은 것이 사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산물로 발명”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통성은 역사적 우연이며 지속적으로 정의와 재정의를 거친다”고 서술한다(Perales, 2016: 691). 인류학자 마틴 마날란산 Martin Manalansan IV은 “음식의 정통성”이 음식 안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Manalansan IV, 2013: 290).

다양한 이민자의 음식과 식생활이 미국의 주류집단에게 수용되면서 에스닉 음식의 정통성은 음식 평론가와 미식가를 자처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등장했다. 아시아계 미국인연구 학자이자 음식학 연구자인 로버트 지성 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의 음식이 유달리 정통성 논쟁에 취약하다. 일례로 참수이와 캘리포니아 롤은 각각 미국에만 있는 “비정통적” 중국음식과 일본음식으로 악명이 높다(Ku, 2014). 에스닉 음식 문화의 외부자인 백인들은 에스닉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정통성을 의문시하며 불평의 화살을 음식을 만든 비백인 요리사나 고향의 요리 전통을 유지하지 않는 에스닉 집단 전체에 돌린다.

페랄즈는 인류학자 아파두라이의 통찰을 적용해 에스닉 음식의 정통성/비정통성을 판단하는 문화 외부자의 행위를 “음식 식민주의(culinary colonialism)”이라고 부른다(Perales, 2016: 691). 이런 태도는 타자의 음식 안에 축적된 복합적인 교류와 변화의 맥락을 무시하고 타자의 음식을 쉽게 본질화하는 오류를 범한다.

에스닉 음식의 내부자가 스스로 정통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문화적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그들이 기억하는 음식을 “정통적”이라고 부르며 지배적 음식문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다(Dufuis, Garcia, and Mitchell, 2017: 8). 로스앤젤레스의 멕시코 레스토랑 소유주들은 “정통 멕시코 음식”을 제공한다고 고객들을 호도하기도 한다. 백인 중심 사회에서 에스닉 소수자들이 문화적 집단 정체성을 주조하는 것은 이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양하고 내부적 결속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음식은 외부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다. 미국의 주류 음식 문화와 완전히 분리된 “진짜” 혹은 “정통 에스닉” 음식 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누가 에스닉 음식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영문학자 메레디스 아바카(Meredith E. Abarca)는 백인 미국인 여성 요리책 저자이자 유명한 티비 스타인 마사 스투어트(Martha Stewart)가 “정통 멕시코 타말리” 요리법을 가르치는 방송을 보면서 “정통 멕시코 음식과 같은 표현을 일상에서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했다. 아바카에 따르면, 에스닉 음식의 전통성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그 문화의 내부자이건 외부자이건 간에 이 표현은 음식에 수반되는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지식을 전유하거나 그 지식을 본질화”하는 위협을 초래한다(Abarca, 2004: 2). “정통 에스닉 음식”이라는 표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창조적 변형과 독창성을 억압하는 데에 있다고 아바카는 주장한다(ibid., 10).

아바카의 지적처럼 실제 없는 음식의 “정통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개성과 노력이다. 음식 “정통성” 이데올로기는 소수자의 음식 문화를 보호하기보다는 고정된 문화정체성의 틀에 이를 가두는 한계를 노정한다. “정통성”이라는 잣대를 문화 소수자가 스스로에게 부과하기보다는 미국 “에스닉” 레스토랑의 부엌, 대도시의 가판대에서 고향의 음식을 창조적으로 재탄생시킨 음식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에스닉” 음식의 전유와 “정통성” 논쟁은 문화적 정체성의 구성적 성격과 유동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세계 곳곳의 음식문화들은 고향을 떠나 미국이라는 새로운 장소에 이식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미국 음식의 내용과 형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켰다. 역사가 도나 가바치아(Donna Gabaccia)는 이민자가 가져 온 “에스닉” 음식과 본래 “미국”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에스닉 음식이 미국인을 만들었다고 과감하게 선언한다(Gabaccia, 1998). 

<저자소개>

**권 은 혜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권은혜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인종 간 결혼을 주제로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북미로의 아시아인 이주,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와 문화, 현대 미국의 인종관계를 다룬 다수의 학술 논문을 국내 저명 학술지에 출간했습니다. 현재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IX**

**손병희의 근대화 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확산**

조 규 태  
한성대학교

**머리말**

천도교의 3세 교주 손병희(1861~1922)는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근대적 사상을 수용하여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려고 한 근대화운동가였다. 인간 존중의 개벽된 사회를 건설하려고 동학농민운동을 전개하였던 손병희는 동학농민운동 후 서양의 사상과 문화를 접하고 서구적 문명개화운동의 추진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1901년 일본에 가서 문명개화파 인사 및 일본의 정계 인물과 교류하고 신문과 서적을 읽음으로써 문명개화사상을 수용하였다. 이후 1904년 갑진개화운동을 추진하여, 1905년 유·불·선의 동양사상을 중심으로 한 동학(東學)을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적 사상과 문화가 접목된 천도교로 변경하였다. 그는 천도교의 3세 교주로서 전통적인 동학사상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문명론·사회진화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등 서구사상을 천도교와

천도교인에 확산하였다. <천도교대헌>에 따른 의회와 총인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우리 민족의 자유국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자결에 의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대한제국이 부강한 자유국과 문명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건한 의지를 가진 국민을 양성하려 하였고, 3·1운동 후에는 자율적이고 진취적이면서 조화와 협동을 실천하는 신인간을 양성하려 하였다. 또 그는 이러한 근대적 국민과 신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언론과 출판과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청년·여성·소년·농민·노동·학생 등의 부문운동과 계몽운동과 교육운동을 후원하였다. 동학농민운동과 갑진개화운동과 3·1운동 등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에 기여한 손병희의 역할이 지대하였기에 지금까지 손병희에 관한 상당한 연구가 있었다.<sup>1)</sup> 그리하여 손병희의 동학농민운동, 갑진개화운동, 3·1운동의 발생과 전개에 미친 손병희의 역할 등이 자세히 밝혀졌다. 또 그의 문명론과 철학사상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손병희의 근대화운동을 자유민주주의사상의 수용과 확산이란 점에서 검토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의 민족주의사상과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였으나 정치사회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못한 까닭이다. 더욱이 동학의 사상이 인내천·동귀일체 등의 평등사상을 주장하였고, 해방 후 천도교가 남한에서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참여하고, 북한에서 천도교 청우당을 통해 김일성정권의 수립에 참여하였기에 손병희의 정치사회관을 선뜻 자유민주주의사상과 연결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글에서 필자는 첫째 손병희가 서구의 근대화사상을 수용한 계기와 경로 및 그가 수용한 문명론과 자유민주주의사상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둘째 문명론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을 수용한 손병희가 천도교를 창시하고 천도교 내에서 어떻게 구현해나갔는지 알아보겠다. 셋째 근대적 국민과 자유민주적 신인간의 양성을 위해, 손병희가 어떠한 목표를 두었고, 어떠한 계몽운동과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는지 살펴보겠다.

## 일본 외유와 문명론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의 수용

동학농민운동 당시 손병희는 서구의 근대적 사상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서학(西學)'에 대한 타자로서 탄생한 인간 존중의 동학에 1882년 입교하여 중요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당시 차별의 철폐와 신분의 평등, 청춘과부의 재가 등을 이루기 위해 중군(中軍) 통령(統領)으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다. 그렇지만 그가 서구의 정치사회사상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학습한 것은 아니었다.

손병희가 서구의 사상과 문화를 접하고 경험한 것은 동학농민운동 후 서북지역에서 포교를 전개한 1895년 이후였다. 그는 평안북도 압록강 방면의 강계·후창·위원·자성 등지와 함경북도 두만강의 청국과 러시아와의 국경지대를 돌아다니며 포교를 하였다. 그 결과 성천·안주·강동 등지의 평남과 태천·정주·구성 등지 평북에 동학 신자가 크게 늘어났다.<sup>2)</sup>

이 시기 평안도에는 평남의 평양(1893년), 평북의 의주(1887년)와 선천(1897년) 등지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설치되고 교인이 급격히 증가하였다.<sup>3)</sup> 따라서 그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 혹은 기독교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구의 사상과 지식을 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 갑오개혁으로 근대적인 개혁 정책이 시행되고, 『독립신문』(1896년)과 『황성신문』(1898년) 등이 발간되었으므로 지면을 통하여 서구의 근대적 지식과 사상을 이해할 수도 있었다.

1898년 6월 최시형이 서울에서 사형을 당한 직후, 그는 동학교단의 수습책으로 “시의를 따라 세계의 문명제국과 같이 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김연국과 손천민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sup>4)</sup> 1900년 7월 무렵 서북지역 교인들의 지지에 힘입어 교권을 장악한 손병희는 손천민이 사망하고, 김연국이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던

1901년 3월 박인호·이중훈·홍병기·이용구 등에게 문명국 탐방 문제를 말하여 동의를 얻었다. 그는 원산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간 후, 나가사키를 거쳐 오사카에 가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비가 부족하여 그곳에 머물렀다.<sup>5)</sup> 그런데 그는 왜 굳이 문명제국 중에서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하였을까? 평안도 등 서북지방에 포교하면서 선교사와 한인 기독교인으로부터 미국의 발전상을 들었고, 이에 그는 문명국 중 특별히 미국에 가기를 희망하였던 것 같다.

이상헌·이규완·손시병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부유한 국제무역상으로 행세하던 손병희는 전(前) 군부대신 조희연과 그의 부하 천응성을 만났을 때 미국에 가지 말고 일본에서 활동하라고 하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sup>6)</sup> 그는 조희연의 소개로 권동진·오세창·이진호·박영효 등과도 교류하면서 동학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였다.<sup>7)</sup>

손병희는 1901년 10월 경 귀국하여 박인호로 하여금 문명개화운동 추진의 필요성을 교인들에게 전파하고 평안도 등지에서 청년 자제 24명을 선발하여 1902년 일본으로 돌아갔다. 1902년 3월 손병희는 나라현에서 김현구·이진홍·유기영·이인숙·황석교·최희준·이관구·정광조·김창수·오상준 등에게 일본어를 교육시키고, 같은 해 6월 교토로 옮겨 이들을 교토부립 제1중학교에 입학시켰다.<sup>8)</sup>

이후 손병희는 오사카, 고베, 교토, 도쿄 등지에 머무르며<sup>9)</sup>, 조선의 문명개화파 인사, 일본의 정치인과 관료와 군인들을 만나 서구의 근대적 사상을 수용하였다. 그는 전 군부대신 조희연(趙熙顯)과 권동진·오세창·박영효·양한묵 등과 교류하며 일본을 시찰하고 서구와 동북아의 상황과 국제질서, 서구의 사회와 사상 등에 대하여 학습하였다.<sup>10)</sup> 박영효가 1888년 고종에게 올렸던 「건백서(建白書)」의 내용을 읽거나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의 세계의 형세, 법률의 부흥을 통한 나라의 안정, 경제를 통한 나라와 백성의 윤택, 백성을 보살피 건강하고 번성하게 함,

군비를 갖추어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킴, 백성에게 재주와 덕행과 문화와 기예를 가르침, 정치를 바로잡아 나라를 평정함, 백성에게 합당한 자유를 주어 원기를 배양함 등에 관한 견해<sup>11)</sup> 를 이해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는 일본에 머무르면서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문명론에 대한 글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후쿠자와 유키치가 1875년 발간한 『문명론지개략(文明論之概略)』이 탐독되었고, 에머슨(Emerson)의 문명론이 1890년 사토 시게노리(佐藤重紀)에 의하여 번역되기도 하였다.<sup>12)</sup>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 혹은 문화발전의 단계를 야만-반개-문명의 세 단계로 나누고, 문명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반개는 야만에 비해서는 문명이고, 구미의 문명도 야만과 미개 사회에 비하여 앞선 것이지 지선(至善에유)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문명에 선진과 후진이 있으면 앞선 자는 뒤진 자를 지배하고 뒤진 자는 앞선 자에게 지배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비문명국이 문명국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려운 국내의 문명을 추구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서구의 문명을 모방·수용하여 문명화를 이뤄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지혜와 덕의를 발전시켜 일신의 자유를 이루고 일국의 자유를 이루고자 하였다.<sup>13)</sup>

이러한 문명론 등 서구의 근대사상을 수용한 손병희는 1903년 「삼전론(三戰論)」을 발표하여 개화의 시기에 종교전쟁인인 도전(道戰), 경제전쟁인 재전(財戰), 외교전쟁인 언전(言戰)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특히 그는 “천시(天時)는 땅의 이로우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인화(人和)만 못하는데, 인화의 방해는 도(道)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sup>14)</sup> 또 같은 해 「명리전(明理辨)」을 발표하여 동양문명의 시대가 반복하여 지금은 민주공화정과 입헌군주정 등을 바탕으로 한 서구문명이 발달하지만 몽매함에 빠져 인순고식하지 말고, 미래의 화복과 사후의 화복을 구하지 말고 현재의 천법(天法)에 응하여 인사(人事)를 다할 것을 주장하였다.<sup>15)</sup>

손병희가 수용한 서구의 근대사상은 1905년 4월 5일 지은 『준비시대』<sup>16)</sup>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글의 서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아 동포여 금에 아국을 何等國이라 謂하고, 富國乎아 貧國乎아, 強國乎아 弱國乎아, 文明國乎아 蒙昧國乎아, 自由國乎아 壓制國乎아. 국 중의 토지가 비옥하며 물산이 풍요하여 可富之資가 有하되 何謂而貧乎며 國民의 기골이 웅건하며 意志堅確하여 可強之質이 有호되 何謂而弱乎며 國民의 품부가 충준하며 재지가 우수하여 가히 文明之道 有하되 何謂而蒙昧乎며, 國民의 器宇가 관대하며 重義하고 尙德하여 가히 自由之風이 유하되 何謂而壓制乎아.<sup>17)</sup>

위의 글에서, 손병희는 부강하고 문명한 자유국을 염원하였다. 즉,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이 풍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골이 웅건하고 의지가 굳세고 강하며, 재주와 지식이 우수하고, 그것이 관대하고 중후하고 정의롭고 덕을 숭상하는 자유지풍이 있으면, 사회진화론적 생존 경쟁의 시대에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손병희는 과거에 우리는 진취적인 기상과 탄탄한 부를 누리던 자유로운 문명국이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그는 삼국시대에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백만 대군을 물리치고 양만춘이 안시성에서 당의 대군을 대적하기도 하였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군사와 병비를 갖추지 못하고,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아 정교하고 뛰어난 기술을 없애버리고, 소박함을 순박한 풍속이라 하여 좁고 쓸모없는 모양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또한 실 짜기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목축은 기술을 모르며, 바다의 무진장한 고기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탓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람의 행함이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정부의 제위(권리)

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이 천하의 공론으로서 이를 제지하였다면 정부가 홀로 악을 행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sup>18)</sup>

또한 손병희는 강하고, 부유하고, 문명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네 가지의 세부적인 항목을 제시하였다. 그는 첫째 법권을 회복하고, 둘째 철도를 보상하여 구매하고, 셋째 광산을 찾고, 넷째 관세를 찾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외의 신민들이 삶을 평생 보호받을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철도의 권리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자산을 모아야 하는데 양잠·식목·목축·양어 등의 면별 사업을 진행하고, 군별로 농업과 상업과 공업을 운영하여 3~4할을 저축하고, 관리 중 월급 20원 이상인 사람은 1할, 50원 이상인 사람은 2할, 100원 이상인 사람은 3할을 털어 저축하게 하고, 재산가의 무역과 제조로 자금을 마련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고용원 등으로 일하면서 철도 운행의 기술을 익혀두자고 하였다. 또한 광산은 우리의 것이니 권리를 돌려받고, 관세는 우리의 것이니 돌려받자고 하였다.<sup>19)</sup>

그리고 부강하고 자유로운 문명국을 만들기 위해 동심동력의 단체를 만들고, 이를 향자치(嚮自治)부터 실천하자고 하였다. 그는 향자치의 방안으로 면별로 시행하며 향장·부장·수세원·서기 등의 공민(公民)이 지적, 호적, 민업, 도로, 수세, 소학교 유지, 위생, 정병, 재산관리, 공동묘지, 일제 공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sup>20)</sup>

손병희는 정치사상으로 민주주의의 정치사상을 수용하였다. 『준비시대』에서 손병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夫(대저) 국가라는 것은 一人의 사유한 바 아니오. 내 萬民의 所共한 者인 고로 國家之事는 즉 國民自家의 사이거늘 乃何로(어찌하여) 일부 정부지인에게만 위탁하고 傍坐視之하다가 事之不學에 至하여 乃 起而 策之하되 是는 爾之罪也라 하리오. 정부라는 것은 天子命之하사 治民之事를 任함이니 其 출척과 상벌은 인민이 아니면 감히 關知할 바 아니라. 后는 依民이요, 民은 戴后일새 국가의 建官과 設職은 爲民함이라. 고로 后가 官으로써 人에게 命하며, 職으로써 人에게 授함새 기인의 현능이라야 任使之하사 曰 爾는 惟 朕德을 宣하며 爾는 惟 朕憂를 分하라 하심이니. 乃 其 付畀의 重함을 負하고 黨惡코 比私하여 聰明하심을 壅蔽하면 萬民을 賊害하면 是는 국가의 죄인이라. 國民이 천하의 公論으로 其 죄를 宜乎鳴而攻之하여서 古증지폐에 達토록 하여 誅斥하심과 免黜之하심을 乞함이 가하니.<sup>21)</sup>

즉, 위와 같이 손병희는 국가는 일인의 사유물이 아니고, 만민이 공유한 것이므로 국가의 일은 국민 각자 집안의 일이라고 하였다. 관리의 출척과 상벌은 인민이 관여해야 할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왕은 국민에 의존하고 국민은 제후를 받들고, 관리를 세우고 직위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였다. 전통적인 왕-사(관리)-민의 체계에서 민은 피치자의 입장이었는데, 『준비시대』에서 일반 국민은 관리의 통치를 받는 처지가 아니라 관리를 평가하고 감시하여 상벌을 주고 출척하는 위상을 지녔다.

대한제국기 손병희의 민주주의 정치사상은 국민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공화주의가 아니라 입헌군주제였다. 그는 국민이 국왕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추대로 국왕이 통치한다는 견해를 가졌다. 그리고 그는 국민이 관리를 감시하여 그 잘못이 있으면 공론(公論)으로 공격하고, 그 상황을 국왕에게 알려 이를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손병희는 입헌군주제를 군민공치(君民共治)의 문명정체(文明政體)로 이해하였다.<sup>22)</sup>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손병희의 민주주의 정치사상은 입헌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변경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0년대 중반, 그는 우이동의 수련원에 가서 “전쟁이 끝나면 세계의 상태가 일변하여 세계에 임금이란 것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3·1운동 후 판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자신은 민주정체를 원한다고 피력하였다.<sup>23)</sup>

한편 손병희는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을 수용하였다. 앞서 살폈듯이 손병희는 부강하고 문명한 자유국을 주장하였다. 아래의 『준비시대』의 글에 따르면, 이는 자주(自主), 자위(自衛), 자진(自賑)의 나라였다. 또한 손병희는 다른 사람의 구속을 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지휘를 받지 않는 각 가정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吾人이 此國에 生하니 此國은 吾國이라. 오국이라 謂함은 他國을 對하여 言함이니. 吾身이 他人의 身을 對하며 吾家가 他人의 家를 對하여 有함과 同한지라. 人이 其身의 自由는 타의 구속을 받치 아니하고 其家의 自立은 타의 지휘를 용치 아니하니 國이 亦然하여 其 自主하는 권리는 타국의 간섭을 척하며 독립하는 실력은 타국의 침범을 排한 年후에 일국의 생활을 始可得保할진저. 개인의 분쟁은 법률의 재판을 청하여 其 曲直을 分하거니와 국제의 시비에 至하여는 干戈에 訴하여 승패로써 決한 고로 公법천언이 대포로 무에 及지 못하여 강력을 정의라 위하는지라. 國의 自衛하는 무비가 實치 못하며 自賑하는 文教가 盛치 아니할진댄 其 謂한 바 自主는 허명뿐이오 독립이 外面일 따름이니. <하략><sup>24)</sup>

1919년 1월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자 손병희는 조선민족도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천도교의 창시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형성

또한 그는 조선의 독립이 동양평화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세계가 하나의 단체가 되고 각 민족이 서로 친화하여 행복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sup>25)</sup> 그가 천도교의 권동진·오세창·최린과 협의하여 기독교 및 불교와 연합하여 거족적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소신 때문이었다. 손병희는 국민에게 언론, 집회, 종교, 주거, 저술, 출판, 작업의 자유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저들은 공정한 성문법이 모두 존재해서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니 그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철벽으로 방어하는 것과 같다. 또 언론, 집회, 종교, 주거, 저술, 출판, 작업 등 모든 인류 활동과 관련한 것이 국법의 한계에 위반되지 않고, 그 뜻의 좋아하는 바를 마음껏 좇을 수 있어야 하늘의 높음과 땅의 트임에 도무지 장애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략>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무능한 것이니 압제란 곧 자유로운 자가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다.<sup>26)</sup>

위의 글에서 손병희는 언론, 집회, 종교, 주거, 저술, 출판, 작업 등 모든 인류의 활동이 국법의 한계에 위반되지 않고, 그 뜻에 따라 마음껏 좇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손병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무능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므로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를 쟁취하라고 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의 발발 후, 손병희는 민권(民權)을 행사하기 위한 민회운동(民會運動)을 전개하였다. 처음에 손병희는 대동회(大同會)·중립회(中立會)의 이름으로 개회하여 일본과 거리를 두었다가 동학도가 일본군에 의해 살상되거나 체포·구금되는 슬픔과 고초를 겪었다. 그래서 결국 이용구의 건의를 받아들여 음력 8월 30일 진보회(進步會)를 통한 친일적 문명개화운동을 전개하였다.<sup>27)</sup>

진보회는 자유국의 보전,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전과 국민 대의기관의 설치와 국제질서의 준수 등을 주장하였다. 개회 시 각군의 진보회는 문명개화의 징표로 단발을 하였다. 그리고 진보회에 참여한 동학인들은 통문에서 독립을 보전할 것,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것, 정치개혁을 현의할 것, 재정을 정리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평안도 지방의 진보회에서는 국회의 설립, 포교의 자유, 각국 주교를 보호할 것, 만국공법에 따라 기를 세우는 것을 금할 것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sup>28)</sup>

그런데 국내에서 진보회를 이끌던 이용구가 1904년 말 진보회와 일진회를 합한 후 친일적 행보를 강화하였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도록 돕기 위하여 경부선과 경의선의 철도 건설을 지원하고, 심지어 1905년 말 일진회의 명의로 일본의 보호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병이 문명개화운동을 전개하던 동학인을 살해하기까지 하였다.<sup>29)</sup>

문명개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손병희는 1905년 12월 1일 동학이란 명칭을 천도교(天道敎)로 바꾸었다.<sup>30)</sup> 동학에서 천도교로 교명을 바꾼 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경만은 아니었다. ‘학단(學團)’에서 ‘교단(敎團)’, 즉 ‘배우는 집단’에서 ‘가르치는 집단’으로 마음의 자세와 가치관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였다. 기독교를 모방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동양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포기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서양의 그것을 수용하였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손병희는 귀국 후인 1906년 2월 천도교의 헌법인 <천도교대헌>을 반포하고 중앙총부의 조직을 정비하고, 지방에 72교구를 설립하였다.<sup>31)</sup> 중앙총부의 간부로 개화파 인물과 일본 유학생이 선임되었다. 1906년 2월 양한묵·오세창·권동진은 각기 현기사(玄機司) 진리과원, 이문관장, 전체관장 대리로 임명되었고, 1902년 일본에 유학한 김현구(金顯玖)와 조동원(趙東元)은 금융관 금고원과 서무관장(庶務觀長) 대리에 보임되었다.<sup>32)</sup>

<천도교대헌>에 따르면, 손병희는 천도교 내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의회(議會)’를 도입하였다. ‘의회’로는 사회(社會), 관회(觀會), 부회(部會), 총회(總會), 대교구회, 중교구회, 소교구회가 있었다. 사회는 중앙총부 현기사(玄機司)의 임원, 관회는 중앙총부 이문관(理文觀)·전제관(典制觀)·금융관(金融觀)·서용관(庶務觀) 각관의 임원, 부회는 총부임원이 참석하는 회의였다. 그리고 총회는 중앙총부 임원과 대교구장, 대교구회는 대교구 임원과 중교구장, 중교구회는 중교구 임원과 소교구장, 소교구회는 소교구 임원과 교인 대표가 참석하는 의회였다. 임원회의의 성격은 지냈고, 교헌의 제정, 예산과 결산 등 교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의회와는 거리가 멀었으나 교주의 독단이 아니라 중앙총부 임원의 합의로 운영되는 사회·관회·부회와 중앙과 지방의 책임자가 의사를 결정하는 총회는 작은 소통과 공론의 장이었고, 대교구회·중교구회·소교구회는 교회 내 지방자치의 시험장이었다.<sup>33)</sup>

1908~9년 천도교의 실질적 의회로서 총인원(總人員)을 설립하였다. 문명개화파인 현기사장 양한묵은 발의로 설립된 총인원은 중앙총부 내에서는 의사제안, 탄핵, 조사 등을, 중앙총부 밖에서는 순유(巡遊)와 교섭 등의 사무를 책임졌다. 총인원은 교무확장, 임원추천, 채관청상, 교당건축, 교육방침, 사회문명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양한묵의 말처럼

“교무의 추요(樞要)”였다. 중의(衆議)를 채용하는 총인원의 의사는 일반교인이 선출하지는 않았으나 공선(公選)되었다. 총인원은 매년 천일(天日, 4월 5일) 회계주( 회계주) 독도일과 인일(人日, 12월 24일) 손병희 승통일에 정기사회를, 필요한 경우 임시 사회를 열었다. 의사가 공선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설립 당시에 비해 총인원은 권위가 신장되고, 훨씬 더 민주적인 대의제도로 발전해 나갔다. 1914년 8월 천도교의 대교구가 36개로 정비되자 총인원의 의사원수는 35명으로 증가하였다.<sup>34)</sup>

3·1운동 후인 1921년 혁신운동이 전개되면서 총인원은 의정회(議正會)와 총의원(議院)으로 발전하였다. 1921년 천도교의 정광조 집행부에 반대한 홍병기, 오지영 등은 의정회 규정을 마련하고 전국의 60개 교구에서 의정원을 선출하였다. 1921년 12월 제1회 의정회에서는 <천도교대헌> 대신에 <천도교종헌>을 만들고 교주를 공선하고 종법원·총무원·총의원의 3원 체제를 마련하였다. <천도교종헌>의 제1장 총제에서는 “천도교는 천도교인의 전체사으로써 차를 호지함”이라고 하여 천도교의 주권이 일반 교인에게 있음을 천명하였고, 교회의 대표를 교주의 추천이 아닌 교인의 선거로 뽑고자 하였다.<sup>35)</sup>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대해 손병희는 박인호 등 교권파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주제를 부활하고 종법원·총무원·총의원의 3원제를 폐지하였다. 그리하여 1922년 말 69개 구역에서 선출된 종법사로 구성된 종법원 체제를 성립시켰다. 이는 일반 교인이 아니라 원로가 각 교구의 대표로 선출되어 천도교를 운영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손병희 사망 다음 해인 1923년 천도교의 의회는 종법원에서 종리사총회로 바뀌어 교법과 신앙 중심의 체제에서 교정 중심의 체제로 변환되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종리사·종법사·포덕사가 참여하는 법회(法會, 1940년에는 교구장·도훈·교훈 중심의 총회(總會)로 변모하였다. 해방 후인 1945년

10월 천도교의 의회는 <천도교 교약>의 반포에 따라 대회, 연원회, 교구회, 전교신회 등으로 정비되어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였다.<sup>36)</sup>

## 근대적 국민과 자유민주적 신인간의 양성

대한제국기 손병희는 문명국 수립의 기초가 근대적 국민의 형성에 있다고 믿었다. 부강한 자유의 문명국을 수립하기 위한 국민상은 첫째 굳게 참고 견디면서 오래 유지하는 성품을 갖고, 둘째 강건하여 굴복하지 않는 기개를 갖고, 셋째 넓은 마음과 관용의 도량을 갖추고, 넷째 분발하여 떨치고 일어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부지런히 힘쓰면서 실사구시하는 사람이었다.<sup>37)</sup>

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국민의 덕목으로 보았다. 즉, “사람이 국가가 아니면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우리의 생명은 국가에 있고, 우리의 재산도 국가에 속하는 것이니 당연히 국가를 위하여 죽을 것이며, 당연히 국가를 위하여 일어나야 할 것이라. 사람의 삶은 백살을 넘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고 국가의 명은 만억년으로 무량하다 생각되니, 혹여 사리분별을 잃은 행동으로 유구할 겨레에 영향을 끼쳐서야 옳겠는가? 이제 우리가 국가를 위하여 젊어져야 할 커다란 짐이 있으며, 위대한 경영이 있으며, 무거운 책임이 있으니 힘쓸지이다.”라고 하였다.<sup>38)</sup>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민에게 단결을 촉구하였다. 『준비시대』에서는 “이는 국민이 모두 선포하면 정부가 홀로 악을 행하기란 불가능함을 일컫는 것이다. 그런즉 정부가 악정을 행하게 함은 국가에 그 책임이 있음이니 국가의 정세가 위급한 것이다. 한 국가에 속한 사람은

상하와 노소를 막론하고 과거의 악을 생각하지 말고 묵은 원한은 마음에 품지 말 것이다. 이렇게 힘을 억누르고 마음을 함께하여 매우 굳센 힘과 거대한 원기를 합쳐야만 편안한 받침을 얻게 될 것이니 힘을 합치면 화목함이 생길 것이요, 화목하면 하나 됨을 이루나니, 하나 됨은 능히 흔들리지 않는 세력을 이루어 사람을 이기고 하늘을 이길 것이다. 이는 타오르는 불길의 기세와 같아서 자극하는 자는 반드시 불타 버릴 것이며, 반석의 견고함과 같아서 부딪치는 것은 끝내 깨지고야 말 것이다. 탄식하노라 내 동포여! 오늘날의 급한 일은 진실로 국민의 단결에 있도다.”라고 하였다.<sup>39)</sup>

부강한 자유국 문명국의 국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손병희는 먼저 교인의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1908년 6월 교리강습규칙을 제정하고, 다음달 교구의 성화실에 야간교리강습소를 설치하고, 1909년 9월 중앙총부에 법과를 신설하여 교리강습소를 관장하고, 1911년 6월 종학강습소가 설치되어 교리강습소의 강사를 양성하였다.<sup>40)</sup>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12년 말 전국에는 평안도 404개소 등 700여 개소의 교리강습소가 운영되었다.<sup>41)</sup> 교리강습소에서는 천도교의 종지는 유불선(儒佛仙) 합일이요, 종교의 효력은 국민정신을 함육(涵育)하여 문명세계에 진보하는 것”이라 하고, 「교의 경력과 진리와 사회문명」이란 강연, 사회문명이 종교 확장에 재(在)하다」는 강연<sup>42)</sup> 등을 통하여 천도교인의 신앙과 수양과 정신교육을 중시하였다.

손병희는 근대적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문과 도서의 발간을 통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06년 6월 17일 창간된 『만세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전국 이천만 동포의 腦髓를 一朝에 劈開하고 文明한 新공기를 醍醐와 같이 灌注하여도 그 不足함을 유감됨으로 생각할 시대이라, 吾儕는 여차한 시대에 人민교육의 代表하는 의무로 巨款을 소비하여 新보사를 설립하였다.”<sup>43)</sup>

위와 같이 손병희는 신 공기와 같은 문명적 기사를 제공하여 이천만 동포의 뇌수를 하루아침에 개벽하기 위해서 『만세보』를 창간케 하였던 것이다. 또한 『만세보』에서는 일본학자 아리가 나가오의 「국가학」, 시라기와 지로白神次郎와 고쿠보 슈도쿠國府種徳의 공저 「지나문명사」(1900)의 「정치에 관한 관념과 군주정체의 발전」 등을 연재하여 자유주의적 민주정체와 입헌정체 등을 소개하고, 인민주권의식과 인권보호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였다.<sup>44)</sup>

손병희는 『준비시대』를 1906년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만세보』에 연재하고, 1906년 8월 보문관에서 『준비시대』를 발간하였다.<sup>45)</sup> 앞서 살폈듯이, 이 연재 기사와 책을 통하여 손병희는 부강한 자유국과 문명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근대적 국민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일반인의 교육을 위해, 손병희는 천도교 중앙총부와 지방교구로 하여금 교육기관을 인수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천도교에서는 보성학원이 재정난에 빠지자 1910년 12월 무렵 보성전문학교·보성중학교·보성소학교를 인수하고, 이 외에도 서울의 동덕여학교·문창학교·보창학교, 대구의 일신여학교 등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청주의 중학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서울의 양덕여자보통학교·오성학교, 대구의 교남학교, 청주의 청북학교 등도 경영하였다.<sup>46)</sup> 이러한 학교의 운영은 손병희의 관심과 지원 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교리강습소와 보성전문학교와 보성고등보통학교 등의 근대적인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청년교인과 일반인들은 3·1운동 당시 서울과 지방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1919년 9월 천도교에서는 교리강연부를 설립하고 다음 해에 천도교 청년회를 설립하고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손병희의 승인하에 진행되었다.<sup>47)</sup> 이 점에서 문화운동기에 신문화운동론자들이 지향한 신 인간의 모습은 손병희와 생각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운동기에 지향하는 신인간의 모습은 첫째 자기 해방과 개성을 지닌 ‘자유自由의 아’였다.<sup>48)</sup> 이돈화는 의식주와 재능과 의지의 자주자립을 주장하였고<sup>49)</sup>, 한기악은 자기해방으로 자기개성을 강조하였고<sup>50)</sup>, 박응룡은 개성이 있는 곳에 자아가 있다고 하였다.<sup>51)</sup> 김홍선은 “자유 의 아’란 정신에 바탕을 둔 ‘정신적 자유의 아’를 의미한다.”<sup>52)</sup>고 하여 의뢰적 정신이 아닌 자존적 정신을 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모습은 진취적·창조적 인간이었다.<sup>53)</sup> 박달성은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과 아울러, 우주의 대자연까지를 자기의 심신心身에 삼킬 수 있는 대담한 인물, 즉 열정가”라고 하였다.<sup>54)</sup> 신언준은 전진불이前進不怠, 근면, 사회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는 활동적 청년이 되라고 하였다.<sup>55)</sup> 그리고 김기전은 러스킨의 “우리는 무엇을 가질지라도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싶으며, 또 우리는 어디를 갈지라도 조금 더 특별한 곳을 가보았으면 하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였다.<sup>56)</sup>

그리고 셋째 모습은 조화와 협동과 공동의 정신이었다.<sup>57)</sup> 이돈화는 한울이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至正, 지공至公, 지인至仁, 지애至愛, 지자비至慈悲, 지성至誠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sup>58)</sup> 박태준은 자유, 진취와 아울러 공동의 도덕을 강조하였다.<sup>59)</sup>

손병희는 이러한 신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청년·여성·소년·농민·노동·학생 등의 부문운동을 후원하였다. 그리고 강연과 교육과 출판 등을 통한 문화운동을 지지하였다.

## 맺음말

1894년 서구문명의 침략에 항거하여 유·불·선의 동양문명을 지키고자 반일적 동학농민운동을 전개하였던 손병희는 1890년대 후반 평안도 등 서북지역에 포교하면서 문명론을 집착하였다. 그는 미국의 문화와 문명을 경험해보기 위해 1901년 조선을 떠나 일본에 갔다.

일본에서 그는 조희연·권동진·오세장·박영효 등의 문명개화파 인사를 만나 문화발전단계론과 사회진화론의 패러다임을 갖는 문명론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을 수용하였다. 그는 부강하고 신양·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의 자유가 허용되는 미국·영국과 같은 자유문명국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는 1904년 러일전쟁 기간에 대륙세력인 러시아가 아니라 영국 및 미국과 제휴한 일본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협의하여 진보회를 조직하고 친일적 문명개화운동을 추진하였다. 1905년 12월 동학을 천도교로 변경한 손병희는 교육을 통해 자유·자강·애국·단결의 근대적 국민을 양성하고, 의회와 총인원 등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사상을 확산하였다.

자유민주사상을 가진 손병희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3·1운동을 거교적·거족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3·1운동 후 민주공화제의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일제의 잔혹한 무력 진압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3·1운동 후 손병희는 민족운동의 차선택으로 천도교청년회가 중심이 된 문화운동을 후원하였다. 이 문화운동은 정신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유·의지·조화와 협동의 정신을 가진 신인간을 형성하고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민주적 천도교의 이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이었다.

손병희의 자유민주주의사상은 1920년대 평안도인을 중심으로 한 천도교 신파의 중심 사상이 되었다. 천도교의 신파는 문화운동을 통해 자유민주적 신인간을 양성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사상을 가진 김성수 등의 동아일보세력, 이승만 등의 감리교세력, 안창호 등의 장로교세력과 힘을 합쳐 일본으로부터 행정적 자치권을 행사하고 기회를 봐 독립을 이루려는 자치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등 감리교세력과 안창호 등 장로교세력이 독립운동노선을 취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민족운동세력의 중심에서 점차 멀어져 갔다. 한편 교내에서 천도교 신파는 1920년대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천도교연합회와 대립하였고, 해방 후 김일성정권의 수립에 협력한 사회주의적 천도교인과 달리 3·1재현운동을 통하여 김일성정권에 도전하기도 하였다. 

<원문출처>

이 글은 다음 논문을 수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규태, 「손병희의 근대화운동과 자유민주주의사상의 확산」 『동학학보』62, 동학학회, 2022. 45~75쪽.

<저자소개>

**조 규 태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조규태는 서강대학교에서 『1920년대 천도교의 문화운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의 교수와,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민족운동사학회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한인의 해외 이주 및 이주지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 맨티카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정체성(1916~1925)」(2020), 「1920년대 북간도지역의 천도교와 민족운동」(2020), 「1920년대 북경지역의 흥사단원과 민족운동」(2021), 「미주지역 한인의 적십자 조직과 민족운동」(2021) 등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 참고문헌 및 주

### ■ 이주, 그리고 이동의 철학\_ 토마스 네일

#### 참고문헌 및 주

- 1)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1776; repr.: Lawrence: Digireads.com Publishing, 2009), book II, introduction, 162. 김수행 옮김, 『국부론(상)』, 동아출판사, 1993, 264쪽.
- 2)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Silvia Federici, *Caliban and the Witch* (New York: Autonomedia, 2004); Saskia Sassen, *Expulsions: Brutality and Complexity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Saskia Sassen, "A Savage Sorting of Winners and Losers: Contemporary Versions of Primitive Accumulation", *Globalizations* 7(1-2) (2010), pp23-50; Fredy Perlman, *The Continuing Appeal of Nationalism* (Detroit: Black & Red, 1985); Massimo De Angelis, "Marx and Primitive Accumulation: The Continuous Character of Capital 'Enclosures'", *The Commoner*, <http://www.commoner.org.uk/02deangelis.pdf>. 2015년 10월 4일 접속.
- 3) Karl Marx,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trans. Ben Fowkes (London: Penguin Books, 1990), pp.1~786, 강신준 옮김, 『자본 1-2』 (도서출판 길, 2010), 861쪽.
- 4) 사스키아 사센 Saskia Sassen 역시 축출에 대한 유사한 정의를 제시한다.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사회적-경제적 질서로부터 축출된 사람들, 기업들, 장소들." *Expulsions*, 1.
- 5) 심지어 "관광객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Zygmunt Bauman, *Globalization: The Human Consequenc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p.98.
- 6) Ibid.
- 7) Manuel Cas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Malden: Blackwell, 1996), p.376.
- 8) 이동성 mobility/fulidity 개념의 은유적 용법을 보여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John Urry, *Sociology Beyond Societies: Mobiliti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Routledge, 2000), p. 2를 참조하라. 또 지그문트 바우만의 *Liquid Modernity* (Hoboken: Wiley, 2013), 이일수 옮김, 『액체근대』, 강, 2009에 적고 있는 "근대의 현 단계에 대한 주도적인 은유로 '이동성'을 배치"(2(국역: 8쪽))라는 구절도 언급할 수 있다.
- 9) 경계가 하나의 은유가 아니라는 말은 경계가 실제로 움직이는 다른 무언가와 "비슷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은 경계가 실제적 운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은유적이거나 관념적인, 또는 표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는 은유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언어적 은유가 운동하는 물질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어에서 은유라는 단어가 본래 "수송 transport"을 의미했다는 점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증된다. 은유는 한 물체의 특성들이 말 그대로, 또는 정동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전되는 동적인 과정이다. 문제는 유사성에 의해 본질들을 비교할 뿐인 관념론적이고 표상적인 모형 속에서 본래의 동적 정의가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병사 하나가 군사 장벽을 쌓는 인간 벽돌이라면 이는 그 병사가 벽돌과 같거나 나 벽돌이 병사와 같아서가 아니라 이 둘이 동일한 경제 체제에 따라 실제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 둘은 서로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정동적 역량 affective capacity을 공유한다. 정동과 은유의 차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Deleuze and Guattari, "Becoming Intense, Becoming Animal," *A Thousand Plateaus*, 김재인 옮김,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1을 참조하라. 더욱이 그 병사가 움직이는 물질일 뿐만 아니라 유명 인사, 영웅, 정의의 용사, 남자다운 보호자 등의 사회적 의미로 가득찬 하나의 수사라면 이는 운동과 그 수사의 관념적 "의미들"이 모두 동일한 상호구성적 co-constitutive 운동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물질과 의미는 서로의 본보기가 되거나 상호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유된 궤적을 규계하고 순환시키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동일한 운동 체계에 참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적정치학 kinopolitics은 유희론과 관념론을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설명적 환원주의를 거부한다.
- 10) Nick Vaughan-Williams, *Border Politics: The Limits of Sovereign Power*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9), 1.
- 11) 경계는 언제나 유희적이었다. 그것의 관리는 언제나 결정적이었다. 일부 학자들이 이 논증한 바와 같이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경계에 대한 과거 연구들이 주로 경계를 나누고 구획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날 더욱 중요한 주

- 제는 경제 체제의 관리에 관한 것이다.” David Newman, “On Borders and Power: a Theoretical Framework.” *Journal of Borderlands Studies*. 18.1 (2003): 13-25; 16. 또한 Johnson, Corey, Reece Jones, Anssi Paasi, Louise Amoore, Alison Mountz, Mark Salter, and Chris Rumford, “Interventions on Rethinking ‘the Border’ in Border Studies”, *Political Geography*, 30.2 (2011): 61-69를 참조하라.
- 12) 자연적 경계와 인위적 경계의 구분을 긍정하는 입장들을 역사적으로 요약한 것으로는 Victor Prescott, *Political Frontiers and Boundaries*(London: Allen & Unwin, 1987), 51을 참조하라. 또한 Jacques Ancel, *Les Frontières, Étude De Géographie Politique, Recueil des cours, 1936, I. v.55, [203]-[297] port, 51. “frontière naturelle”도 참조하라.*
- 13) Wendy Brown, *Walled States, Waning Sovereignty* (New York: Zone Books, 2010).
- 14) 경계로서의 “장벽”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 15) 이러한 주장은 제III부에서 완전히 해명될 것이다.
- 16) David Newman, “On Borders and Power: a Theoretical Framework”, *Journal of Borderlands Studies*. 18.1 (2003): 13-25; 15.
- 17) Giorgio Agamben, *Homo Sacer*, trans. Daniel Heller-Roazen(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을 참조하라.

## III 이주, 그리고 문화의 윤리\_ 라제쉬 차드라 슈클라

### 참고문헌

- Abrajano, Marisa, and Zoltan L. Hajnal. *White Backlash: Immigration, Race, and American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 Adelman, Howard and Pierre Anctil (Ed.). *Religion, Culture and the State: Reflections on the Bouchard-Taylor Report*.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1.
- Alba, Richard, and Nancy Foner. *Strangers No More: Immigration and the Challenges of Integration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 Appiah, Kwame Anthony. *The Lies that Bind Us: Rethinking Identity, Color, Class, Culture*. London: Live Right Publishing Corporation, 2016.
- Berman, Sheri. “The Lost Left”. *Journal of Democracy* 27(4) (2016): 69-76.
- Dancygier, Rafaela M. *Dilemmas of Inclusion: Muslims in European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 Fukuyama, Francis. *Identity: The Demand for Dignity and the Politics of Resentment*.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8.
- Joppke, Christian. “Inevitable Lightning of Citizenship”.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51(1) (2010): 9-32.
- Kymlicka, Will.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Maxwell, Rahsaan. “Cosmopolitan Immigration Attitudes in large European Cities: Contextual or Compositional Effec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3(2) (2019): 456-74.
- Mishra, Pankaj. *Age of Anger: A History of the Present*. New York: Picador, Farrar, Straus and Giroux, 2017.
- Orgad, Liav. *The Cultural Defense of Nations: A Liberal Theory of Majority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hillips, Anne. *Multiculturalism without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Sandel, Michael J. *The Tyranny of the Merit: Can We find the Common Good?*. New York: Picador, Farrar, Straus and Giroux, 2021.

Taylor, Charles.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edited and introduced by Amy Gutman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Westlake, Daniel. "Multiculturalism, Political Parties, and the Conflicting Pressures of Ethnic Minorities and Far-Right Parties". *Party Politics* 24(4) (2018): 421-33.

Young, Iris Marion.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주

- 1) 시크교도들이 패용하는 단검
- 2)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
- 3) 퍼스트네이션<sup>First Nations</sup>은 캐나다의 원주민 중 이뉴잇족(Inuit)과 캐나다 원주민과 유럽인 사이에서 태어난 메티스(Metis)를 제외한 이들을 통칭한다. '인디언<sup>Indian</sup>'으로 지칭되는데 반대하여 스스로를 1970년대부터 퍼스트네이션으로 지칭하기 시작하던 것이 1980년대부터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편집자주).

III 이주와 지식, 감정, 물질의 이동\_ 김지윤

참고문헌

김현미. "난민 포비아와 한국 정치적 정동의 시간성." 『황해문화』 겨울(2018) : 210-228.

김현정-문보경. "사회안보 관점에서의 난민." 『21세기정치학회보』 26(3) (2016): 125-148.

데보라 코웬. 『The Deadly Life of Logistics: Mapping Violence in Global Trade』, 2014. 권법철 역. 『로지스틱스: 전지구적 물류의 치명적 폭력과 죽음의 삶』 서울: 갈무리, 2017.

레비 R. 브라이언트. 『Onto-Cartography: An Ontology of Machines and Media』. 김효진 역. 『존재의 지도: 기계와 매체의 존재론』 서울: 갈무리, 2020.

루크레티우스(Lucretius).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강대진 역. 서울: 아가넷, 2012.

서영채. 『인문학 개념정원』 서울: 문학동네, 2013.

아네르스 블록-토르벤 엘고르 옌센. 2017. 『처음 읽는 브뤼노 라투르: 하이브리드 세계의 하이브리드 사상 (Bruno Latour: Hybrid Thoughts in a Hybrid World)』. 황장진 역. 서울: 사월의 책.

이병하. "난민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환대의 윤리." 『국제정치논총』 57(4) (2017). 199-235쪽.

제인 베넷. 『생동하는 물질(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문성재 역. 서울: 현실문화, 2020[2010].

존 어리. 『모빌리티(Mobilities)』. 김태한 역. 서울: 엘피, 2022[2007].

Andrew, H. *Tourism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London: Routledge, 2005.

Appadurai, A. "Introduction: commodities and the politics of value." In *The Social Life of Things: Commodities in Cultural Perspective*, eds. Arjun Appadurai.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Appadurai, A.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Barns, S. "Smart cities and urban data platforms: Designing interfaces for smart governance." *City, Culture and Society* 12 (2018). pp.5-12.

- Bauman, Z. "From Pilgrim to tourist - or a short history of identity." In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eds. Paul Du Gay and Stuart Hall. Los Angeles. California: Sage, 2011. pp.18-19.
- Benjamin, Walter. "Flâneur." In *Charles Baudelaire: A Lyric Poet in the Era of High Capitalism*. Verso, 1976. pp.35-66.
- Bogost, I. *Alien Phenomenology, or What It's Like to Be a Thing*.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2.
- Brendon, P. *Thomas Cook: 150 Years of Popular Tourism*. London: Secker & Warburg, 1991.
- Kitchin, R. & McArdle, G. "What makes big data? Exploring the ontological characteristics of 26 datasets." *Big Data & Society* 3(1) (2016). pp.1-10.
- Castles, S., Haas, H., & Miller, M. J. eds.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Fifth edi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4.
- Certeau, M.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Clifford, J.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Cresswell, T. *On the Move: Mobility in the Modern Western World*. New York: Routledge. 2006.
- Cresswell, T. & Merriman, P. eds. *Geographies of Mobilities: Practices, Spaces, Subjects*. London: Routledge. 2011.
- Derrida, J. *Of Hospitality: Anne Dufourmantelle invites Jacques Derrida to respond*.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 2000.
- Franklin, A. *Tourism: An Introduction*. London: Sage. 2003.
- Heidegger, M. "Building Dwelling Thinking." In *Philosophy of Communication*, eds. Brian G. Chang & Garnet C. Butchart. MIT Press. 2012[1971]. pp.245-255.
- Jafari, J. "Editor's page." *Annals of Tourism Research* 1 (1977). p.1.
- Jaffe, R. & de Koning, A. *Introducing Urban Anthropology* (2nd ed.). London: Routledge. 2022.
- Jackson, E. "Fixed in mobility: Young homeless people and the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6(4) (2012). pp. 725-741.
- Jöns, H., Meusbürger, P. & Heffernan, M. (eds.) *Mobilities of Knowledge*. Dordrecht: Springer. 2017.
- Larsen et al.. "Networks and Tourism: Mobile Social Lif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4(1) (2006). pp.244-262.
- Lash, S. & Urry, J. *Economies of Signs and Space*. London: Sage. 1994.
- MacCannell, D.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3) (1973). pp.589-603.
- MacCannell, D. *Towards and Ethics of Sightsee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 McKean, P. "Towards a Theoretical Analysis of Tourism: Economic Dualism and Cultural Involution in Bali." In *Hosts and Guests*, ed. Valene L. Smit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7. pp.93-107.
- Mbah, M. "Formal education as a facilitator of migration and integration: A case study of Nigerian University Graduates." In *Mobilities of Knowledge*, eds. Heike Jöns, Peter Meusbürger, and Michael Heffernan. Dordrecht: Springer, 2017. pp.247-268.
- Morris, B.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Walking in the City'." *Cultural Studies* 18(5) (2004). pp.675-697.
- Nail, T. *The Figure of the Migran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5.
- Ong, A.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9.
- Sheller, M. and Urry, J. "The new mobilities paradigm."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 (2006). pp.207-226.
- Sheller, M. *Advanced Introduction to Mobilities*. Cheltenham, Northampton: Edward Elgar Publishing. 2021.
- Stevens, C. "Temporary work, permanent visas and circular dreams: Temporal disjunctures and precarity among Chinese migrants to Australia." *Current Sociology* 67(2) (2019). pp.294-314.
- Urry, J. *The Tourist Gaze*. London: Sage. 1990.

Urry, J. "Mobile sociolog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1) (2000). pp.185-203.

Urry, J. & Larsen, J. *The Tourist Gaze 3.0*. London: Sage. 2011.

Waever, O. "Securitization and Desecuritization." In *On Security*, ed. R. Lipschutz.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pp.46-86.

주

- 1) 루크레티우스의 중력에서 약간 벗어난 비계나갑의 운동(clinamen), 스피노자의 능동적인 총동으로서의 코나투스(conatus), 라투르가 언급한 객체도 주체도 아닌 간섭자로서의 행위소(actant), 미셸 세르가 대안적 위상학을 제시하면서 이동, 연결, 매개 자체의 일차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아와 타자 그리고 자연과 문화라는 이분법에서 배제된 제3자이자 하이브리드적 존재로서 제안한 유사-객체(quasi-object) 등과 관련된 논의들(아네르스 블록·토르벤 엘고르 연센, 2017)은 모빌리티 턴에 있어서 이동성의 창조적, 생성적 힘을 강조하고 있다. 정지해 보이는 사물들마저 항상 이동하고 있으므로 비인간과 인간 존재 모두가 실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는 새로운 존재론 혹은 인식론의 기반은 이러한 철학적 논의에 기대고 있다. 들뢰즈가 강조한 탈주의 선을 그리면서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통해 정치적 해방의 가능성으로까지 연결되는 사고 역시 이러한 철학적 논의에 큰 영향을 받았다.
- 2) 이들 중에서도 '이동의 사회학(mobile sociology)'을 대표하는 연구자로 알려진 존 어리(John Urry)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Economics of Signs and Space* (Lash & Urry, 1994)에서 후기산업시대의 글로벌 경제에서 이주하는 주체, 문화산업이 이미지와 상징 등 기호가 유통되는 시간공간을 창조해낸 방식 등에 대해 분석하였고, 관광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Tourist Gaze* (1990)는 현재까지도 관광에 대한 대표적인 개론서로서 다른 학자와의 공동 작업으로 내용을 시대에 따라 보완하여 *Tourist Gaze 3.0* (2011)을 펴냈다. 모빌리티 턴은 이후 미미 셸러(Mimi Sheller) 등 주로 사회학 및 지리학 전공의 영국 학자들이 논의의 확장시키며 왔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2003년 랭카스터 대학(Lancaster University)에 모빌리티 관련 연구센터인 Center for Mobilities Research (CeMoRe)이 설립되었고 CeMoRe 주도로 2006년 관련 저널인 *Journal of Mobilities* 가 창간된 이후 '모빌리티 턴' 관련 담론이 확장되고 있다.
- 3) 이동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인 무브먼트(movement)와 모빌리티(mobility)는 한국어로 모두 이동 혹은 이동성으로 번역되고 있다. 팀 크레스웰(Tim Cresswell)이 이 둘을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고, 최근

모빌리티 턴 이후 모빌리티가 다양한 이동성을 모두 함의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 글에서는 모빌리티 턴 그 자체를 언급하거나 모빌리티 개념을 원저자가 강조한 경우에는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외에는 이동성이라는 단어를 모빌리티와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 4) 루크레티우스의 영향을 받은 제인 베넷(Jane Benet)의 논의가 확장된 생기 유클론(vital materialism)은 물질적인 사물들도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시각을 펼친다. 이는 모빌리티를 비인간 혹은 사물들에게로 확장하여 인류 세 시대의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유클론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은 기존 사회학에서 강조해 온 인간의 '행위성(agency)' 대 사회 '구조(structure)'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비판한다. 여기서 구조는 인간의 행위성을 제한하는 부정적 작용으로 혹은 단순히 행위성의 배경이나 맥락으로서 수동적으로만 작용하는 반면, 능동적인 행위성은 인간을 통해서만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제인 베넷, 2020[2010]: 94). 제인 베넷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행위성은 언제나 인간성과 비인간성이 뒤얽힌 네트워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동하는 물질성(vibrant materiality)'은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신체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세포에서 금속이나 전기 그리고 쓰레기에 이르기까지 사물들과 물리적 현상들의 생동적 유클론의 정치적 그리고 이론적 함의들을 통해 물질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생동력(vital force)'에 주목한다. 루크레티우스처럼 제인 베넷의 생기 유클론적 시각에서 사물은 늘 멈춰져 있어 보이지만 이는 그들의 '되기(becoming)'가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수준과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이므로 인간 중심의 사고를 넘어설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인간의 독점적 지위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물에게 '과도한' 행위자성이나 의도를 부각시킴으로써 자본이나 인간 행위자가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5) 유엔(UN Migration)에 의하면 2020년 전 세계 국제 이주자 수는 약 2억 8,100만 명으로,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6%에 해당한다. 이는 1990년보다 1억 2,800만 명 더 많으며 1970년 추정치의 3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https://worldmigrationreport.iom.int/wmr-2022-interactive>, 2023년 5월 8일 접속). 여행 관련 국제 통계에 따르면, 매년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기준 14억 6천5백만 명으로 이는 전 세계 77억 인구의 약 19%가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다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09334/total-number-of-international-tourist-arrivals>, 2023년 5월 8일 접속).
- 6) 흔히 관광(tour)을 대중 관광산업의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항공-호텔-크루즈 등을 통해 이동하는 집단으로서의 이동형태로, 여행(travel)을 성찰적이며 주제적인 개인에 의한 이동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

고 있기에, 본 연구는 '관광'과 '여행'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려 한다.

- 7) 말리노프스키(Bronislaw Malinowski)가 분석한 이래 많은 인류학자들이 주목했던 트로브리안드 군도(Trobriand Islands)의 쿨라(kula)와 같은 선물(gift) 교환 시스템은 사물의 이동성이 자본주의적 상품경제 출현 이전에 어떤 식으로 호혜성과 권력관계의 관계망 속에서 가능했는지 보여준다. 즉각적인 물건의 소유보다는 시간을 두고 비슷한 지위의 인물들 간에 선물 증여를 통해 물건들을 이동시키는 쿨라의 의례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선물의 이동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했는지 보여준다.
- 8) 이러한 논의는 생기적 유품론과 객체지향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과 같은 신유물론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질 만큼 사물의 이동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신유물론의 논의들이 사물의 미시적 차원에 주목하고 인간의 독단적 존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공유하는 반면, 테보라 코웬을 위시한 로지스틱스에 관한 연구는 상품으로서의 사물들이 자본주의의 이동 경로를 따라 매끄럽게 이동하기 위해 오히려 인간의 신체와 이동이 제한되는 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갈라진다.
- 9) 가령 스위스에 근대 국민국가들의 연합인 국제연맹(the Leagues of Nations)이 들어서면서 스위스에는 인도주의적, 평화주의적, 비정부조직의 공간적 클러스터가 조직되었고 세계적으로 제3세계 외교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컨택존(contact zones)이 형성되었다(Jöns et al., 2017).
- 10) 도덕이라는 말이 좀 더 전통적이고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느낌을 준다면, 윤리라는 말은 도덕에 비해 주관적이며 상대적이며 근대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서구적 어원에 따르면 도덕(morality)은 라틴어 'mores'에 어원을 두고 있고, 윤리(ethics)는 희랍어 'ethos'에 어원을 두고 있다. 두 어원 모두 풍속이나 관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관습적인 질서나 그것을 지키는 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정립되어 있던 규범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부정되는 근대에 있어서 상대적 의미의 윤리는 생명 윤리, 경제 윤리, 정치 윤리, 생애 윤리 등에서와 같이 윤리라는 말 자체가 상대적인 속성을 갖게 되었다(서영채, 2013: 198). 따라서 여기서는 '도덕적'이라는 표현보다 '윤리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혹은 통용되고 있는 지켜져야 할 규범이나 가치 등을 언급하려고 한다.
- 11) 대표적으로 사회는 영토·정치·법적·경제적 힘의 확장에 있어서 주기적인 이동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동의 관점에서 그 정치학을 파악하려는 토마스 네일(Thomas Nail)의 키노정치학(kinopolitics) 혹은 이동의 정치학이 이러한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움직임 혹은 이동을 의미하는 '키노(kino)'에 기반한 정치학은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양한 이동성에 기반해 왔다고 본다. 멈춰 보이는 경우

의 사회 역시 일시적이거나 상대적인 정체(junction)의 상태이거나 반복적인 순환(circulation)의 상태라고 본다. 이동은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구심력에 의해 주변에서 사회의 중심으로 이주의 방향이 그려지기도 하고, 밀어내는 원심력에 의하면 중심에서 주변으로,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긴장력(tensional force)은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의해 이미 이주해 온 누군가가 다시 밀려나는 이동을, 탄성력(elastic power)은 이동의 확장과 수축을, 변칙적인 힘(pedetic force)은 앞선 힘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이동을 유발한다. 토마스 네일의 논의는 키노정치학을 통해 작용하는 힘들과 함께 그 영향으로 이동하는 주체의 행상을 구분하는데 전형적으로 노마드(nomads), 야만인(barbarians), 방랑자(vagabonds), 노동자(proletariats)로 주요하게 구분된다. 이러한 형상은 한 개인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절대적 관계가 아니며 정주하는 개별적인 인간과 대응하는 개념도 아니다. 모든 인류는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리듬과 강도의 이동성을 보이고 좀 더 정주하는 듯 보이는 혹은 상대적으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정의되고 있다(2015).

#### Ⅳ 네그리튀드의 미그리튀드 후예들: 사일자 파렐의 『미그리튀드』와 나디파 모하메드의 『모래바람을 걷는 소년』\_ 펠라 베나베드

##### 참고문헌

- Ashcroft, Bill, Griffiths, Gareth & Tiffin, Helen. *The Empire Writes Back: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s*. Routledge, 1989.
- Bennett-Coverly, Louise. *Selected Poems*. Sangster's, 1983.
- Blyden, Edward W. [1887]. *Christianity, Islam and the Negro Race*. Black Classic Press, 1994.
- Boehmer, Elleke. *Postcolonial Poetics: 21st-Century Critical Readings*. Macmillan, 2018.
- Henly, Carolyn P. & Johnson, Angela S. *Textual Analysis for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for the IB Diploma - Skills for Success*. Hodder Education, 2019.
- Mbembe, Achille interviewed by Thomas M. Blaser, "Africa and the Future: An Interview with Achille Mbembe." *Africa is a Country*, Nov 20, 2013. <http://africasacountry.com/africa-and-the-future-an-interview-with-achille-mbembe/>
- Milfull, John. "Decolonising Europe? The Colonial Boomerang."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 History* 54(3) (2008). pp.464-470.
- Mohamed, Nadifa. *Black Mamba Boy*. Farrar, Straus and Giroux, 2010.
- Patel, Shailja interviewed by Monegato, Emmanuele. "On Migritude Part 1: When Saris Speak - The Mother: A Conversation with Shailja Patel." *Altre Modernità Interviste* 2(10) (2009).
- Patel, Shailja. *Migritude*. Kaya Press, 2010.
- Paisley picture on Pixabay. <https://pixabay.com/fr/illustrations/paisley-arri%3%a8re-plan-rouge-bandana-4737185>.
- Rethinking Working-Class Literature: Feminism, Globalization, and Socialist Ethics." *Differences* 19(1), 2008, pp. 1-31. <https://doi.org/10.1215/10407391-2007-015>

- Perera, Sonali. "Rethinking Working-Class Literature: Feminism, Globalization, and Socialist Ethics." *Differences* 19(1) (2008). pp.1-31.
- Ponzanesi, Sandra. *Connecting Europe: Postcolonial Mediations*. Utrecht University, 2016. [https://www.uu.nl/sites/default/files/oratie\\_ponzanesi\\_fin\\_al\\_website.pdf](https://www.uu.nl/sites/default/files/oratie_ponzanesi_fin_al_website.pdf)
- Prashad, Vijay. "Speaking of Saris." *Foreword to Migritude*. Kaya Press, 2010.
- Sardar, Ziauddin. *Orientalism*. Open University Press, 1999.
- Thomas, Dominic. *Black France: Colonialism, Immigration, and Transnationalism*. Indiana University Press, 2007.

#### Ⅴ 이주, 그리고 정치적 행위로서의 문학 번역과 수용\_ 크리스티나 비에슈첵

##### 참고문헌

- Bevin, Ernest. "Letter from British Foreign Minister Ernest Bevin in Which He Attempts to Persuade Polish Soldiers Serving in Polish Units Under Overall Brl.A.D.A.tish Command to Return to Poland." World War II Documents of Special Interest. Drzewieniecki Collections. Archives & Special Collections Department, E. H. Butler Library, SUNY Buffalo State, <https://digitalcommons.buffalostate.edu/wdrspecialdocs/7>. Accessed 1 May 2022.
- Bracken, Brendan. House of Commons Sitting, 2 June 1943. 'Foreign Language Newspapers, Great Britain'. Commons and Lords Hansard Report, HC Deb 02 June 1943 vol. 390 cc194-5. <https://api.parliament.uk/historic-hansard/commons/1943/jun/02/foreign-language-newspapers-great-brtain>. Accessed 5 November 2019.
- Budrowska, Kamila. *Literatura i pisarze wobec cenzury PRL 1948-1958 [Literature and Writers versus People's Poland's Censorship 1948-1958]*. Białystok: Uniwersytet w Białymstoku, 2009.

- Conway, Martin, and José Gotovitch. *Europe in Exile: European Exile Communities in Britain, 1940-1945*. New York: Berghahn Books, 2001
- Czarnecki, Zygmunt J. *Polska wojna w Trzeciej - Światowej* [The Polish War in the Third - World War]. London: Pogon, 1950.
- Danilewiczowa, Maria. *Portrety pisarzy angielskich* [Portraits of English Writers]. London: B. Świderski, 1962.
- Friszke, Andrzej. *Druga Wielka Emigracja: 1945-1990. Życie polityczne emigracji* [The Second Great Emigration: The Émigrés' Social and Cultural Life]. Warsaw: Wiezi, 1999.
- Gardocki, Wiktor. *Cenzura wobec literatury polskiej w latach osiemdziesiątych XX wieku*. Warsaw: IBL, 2019.
- Giedroyc, Jerzy. Letter to Czesław Miłosz, 13 August 1956. Cited in *Prasińska-Wójcik, Z dziejów* [From the History], p.172.
- Gold, Steven J., and Stephanie J. Nawyn, editors.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Migration Studies*. 2nd ed., London: Routledge, 2019.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Rząd RP). London, 26 June 1945. In *Zeszyty Historyczne*. 79 (1987). pp.229-232
- Habielski, Rafał. *Druga Wielka Emigracja: 1945-1990. Życie społeczne i kulturalne emigracji* [The Second Great Emigration: The Émigrés' Social and Cultural Life]. Warsaw: Wiezi, 1999.
- Lesińska, Magdalena. "The Polish Diaspora, the Polish Community. The Disputes Over Notions referring to the Groups of Poles Abroad." *The Polish Migration Review* 3(1) (2018). pp.9-23
- Machciewicz, Paweł. *Druga Wielka Emigracja 1945-1990. Emigracja w polityce międzynarodowej* [The Second Great Emigration: The Émigré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Warsaw: Wiezi, 1999.
- Mayewski, Paweł, editor. *Czas Niepokoju* (The time of anxiety). Criterion Books, 1958.
- Mioszowski, Juliusz. Letter to Jerzy Giedroyc, 16 September 1951. Kultura Archive, KOR RED, Mioszowski 2.
- Mioszowski, Juliusz. "Literatura 'oblężonego miasta'" [Literature of a Besieged City]. *Kultura*, no. 1, January (1952). pp. 3-8
- Nagórski, Zygmunt. Memo to Tomasz Arciszewski, 15 January 1947. London, Polish Institute and Sikorski Museum (IPMS), A48/11/B, Civil and Military Chancelleries of the President of the Polish Republic, 1939-1991, The World League of Poles Abroad (Światpol) 1944-1947, fol. 112.
- Orwell, George. *Folwark zwierzęcy* [Animal Farm]. Teresa Jeleńska, translator. London: Światpol, 1947.
- Prazmowska, Anita J. *Britain and Poland, 1939-1943: The Betrayed All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Reisch, Alfred A. *Hot Books in the Cold War: The Cia-Funded Secret Western Book Distribution Program Behind the Iron Curtain*. Budapest [etc.]: CEU Press, 2013.
- Report (Sprawozdanie), 8 September 1946. IPMS, World Association of Poles Abroad, 1940-1962, A17/1A/55, files 134-135.
- Rudziński, Marek. "Akcja masowych przekazów książek do Polski w latach 1956-1994". *Zeszyty Historyczne* 134 (2000). pp.217-224
- Sowiński, Paweł. *Taina Dyplomacja: Książki emigracyjne w drodze do Kraju 1956-1989*. Warsaw: Wiezi, 2016.
- Stachura, Peter D., editor. *The Poles in Britain, 1940-2000: From Betrayal to Assimilation*. London: Routledge, 2004.
- Staliński, Tomasz [Stefan Kisielewski]. *Widziane z góry* [Seen from Above]. Paris: Literary Institute, 1967.
- Świderska, Hanna., "Z dziejów polskiej prasy opozycyjnej w Londynie 1941-45" [From the History of the Polish Opposition Press in London 1941-45]. *Zeszyty Historyczne* 101 (1992). pp. 56-82
- Wierzbiański, Bolesław. In 'Na progu roku orwellowskiego' [On the Threshold of the Orwell Year], Program specjalny, Radio Free Europe, Polish Section, 1 January 1984, hosted by Tadeusz Nowakowski, with Bolesław Wierzbiański, Gustaw Herling-Grudziński, Konstancy Jeleński, Wojciech Karpiński and Mirosław Chojecki, <http://www.polskieradio.pl/68/2461/Audio/325265>. Program-specjalny. Accessed 5 November 2019.

Wraga, Ryszard (Jerzy Niezbrzycki). Rola i zadania emigracji polskiej [The Role and Tasks of Polish Exiles]. Rome: 2nd Polish Corps, Cultural Department, 1945. Reprinted in *Pressje* 30-31 (2012), pp.142-167

Zaściński, Andrzej. "Trzecia wojna światowa w planach emigracji polskiej w Wielkiej Brytanii w latach 1945-1956: zarys problem badawczego" [The Third World War in the plans of Polish emigrants in Great Britain 1945-1956]. *Czasy Nowożytne* 1 (1996). pp.111-133. <http://shorturl.at/qxHO1/>. Accessed 1 May 2022

Zbyszewski, Karol. *Polacy w Anglii [Poles in England]*. London: Biblioteka Polska w Wielkiej Brytanii, 1947. p.25

Zlatkes, Gwido, Paweł Sowiński, and Ann M. Frenkel. *Duplicator Underground: The Independent Publishing Industry in Communist Poland, 1976-89*. Bloomington, Indiana: Slavica Publishers, 2016.

## 주

- 1) [Censor 'J'], 'Notatka dot. książki T. Stalińskiego *Widziane z góry*' [Note Concerning by T. Staliński's Book *Widziane z góry*], in Andrzej Friszke, 'Widziane z góry Tomasza Stalińskiego' [Widziane z góry by Tomasz Staliński], *Zeszyty Historyczne*, 157 (2006), pp. 113-130 (p. 127). Relates to: Tomasz Staliński [Stefan Kisielewski], *Widziane z góry [Seen from Above]* (Paris: Literary Institute, 1967).
- 2) 기에드르이치는 폴란드의 프랑스대사관 제2 비서관인 조르주 시드르 Georges Sidre의 외교행낭을 <1984>의 '소련판'을 밀수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Giedroyc to Georges Sidre, 5 March or 9 April [1953], *Kultura Archive*. Listy do Redakcji [Letters to the Editor], KOR RED, Sidre: <1984>의 1979년 신판본과 1983년 재인쇄본은 철의 장막을 넘어 밀수할 의도를 가지고 작은 사이즈(12 x 8 cm)로 만들어졌다. 이 인쇄본의 일부는 차 부속품, 운송 선박에 실려 폴란드의 강남콩 혹은 고기 캔 공장으로 보내졌다. 'Józef Gawłowicz Bio grafia', at *Kultura Paryska* ([http://www.kulturaparyska.com/pl/ludzie/typpublicyści/jozef\\_gawlowicz](http://www.kulturaparyska.com/pl/ludzie/typpublicyści/jozef_gawlowicz)) [accessed 5 November 2019].
- 3) POSK, Akcja wysyłki książek [Action of Sending Books], 'Wykaz [...] od połowy stycznia 1974 do połowy stycznia 1975' [Register [...] from Mid-January 1974 to Mid-January 1975], 2136/RPS 1/13, 'Wykaz

książek wysłanych do kraju w okresie od połowy sierpnia do połowy września 1974' [Register of Books Sent to [Poland] in the Period from Mid-August to Mid-September 1974].

- 4) POSK, Akcja wysyłki książek [Action of Sending Books], 'Wykaz książek wysłanych do kraju w okresie od połowy stycznia 1972 do połowy stycznia 1973' [Register of Books Sent to [Poland] in the Period from Mid-January 1972 to Mid-January 1973], 2136/RPS 1/11, 'Wykaz książek wysłanych do kraju od połowy grudnia 1972 do połowy stycznia 1973' [Register of Books Sent to the Country [Poland] from Mid-December 1972 to Mid-January 1973]. See also e.g. POSK, Akcja wysyłki książek [Action of Sending Books], 'Wykaz [...] od połowy stycznia 1974 do połowy stycznia 1975' [Register [...] from Mid-January 1974 to Mid-January 1975], 2136/RPS 1/13, 'Wykaz książek wysłanych do kraju w okresie od połowy grudnia 1974 do połowy stycznia 1975' [Register of Books Sent to [Poland] in the Period from Mid-December 1974 to Mid-January 1975], or 2136/RPS 1/23, 'Wykaz [...] w roku 1984' [Register [...] in 1984].
- 5) 실질적으로 지하 출간물에서만 등장했던 저자들이 대중에게 얼마나 알려졌는지를 직접 다룬 연구는 없다. 본문에서 언급된 수치는 1982년에 실시된 조사로 15세 이상의 응답자를 포함한 조사 결과이다. Adam Mielczarek, 'Kto konspirowa?' [Who Conspired?], in Mielczarek et al., *Śpiący rycerze: szeregowi działacze warszawskiego podziemia wydawniczego lat osiemdziesiątych [Sleeping Knights: Ordinary Workers of the Warsaw Publishing Underground round of the Eighties]* (Warsaw: Stowarzyszenie Wolnego Słowa, 2006), pp. 21-22. 통계청의 인구 데이터에 기반한 수치 전환을 다음을 참고했다. Own numeric conversion on the basis of demographic data from Main Statistical Office, *Rocznik statystyczny [Journal of Statistics]* for 1983 (Warsaw: Główny Urząd Statystyczny), p. 35, table 5 (62). 반면에 PWN 대중사전은 지하 출간물이 2십만에서 25만명에게 읽혔다는 정반대 수치를 제시한다. See entry 'drugi obieg wydawniczy' [Second Publishing Circulation] (<http://encyklopedia.pwn.pl/haslo/drugi-obieg-wydawniczy;3894406.html>) [accessed 5 November 2019]. 그러나 미엘차레크Mielczarek의 연구 결과는 2009년과 2012년 조사들에서도 확인된 것 같다. 이 조사들은 지하 출간물을 직접 접촉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심지어 미엘차레크의 추정보다 높다고 선언했다 (2009년 조사에서는 1964년 이전에 출생한 응답자의 34%가 지하 출간

물에 접촉했다고 답했는데 여기에는 1970년대에 접촉한 이들과 포함되어 있다. 2012년 조사는 1980년대로 제한했고 이 경우 응답자의 32%가 지하 출간물을 직접 봤다고 응답했다). 1983년 중반의 폴란드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40%가 공무원 앞에서 지하 출간물을 정보를 얻기 위한 출처로 '익숙하게 사용하거나 접촉한 바' 있다고 인정했다. See Mielczarek, 'Raz jeszcze...' [Once More...] (particularly p. 370 and pp. 372-374).

- 6) Orwell, 1984, trans. by Mieroszewski, adapt. by Maria Krzesińska [Maryna Miklaszewska], produced by Andrzej Radomski [Andrzej Piszczatowski] (Warsaw: NOWa Kasety, 1984), two 60-minute cassettes; 'Rok 1984. Sluchowisko radiowe na podstawie powieści George'a Orwella' [Nineteen Eighty-Four. Radio Drama Based on the Novel by George Orwell], Radio Free Europe, Polish Section, 25 December 1984, < <https://www.polskieradio.pl/68/862> [accessed 5 November 2019].
- 7) Orwell, letter to Arthur Koestler, 20 September 1947, in CWGO, xix: 1947-1948, pp. 206-207 (p. 207).

## Ⅳ 권총을 찬 피난자, 남근을 가진 노병: 1949년 즈음 대만의 귀신\_성 메이 마

### 참고문헌

- Bai Xianyong. "Afterword" to *Lonely Seventeen*. 329-340. Taipei: Vista, 1976.
- Bai Xianyong. "A Sea of Bloodred Azaleas." In Bai Xianyong's *Wandering in the Garden*, *Waking from a Dream: Tales of Taipei Characters*. Translated by Bai Xianyong and Patia Yas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 Chang, Sung-sheng Yvonne. *Modernism and the Nativist Resistance: Contemporary Chinese Fiction from Taiwan*, 1993.
- Chao, Antonia. "Intimate Relationships and Ethical Practice" in *War and Society* (戰爭與社會: 理論, 歷史, 主體經驗). Taipei: Lianjing (聯經), 2014, pp.517-572.
- Chao, Antonia. "The Modern State, Citizenship, and the Intimate Life: A Case Study of Taiwan's Glorious Citizens and their Mainland Wives." *Taiwan Sociology*, (8), 2004, pp. 1-41. <http://dx.doi.org/10.6676/TS.2004.8.1>.
- Chao, Antonia. "Nationalistic Language as an Open Secret: Diaspora, Cultural Citizenship, and the Materiality of Mainlanders' Self-Narratives." *Taiwan: A Radical Quarterly in Social Sciences*, (46), 2002, pp. 45-85. <http://dx.doi.org/10.29816/TARQSS.200206.0002>.
- Detention. Directed by John Hsu (徐漢強), performances by Gingle Wang, Meng-Po Fu, Jing-Hua Tseng, 1 Production Film, 2019.
- Freud, Sigmund. *The Joke and Its Relation to the Unconscious*. 1905. Translated by Joyce Crick. Penguin Classics, 2003.
- Freud, Sigmund. *Totem and Taboo: Some Points of Agreement between the Mental Lives of Savages and Neurotics*. Translated by James Strachey. Norton, 1950.
- Fu, Chuang Wen. "Exploring the Subject of Old Soldiers in the Book *Wai-s hen-gu-shan* [sic] Written by Ku-lin." <http://ir.dyu.edu.tw/handle/987654321/13923>. Accessed 8/25/2021.

- Hao Yuxiang (郝譽翔). *Nilü* (逆旅 *Travel in Reverse*). Taipei: Unitas, 2010.
- Hirsch, Marianne. *Family Frames: Photography, Narrative, and Postmemo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Hirsch, Marianne.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Writing and Visual Culture after the Holocaust*.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 Li Ang. *Fushen* (Possessed). Jiuge, 2011.
- Li Ang. Kan de jian de gui (Visible Ghosts). *Lianhe wenxue* (Unitas, 2004.) <http://cloudwriting.campus-studio.com/workspace/index.php?bookID=327>
- Lin, Sylvia Li-chun. *Representing Atrocity in Taiwan: the 2/28 Incident and White Terror in Fiction and Film*.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 Liu Daren. (劉大任). *Plankton Tribe* (浮游群落). Yuanliu, 1990.
- Long Ying-tai (龍應台). Dajiang Dahai 1949 (大江大海1949, River and Ocean 1949). *The CommonWealth Magazine* (天下雜誌, www.cw.com.tw), 2009.
- Ku Ling (苦苓). *Foreign Province Hometown* (外省故鄉 Waisheng Guxiang). Taipei: Xidai, 1988.
- Ma, Sheng-mei. "Forgotten Taiwanese Veteran's Memory of Compulsory Service." *Journal of Veteran Studies*, 6(3) 2020, pp. 23-29. DOI: <https://doi.org/10.21061/jvs.v6i3.210> or <https://journal-veterans-studies.org/articles/10.21061/jvs.v6i3.210/> or <https://journal-veterans-studies.org/14/volume/6/issue/3/>.
- Ma, Sheng-mei. "Get Out of the Village: Watching The Prisoner with Chinese Subtitles in Juancun." *Taiwan Lit* 2.1 (Spring 2021). <http://taiwanlit.org/essays/get-out-of-the-village-watching-the-prisoner-with-chinese-subtitles-in-juancun-1>
- Ma, Sheng-mei. *The Last Isle: Contemporary Film, Culture and Trauma in Global Taiwan*. Rowman & Littlefield International, 2015.
- Ma Xiu (馬修). *Zhongshan Beilu Pindie 1964* (1964中山北路拼貼 Collage along Zhongshan North Road). Taipei: Crown, 2002.
- Old Mo's Second Spring (老莫的第二個春天). Directed by You-ning Lee, performances by Sun Yueh, Chun-fang Chang. Chin Hua Motion Picture Company, 1984.
- Sontag, Susan.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Farrar, Straus and Giroux, 2003.
- Wang, Fu-chang. *Ethnic Imagination in Contemporary Taiwan*. Taipei: Socio Publishing, 2003.
- Wu, Chia-rong. *Remapping the Contested Sinosphere: The Cross-cultural Landscape and Ethnoscape of Taiwan*. Cambria, 2020.
- Wu, Chia-rong. "Spectralizing the White Terror: Horror, Trauma, and the Ghost-Island Narrative in Detention." *Journal of Chinese Cinemas* 15(1), 2021. pp.73-86.
- Wu, Zhuoliu. *Orphan of Asia. 1945*. Trans. Ioannis Mentza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6.
- Yang, Dominic Meng-Hsuan. *The Great Exodus from China: Trauma, Memory, and Identity in Modern Taiw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 Zhang Dachun. "The General's Gravestone" (將事碑). In *Sixi Worries About the Nation* (四喜憂國). Taipei: Reading Times, pp.1-23.
- Zhang Fang 張放. *Zhangchaoshi 漲潮時* (When the Tide Rises). Taipei: Zhaoming 昭明, 2001.
- Zhen Xin (振鑫). "Old Soldier: Floating Corpse I and II." <https://mirrorfiction.com/zh-Hant/book/10335/89158>. Accessed August 15, 2021.
- Zhu Tianxin. "Thinking of My Brothers from Juancun." In *Thinking of My Brothers from Juancun* (想我眷村的兄弟們). Maitian, 1998, pp. 67-90. <http://cg.elh.csu.edu.tw:88/plan/100happytolearn/07.pdf>. Accessed March 1999.

## 주

- 1) 미 중서부에서 중국어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었던 나는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동하이대학교의 안토니아 차오, 중앙연구원의 왕푸창, 국립연합대학교의 왕유화 박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너그럽게 자신들의 전문성을 공유해 주었다. 글에 들어 있는 주장과 혹시 있을지 모를 과오는 전적으로 나의 것이다.
- 2) Fu-chang Wang's *Ethnic Imagination in Contemporary Taiwan*, 147를 참조하라.
- 3) 대만에 대한 "founding foundling"의 비유는 Chapter 1, "Trauma and Taiwan's Melodrama: Seven Orphans of Cape No. 7", Sheng-mei Ma, *The Last Isle*(2015)에서 사용되고 있다.

- 4) 대만의 모더니즘 운동과 본토주의 운동의 긴장에 대해서는 Sung-sheng Yvonne Chang, *Modernism and the Nativist Resistance*(1993)을 참조하라.
- 5) 엘리엔 허쉬가 '후기억'이라 부른 것은 "'부재하는 기억absent memory'(엘런 파인Ellen Fine), '물려받은 기억inherited memory', '뒤늦은 기억belated memory', '보철 기억prosthetic memory'(셀리아 루리Celia Lury, 앨리스 랜스버그Alison Landsberg), '발견된 기억mémoire trouvée'(앙리 라치모프 Henri Raczymow), '죽은 자의 기억mémoire des cendres'(나딘 프레스코 Nadine Fresco), '간접 기억vicarious witnessing'(프로마 자이틀린Froma Zeitlin), '수용된 역사received history'(제임스 영James Young), '들러붙은 유산haunting legacy'(가브리엘 슈와브Gabriele Schwab)'(The Generation of Postmemory [2012] 3)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된다.
- 6) 대만의 백색 테러에 대해서는 Sylvia Li-chun Lin's *Representing Atrocity in Taiwan*(2007)을 참조하라.
- 7) "떠남get out"과 "돌아옴get back in"의 모순, "떠남departing"과 "배움/습득 learning/acquiring from"의 이중적 의미에 대해서는 Sheng-mei Ma, "Get Out of the Village"를 참조하라.
- 8) Chuang Wen Fu, "Exploring the Subject of Old Soldiers in the Book Wai-shen-gu-shan [sic] Written by Ku-lin"를 참조하라.
- 9) 대만 교육제도에서의 교관 체계를 설명한 것으로는 Sheng-mei Ma, "Forgotten Taiwanese Veteran's Memory of Compulsory Service"를 참조하라.
- 10) 치야룽 우는 「백색 테러의 유령화」에서 이 괴물을 "머리가 긴 등불 귀신 Lantern Specter(鬼差)"으로 묘사한다. 귀신은 "당나라 복장을 하고 대나무 모자를 쓰고 있으며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다"(77). 영화가 비디오 게임의 토착 귀신을 국민당 교관의 상징으로 뒤바꾼 것은 명백하다. 우는 독서회가 비밀 모임을 여는 학교 창고를 "병커"(80)라고 부른다.

## ▣ 필리핀의 텅 빈 이탈리아식 빌라가 집일 때: 재이탈리아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소비기호학, 1980년대~2018년\_ 미나 로세스

### 참고문헌

- Aguilar, Filomeno V. Jr., "Labour Migration and the Ties of Relatedness: Diasporic Houses and Investments in Memory in a Rural Philippine Village". *Thesis Eleven* 98 (2009). pp.88-114.
- Aguilar, Filomeno V. Jr., with John Estanley Z. Peñalosa, Tania Belen T. Liwanag, Resto S. Cruz I, and Jimmy M. Melendrez. (2009b). *Maalwang Bahay: Family, Overseas Migration, and Cultures of Relatedness in Barangay Paraiso*.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Press.
- Añonuevo, Augustos T. "Reintegration, An Elusive Dream?" in Estrella Dizon-Añonuevo and Augustus T. Añonuevo (eds.) *Coming Home. Women, Migration & Reintegration*. Balikabayani Foundation Inc., and ATIKHA Overseas Workers and Communities Initiative Inc., 2002. pp. 127-136.
- Basa, Charito, Violeta de Guzman and Sabrina Marchetti. International Migration and Over-indebtedness: the Case of Filipino Workers in Italy.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Human Settlements Working Paper 26*. Rural-Urban Interactions and Livelihood Strategies. 2012.
- Beeckmans, Luce, Ashika Singh & Alessandra Gola. "Rethinking the Intersection of Home and Displacement from a Spatial Perspective". in Luce Beeckmans, Alessandra Gola, Ashika Singh, and Hilde Heynen (eds.). *Making Home(s) in Displacement: Critical Reflections on Spatial Practice*.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22.
- Bocagni, Paolo. "What's in a (Migrant) House? Changing Domestic Spaces, the Negotiation of Belonging and Home-Making in Ecuadorian Migration". *Housing, Theory and Society* 21(3) (2014). pp. 277-293.
- Bocagni, Paolo. *Migration and the Search for Home: Mapping Domestic Space in Migrants' Everyday Lives*.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17).

- Bourdieu, Pierre.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1984.
- Cruz, Phyllis Theresa C. Interview with author, Makati City, July 1. 2016.
- Espiritu, Yen Le. *Homebound: Filipino American Lives Across Culture, Communities, and Count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 Fletcher, Peri L. *La Casa de Mis Sueños: Dreams of Home in a Transnational Mexican Communit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9).
- Gutierrez, Chit Balmaceda. "Nouveaux Riches", OFWS Join the Middle Class", *Filipinas Magazine*, (August 2000). p. 33.
- Kelley, Robin D.G. *Race Rebels: Culture, Politics, and the Working Class*. New York: Free Press. 1994.
- Lopez, Sarah Lynn. "The Remittance House: Architecture of Migration in Rural Mexico". *Building and Landscapes*. 17(2) (2010). pp. 33-52.
- Macias, Anthony. *Mexican American Mojo: Popular Music, Dance, and Urban Culture in Los Angeles 1935-1968*.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
- Madianou, Mirca, and Miller, Daniel. *Migration and New Media. Transnational Families and Polymedia*. London: Routledge. 2012.
- McKay, Deirdre. *An Archipelago of Care. Filipino Migrants and Global Networks*. Bloomington: University of Indiana Press. 2016.
- Mai, Añonuevo. Interview with author, Makati City, August 1. 2014.
- Munnecom, Lorna Vea Owner of travel agency Interview with author, Paris. November 17. 2015.
- Opintano, Jeremiah. "Social Capital and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Migration in Barangay Sta. Rosa". In Estrella Dizon-Añonuevo and Augustus T. Añonuevo (eds.), *Coming Home. Women, Migration and Reintegration*. Manila: Balikabayani Foundation, Inc., and ATIKHA Overseas Workers and Communities Initiative, Inc., (2002), pp. 162-163.
- Ortega, Arnisson Andre. *Neoliberalizing Spaces in the Philippines: Suburbanization, Transnational Migration, and Dispossession*. Lanham: Lexington Books. 2016.
- Parreñas, Rhacel Salazar.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2001.
- Ramirez, Catherine S. *The Woman in the Zoot Suit: Gender, Nationalism,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Memor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9.
- Roces, Mina. "These Guys Came Out Looking Like Movie Actors: Filipino Dress and Consumer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1920s-1930s", *Pacific Historical Review* 85(4) (2016). pp. 532-576.
- Roces, Mina. *The Filipino Migration Experience: Global Agents of Chang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1.
- Roces, Mina. "The Politics of Visibility and the Politics of Appearances: Filipina Migrants' Consumer Power and Its Limits." *Alon: Journal of Filipinx and Diaspora Studies* 1(1) (2021). pp. 1-33.
- Roces, Mina. "Fashion as Resistance: Dress and the Self-Transformation of Filipino Domestic Workers in Singapore, 1990s-2017." *International Quarterly for Asian Studies*, forthcoming. (2022)
- Super Jumbo Box: "Sending 'More' Back Home", *OFW Pinoy Star*. May/June 2013, p. 14.
- Valencia, Debbie. Interview with author. Athens, September 11. 2012.
- Ventura, Ray. *Into the Country of Standing Men*.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2007.
- Zontini, Elisabetta. *Transnational Families, Migration and Gender. Moroccan and Filipino Women in Bologna and Barcelona*. New York: Berghahn Books. 2010.

## 주

- 1) debutante ball, 성년에 이른 상류층 여성들의 사교계 데뷔식
- 2) Pierre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1984, 2010 reprint).
- 3) Paolo Boccagni, "What's in a (Migrant) House? Changing Domestic Spaces, the Negotiation of Belonging and Home-Making in Ecuadorian Migration", *Housing, Theory and Society*, Vol 31, NO. 3, 2014, pp.

- 277-293), and Sara Lynn Lopez. "The Remittance House: Architecture of Migration in Rural Mexico", *Buildings and Landscapes*, Vo. 17, NO. 2, Fall 2010, pp. 33-52, Filomeno V. Aguilar Jr., "Labour Migration and the Ties of Relatedness: Diasporic Houses and Investments in Memory in a Rural Philippine Village", *Thesis Eleven*, 98, 2009, pp. 88-114, Filomeno V. Aguilar Jr., with John Estanley Z. Peñalosa, Tania Belen T. Liwanag, Resto S. Cruz I, and Jimmy M. Melendrez, *Maalwang Buhay: Family, Overseas Migration, and Cultures of Relatedness in Barangay Paraiso*.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Press, 2009), Arnisson Andre Ortega, *Neoliberalizing Spaces in the Philippines: Suburbanization, Transnational Migration, and Dispossession*, (Lanham: Lexington Books, 2016), and Peri L. Fletcher, *La Casa de Mis Sueños. Dreams of Home in a Transnational Communit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9).
- 4) Aguilar Jr. et al, *Maalwang Buhay*, p. 152.
  - 5) Boccagni, "What's in a (Migrant) House?", pp. 277-293, and Lopez, "The Remittance House", pp. 33-52, Aguilar Jr., "Labour Migration", pp. 88-114, Aguilar Jr. et al, *Maalwang Buhay*, Ortega, *Neoliberalizing Spaces in the Philippines*, and Fletcher, *La Casa de Mis Sueños*.
  - 6) Boccagni, "What's in a (Migrant) House?", pp. 280. 또한 Lopez, "The Remittance House", pp. 33-52를 참조하라.
  - 7) Fletcher, *La Casa de Mis Sueños*, p 6.
  - 8) *Ibid.*, p. 140.
  - 9) Luce Beeckmans, Ashika Singh & Alessandra Gola, "Rethinking the Intersection of Home and Displacement from a Spatial Perspective" in Luce Beeckmans, Alessandra Gola, Ashika Singh, and Hilde Heynen (eds.), *Making Home(s) in Displacement: Critical Reflections on Spatial Practice*,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22), p. 15.
  - 10) *Ibid.*, pp. 15-16.
  - 11) Chit Balmaceda Gutierrez, "Nouveaux Riches", OFWS, "Join the Middle Class", *Filipinas Magazine*, August 2000, p. 33.
  - 12) 마이 아노누에보(NGO ATIKHA의 창립자)와의 면담, 마카티시, 2014년 8월 1일.
  - 13) Mina Roces, *The Filipino Migration Experience: Global Agents of Chang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1), and Mina Roces, "The Politics of Visibility and the Politics of Appearances: Filipina Migrant Consumer Power and Its Limits", *Alon: Journal of Filipinx American and Diaspora Studies*, Vol 1, Issue 1, pp. 1-33.
  - 14) 조셉과의 면담, 파도바, 2018년 8월 21일.
  - 15) Deirdre McKay, *An Archipelago of Care. Filipino Migrants and Global Networks*, (Bloomington: University of Indiana Press, 2016), Deirdre McKay, *On the Face of Facebook: Historical Images and Personhood in Filipino Social Networking* (closed quotes), 21, No. 3, 2010, pp. 483502, Mark Johnson, and Deirdre McKay (eds.), open quotes *Mediated Diasporas: Material Translations of the Philippines in a Globalized World*. Special Issue. *South East Asia Research* 19, No. 2, 2011, Mirca Madianou and Daniel Miller, *Migration and New Media: Transnational Families an Polymedia*, (London: Routledge, 2012).
  - 16) McKay, *An Archipelago of Care*, chapter 3, Mirca Madianou and Daniel Miller, *Migration and New Media. Transnational Families and Polymedia*, (London: Routledge, 2012).
  - 17) McKay, *An Archipelago of Care*, p. 68.
  - 18) Charito Basa and Rosalud Jing de la Rosa, *Me Us and Them: Realities and Illusions of Filipina Domestic Workers, A Community Research Project by the Filipino Women's Council*, (Rome: EU/EQUAL (ESF) and the Italian Ministry of Welfare, 2004), p. 11
  - 19) Rhacel Salazar Parreñas,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2003), p. 5.
  - 20) Basa and de la Rosa, *Me Us and Them*, p. 12.
  - 21) Elisabetta Zontini, *Transnational Families, Migration and Gender. Moroccan and Filipino Women in Bologna and Barcelona*, (New York: Berghahn Books, 2010), p. 13.
  - 22) Parreñas, *Servants of Globalization*, p. 19.
  - 23) *Ibid.*
  - 24) Charito Basa, Violeta de Guzman, and Sabrina Marchett, *International*

- Migration and Over-indebtedness: the Case of Filipino Workers in Italy,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Human Settlements Working Paper No. 36, 2012), p. 10.
- 25) Ibid.
- 26) Natalia Ribas, Charito Basa and Rosalud de la Rosa, Gender, Remittances and Development. The Case of Filipino Migration to Italy, (Dominican Republic: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2008), no page numbers. 밀마 및 바비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5년 11월 25일, 카를리타와의 면접, 이탈리아 밀라노, 2015년 11월 22일
- 27) Basa, de Guzman, and Marchett, International Migration and Over-indebtedness, p. 21.
- 28) 조셉과의 면접, 이탈리아 밀라노, 2018년 8월 21일.
- 29) 나타샤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5년 11월 30일.
- 30) 카를리타와의 면접, 이탈리아 밀라노, 2015년 11월 22일.
- 31) 조셉과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21일.
- 32) 베라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29일.
- 33) 재퀴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30일.
- 34) 루이즈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18일.
- 35) 달라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26일.
- 36) 린다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9일.
- 37) 같은 면접.
- 38) 베라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29일.
- 39) 루이즈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8일.
- 40) 조셉과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21일.
- 41) 이벵절린과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28일.
- 42) 마돈나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19일.
- 43) 루이즈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8일.
- 44) 루시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15일.
- 45) 루시의 개인 스크랩북,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15일 열람.
- 46) 레티샤와의 면접, 필리핀 라구나주 산로케, 2015년 7월 5일.
- 47) 레티샤와의 면접, 필리핀 라구나주 산로케, 2015년 7월 5일.
- 48) 레티샤와의 면접, 필리핀 라구나주 산로케, 2015년 7월 5일, 조셉과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21일.
- 49) 린다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9일.
- 50) 또한 Mina Rocas, Fashion as Resistance: Dress and the Self Transformation of Filipino Domestic workers in Singapore, 1990s 2017, International Quarterly for Asian Studies, forthcoming을 참조하라.
- 51) 레티샤와의 면접, 라구나주 산로케, 2015년 7월 5일.
- 52) 예를 들어, Robin D.G. Kelley, Race Rebels: Culture, Politics, and the Working Class, (New York: Free Press, 1994); Anthony Macías, Mexican American Mojo: Popular Music, Dance, and Urban Culture in Los Angeles 1935-1968,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 and Catherine S. Ramirez, The Woman in the Zoot Suit: Gender, Nationalism,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Memor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9) 를 참조하라.
- 53) Mina Rocas, "These Guys Came Out Looking Like Movie Actors: Filipino Dress and Consumer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1920s-1930s",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85, NO. 4, 2016, pp. 532-576.
- 54) 린다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9일.
- 55) 로르나 베이 문네콘(Amihan Travel)과의 면접, 파리, 2015년 11월 17일.
- 56) 데비 발렌시아(KASAPI)와의 면접, 아테네, 2012년 9월 11일.
- 57) Bourdieu, Distinction.
- 58) Yen Le Espiritu, Homebound: Filipino American Lives Across Cultures, Communities, and Count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 10.
- 59) Ibid, p. 13.
- 60) Ibid., p. 2.
- 61) Ibid., p. 98.
- 62) Ibid., p. 98.

- 63) Paolo Bocagni, *Migration and the Search for Home: Mapping Domestic Space in Migrants' Everyday Lives*,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17) p. 2, Espiritu, Homebound.
- 64) Zontini, *Transnational Families*.
- 65) 필리스 테라사 C. 크루즈(Century Properties)와의 면접, 마카티시, 2016년 7월 1일.
- 66) Aguilar Jr., "Labour Migration", pp. 88-114, Aguilar Jr. et al, *Maalwang Buhay*.
- 67) Boccagni, "What's in a (Migrant) House?", pp. 277-293, Lopez, "The Remittance House", pp. 33-52
- 68) Jeremiah Opiniano, "Social Capital and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Migration in Barangay Sta. Rosa", in Estrella Dizon-Añonuevo and Augustus T. Añonuevo (eds.), *Coming Home. Women, Migration and Reintegration*, (Manila: Balikabayani Foundation, Inc., and ATIKHA Overseas Workers and Communities Initiative, Inc., 2002), pp. 162-163.
- 69) 린다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9일.
- 70) 마이 아노누에보(NGO ATIKHA의 창립자)와의 면접, 마카티시, 2014년 8월 1일.
- 71) 레티사와의 면접, 라구나주 산로케, 2015년 7월 5일.
- 72) 파도바와 밀라노의 필리핀인들과의 면접, 2015년 11월.
- 73) 테레사와의 면접, 이탈리아 밀라노, 2015년 11월 22일.
- 74) 레티사와의 면접, 라구나주 산로케, 2015년 7월 5일.
- 75) Mina Roces, "The Private is Public: The Domestic Interiors of Filipino Elite Women, c 1990s", paper presented to the Women in Asia Conference, Sydne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une 22, 2019.
- 76) 린다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8일.
- 77) 치타델라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11일.
- 78) 또한 도쿄의 필리핀인들에 대한 연구로는 McKay, *An Archipelago of Care on Filipinos in London*, and Ray Ventura, *Into the Country of Standing Men*,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2007)를 참조하라. 또한 Mina Roces, *The Filipino Migration Experience*. Global

*Agents of Chang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1) 제3장을 참조하라.

- 79) "Super Jumbo Box: Sending 'More' Back Home", OFW Pinoy Star, May/June 2013, p. 14.
- 80) 바비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5년 11월 25일.
- 81) 린다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8일.
- 82) 케이티와의 면접, 이탈리아 파도바, 2018년 8월 10일.
- 83) Basa, de Guzman and Marchetti, *International Migration and Over-indebtedness*, p. 12, and Augustus T. Añonuevo, "Reintegration, An Elusive Dream?", in Dizon-Añonuevo and Añonuevo, *Coming Home*, pp. 130-131.

## ▣ 음식문화의 이주와 전유\_ 권은혜

### 참고문헌

- Abarca, Meredith E. "Authentic or Not, It's Original," *Food & Foodways* 12 (2004). pp.1-25.
- Appadurai, Arjun, "How to Make a National Cuisine: Cookbooks in Contemporary Indi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0 (1988), pp. 3-24.
- Chen, Yong, *Chop Suey, USA: The Story of Chinese Food in Americ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E-Book.
- Deutsch, Tracey, *Building a Housewife's Paradise: Gender, Politics, and American Grocery Stores in the Twentieth Century*.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12.
- Diner, Hasia, *Hungering for America : Italian, Irish, and Jewish Foodways in the Age of Migr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DuPuis, E. Melanie, Matt Garcia, and Don Mitchell, "Introduction." In *Food Across Borders*. Eds. Matt Garcia, E. Melanie DuPuis, and Don Mitchell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17). pp.1-23.

Gabaccia, Donna. *We Are What We Eat: Ethnic Food and the Making of American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Hsu, Madeline Y., "On the Possibilities of Food Writing as a Bridge between the Popular and the Political." *Journal of American History* 103: 3 (2016). pp. 684-685.

Kay, Sara. "Yelp Reviewers' Authenticity Fetish Is White Supremacy in Action." *Eater New York*, January 18, 2019, [https://ny.eater.com/2019/1/18/18183973/authenticity-yelp-reviews-white-supremacy-trap?\\_gl=1\\*1c1ngl](https://ny.eater.com/2019/1/18/18183973/authenticity-yelp-reviews-white-supremacy-trap?_gl=1*1c1ngl)\*

Ku, Robert Ji-Song, *Dubious Gastronomy: The Cultural Politics of Eating Asian in the US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4, Kindle.

Manalansan IV, Martin F. "Beyond Authenticity: Rerouting the Filipino Culinary Diaspora." In *Eating Asian America: A Food Studies Reader*. Eds. Robert Ji-Song Ku, Martin F. Manalansan IV, and Anita Mannur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3). pp. 288-300.

Mannur, Anita. "Model Minorities Can Cook: Fusion Cuisine in Asian America." In *East Main Street: Asian American Popular Culture*. Eds. Shilpa Davé, Leilani Nishime, and Tasha G. Ore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pp. 72-94.

Massoth, Katherine. " 'Mexican Cookery That Belongs to the United States': Evolving Boundaries of Whiteness in New Mexican Kitchens." In *Food Across Borders*. Eds. Matt Garcia, E. Melanie DuPuis, and Don Mitchell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17). pp. 44-63.

Perales, Monica. "The Food Historian's Dilemma: Reconsidering the Role of Authenticity in Food Scholarship." *Journal of American History* 103: 3 (2016). pp. 690-693.

Pilcher, Jeffrey M., *Planet Taco: A Global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Kindle.

Pilcher, Jeffrey M., *Food in World History*. Second Ed., New York: Routledge, 2017.

Ray, Krishendu. *The Ethnic Restaurateur*.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6.

Saxena, Jaya. "What Did 'Authenticity' in Food Mean in 2019?," Dec. 3, 2019, *Eater New York*, <https://www.eater.com/2019/12/3/20974732/authentic-food-definition-yelp>

Smith, Alison K. "National Cuisines." In *The Oxford Handbook of Food History*. Ed. Jeffery M. Pilch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444-460.

Tierney, R. Kenji and Emiko Ohnuki-Tierney. "Anthropology of Food." In *The Oxford Handbook of Food History*. Ed. Jeffery M. Pilch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99-116.

## Ⅷ 손병희의 근대화 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확산\_ 조규태

### 참고문헌 및 주

- 1) 손병희의 문명개화운동과 3·1운동에 관한 글로는 다음의 글이 도움이 된다. 김정인, 「손병희의 문명개화노선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2002. 최효식, 「의암 손병희와 3·1독립운동」, 『동학연구』 14·5합집, 2003. 이진기, 「의암 손병희의 문명개화론 인식과 천도교 개창」,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최기영, 「손병희는 천도교를 세우고 어떤 민족운동을 펼쳤을까?」, 『대한제국기 서술사람들 -우리 역사속의 사람들 3』, 2004. 박성수, 「3·1운동과 의암 손병희」, 『중앙사론』 21, 2005. 이용창, 「동학농민운동 이후 손병희의 단일지도체제 확립과정과 동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6, 2006. 이현희, 「의암 손병희와 3·1운동」, 『동학학보』 17, 2009. 조규태, 「손병희의 꿈과 민족운동」, 『중원문화연구』 13, 2010. 송봉구, 「의암 손병희의 심성 수양론 연구」, 『유학연구』 22, 2010. 성주현, 「『복점대도주』: 의암 손병희의 근대국가정치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8, 2011. 허수, 「해방 후 의암 손병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변천」, 『대동문화연구』 83, 2013. 김삼용, 『의암 손병희 평전: 격동기의 경세가』(채륜, 2017). 김삼용, 「의암 손병희 선생의 개혁사상과 실천」, 『책과 인생』 280, 2017. 공복성, 「러일전쟁 전후 손병희의 일본군 지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4, 2017. 윤소영, 「3·1운동기 일본 신문의 손병희와 천도교 기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7, 2017. 佐佐充昭, 「구한말 일본에서 손병희와 나철의 만남: 『요시찰외국인거동관계장록』 기록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37, 2021. 손병희의 사상 및 신관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정혜정, 「

의암 손병희의 인쇄전 교육사상, 『문명연지』3-2, 2002. 임태홍, 『손병희의 神觀』, 『동학연구』 14-5합집, 2003. 오문환, 「의암 손병희의 '교정상진'의 국가건설 사상: 문명계몽, 민회운동, 3-1독립운동」, 『정치사상연구』 10집 2호, 2004. 김용휘, 「한말 동학의 천도교 개편과 인쇄전 교리화의 성격」, 『한국사상사학』 25, 2005. 김용휘, 「의암 손병희의 『無體法經』」, 『동학학보』 10, 2006. 오문환, 「의암 손병희의 성심관: 무체법경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10, 2006. 정혜정, 「의암 손병희의 性心身 三端의 心性論과 본래적 자아로서 한울 이해: 불교적 심성론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007. 허경, 「푸코의 계보학으로 개념의 '현대적' 변천: 의암 손병희」, 『동학학보』12, 2008. 김용휘, 「의암 손병희의 『무체법경』과 동학-천도교의 수련」, 『동학연구』 25, 2008. 김영철, 「의암 손병희 사상의 철학적 조망」, 『동학학보』 43, 2017. 임형진, 「갑오년 이후 의암 손병희의 의식변화와 개화혁신 -일본 망명시기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43, 2017. 박길수, 「동학-천도교의 개벽사상과 개벽운동: 의암 손병희의 인물개별론과 현대적 계승을 중심으로」, 『한국종교』 46, 2019. 성지윤, 「손병희의 일본 망명과 개화 사상의 형성 -손병희의 『준비시대』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59, 2021. 김용휘, 「손병희의 철학 -인내천과 이신환성(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김민석, 「일본 외유기(1901~1905) 손병희의 '문명' 개념과 문명론」, 『대동문화연구』 117, 2022.

2)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전기』, 1967, 131쪽. 조규태, 「구한말 평안도지방의 동향 -교세의 신장과 성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21, 1990, 56-75쪽.

3) 조규태, 「구한말 평안도지방의 동향 -교세의 신장과 성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21, 1990, 79-80쪽. 1906-7년 평양에는 4,540명의 장로교인과 3,284명의 감리교인, 의주에는 4,603명의 장로교인, 선천에는 1,749명의 장로교인이 있었다.

4) 오지영, 「해월선생 조난후 도인의 동정」, 『동학사』(초고본),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 1(사문연구소, 1996), 537쪽.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187쪽.

5)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9, 187쪽.

6) 「이상현의 신원 및 거동에 관한 회신(1904.09.07)」, 국사편찬위원회 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2, 1997, 421쪽.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9, 187-188쪽.

7)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9, 188쪽.

8) 오상준, 「본교역사」, 『천도교회월보』 55, 1915.02, 18-19쪽.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9, 190쪽.

9) 임형진, 「갑오년 이후 의암 손병희의 의식 변화와 개화혁신」, 『동학학보』 43, 2017, 17-26쪽.

10)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9, 188-191쪽.

11) 김갑천, 「박영효의 건백서 -내정개혁에 대한 1888년의 상소문」, 『한국정치연구』 2권, 1990, 245-295.

12) エメルソン, 佐藤重紀 譯, 『文明論』(博文館, 1890).

13) 류준필, 「일본의 침략주의와 문명론의 아포리아: 福澤諭吉의 『문명론지개략』과 그 동아시아적 계기」, 인문학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26, 2012, 512-517쪽.

14) 손병희, 「삼전론」, 『신사성사법설』(천도교중앙총부, 1980), 468-498쪽.

15) 손병희, 「명리전론」, 『신사성사법설』(천도교중앙총부, 1980), 414-467쪽.

16) 이 『준비시대』는 1904년 4월 5일자로 필사되어, 『만세보』에 1906년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연재되었고, 1906년 8월 보문관에서 출간되었다. 성주현, 「『北接大道主』: 의암 손병희의 근대국가정치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8, 2011.

17) 『준비시대』(1905.04.05.), 최기영·박맹수 편, 『한말 천도교 자료집 2』(국학자료원, 1997), 288쪽.

18) 손병희 지음, 손윤 옮김, 『준비시대』(의암경영연구소, 2015), 30-32쪽.

19) 손병희 지음, 손윤 옮김, 『준비시대』(의암경영연구소, 2015), 39-46쪽.

20) 손병희 지음, 손윤 옮김, 『준비시대』(의암경영연구소, 2015), 48-80쪽.

21) 『준비시대』(1905.04.05.), 최기영·박맹수 편, 『한말 천도교 자료집 2』(국학자료원, 1997), 296-297쪽.

22) 김정인, 『천도교의 근대 민족운동 연구』(한울, 2009), 43쪽.

23) 『손병희 신문조서(제3회)』(경성지방법원, 1919. 7.1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1권, 1990, 128-129쪽.

24) 『준비시대』(1905.04.05.), 최기영·박맹수 편, 『한말 천도교 자료집 2』(국학자료원, 1997), 285-286쪽. 맞춤법은 원문을 살리면서 현대문에 맞게 고쳐씀.

25) 손병희선생 취조서(1919. 3. 7), 『이병현, 『三一運動秘史』(시사시보사, 1959), 81쪽. 「손병희선생 취조서」(1919. 4.10), 이병현, 『三一運動秘史』(시사시보사, 1959), 89쪽.

26) 손병희 지음, 손운 옮김, 『준비시대』(의암경영연구소, 2015), 36-37쪽.

27)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191-195쪽.

28) 『황성신문』 1904.10.17., 잡보 <개천향보>. 김주강, 「나대령의 기적」, 『신인간』 79, 1934.5, 42-45쪽. 조규태, 「구한말 평안도 지방의 동학 -교세의 신장과 성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21, 1990, 85쪽.

29)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196-198쪽.

30)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191-198쪽.

31)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종령집』, 1983, 22-23, 202쪽.

32)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종령집』, 1983, 14-16쪽.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2001, 198-200쪽.

33) 천도교 중앙총부, 『天道敎大憲』(보문관, 1906); 최기영·박맹수 편, 1997, 『韓末 天道敎 資料集』 2, 국학자료원, 84~87쪽. 조규태, 「일제강점기 천도교의 의회제도 도입과 운용」, 『한국사연구』 164, 2014, 240-241쪽.

34) 조규태, 「일제강점기 천도교의 의회제도 도입과 운용」, 『한국사연구』 164, 2014, 242-245쪽. 이동초 편역, 『천도교회 종령집』(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5), 45, 98, 109, 113, 134, 138, 143, 144, 167쪽.

35) 조규태, 「일제강점기 천도교의 의회제도 도입과 운용」, 『한국사연구』 164, 2014, 248-265쪽. 「천도교의 내용 및 개혁의 전말에 관한 건」(1922), 『대정11년 불명선언 상황 잡보』, 국가보훈처 공문전자자료관, 『일제의 한국침략 자료총서』 2.

36) 조규태, 「일제강점기 천도교의 의회제도 도입과 운용」, 『한국사연구』 164, 2014, 267-275쪽.

37) 손병희 지음, 손운 옮김, 『준비시대』(의암경영연구소, 2015), 37-38쪽.

38) 손병희 지음, 손운 옮김, 『준비시대』(의암경영연구소, 2015), 46-47쪽.

39) 손병희 지음, 손운 옮김, 『준비시대』(의암경영연구소, 2015), 32-33쪽.

40) 『천도교종령집』, 93-95, 110-112, 145쪽.

41) 『천도교회월보』 29호, 1912.12. 50쪽의 기록에 따르면 제692호 교리강습소의 존재가 확인된다. 출처,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181-182쪽.

42) 『만세보』 1906.12.11, 3면, 〈巡督說敎〉. 『만세보』 1906.12.25, 3면, 〈巡督說敎〉. 『만세보』 1906.12.29, 3면, 〈巡督說敎〉.

43) 『만세보』 1906.06.17.

44) 정례정, 「개화기 『만세보』에 나타난 국민교육론 연구」, 『한국교육사학』 32권 2호, 2010, 50-60쪽.

45) 성주현, 「『北接大道主』: 의암 손병희의 근대국가정치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8, 2011, 408쪽.

46)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101쪽.

47) 조기간 편, 『천도교청년당소사』(천도교중앙총부, 1934). 아세아문화사 간, 『동학사상자료집』 제3권, 1979, 37-38쪽. 조규태, 「천도교 문화운동의 대두」,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국학자료원, 2006), 29쪽.

48)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의 패러다임」,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국학자료원, 2006), 85-87쪽.

49) 李敦化, 「自己解放과 人乃天主義」, 『천도교회월보』 118호, 1920.06, 6-8쪽.

50) 龔嘯生(韓基岳), 「新紀元에 立한 世界同胞의 解放的 宗教를 疏開하노라」, 『천도교회월보』 124호, 1920. 12, 48쪽.

51) 朴應龍, 「個性의 無盡藏」, 『천도교회월보』 116호, 1920.04, 35쪽.

52) 金弘善, 「自由의 我」, 『천도교회월보』 119호, 1920.07, 58쪽.

53)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의 패러다임」,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국학자료원, 2006), 87-88쪽.

54) 『동아일보』 1921. 6.22(4). <당면의 문제와 요구의 인물>.

55) 申彦俊, 「青年同德에게」, 『新人間』 13호, 1927.06, 20-21쪽.

56) 金起灑, 「盲從으로부터 妥協에 妥協으로부터 自主에」, 『개벽』 12호, 1921.06, 12쪽.

57)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의 패러다임」,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국학자료원, 2006), 88-89쪽.

58) 李敦化, 「사람性的 無窮을 論하노라」, 『천도교회월보』 130호, 1921. 6, 4-5쪽.

59) 朴台俊, 「新生活」, 『천도교회월보』 119호, 1920. 7, 41-42쪽.